중편소설

안 동 춘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제3계단 5차작전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중편소설 《돌파》는 전장에서의 《숨은영웅》들로 알려진 병기탄약보장성원들의 위훈어린 삶과 투쟁을 취급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소대장 리현무와 그의 친우인 정찰중대장 손태룡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그으시는 작전화살표의 방향따라 행동하고 살 때만이 인민군군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싸워나간다. 작품은 그들의 신념과 열정의 세계를 생동하게 그려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밖에 병사의 성실성과 량심, 전화속에서 맺어지는 진실한 우정과 사랑, 전우애의 아름다움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리현무와 손태룡, 주인공의 애인인 무선소대장 윤소림, 병기부과장으로부터 병기창고장으로 강직되였다가 생을 마치는 최후시각에 병기부과장으로 다시 복직되는 유선형, 정찰병 출신의 최충기…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영웅적투쟁모습과 숭고한 정신세계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가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힘있는 사상교양적무기로, 참된 길동무로 될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리현무　주인공, 병기창고 소대장
(이전 반땅크포중대 화력부관)

윤소림　무선소대장, 주인공의 애인

손태룡　정찰중대장

유선형　사단 병기창고 창고장
(이전 사단병기부과장)

김형식　사단 병기과장

로병익　포병부사단장

1

해는 구름장속에 숨어버렸다.

순간이나마 주위는 어두해졌고 새들의 노래소리마저 끊어진듯싶다.

파아란 햇풀우에 동그라지듯 누운 현무는 빨갛게 타는 구름가녁을 지꿎게 바라보았다. 가늘게 쪼프려진 그 눈길엔 초조와 불만이 질게 새겨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장화신은 발을 쭉 뻗치고 앉은 태룡이가 군복상의에 목달개를 달며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주어섬겼다.

《…적들은 일대 아우성이네. 〈공산군의 4월공격은 우리의 대공세전략을 총 파탄시켰다！〉, 〈이런 공격이 두세번만 반복되면 조선반도에서의 아메리카륙군은 십자가의 수자로만 계산될것이다.〉 이건 유피아이와 에이피의 통곡이야.

수류탄 두알을 가슴에 달고 호기등등해 〈유엔군사령관〉자리에 오른 리치웨이가 첫판에서부터 눈물을 짜게 됐지.

한데 이번 타격은 5차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개시음

악에 불과하다는거야. 모름지기 이제 본격적인 승리의 교향곡이 울릴것이고 우리 사단도 이에 합주할걸세.

하니 이 51년도의 4월,5월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달인가. 그런데다가 염라국으로 갈번했던 동무가 새말갛게 되여 퇴원했고 더구나 이 귀중한 태룡이를 만났겠다. 시절도 한창이요,싸움도 한창이라—》

《그만하게.》

현무는 신경질조로 말하고는 쓰겁게 웃었다.

그의 얼굴을 띠여본 태룡은 실눈이 되여 뭔가 더 시까스를듯하다가 웃음을 거두었다. 상봉의 기쁨으로 하여 들뜬 기분이 가라앉는 속에서 태룡은 이제까지와는 판다른 진중한 표정으로 말을 떼였다.

《병기창고장의 말이 뭐이 돼서 그러나? 해본 소리겠지. 자네만 결심이 굳으면 될거 아닌가.》

이 말에 현무는 가늘게 한숨을 토했다. 그리고는 돌아누우며 풀대를 꺾어 잘근잘근 씹었다. 씁쓸한 물이 입에 짝 찬다. 역하여 침뱉으며 자세히 보니 쑥대로 여긴것이 역귀풀이였다.

《…시력은 0.5요. 평화시기라면 군대복무는 불가능하오. 하지만 동무의 의사도 그렇고 사단에서도 권고가 있어 허용하는거요. 한데 직무는 고려될거요.》

감정제대를 면하게 하였다고 하던 군의의 말이 떠오른다.

역귀풀을 쑥대로 본것은 부상당한 오른쪽눈때문인것은 아니겠건만 그는 마치 이 실수가 눈때문이며 이것은 그의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지여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만약 《0.5》에 대한 군의의 우려가 없었더라면 아니,보다는 아침에 유선형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지금같은 괴로움은 없었을것이며 간부참모를 만날 시각을 이처럼 가슴조이며 예민한 신경으로 기다리지는 않을것이다. 오직 태룡이를 만난 반가움속에 5차작전의 승리적개시를 두

고 환희의 감정 하나에 취해있을것이다. 이 봄날의 밝은 빛과 향긋한 공기와 구름을 보며 시름없는 한시각을 즐겼을것이다.

문제는 군의소밖을 벗어나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병기창고장 유선형이였다는것이야말로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였다.

사실 현무는 군의소장으로부터 직무고려라는 꺼림직한 말을 들으며 사단간부과에 가라고 할 때까지만도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아니, 반포대대에 다시 가 본때있는 싸움을 하리라는 확신으로 가슴마저 부풀어 군의소를 나섰던것이다.

현무는 담당간호원이 쥐여준 자그마한 들꽃묶음을 그대로 든채 군의소앞 징검다리를 건느다가 유선형과 맞다들었었다.

언젠가 포탄을 제대로 보장못한 이 마흔줄이 넘은 병기군관을 맞대놓고 《승리의 방해물》이라고 비난했던 현무는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인지 그 역시 이 젊은 중위와 맞서는것을 피하는것 같았다.

한데 이때의 유선형은 현무를 만나보는것이 소원이였던듯싶게 기뻐했다. 그는 이름은 언제 알았던지 《현무동무！》 하고 두팔을 쳐들고 뛰다싶이 맞받아왔다.

포병들속에서 특히 현무네또래의 군관들의 불평과 힐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유선형의 출현에 현무는 처음에 벙벙해있다가 그의 반기는 기분에 끌려 지난 기간의 소격한 감정을 잠시나마 잊었다.

《다 나았소？》

《네, 깨끗이 나았습니다.》

불깃한 얼굴로 쳐다보며 악수를 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 뜻밖에 만나 손을 잡았다가 이 손을 어떻게 처리할가, 그냥 잡고있을가 말가 하고 망설이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현무는 그의 견장이 소좌

가 아니라 상위인것을 놀라움속에 띠여보았다. 어찌된 변화인가?

현무의 눈길에 비낀 의문을 그가 먼저 풀어주었다.

《그렇소. 난 이젠 보다싶이 소성 셋이요. 그리고 병기부과장이 아니라 병기창고장이요. 막말로 내리먹었지.》

《…》

현무는 이런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유선형은 쑥스러움을 가시려는듯 비죽이 웃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처럼 맑은 커다란 두눈동자는 어색함을 숨기지 못하고 향방없이 헤매였다.

그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강급사유를 밝혀야 하는것처럼 어줍게 말했다.

《일을 잘못했소. 이렇게 있는것도 과분하오. 나때문에 랑패를 많이 봤다니—》

그 말에 현무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불룩하게 나온 그의 바지무르팍에 소눈알만한 기름얼룩과 두꺼비잔등처럼 된 먼지오른 군화가 현무의 눈에 측은히 안겨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름할수 없는 불만이 솟구치며 그에 대한 반감을 억누를길 없었다.

이 병기부과장(이제는 병기창고장이지만)으로 하여 실패한 전투가 떠올랐다. 포탄을 보장못했기때문이였다. 그때 전사들은 너무나 안타까와 《포탄! 포탄!》 하며 울었다. 통분함을 못이긴 현무는 그때 이 사람에게 규탄의 폭언을 퍼붓고 한 녀성에게서 《저버림》까지 당했다.

그 회상이 발효시키는 좋지 않은 감정을 내리누르기에 현무는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싶지 않아 다른데로 말곬을 돌렸다.

《요즈음 어떻게 지냅니까?》

《일이 산더미요. 손이 두갠게 한일세. 온 전선이 우릐

치는 때가 아닌가.》

화제가 달라지자 병기창고장 유선형은 저으기 활기를 띠였다. 그의 눈에는 능청스런 웃음까지 비껴올랐다.

《현무동무, 우리 일이 여간 바쁘지 않다니. 끌끌한 사람들이 필요해. … 난 이젠 쇠였어.》

《저는 부과… 창고장동지가 마흔한살인줄로 아는데요.》

현무는 갈앉히려던 반감이 혐오감으로 번지며 들썽거리는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유선형은 사람좋게 웃을뿐이였다. 그런데 그다음 한 그의 말은 현무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현무동무, 우리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있는데 오라구. 중요한데거던. 이번에 〈특별호송대〉를 꾸리네.》

《창고장동지, 롱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무는 깍듯이 경례를 하고 돌아서 쫓기듯 걸음을 재몰았다.

(그저 해보는 소리인가? 아니, 그렇지도 않아. 군의소장도 그러지 않았는가. 직무가 고려될거라고—)

그의 짐작을 확증이나 하는듯 유선형의 진중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기다리겠소.》

마음이 불안해진 현무는 그길로 포병참모부에 갔다. 전쟁초기 반포대대에서 함께 싸우다가 포병참모부 참모로 승급해와있는 이전 상관에게서 변동상태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방은 비여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현무는 고중때의 동무로서 이를테면 학창시절의 벗이기도 한 태룡이를 만난것이다.

사단정찰중대장으로 있는 태룡은 정찰과장의 호출을 받고왔다가 5시까지 기다리라는 쪽지를 받고 무료히

기다리던차에 현무를 알아보고는 너무 좋아 껑충껑충 뛰였다.

두사람은 사단지휘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며 그 회의가 5시경에 끝난다는것을 알고 곧장 이 둔덕에 올랐다.

몇달만에 만나 그동안의 인사지정을 나누는 상봉의 감회깊은 순간이 지나자 현무는 자기앞에 드리운 《비구름》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오른쪽눈의 시력손상에 대해서만은 말하지 않았다.

화선의 전투지휘관, 그것도 쟁쟁한 화력부관으로부터 보급성원이 되고말것이라는 현무의 실심한 토설에 태룡은 단호히 선을 그어주었다.

《거긴 동무자리가 아니야. 물론 중요성에서는 나무랄데 없지. 그러나 평화시기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화선에서 적땅크를 까는 전투지휘관이 더욱 필요할 때네.》

친구의 말은 현무의 흐려진 마음에 더욱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그리하여 지금껏 현무는 문서장에는 매우 간단히 기록될 직무란의 몇자때문에 속을 썩이고있는것이다. …

태룡은 자기의 말이 현무의 우울증을 북돋는 효모제로 되였음을 깨닫고 때늦은 위안으로 넘어갔다.

《너무 신경에 부하를 걸지 말라구. 그러지 않아도 자네 얼굴이 영 축갔어. 꽁생원이 될라나.》

태룡은 빗을 꺼내여 머리를 빗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거울까지 꺼내들었다.

적구로 늘 드나들며 신경이 바늘끝이 되여 살면서도 여전히 살집좋은 환한 얼굴을 비쳐보다가 현무의 눈앞에 거울을 들이댔다. 창백한 얼굴에 두눈만이 비상히 날카롭게 번쩍이는 모습이 노란세루로이드틀안의 타원형 거울에 비꼈다.

《좀 웃으라구.》

《치우게.》

태룡은 시무죽 웃고는 거울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담배를 빼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흥청이던 웃음이 씻은듯 사라졌다.

《포병부사단장한테 제기해보라구. 그야 동무가 어떤 땅크잡이명수란걸 알지 않나. 적재적소라는 간부사업원칙이야 전쟁이라고 변하겠나. 그런데다가 병기는 그의 관할밑에 있거던.》

《내가 병기사업을 하려 한다면 동문 어떻게 생각하겠나?》

현무는 태룡의 말은 들은척 않고 몸을 반쯤 일으키며 되물었다. 그러자 태룡은 현무의 얼굴을 뚫어지듯 보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동정하지.》

《무엇때문에?》

현무는 이마살을 찡그리였다.

태룡은 실눈을 했을뿐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째긋이 뜬 눈으로 해를 쳐다보다가 불쑥 열띤 소리로 입을 열었다.

《첫째로, 전방이 아니라는데 있지. 이제 사단이 제1제대로 나간다 해도 거긴 항상 제2제대지. 둘째로, 그 일은 개별적군인의 용맹과 슬기가 별로 작용못하는 운수놀음 비슷한거지.》

《운수?…》

《가령 동무가 보병소대장이라할 때 고지돌격시에 화점이 막아선다면 어떻게 하겠나? 전사들에게 명령을 줄테지. 못해내면 동무자신이 나갈거란말이야. 수류탄으로 못까면 가슴으로 막아서라도 통로를 개척할것이고 승리를 마련할걸세.

한데 아무아무시간까지 포탄을 어느계선까지 날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동무가 차를 끌고 달릴 때 폭격에

끊어진 다리나 장마로 토막난 길에 부닥치면 어쩌겠나? 그런데다 적기들의 부단한 공습이 있네. 어차피 그런 경우엔 길이 열리고 적기들이 쫓길걸 바라며 기다리겠지. 그러느라면 명령시간을 어기고… 전투실패의 장본인으로 수치를 당해야지.》

《어렵기때문이란건가?》

《어렵기때문에?… 모르지. 아니,아니야. 문제는 그런 경우 동무가 그 성미에 수치를 못이겨 이마에 대고 꽝 당길가봐 겁나서 그러네.》

《허튼소리 말라구.》

《허튼소리라구. 흥,그 자린말일세 용감성과 슬기보다 조심성과 인내성이 필요한 직무야. 글쎄 자네 성미에 어찌 적기가 나타나지 말라,장마에 길이 끊기지 말라,차가 고장나지 말라 하구 기다리는 〈인내전〉을 하겠나.》

《돌지 않았어?》

《돌다니.》

태룡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빙그레 웃었다.

《내 요즈음 시를 하나 썼어.》

《시를?!》

현무는 뚱딴지같이 튕겨나오는 소리에 억이 막혀 태룡을 보았다. 태룡은 매우 심각하면서도 천진스런 표정이였다.

학교때부터 체육이요,사회사업이요 하고 약국에 감초처럼 삐치지 않는데 없는것으로 호가 난 태룡이임을 알고있으나 시를 쓴다는것은 듣느니 처음이였다. 그런데다가 형편없는 수다쟁이로 된듯하다. 하긴 그의 학교시절 별명이 《엉터리변사》이니 일맥상통한데가 있다고 볼가.

태룡이가 적후에 나가면 그 누구보다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된다던 언젠가 들은 그의 대원의 말을 상기

하면 이 《수다스러움》이 적후환경에서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데서 오는 여파라는것으로 동정이 가는것이였으나 시까지 쓴다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무슨 시를 썼나?》
태룡은 현무의 얼굴빛을 가늠하듯 심각한 눈길로 견줘보다가 시가 아닌 뚱딴지같은 질문을 들이댔다.
《동문 최고사령부 작전실에 어떤 지도가 있는지 아나?》
현무는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연설을 하려나 하고 의아히 보았다. 태룡은 그 의문이 당연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새삼스럽지도, 비밀도 아닌 사실을 밝혔다.
《정황지도와 결심지도가 있다는거네.》
《거야 사단장이나 군단장들에게도 있지.》
《물론 있지. 한데 내 말을 꺾지 말구 들어보게나. 즉 이런걸세. 전선정황에 대한 보고가 다 최고사령부작전실에 올라가면 그건 정황지도에 옮겨지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지도에서 전선의 산과 들을, 전호와 화점들을 굽어살피시고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전사들의 모습을 미덥게 그려보시며 결심지도에 다가서시네.
그리고는 붉은색 연필을 드시고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을 화살표로 그으시네.
그 붉은 화살표의 예각, 그것은 점령해야 될 참호며 고지며 지역을 가리키는것이며 그 예각에 바로 전방의 전사들이 서있네.
바로 그 예각의 맨앞머리, 거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려는 참된 전사의 위치가 있다 이것이야.》
태룡은 말을 끊고 볕겋게 단 얼굴에 흐뭇한 웃음을 머금었다.

《그게 시인가.》

《시지. 아직 쓰지는 못했네만…》

현무는 어딘가 뜬것 같으나 곰곰히 음미하면 태룡이의 《형상적착안》이 그럴상싶게 여겨졌다.

(그러니 이 친구는 자기네 정찰이 그 예각에 있다는건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철부지시절은 지난 군관이 아닌가.)

했으나 현무는 거의 서글픔에 가까운 야릇한 아픔을 느꼈다.

그의 심중한 낯빛에서 자기 말의 효과를 느낀 태룡은 말꼬리를 끌며 계속했다.

《난 우리 전사들에게 이 사상을 자주 강조하지. 우리 정찰이야말로 그 예각의 앞머리에 선 전투원들이라고.

사실 리론상으로 볼 때는 어떤 초소건 다 중요하지만 선후차란 명백히 있는것이구 보다 중요한것과 어려운것이 있는 법이거던. 우리가 학교때 때론 철학가연해서 사람이 왜 사는가를 론하군했는데 지금 보면 그건 존엄있는 인간으로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한것이기도 하지. 그런데 전쟁에서는말일세, 전쟁승리에 톡톡히 한몫 할 위치에 들어서는것이 그 인간의 금새를 규정하는 첫째 요인일세.》

《그럼 병기로 가는것은 그 위치에서 물러서는건가.》

현무는 마치 자기가 병기일군이 된듯한 환각속에서 불만스레 쏘아붙였다.

태룡은 너누룩이 웃으며 그를 보다가 해학조로 말했다.

《딱한걸.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할수 없고. 그러나 여하튼간에 동무로 볼 때는 한걸음 후퇴지. 죽을지어하나 전사의 이름은 남길지어.》

《명구로군.》

《써두라구.》

태룡은 훌쩍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현무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엉터리변사》의 기질은 그대로 있구나. 이 친구는 지금 나의 심정을 손금보듯할걸. 자기가 내 기분을 더 울씨년스럽게 만들었다고 후회도 하겠지. 심사가 편찮을 때 늘 저러군하지.)
《이젠 떠나보지.》
태룡이가 돌아서며 말했다.
현무는 이제 얼마후면 그와 헤여질것이라는 서운한 느낌이 새삼스럽게 치밀어올라 선뜻 대답을 못했다.
내 기분에 빠져 살틀한 말 한마디 변변히 못했구나.
《벌써 시간이 됐나?》
《15분전일세. 시간이란 야속한거지.》
태룡이 역시 아쉬운 기색이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사단지휘부 반토굴집이 보이는 관목숲에 이르자 태룡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빨간 비단천으로 지은 지갑을 꺼내들었다. 현무에게 눈짓을 끔뻑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빼드는것은 한장의 사진이였다.
외태머리처녀가 꽃병앞에 머리를 감추듯이 수그리고 찍은 사진이였다.
태룡은 그 사진을 보이며 굴뚝같은 한숨을 쉬였다.
《약혼녀네.》
《아니, 동무가! …》
25살 장가도 조혼이라고 력설하던 23살내기가 약혼을 하다니—
현무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자 태룡은 서글피 웃었다.
《나도 모르겠네. 미련한짓인지—》
《정말 약혼했나?》

《응, 생각하면 나도 놀랍네만… 요전번 안변에 갔다올 기회가 있었지. 거기엔 우리 할아버지네와 각근한 사이가 되는 집이 있었어. 평화시절에 할아버진 쩍하면 그 집에 놀러 가구 또 그 집에서는 평양으로 오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집에 들렸네. 언젠가 이 처녀도 우리 집에 놀러 왔드랬지. 그래서 요전번에 들렸더니 집안엔 이 처녀 혼자 남아있지 않겠나. 작년 후퇴때 놈들한테 온 가족이 다 학살당했더군. 처녀는 나를 보자 우는것이였어. 넨장, 가슴이 터지더라니까.

그래 생각다못해 이말저말하다가 대뜸 〈나하고 살지 않겠소？〉 하고 들이댔지. 울기만 하데. 그래서 제잡담 명령을 했지. 우리 집엘 가라구. 한데 군에서 군빨찌산대원이였던 이 처녀는 민청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놔주질 않겠다는게야.》

《그래 그 녀자가 동의했나？ 진정으로 서로 합의됐나？》

《그야 물론. 전쟁에서는 모든것이 빨리 결정되는거야. 맺을건 맺고 끊을건 끊고… 참 소림동무가 군단에 강습을 갔다와 소대장이 되였어.》

《소림동무가？》

현무는 걸음을 멈췄다. 이 순간 그는 자기가 어떤 낯빛으로 친구의 확대경속에 서있는지를 몰랐다.

태룡은 현무의 얼굴색변화를 못본척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무선소대장이래.》

현무는 발끝을 굽어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가 하고 망설였다.

태룡은 눈섭을 찌프렸다.

《자네들 사이는 무슨 사인지 모르겠어. 지끈했다가는 랭랭하고… 변덕쟁이들의 장난인지…

그는 훌륭한 처녀야. 학교땐 나같은건 그의 발치에도

못갔다네. 민청회의같은 땐 그 녀자한테서 비판하는 말만 들어도 〈관심사에 있다〉고 기뻐하던 숙맥들도 있었어. 그런데—》

태룡은 말을 끌맺지 못했다.

지휘부토굴앞에서 한 군관이 그들을 향해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무슨 말인지 알수 없었으나 태룡은 자기 상관인 정찰과장을 알아보았고 그 거동으로 봐 성나한다는것을 알았다.

《허,5시1분이야. 1분 초과했다는거지.》

태룡은 시계를 보고 씽긋 웃고는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다 말고 성큼 걸음을 떼였다.

《이따가 만나세.》

2

현무는 달려가는 태룡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초대처럼 굳어져 서있었다.

《소림이가 왔단말이지.》

심장의 박동이 달라졌다.

가슴이 설레이는것이다.

하나 그는 괴롭게 낯을 찌프리다가 그 어떤 어지러운 환영과 헤여지려는듯 머리를 젓고는 간부과가 있는 솔밭속 토굴집을 향해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세채의 반토굴집이 올망졸망 귀맞춰 서있었다.

인민학교(당시) 분교로 쓰던 집들이였다. 한 토굴집의 처마에는 포탄깍지가 댕그랗게 매달려있었다.

저 종을 치던 교원은 지금쯤 군복을 입었을수도 있고 저 종소리를 듣고 교실에 뛰여들던 아이들은 소개되여간

어느 후방에서 이 《토굴집학교》를 그려볼수도 있을 것이다.

현무는 아까까지 머리속에 맴돌던 《직무변동》의 불안감은 다 잊어버린듯 한동안 애틋한 감상속에 토굴집들을 둘러보다가 서너명의 애젊은 소위가 서있는 반토굴을 향해 돌진하듯 걸음을 재우쳤다.

방수포로 가린 널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사람이 있었다. 덜석 큰 키에 어깨팍이 안으로 우무러들사한 대위가 배꼽에나 와닿는 학생용책상에 벽보판을 놓고 색연필을 《휘두르느라》 현무가 들어선것은 보지도 않고 있었고 벽옆에 앉은 소좌는 무슨 서류묶음을 간종그려 따로 철하고있었다.

현무가 《반포대대 1중대 화력부관》이라는 말에 력점을 주며 도착보고를 하자 벽보에 그림을 그려넣던 대위가 저윽 반기며 일어섰다.

《이제 오는길이요?》

그는 현무의 오른쪽눈을 유심히 쳐다보며 재차 물었다.

《다 나았습니까? 싸울수 있단말이지요.》

《네.》

《기쁩니다.》

대위는 우선우선한 태도로 벽보판을 밀어놓으며 현무더러 앉으라고 했다.

현무는 한쪽으로 밀려 기우뚱하게 된 벽보판에서 매우 활달한 필체로 씌여진 글을 읽을수 있었다. 《…1951년 5월 4일 현재 인민군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여 최근 진행된 전투성과를 써넣고 마지막에 《학생동무들, 우리는 동무들이 하루빨리 큰 교실에서 마음껏 배우게 하기 위하여 더욱 통쾌한 승리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이름까지 밝혔다.

인민학교 벽보에 조선인민군 군관이 원고를 제출해

불인셈이였다.

현무의 기색을 살피며 대위는 빙그레 웃었다.

《어떻소? 후날 이리로 돌아온 아이들이 저걸 보면 시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가. 우리를 생각하며…

참 동무를 포병부사단장동지가 만나겠다고 했는데 사정으로 못만나게 되였소.》

《저는 본래… 중대로 가도 되겠지요?》

현무는 초조하여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대위는 현무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딱딱하고 공식적인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는 동무자리가 없습니다.

동무는 병기창고의 일을 돕게 되였습니다. 구체적임무는 병기과에서 줄것입니다. 포병부사단장동지가 만나겠다는것도 그것때문입니다.》

《그럼 전 화력부관직에서 해임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데 병기과 일은 당분간일것입니다. 당분간이지요.》

현무는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는듯한 감을 느꼈다.

(사실이였구나.)

현무의 손에는 땀이 괴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구멍이 칼칼하게 타들었다.

《대위동지!》

부르고나니 가슴이 억해진다.

입술을 깨물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전… 포에서 떨어질수 없습니다. 전… 자기자리를 압니다. 전… 적땅크를, 화점을… 까야 합니다.》

목소리가 울먹거리려 했다.

대위는 딱한 기색을 짓고 소좌를 보았다.

소좌도 서류묶던 일을 그만두고 딱한 눈길로 현무와 대위를 일별한다.

대위는 눈길을 떨구고 천천히 말했다.

《동무의 심정은 알겠소. 허나 어쩌겠소. 제 욕망대로 다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현무는 한대 맞은듯 고개를 수그렸다.

대위의 어성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더 다른 생각 마시오.

동무가 하게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오.》

현무는 고개를 쳐들었다.

머리속에서는 화끈 단 총알같은 야멸찬 말들이 뜀박질을 했다.

(대위동지, 간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하지 않은 초소가 어데 있겠습니까. 후방부 마사원도 대렬서기도…)

그러나 현무는 입을 악물고있었다.

그의 불그레한 입술이 퍼렇게 되여 동그랗게 몽켜들었다.

대위 역시 긴장된 눈길로 폭발직전의 현무를 지켰다.

현무는 숨을 길게 들이그었다가 힘겹게 말했다.

《제가… 오른쪽눈에 시력손상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대위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현무를 찬찬히 보다가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건 모르겠소.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한데 네사람의 후보자중에서 동무가 뽑혔다는것이요.》

《위안하지 마십시오.… 대위동진 제가 한눈으로도 포사격지휘를 능히 할수 있다는것을 믿겠지요?》

《믿소.》

《그러면—》

《동무!》

대위가 어성을 높였다.

《전사도 아닌 동무가 이렇게 억지를 쓰면 어떻게 하오. 평화시기라면 제대를 시켜도 동문 할말이 없소.

현상태의 동무가 과연 어디에 합당하겠는가. 내 립장에서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오.》

대위는 현무를 지켜보다가 응답이 없자 지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명령서가 떨어질거요. 옆방에 가서 대기하시오. 오늘 새로 도착한 군관들 몇이 있소.》

현무는 돌아서 나왔으나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이 사람들의 얼을 빼놓았군.》

문짬으로 새여나오는 말이 현무의 발을 묶어놓았다.

대위의 목소리에 이어 다른 소리가 퉁을 먹였다.

《그런게 아닐세. 자네까지 화선에 나간다면서 벽본지 작별글인지 쓰며 바람차 떠있는데 그 동무야 오죽하겠나.

정신은 바로잡힌 동무야. 지금 전방을 떠나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나말이요.》

《그 동무의 일감이 보통 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설복해야지.》

현무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떴다. 향방없이 걸음을 옮겼다.

마음싸지 않은 재배치,그로 하여 상급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한 그 모든것이 질은 연기로 가슴을 메웠다.

이미 결정된것이고 변동시킬수 없는이상 성심으로의 복종밖에 없잖았는가. 그런데 난 철부지처럼 떼질을 했구나.

하지만 묵묵히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괴로운것이야.

거무틱틱한 바위에 부딪칠번하면서 현무는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쳐들자 세개의 안테나가 솟은 반토굴집이 손잡힐듯 보였다.

(소림이가 저기에 있겠구나.)

번개치듯한 이 생각은 그의 얼굴을 더욱 흐리게 만

들었다.

취침나팔이 울렸을 때 간부과에서 서류를 간종그리던 소좌가 현무를 보고 오늘밤은 그대로 쉬라는 대위의 지시를 전해주었다.

(넨장, 무슨판인지—)

지금 어떤 큰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모르는 현무는 불만스러운 심기를 다잡지 못해 침실이라고 하는 너렁청한 방으로 찾아들어갔다.

거기에는 다섯사람의 군관이 이미 누워있었다.

두사람은 고스란히 고중을 졸업하고 군복을 입자마자 군관학교에 가서 1년제를 마치고 나온 군관이고 나머지 세명은 3차 전역까지 참가한 로병으로 단기강습을 마치고 온 군관들이였다.

현무는 제일 구석진데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군관들은 자려고 하지 않고 전투담으로 떠들썩했다. 전쟁은 이 다섯명이 도맡아 치를 기세였다.

《햇내기》 두 군관이 물으면 세사람은 저마끔 자기들이 치른 전투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혹은 아쉬움을 갖고 이야기했고 매 전투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군사전문가적인 견해까지 덧붙였다.

그러면 새파랗게 젊은 군관들은 부러움에 차 나직이 한숨을 지었고 그러한 정황속에 서있는 자기들을 상상해보는지 한동안 잠잠해있기도 하였다.

때로 그들의 입에서는 엄청난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일선형으로 들어올 때에 바싹 당겼다가 분산격파도 좋지만 중기로 좌우측을 답새겨 가운데 모이게 해놓고 82미리로 때리면 더욱 효과적일것입니다.》

그러면 로병은 맥풀린 소리로 대꾸했다.

《그걸 몰랐나. 굴뚝(박격포)은 있었는데 감자(포알)가 없었다네.》

《암, 그런 경우가 많았소. 우린 땅크가 덤벼드는데 반땅크수류탄이 없어서 애먹은적도 있어.》

《반땅크수류탄도 그렇게 발랐는가요?》

《허, 그게 뭐 발에 널린 돌멩인줄 아나. 생각해보게. 전선의 너비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불질하는 전사가 얼마나 되나. 그 매 사람에게 다 풍족히 쥐여주려면 여북한가. 그나마 그걸 고지의 전투원에게까지 날라가는것이 이만저만한 일인가.

뒤가 끊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봅세. 적들의 폭격과 함포사격에 뒤가 끊어질 때도 있고 장마비가 길을 끊을 때도 있거던.

지휘관이란 그런 때 싸우는 방법까지도 늘 생각해야 되네.》

《여하간 그런 땐 부득불 보병삽과 주먹으로 해볼밖에. 전투는 성공하기 힘들지.》

다음엔 말이 없다. 두명은 그 광경을 상상으로 그려보느라고 그러는지, 세명은 자기들이 겪은 전투중에서 무기, 탄약이 없어 애먹던 간고한 때를 회고함인지…

그 이야기에 끌려들어간 현무도 말없는 속에 제나름의 추억을 밟았다. 포탄이 떨어져 도망치는 땅크를 멍하니 보기만하던 때의 애타는 심정이 다시금 가슴에 미쳐왔다. 다 먹은 떡을 놓쳤다고 분해하며 포탄과 탄약을 보장하는 부문의 사람들을 두고 《도대체 밥먹고 뭘하는 작자들이야.》고 소리치던 대원들의 검붉게 상기된 얼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 현무 역시 후방에 있으면서 이따금 전선에 포탄과 탄약을 날라주는것으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전쟁의 력사에 자기들도 한몫 했다고 나설 《몰렴치하고 게으른자》들을 속으로 얼마나 저주했던가.

그러한 전투들을 눈앞에 그리며 우울한 생각의 갈피들을 번지던 그는 깜박 잠이 들었다가 깨여났다.

분명 자기 이름을 부르는듯한 소리에 깨여났으나 문은 닫겨있고 붓끝같은 가스불만이 한들거렸다.

현무가 슬며시 일어나자 여직껏 자지 않고 《걸출한 작전》리론을 전개하던 신입군관중 한명이 웬 《아바이상위》가 왔다가 현무가 잠든것을 보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현무는 그의 용모분석을 들으며 그 《아바이상위》가 병기창고장이라는것을 알아맞추고는 송두리채 잠이 달아났다.

그는 지그시 이발을 강물며 도로 누워서는 모포를 눈에까지 끌어올렸다. 새 모포의 콕콕 볼을 찌르는 따끔거림과 오래 묵은 천의 독특한 냄새가 그의 정신을 점점 더 맑게 했다. 그런데다가 숨까지 가빠올라 모포를 다시 잡아내렸다. 가스등의 한들거리는 불꼬리가 따갑게 눈길을 찔렀다. 불빛을 피하여 돌아누웠다. 그러자 바지주머니쪽의 허벅다리에 무언가 찌르는것이 있었다. 손을 넣으니 아침에 군의소에서 받았던 할미꽃,제비꽃, 민들레 따위로 엮어진 꽃묶음이 잡혔다.

현무는 이파리와 꽃잎이 시들하게 처지고 엉켜붙은 그 꽃들을 꺼내여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담당간호원은 이 꽃을 주면서 꼭 영웅이 되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받은 꽃을 유선형을 만나게 되면서 바지주머니에 넣은것이 반죽처럼 되고말았다.

불시에 가슴 짜릿한 아픔이 전신을 휩쓸었다.

(그래 과연 내가 화선에서 물러서게 된단말인가. 《패튼》과 《셔만》(미국땅크)과 단병접전을 하는 용맹스러운 사냥군으로부터 병기공급원이 되여야 한단말인가.)

반땅크포는 현무의 자랑이였으며 기쁨이였다. 반땅크포의 화력부관이라는 직무는 그에게서 영예였으며 표창이였다.

적땅크의 무한궤도를 부셔버릴 때 조국을 지켜선 사나

이의 긍지와 자부를 느끼며 눈물을 머금던 현무였다.

땅크를 부시지 못하면 자기가 무한궤도밑에 깔린다는 그 위험성, 그 위험성을 이겨내는 장쾌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더욱 사랑하는 현무였다.

이제는 그 긍지가 없을것이 아닌가. 누구나 갈수 있는 포화없는곳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은 면도날같이 살아있는 전사의 명예심을 끝없이 타격하였다.

현무는 잠들수 없었다. 이리뒤척저리뒤척하다가 눈을 떴다. 눈앞에서 빨간 점이 아물거렸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가스등불이였다. 반디불처럼 작아진 불이였다.

다시 눈을 감자 무수한 불꽃들이 서물거렸다. 그것은 불을 토하며 다가드는 땅크들로 바뀌였다.

그에게서 마지막 반땅크전으로 된 전투는 장쾌하면서도 처참한것이였다.

…폭풍에 뿌리치웠다가 깨여난 현무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주퇴장치 파손!》

사형선고와도 같은 웨침이였다.

마지막 한문의 포마저 잘못된것이다. 이제 포탄을 재워 발사만 하면 제지턱과 후자간이 깨여진 포신은 무서운 힘으로 뒤로 밀려 조준수의 얼굴을 때릴것이다. 이미 어깨에 타박을 받은 현무는 가까스로 기여 포에 다가갔다. 전방 200m지점에서 불붙는 땅크를 에돌며 《패톤》이 맹수같이 달려왔다.

현무는 조준기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조준수를 사정없이 밀쳐버리고 그자리에 들어앉았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조준수의 울먹진 웨침은 듣지도 않으며 조준경고무환에 눈을 꽉 붙이고 《장탄!》 하고 소리쳤다.

락조를 받아 피빛으로 타는 적땅크의 포탑을 노렸다. 포구에서 시뻘건 불꽃이 번쩍이고 시푸른 연기가 터져나왔다. 그는 땅크시창이 조준경 십자선 중심에 들어

올 때까지 입술을 터져라하고 깨물며 까딱않았다.

《쐇!》 하는 구령은 인차 떨어지지 않았다. 순간이나마 그의 뇌리에는 이것이 마지막일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한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다음 그는 지철을 세차게 눌렀다.

《발사!—》

그 소리가 끝나기전에 그는 뒤로 벌렁 넘어졌다. 모든것이 캄캄해졌다.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자동차우에서였다.

눈을 뜨자 가까이 내려앉은듯한 검은 하늘이 바라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한눈이 붕대에 칭칭 감겨져있는것을(바로 조준경에 대였던 눈이였다.) 모르는 그는 커다란 검은 보자기에 반디불이 기여가는듯 흔들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기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 돌아누웠다.

무언가 기다란 그림자들이 휙휙 지나갔다. 부러져드리운 나무아지가 자동차 운전실 지붕을 요란스럽게 긁었다.

무슨 노래소리같은것이 은은히 울렸다.

(땅크들?… 포는…)

현무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소리쳤다.

《차를 세우오. 어데로 가?》

처음에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몇번 더 소리치자 깔끔한 수염이 귀를 콕콕 찔렀다.

《군관동무, 부상당해 후송중이우다.》

《세우시오. 우리 포는… 어서!》

현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말큰하고 따스한 손이 그의 두손을 꼭 잡아쥐였다. 눈물어린 구슬픈 눈길이 그를 지켰다.

《세우시오.》

《군관동지, 군관동지가 그러면 다른 동무들은 어떻게 해요. 다들 후송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 순간 현무는 눈물어린 그 눈이 원망스러웠다.

《세우오. 중대는 싸우는데, 적땅크들은 밀려드는데… 우리 포들은?… 포들이 어떻게 됐소?》

《군관동무, 안심하시오. 다 건재하다우.》

먼저번의 쉰 목소리가 대답했다.

현무는 더 소리칠 기력을 잃었다.

머리가 휭휭 돌아갔다.

무슨 말인가 또 했으나 자기로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수 없었다.

차는 여전히 달렸다.

구슬픈 눈길은 여전히 그를 지켰다.

이때야 현무는 자기의 머리가 웬 군인의 두손에 받들려있음을 알았으며 자기가 머리를 상당히 다쳤음을 알았다.

그러나 눈확뼈가 부서졌고 그때문에 후송간호원이 눈물까지 흘리고있음을 몰랐다.

(녀자들은 왜 이처럼 눈물이 헤플가. 전쟁인데… 군인인데…)

현무는 의지강한 군인이였다.

그는 적땅크와 맞부딪쳐 자기가 이겼음을 또 앞으로도 이기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사단군의소에 와서 부상처의 엄중성을 깨달았을 때도 그는 꿋꿋했다. 그는 눈확뼈 부스러진것을 골라내는 수술시에 그 완강한 의지력으로 오랜 외과의들을 놀라게 했다.

《무쇠로군.》

《신경은 예민한데도 잘 견디는군요.》

현무는 육체적시련을 이겨냈다.

의사들의 말대로 하면 생리적고통의 극한점을 돌파

한것이다.
바로 래일을 위하여, 적땅크들을 부실 래일을 위하여, 화선군관의 명예를 위하여, 이 나라 청년의 영예를 위하여 그는 그 고통의 극한점을 돌파했었다.
그런데 그 뒤끝에 마주선 길은 자동차와 창고와 무기부속과 기름통이 흔들거리는 길이다.
현무여, 이 마음의 고통을 이제 어떻게 이겨낼가. 전렬이 아니라 후렬이다.
이로 하여 자존심은 매일매시 상처입으리라.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긍지가 컸으며 크나큰 리상과 꿈에 불탔던 현무였다.
온 조선이 감격에 목메이던 그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환영하는 모란봉 공설운동장에서 현무는 조선청년의 모범으로, 귀감으로 되는 젊은 혁명가들을 보았다.
보위색 군복에 얼굴이 까뭇까뭇 탄 경위병들이 주석단아래에 서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투사들이라고 했다. 그중에 현무보다 극상해 두세살우밖에 안돼보이는 애젊은 경위병의 모습은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았다. 탄력있는 몸매, 빛나는 눈, 현무의 눈길과 몇번 부딪치자 알릴듯말듯 웃었다. 그뿐이였다. 그 경위병은 단 1초도 시선을 팔지 않고 뿌리박힌 참나무처럼 억세게 서있었다.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을 한몸막아 지켜선 경위병이였다.
(저 사람이야말로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켜섰으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경위병의 위치야말로 이 땅에 태여나 삶을 누리는 인간으로 가장 값높고 영예로운 위치라고 생각했다.
나이를 더 먹고 또 군대복무의 나날을 거쳐 그는 경위병의 위치는 거기만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적

땅크를 막아 짓부시는 그 혈투의 위치도 경위병의 위치와 다를바없다는것을 알았다.

현무에게서 경위병의 위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전투전방이였다.

일생을 장군님을 받드는 친위전사로 전렬에서 싸울것을 맹세한 현무였다.

그 맹세는 반동들의 칼에 맞아 림종하는 아버지의 침상앞에서 더 굳건해졌으며 군복을 입고 초연서린 전장에 나섰을 때 실천의 기회가 왔다고 기뻐했었다.

살아 앞에 서고 죽어 위훈으로 남으리라.

이것은 현무의 좌우명이였다.

장군님의 친위전사가 되려면 전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걸음걸음이 죽음과 포화를 헤쳐 승리로 엮어져야 된다고 생각는 현무의 이 리념이 위협당하는것이다.

이런 랑패가 있을가봐 얼마나 마음 기울였던가. 그래서 시력검사시에도 감정제대를 면하려고 검사표를 외워뒀으며 그덕에 《0.5》가 되였다. 사실 오른쪽눈은 《0.4》도 못될것이다. 하나 이것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배앓이를 하면 그 꺼슬꺼슬한 손으로 《내 손이 약손이지.》라고 하며 배를 쓸어주던 고향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면, 그때면 말할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것이다.

(눈, 눈！—)

현무는 눈을 꾹 감았다. 입가로 찝찔한 물이 흘러들고 귀머리로 눈물이 한방울, 두방울 흘러내렸다.

그 찝찔한것이 말라들자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꿈에 어머니의 치마폭에 머리를 파묻고 엉엉 울었다.

현무에게서 무겁고 침울한 한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3

현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누군가 그를 깨웠다.

눈을 떠보니 완전무장을 한데다가 신호총까지 찬 태룡이가 머리맡에 서있었다.

《작별하러 왔어.》

소곤거리는 그의 말에 현무는 저으기 놀라며 재빨리 웃옷을 걸치고 태룡이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밖은 대낮같이 밝았다.

투명한 달빛이 나무숲우에 희스름하게 내려앉았다. 거기서는 밤새의 울음소리가 외롭게 간간이 울려왔다.

태룡은 사위를 휘둘러보고는 향나무밑으로 갔다. 우산처럼 퍼진 향나무밑은 어둑하였다.

《앉으라구. 난 이제 적구로 가네.》

태룡이의 말에 현무는 잠이 활딱 달아났다.

《인차 떠나나?》

《한시간안으로.》

현무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듯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언제 만날지 기약할수 없는 리별을 앞에 뒀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운해졌다.

《그래 아까 그 일은 어떻게 락착이 되였나?… 순순히 응했다면서—》

《병기창고일을 도와주라더군.》

《정식명령이 떨어졌던가?》

태룡은 락심천만한 기색이였다.

현무는 눈살을 찌프렸다.

《그대로 접수했어.

뭐 정찰이나 포병만이 똑 제일인건 아니니까.》
현무는 말끝에 강잉히 웃음을 지었다.
자기를 위안하기 위하여 만든, 괴로움을 가리워보려는 너울에 불과한 이 말에 태룡은 자제력을 잃고 큰소리를 쳤다.
《그게 진심인가?》
《어쩌겠나.》
《동문 유선형부과장이 어떻게 돼서 병기창고장으로 강직되였는지 아나?
본인이 비겁해선가? 태공해서인가? 아니지, 아니야.
본인이 아무리 날고뛴다 해도 그 어떤 불길스런 우연이 훼방을 놀면 실패를 당하는게 병기일이야.
탄약을 제대로 보장못했을 때 전투는 어떻게 되겠나. 그 무서운 책임을 어떻게 지겠나. 치욕과 저주론 오명속에—》
《그러니 그 오명이 두려워 그만두라는건가.》
현무의 조용한 되물음에 태룡은 놀란듯이 두눈을 치떴다가 더욱 열이 나 웨쳤다.
《그래 오명이 무섭지 않은가. 사람이 뭣때메 살아.
당과 조국에 충실한 누구누구였다! 우린 이것이면 다야.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지 않아.》
현무는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 수치스런 오명을 쓰고살바에야 죽기보다 못하다. 그러나 그 일은 누구든 해야 할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대답이 못된다.
현무는 모순된 감정속에 휩싸인 자기가 민망스러웠다.
그는 태룡의 무릎에 한손을 얹으며 이제까지의 용기를 잃고 솔직히 말했다.
《태룡이, 난 그자리도 과남해.》
《무슨 시라소니같은 소릴 해.

동무야 사단적으로 제일 쟁쟁한 화력부관이 아닌가.》
《난… 오른쪽눈이 잘 안보이네.》
《뭣이?!》
태룡은 몸을 우루루 떨었다.
《제길… 왜 이제야 그걸 말하나. 내가 동무가슴에 못을 박았구만.》
《무얼…》
한동안 어색한 침묵속에서 서로 마주보기를 피했다.
현무는 가슴 짜릿한 아픔속에 나직이 말을 떼였다.
《솔직한 말로 달갑진 않네. 동무말처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해.
하지만 어쩌겠나. 필요한 일이구 또 명령이고.
어렵다니 한결 위안이 되네.》
《헛참.》
태룡은 속궁근 소리를 내며 혀를 찼다. 그리고는 머리를 짓수굿 숙이고 우물거리더니 납작한 네모병을 꺼내들었다.
쇠로 된 마개를 틀어열고 거기에 병목을 기울였다. 마개잔에 차오르는 액체를 지켜보며 태룡은 얼없이 중얼거렸다.
《쉬이 낫겠지. … 에이, 쏟아지는군.》
마개잔을 바위우에 조심스레 놓고 병을 쳐다보며 웃었다.
《쉬이 나을거야. 나으면 포에서 끌어가겠지. 립시라고 한것은 그래서일거야. 자 마시세.》
하며 그는 마개잔을 들어 현무에게 내밀었다.
《뭔가?》
《포케트용 위스키야. 로획품일세. 마른 오미자 세알을 넣었으니 공개명으로는 기침약이지. 량피과장동지한테서 한병 얻은거네.
자, 들자구. 만나자 헤여지니… 작별주로구만.》

현무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아직 술을 배우지 않았다. 명절때 나오는 술을 전사들에게 나눠주던 그였으나 지금은 거절할수 없었다.

《대접이 과한데—》

현무는 잔을 받았다.

한들거리는 액체의 표면에서 달빛이 부서져나갔다.

《넘어지지 않을가?》

태룡은 뚫어지게 현무를 보았다.

《아니, 승리할 때까지야 꿋꿋이 서있어야지.》

현무는 웃었다. 태룡은 여전히 엄숙한 기색이였다. 그는 병을 현무의 《마개잔》에 소리나게 대였다떼며 말했다.

《승리할 때까지 꿋꿋이 싸우기 위하여, 동무의 새 직무를 위하여, 보다 기쁜 래일의 상봉을 위하여 들자구.》

현무는 망설이다가 마셨다. 불덩이같은것이 목구멍을 태우며 배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건 고문이구만.》

《뭘, 좋지.》

태룡은 병을 들어 달빛에 비쳐보고는 아쉬운듯 혀를 찼다. 그리고는 병을 거꾸로 쳐들었다. 촐록촐록 소리를 내며 술이 쏟아져내려 바위귀퉁이를 적셨다.

태룡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바위야 알아다오

충실한 벗

전우의 우정과 맹세

이 술에 담아 남겨두나니

《건 무슨 광대놀음인가. 아까운걸 버리는군.》

《더 마실 정황이 못되네.》

태룡은 술에 젖어 더욱 거뭇해진 바위귀퉁이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아까 한 비난의 말들은 취소하네. 그러나 이렇든 저

령든 새 직무는 무척 어려울거야. 기쁜일은 별로 없을 것이구. 억세게… 견디라구.》

《고맙네.》

현무는 마개잔을 만지작거렸고 태룡은 병을 빙글빙글 돌렸다.

《소림이를 만나봤나?》

태룡이가 불쑥 생각난듯 물었다.

《아니.》

현무의 말에 태룡은 병돌리기를 그만두고 쳐다보았다.

《왜서 틀렸나?—》

그의 눈길은 집요하게 현무의 마음을 추적했다. 현무는 고개를 돌렸다. 분함이라고 할지 노여움이라고 할지 모를 격한 감정이 온몸을 확 달군다.

술기운인가. 현무는 자중하려 애쓰며 뜨적뜨적 말했다.

《포탄때문에 내가 눈이 뒤집히게 된적이 있어. 포탄이 없어 적땅크를 잡기는커녕 포를 두문이나 잃고 세 명의 희생자까지 내였네. 난 미칠것 같았어. 그날 우리에게 포탄을 가져오게 되였던 병기부과장을, 유선형 창고장일세. 만나자 나는 참을수 없었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되지 않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림동무가 거기에 나타날줄이야. 그 동문 나더러 병기부과장한테 사죄하라는거야. 거절했네. 그 시각에 나는 선형동지가 평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할수가 없었네.》

현무는 목소리가 갈려 입을 다물었다.

바로 이때 나팔소리가 다급스레 울렸다. 비상소집신호였다.

태룡은 《참 괴벽한 심리들이야.》라고 혀를 차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긴장해서 나팔소리를 듣는 현무의 어깨를 툭 쳤다.

《전투비상소집은 아니네. 사단이 제1제대로 나가네.》

《미리 알려주면 안되였나?》

현무는 혁띠를 고쳐매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술을 쏟아버린 원인도 이제는 알만했다.

태룡은 아무말없이 웃옷주머니를 뒤지더니 시계를 꺼내들었다. 그는 한손으로 현무의 손목을 잡은채 그 시계를 현무의 팔목에 채워주었다.

《이건 뭐인가?》

《기념으로 받으라구. 이제부터 동무의 사업은 모두가 시간으로 재는 일들일걸세.》

《!》

《자, 그럼… 병기근무군관동무의 건강을 축복함!》

태룡은 롱조로 거수경례를 하다말고 현무를 와락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속삭였다.

《매일 아침 소금물로 눈을 닦으라구. 그러면 인차 나아.》

《응.》

현무는 가슴속이 뜨거워올라 겨우 말을 번지였다. 그는 태룡의 얼굴을 근심스레 보며 헤여질 때마다 하게 되는 당부를 또 하게 되였다.

《적후에서 제발 덤비지 말라구. 그리고—》

말이 목구멍에 콱 걸렸다.

그는 태룡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휙 돌려세웠다.

《잘 가라구.》

수도의 거리와 체육경기장에서, 남진의 포연서린 전선길에서 뗄수 없는 우정으로 결합된 그들에게서 리별이란 언제나 가슴아픈것이였지만 이번의 경우는 더욱더 가슴저리는것이였다.

현무는 벗의 위험한 적후의 길을, 태룡은 친구의 시원치 않은 새 직무를 걱정하며 헤여졌다.

현무가 잠자리에 들어와 배낭에 모포까지 말아동였을

때 회중전등이 번쩍번쩍하더니 낮에 불쾌한 담화를 나눈 그 대위가 뛰여들었다.

그는 매 군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갈 구분대의 명칭과 위치를 재빨리 말하고는 마지막으로 현무를 찾았다.

《자, 명령서요.》

그는 《고집스런 중위》의 두번째 반발을 막으려는듯 명령서라고 하는 종이장에 회중전등을 가까이 가져다대였다.

현무는 명령서를 보지 않고 입을 열었다.

《집합장소가 어데입니까?》

《허, 이 친구가… 됐소. 병기창고장동무가 이미 와 기다리오.》

현무는 반토굴뒤에서 일여덟명의 군인들과 함께 있는 유선형이를 만났다.

현무는 그에게 자기의 복잡한 감정을 보이지 않기 위해 지금에는 그럴 계제가 아닌 규정적인 배치보고를 하였다.

《병기창고장동지, 화력부관 리현무 병기창고에 배치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 아 됐소.》

유선형은 예상외의 보고에 당황해하며 현무의 손을 잡아내렸다. 그리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겠소. 한번 같이 수고해보기요. 그래 잠은 좀 잤소?》

《네, 근데 어데로 가야 합니까?》

《여기 있으면 되오. 낮에 움직이기로 했소. 한데 우리만은 당분간 이곳에 그냥 주둔하게 되오.》

《알겠습니다.》

사단지휘부쪽에서 대렬보고를 하는 지휘관들의 청높은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현무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대렬보고가 끝나면 전투복차림의 사단장이 엄숙한 어조로 명령을 선포할것이다.

그리고 소리높이 웨칠것이다.

《앞으로!》

그 구령에 따라 저들은 어데까지 나갈지 모른다. 총을 받쳐들고 탄알의 우박속을 헤쳐 내달을 근위전사들이여, 안녕히 가시라.

유선형이 말을 떼였다.

《이야기를 좀 하자구.》

그는 전투가방을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드리며 현무를 응시했다.

현무는 아무말없이 그가 이끄는대로 절간옆 토방돌에 가앉았다.

유선형은 담배부터 꺼내들었다.

《피우오… 안피운다고? 거 좋긴한데… 아니, 배워두는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하얀 상아물주리를 꺼내였다.

《포병부사단장이 준거라네. 우리 사업의 특성을 잘 아는분이지. … 이건 진짜배기 상아라네. 중간이 끊어져 이어붙였지만 이 상아란 괜찮은거야. 약재거던—》

유선형은 때맞지 않은 상아소리로 현무와의 딱딱한 관계를 만문하게 해보려는것 같았다.

현무는 유선형의 말을 들으며 그와 함께 온 군인들을 살폈다. 그들은 조용조용 말을 주고받았다.

《이 반토굴학교는 언제쯤 지었을가?》

《작년 7월쯤 되겠지.》

그들이 나누는 토막말을 귀결에 들으며 현무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지었다. 색이 바랜 달이 산마루에 맥없이 누워 현무를 동정하듯 내려다보고있었다.

《우리 일이 재미있다네. 남들이 보는것과는 달라. 영예롭고 중요한 일이지.》

현무의 심정은 아는듯마는듯 유선형은 신이 나 말하였다. 현무는 봄날새벽의 쌀쌀한 랭기를 느끼며 무릎을 두손에 감싸안았다.

(영예?… 태룡이는 뭐라 했던가. 마지막에 이 비슷이 말했지. 아니,무슨 위치에 대한 철학을 풀었지.)

4

전쟁에서의 상봉과 리별은 기약없이 홀연히 다가오고 지나가는것이지만 그만큼 매 사람의 심장에는 기쁨과 슬픔의 큰 자국으로 깊이 새겨진다.

태룡은 번거로운 상념속에 붐비는 군인들속으로 대렬과 대렬을 지나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번의 출전길은 단순한 적구정찰이 아니였다.

적의 종심까지 타격하게 되는 사단의 금번 전투행동에서 태룡은 자기네가 적의 배후를 교란하는 구분대로 되는것을 알고있다.

출발이 얼마간 연기된것을 안 그는 떠나기전에 현무나 소림이를 다시한번 더 볼가하여 슬렁슬렁 걸음을 옮긴것이였다.

천막퉁구리를 실은 차열을 지나자 밝아오는 새벽빛에 우뚝한 무선차가 안겨왔다. 처녀들의 재깔거리는 말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왔다.

《그건 개나리야.》

《꽃망울도 없는데… 호호호.》

《뭐니뭐니해도 요런 들국화가 제일이지 뭐. 냄새맡아봐,막 죽여주지.》

《애개 거짓부리,들국화가 벌써 피나.》

가까이 다가가니 차에 위장할 풀을 한아름씩 뜯어와 가지고는 저마끔 들까불었다.

(차를 꽃으로 위장한다?!… 꾀꼬리들!)

태룡은 마음 가벼워지는 유쾌한 충동을 느끼며 속으로 웃었다.

《빨리들 해요. 꽃을 찾지 말어요. 다른덴 벌써 다 위장을 끝냈어요. 옥실동무, 꽃차는 승리하는 날에 만들어요.》

쟁쟁히 울리는 목소리에 태룡은 입가에 미소를 그리였다.

(소림동무로구나.)

태룡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무선차주위를 한바퀴 돌았다. 그때야 처녀들이 그를 발견하고 놀란 소리를 쳤다. 그러나 저희들의 무선소대장을 찾아오던 정찰중대장임을 알아보고는 또아리 틀듯 빙— 둘러쌌다.

소림은 한쪽켠에서 생글생글 웃었다.

달빛아래 그린듯 서있는 날씬한 몸매의 소림은 마치 흰안개를 헤치고 솟아오르는 조각같았다.

《동무들, 사정으로 20분 늦어 출발이요.》

태룡은 큰 비밀이나 알려주듯 정색하여 말하고는 소림이한테 다가갔다.

《소대장동무, 5분만 면회!》

태룡이가 구두발뒤꿈치까지 절컥 붙이며 차렷자세를 하자 처녀들은 배를 그러쥐며 까르르 웃음을 터치였다.

《안녕하셨어요?》

소림은 새여나오는 웃음을 잔즛이 깨물며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는데 그린듯한 입술사이에서 하얀 이가 알릴가 말가 반짝였다.

태룡은 돌아서 널직널직한 보폭으로 무선차에서 몇걸음 떨어져갔다.

《이렇게 다녀도 일없어요?》

소림이가 뒤따라오며 물었다.
《무엇때문에?》
《전투비상소집이 아니예요.》
《아,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저 롱담이군요.》
소림은 제풀에 호—웃으며 습관적으로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 그러한 소림을 태룡은 무거운 시선으로 보았다.
《이제부터는 롱담을 안하지요.》
그리고는 한동안 축축한 땅을 다지듯이 몇번 밟다가 찌를듯한 눈으로 소림이를 곧추 쏘아보았다.
달빛에 환히 드러난 소림의 얼굴은 놀랄만치 예뻤다.
동그스름한 턱과 살구씨같이 곧게 동그라진 크고 정채어린 눈은 그 빛에 상대가 눈시그러울가 저어하듯 긴 살눈섭을 내리깔고있다.
지금 이앞에 현무가 있고 서로 웃으며 말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태룡은 가볍게 한숨을 짓고 말하였다.
《현무동무가 어제께 퇴원했습니다. 동문 군의소엘 안 가봤더군요.》
소림의 낯은 흐려지고 눈길은 땅바닥을 좇았다.
이때의 그의 눈빛을 자세히 볼수 있었더라면 태룡은 자기의 말이 잘못되였다는것을 깨달을수도 있었을것이다.
소림은 군의소에 안간것이 아니였다. 갔었다. 널뛰듯한 가슴을 안고 달려가 수술실창문옆에 웅크리고 현무의 신음소리까지 낱낱이 들었다. 그때의 소름끼치던 감정, 아픈 가슴의 사연을 알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소림은 고개를 들었다.
《깨끗이 나았는가요?》
《네, 완치되였습니다.》
태룡은 오른눈가가 채 아물지 않은 현무의 얼굴을 얼핏

상기하며 풀기없이 대꾸했다.

《전… 좀… 바빴어요. 제가 여기에 온걸 아는가요?》

《내가 말했습니다.》

태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더 빠른 말씨로 결연히 말했다.

《난 동무네 관계를 잘 모릅니다. 내가 알기에 그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동무입니다.

만약 호상 불쾌한 감정이 있었다면, 물론 가령입니다. 그 어떤 불쾌한것이 있다면 오해일것입니다.

전장에서는 알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서로의 우정이 참으로 그립고 귀중합니다.

그럼 난 가겠습니다.》

얄팍한 입술을 희고 간자름한 웃이로 살그시 깨물고 있던 소림이가 고개를 쳐들었다. 당황한듯한 수심어린 눈이 처량하게 보였다.

태룡은 점잖게 말했다.

《영원한 평행, 영원한 쌍곡선은 수학에나 있어야 합니다.》

《언제 떠나요?》

《이제.》

《적구로요?》

《그렇습니다.》

소림의 입술이, 기다란 살눈섭이 바르르 떠는듯하였다.

그는 무언가 갑자르듯하다가 조심히 물었다.

《그를 또 만나는가요?》

《이젠 퍽 후에 만나겠지요.》

《그는 반땅크포에 도로 갔겠지요?》

《아니.》

태룡은 다음 말을 잇기 바빴다. 그러다가 서글서글한 태도로 말했다.

《매우 중요한 다른 부문에 배치되였습니다.

나보다 자주 만날수 있을것입니다. 하긴 동무네가…》
이때 무선차쪽에서 《소대장동지!》 하고 불렀다.
《자, 그만 가겠습니다. 모든것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태룡은 손을 내밀었다.
소림은 그의 손을 잡았다놓고는 태룡의 어깨띠가 삐뚤어진것을 보자 향긋한 풀내가 나는 희고 자그마한 손으로 차근히 바로잡으며 속살거리듯 말했다.
《몸을 꼭 조심하세요.》
《무선통화시에 틈이 있으면 현무동무의 소식도 전해주길 바랍니다.》
태룡은 돌아섰다.
《잘 가세요.》
소림은 오도카니 서 보다가 맥없이 돌아서 무선차쪽으로 걸어갔다.
태룡은 뒤돌아보았다.
왜서인지 소림의 자태는 무척 외롭고 쓸쓸해보였다.
(훌륭한 처녀데—)
다시 걸음을 옮길 때 태룡의 눈앞에는 현무의 신경질적인 초조한 얼굴이 삼삼히 밟혀왔다.
어둑하게 타는 분기어린 눈, 그로 하여 더욱 질려보이는 컴컴한 얼굴, 현무의 모습이 별로 어둡다. 이 전쟁의 고통스러운것만을 모아 환상적으로 처리한 그림같다.
그 환영은 소림이로 하여 더욱 강조된듯싶은 객적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무엇이 그들사이에 지뢰원을 만들었을가. 단순한 오해일가, 아니면—)
태룡이가 탄 차는 사단이 출발하기 몇분 앞서 떠났다.
네명이 타는 차에 여섯명이 오른바람에 몹시 비좁았으나 연신 들춰대는 《발발이차》안에서는 오히려 서로 의지되는것이 더 좋았다.

태룡은 듬직한 몸들의 비비작거림속에 근육을 풀고 전투임무를 받을 때면 항용 잠기는 그런 명상에 잠겨들었다.

이것은 그의 습관이였다.

동요시절로 되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밟아보는것은 다가드는 오불꼬불한 산길처럼 흥미있는것이다.

차는 전속으로 달렸다.

태룡은 눈을 감고 땀내 나는 전사의 어깨에 고개를 부딪치며 추억의 연장선을 하나하나 이었다.

여느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직 현무와 알게 된 그 길만이 생생히 살아왔다.

태룡이가 현무를 알게 된것은 1944년 가을이였다.

학교강당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들이 다 모였다.

남방전선에서 《위훈을 세우고》 돌아왔다는 일본군 소위가 무훈담을 한다는것이였다. 한팔을 쓰지 못하는 병신 소위놈은 세계지도를 펼치고 일본과 도이췰란드군의 진격로를 엉터리없이 날조하여 그렸다. 지도를 보면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상의 섬과 반도가 다 일장기밑에 있고 며칠내로 지구의 동반구는 《일본제국》령토로 되게끔 되였다.

태룡은 옆의 학생들이 듣게끔 내놓고 거짓말이라고 소곤거렸다.

소위놈도 자기의 거짓말이 무안했는지 한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어지간히 맥이 빠져 휴식을 선포했다.

태룡은 그 시간에 지도앞에 나가 영웅적기분으로 거사를 단행했다. 밖에 나가지 않았던 한 학생이 그만두라고 했으나 태룡은 《겁쟁이같으니—》라고 랭소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휴식이 끝난후 다시 연탁에 나가 《황군》의 련승을

떠들던 소위는 학생들이 킥킥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돋았다. 놈은 웃음의 원인이 지도때문이라는것을 뒤늦게나마 발견했다. 지도상에서 뻗쳐나가던 화살표들은 연필로 벅벅 그어져버렸고 세계지도라고 써놓은 그밑에는 《풍전등화》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너무나 무엄스런 행위에 한동안 기가 질려있던 소위놈은 다이야 터지는 소리를 내고는 지도를 구겨버렸다. 단에서 내려 맨 앞줄의 학생에게 다가갔다.

《대라. 누가 했지?》

《몰라요.》

다음은 악—하는 비명이 터졌다. 소위의 오른손과 발이 북놀듯했다. 놈은 쓰러진 학생은 아랑곳않고 다음 학생에게 다가갔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놈의 기상은 무서웠다. 태룡은 맨 마지막줄에 앉아 풀떡거리는 가슴을 진정 못하며 전률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로 이때에 분격에 찬 갈린 목소리가 울렸다.

《때리지 마시오. 내가… 했소.》

얼마전에 이 학교로 들어온 갸름한 얼굴에 눈매가 비상히 까만것으로 인상적인 학생이 일어섰다. 태룡이더러 그만두라고 하던 《겁쟁이》였다.

그가 일어서자 신음과 울음 소리들이 일시에 끊쳤다. 소위는 《요—시》 하며 이를 갈고는 《나왓!》 하고 소리쳤다.

놈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찌가 튕겨나왔다.

태룡은 공포에 휩싸였다.

초대처럼 까딱않고 선 학생, 이제껏 별로 눈차게 보지 않았던 학생이 소위의 두번째 꽥 소리에 천천히 걸어나갔다.

태룡은 그 학생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는것을 보며 숨도 못쉬고 고개를 떨구었다.

소위의 기압을 쓰는 《악—》하는 울부짖음과 어린 학생들의 공포어린 소리가 울렸다. 더는 앉아있을수 없었다.

태룡은 벌떠덕 일어섰다.

《아니요. 그건 내가 했습니다.》

하나 얼굴이 오지독같은놈은 오직 그 눈길 까만 학생만을 두들겨팼다.

며칠후 류치장에서 나온 태룡은 그 학생을 찾다가 출학처분된것을 알고 평천리에 있다는 그의 집을 찾아갔으나 거기서도 만나지 못했다. 평천군수공장에 다니던 아버지가 며칠전에 무슨 사상운동건으로 잡혀가자 그 학생은 어디론가 떠나가버렸다는것이였다.

태룡은 현무라는 그 학생에 대한 생각으로 며칠밤을 제대로 못잤다.

그들의 상봉은 썩 후에 이루어졌다.

광복이 되여 시보안대에 들어가 몇달 있다가 다시 고중 2학년에 편입된 태룡은 1948년 봄 시내 고전부축구경기에 학교팀 주장으로 나갔다.

축구장에서 태룡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태룡은 그 날파람과 재치있는 공다루기로 학생들의 인기를 독점하다싶이 했다.

《태룡！》

하는 응원속에는 녀학생들의 목소리도 섞여있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그들과 맞선 3고팀은 만만치 않았다.

후반전마감에 결정적기회가 생겨 텅 비다싶이 된 문전에 뽈을 몰고가던 태룡은 최후의 방어수가 예상외의 속도로 달려드는바람에 옆으로 빠질 생각은 못하고 앞으로 그냥 나가며 누구도 못보게 슬그머니 상대편 다리를 다쳤다. 방어수는 넘어졌다. 절호의 기회라고 쾌재를 올리며 뽈을 돌려 강슛을 하려는데 누군가의 손이

팔목을 잡아나꾸챘다.
태룡은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다.
홱 돌아선 그는 뜻밖의 《반칙자》를 노려보았다. 관중석이 들끓었다.
(누구에게 반칙을 선언하는가.)
심판은 태룡의 팔목을 잡아나꿔챈 선수에게 반칙을 선언했다.
그러자 관중석에서 불만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태룡의 《맵시있는 예술적반칙》을 본 사람들이였다.
부심까지 달려와 심판의 오유를 설명했고 량팀의 체육교원들까지 나왔다.
그런데 태룡의 팔목을 나꿔챈 선수는 한쪽켠에 서서 태룡이만 쳐다보았다. 도전하는듯한 그 시선을 륙감으로 느낀 태룡은 떳떳이 맞서보려는 태도로 돌아서다가 그만 《앗!》소리를 칠번했다. 그 상대편 선수는 그토록 찾던 현무인것이였다.
그런데 현무는 아는척하는 빛은 조금도 없이 랭랭히 주시해볼따름이였다.
태룡은 말없이 돌아서 심판에게 다가갔다.
《내가 먼저 다리를 걸었습니다.》
체육경기에서 류례없는 이 《솔직성》에 대해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으나 선수들은 《투항주의》, 《무저항주의》의 락인을 찍고 태룡을 공격했다.
하나 태룡은 무승부로 끝난것을 조금도 아랑곳않고 녀학생들이 가져다주는 닭알을 연신 깨여먹으며 현무와 자기의 《영웅적거사》를 일장설화하고 현무를 요란스레 떠받들었다.
선수들과 응원자들이 또아리틀듯한 속에서 좀 과장도 하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현무가 조용한 미소를 얼굴에 가득 채우고 나타났다.
태룡은 그가 자기를 모르지 않고있으며 반가움을 안

고 찾아왔음을 알자 무작정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현무를 향해 권해오는 사이다며 닭알같은것을 받을 여유도 주지 않고 《여, 그때 상처를 보자구.》 하며 제잡담 내의자락을 들어올렸다.
《일제잔재를 다 숙청하는 때인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을수 있나.》
현무가 얼굴을 붉히며 체육복상의자락을 내리려 했으나 태룡은 상처자국을 찾을 때까지 그대로 들추고보았다. 그때
《손님대접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힐책하듯 울렸다. 학교민청위원으로 태룡이보다 한 학년아래지만 상급생들에 대한 비판도 주저치 않는 소림이가 상글상글 웃으며 태룡이에게 눈총을 주다가 닭알을 담은 바구니를 현무에게 내밀었다.
현무는 소림이와 눈이 마주치자 더욱 황급히 웃옷자락을 내리였다. 그리고 가슴에 와닿은 바구니를 당황스레 보다가 옆에서 권하는 목소리에 쫓기듯 한알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안될세라 닭알바구니가 그채로 툴렁 떨어졌다. 소림은 현무가 바구니채로 받는것으로 알고 놓아버렸던것이다.
《아이, 혼자서 열다섯알을 잡쉈네.》
소림은 큰소리로 말하며 깔깔 웃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개있던 현무가 예상외로 침착해져 응수했다.
《왜 내 혼자서 먹은것으로 됩니까. 절반이야 동무것이지요. 일곱알반 말입니다.》
와—하고 터지는 웃음소리에 소림은 급급히 녀학생들속으로 잦아버리고말았다.
태룡은 그날 현무와 함께 모란봉을 거쳐 평천리까지 걸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다시는 떨어질수 없는 우정으로 얽

혔다고 서로들 확신했다.

학교를 졸업한 그해 가을 38도선 정세가 험악해진다고 하며 현무가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할 때 태룡이도 선뜻 동의한것은 그 우정때문에 더욱 그런것이기도 했다.

입대하여 갈라졌던 그들은 작년 여름 8월의 찌는듯 무더운 폭양아래 시련많은 전선길에서 다시 만났다.

그 길에는 소림이도 있었다.

닭알바구니로 하여 낯을 익혔다가 그로 하여 다시 안볼듯 피해버린 소림이와 현무의 인연은 땀과 먼지와 열정과 환희가 뒤섞이는 화염배인 길에서 다시 이어져 묘한 곡선을 그리며 시간과 더불어 흘러갔다.

태룡은 그들의 관계를 아직은 어떻게 봐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들이야말로 둘다 서로 조금도 기울지 않는 리상적인 상대이겠건만 동서의 량극단으로 갈라져가는것이다.

그런데다 문제는 현무의 일이 지금 여의치 않게 된다는데 있다.

만약 그가 희망대로 다시 포앞에 선다면 그리고 소림이랑 만나 친근한 동무로서 추억도 나누고 공상도 나누고 기쁘게 지낸다면 태룡의 마음은 지금보다 얼마나 가벼우랴.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또 지나가고있는 일이다. 앞으로는 모든것이 잘될것이야. 반드시 잘돼야 해.

《헌병초소우측 100메터지점엔 독립가옥… 그옆엔 소나무 세그루…》

지도자리표를 외우는 전사의 목소리가 무거운 전투임무가 놓인 현재를 깨우친다.

그렇다. 추억은 추억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앞을 보라. 앞을 생각하라.

5

이 시각 소림은 사단이 간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서북쪽으로 달리는 차우에 있었다. 군단통신결속소에 가서 몇가지 통신기재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받은것이다.

그와 함께 떠난 후방부 군관은 자기의 일신사를 아름다운 수식사로 멋을 돋궈 이야기하였다.

소림은 그 군관의 눈길이 자주 그의 얼굴에 닿는것에 기분 언짢은것도 없지 않았지만 평화시기의 그 아름다운 나날로 이끄는 이야기는 그닥 싫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력사를 하리라. 한데 그 꿈이 가닿은 중간역도 바로 여기 달리는 차입니다. 종착역이야 물론 〈조국전쟁사〉 저자 아무개가 학생들속에 알려질 때겠지요. 어떻습니까. 내 소리가 너무 희떱지요?》

《안요.》

《동문 종합대학출신이라지요?》

소림은 저으기 놀랐다. 서로 안지 불과 몇시간밖에 안되는 자기에 대하여 이 군관이 어떻게 벌써 알았을가. (소림은 사단에 온 바로 그날로 벌써 지휘부 젊은 군관들속에 자기가 전투구분대로 가겠다고 떼를 쓴 사실과 자기의 자상한 리력까지 공개된것을 알지 못했다.)

《대학생활의 재미나는 추억이 많을테지요.》

후방부 군관은 소림의 과거생활을 아는것이 그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인듯 저으기 심중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남들과 같겠지요.》

소림은 상냥하게 웃어보이고 고개를 돌렸다.

키낮은 초가집들이 얼찐얼찐 지나갔다.

송아지를 끌고오던 더부룩한 머리의 소년이 전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놀라서 후닥닥 뛰는 송아지에 끌려 넘어질듯하다가 간신히 허리를 폈다.

후방부 군관은 그 광경에 껄껄 웃었으나 소림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 어제날의 세계에 가있었다.

거기에는 현무가 있었다.

어찌하여 자기는 현무한테서 멀어져있는가. 어찌하여 자기는 현무를 만나보겠다고 맘먹으면서도 피하였는가. 이야말로 어리석은 처녀의 변덕이 아닌가.

물론 소림은 현무가 중태에 빠져 그냥 있었다면 아무리 몸뺄수 없는 전투환경이라 하더라도 산하나만 넘으면 될 군의소를 찾아갔을것이였다. 그러나 수술경과가 좋고 빨리 회복되여 간다는 소문과 시간의 흐름은 동정에 눌리여 잊혀졌던 모욕감을 자극하였고 다시 가려는 충동을 사그라뜨렸다.

더구나 그가 퇴원했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였다는 태룡이의 말을 들은 지금에 와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상처입은 마음의 목소리에 완전히 지고말았다. 하면서도 그는 자기 행동이 잘된 일은 못된다는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시정》하려고도 양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였다. 그의 단호한 《결심》속에서 현무라는 인간은 먼 공간의 불쾌한 추억이였고 외면하고 잊어야 할 존재였다. 혹시 현무가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속 기쁨으로, 미와 덕의 귀감으로 빛나지 않았던들 소림은 결코 그를 이처럼 랭혹히 저버리려 하지는 않았을것이다. 지금까지도 현무가 그의 틈시간을, 조용한 꿈과 사색의 순간을 깨뜨려버리며 나타나는 강력한 존재가 아니여도 흔연히 만날것이였다. 리성과 감정의 싸움이런듯 자그마한 가슴속에서 배척해버리려는것과 만나보고싶다는 욕망이

지겨운 다툼만 하지 않아도 소림은 그를 흔연히 찾아 갔을것이였다.

어찌하여 닭알바구니를 준 다음날로 잊어버린 그 동무가 이처럼 소림의 세계에 뛰여들어 애꿎은 심화를 일으켰는가.

소림이가 무선단기강습을 받고 남진하는 부대에 따라가 편입되였을 때 거기서 동창생인 태룡이를 만난것은 좋은 일이였고 그로부터 련이어 현무를 만나게 된것도 그때로서는 하나의 행복이였다.

싸움을 아직 소설이나 자랑군의 랑만적설화속에서만 리해하고있은 소림은 부대에 도착한 그때 태룡이가 패주하는 적을 앞질러 적구도시에 들어간다는것을 알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무전수가 없어 소림이한테 그 사실을 로출시켰던 태룡은 소림의 정열적인 제기를 고맙게 받아들였고 두 입이 사단간부들을 설복시켰을 때 소림은 날듯이 기뻐했다.

패주병들로 수라장이 된 도시에서 정찰이란 식은죽 먹기라는 태룡의 말대로 소림은 자본가놈이 버리고 간 2층짜리 양옥에서 쏘파에 몸을 파묻은채 서너번 태룡이네 정찰자료를 송신하는것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려보던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전선정황이 급변하면서 그들은 신속히 적구를 빠져나와 후퇴하는 부대에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는 이미 적들의 기갑부대가 도로를 따라 북상하므로 부득불 산길을 타지 않을수 없었다.

《도지사》의 누이동생으로 가장했던 소림은 신발뒤축이 연필대같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태룡이가 얻어온 괴뢰군 군화를 신고서야 산길을 걸을수 있었다. 하루도 못되여 그 짱짱한 가죽구두안에서 소림의 연한 발은 보행능력을 거진 상실하게 되였다. 했으나 그는 태룡이네 대원이 만들어준 지팽이만 받았을뿐 다른 도움은 받

으려고 하지 않았다.

행군속도는 형편없이 떠졌다.

어느 한 산중턱에서 소림은 주저앉고말았다. 쏟아져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태룡이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안되겠어요. 먼저 떠나요. 나는 천천히 따르겠어요. 대신 수류탄이나 한알 줘요.》

태룡은 그의 비장한 각오가 어린 눈길을 외면한채 잠시 생각다가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산에서 내려가기요. 도로옆으로 걸어봅시다. 운수를 믿어봐야지.》

타는듯한 정오의 뙤약볕에 지쳐버린듯 그림자 하나 얼씬않는 행길가로 내려갔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남쪽으로부터 자동차 한대가 먼지를 보얗게 일으키며 달려오는것을 발견하였다.

《다행히 한대로군. 행운이요.》

태룡은 먼지를 받아 누렇게 뜬 풀숲에 소림이와 전사를 숨겨놓고 장탄한 권총을 바지주머니에 찌르며 신작로복판에 나가섰다. (그는 괴뢰군 대위차림이였다.) 그런데 량손을 허리에 붙이고 《헌병자세》로 멋을 부려 서있던 그가 갑자기 모자를 벗어던지며 《우리 사람들이요. 나오라구.》 하고 급한 소리를 쳤다. 이때는 소림이도 마주오는 차가 아군의 포차임을 알아봤을 때였다. 소림은 운전실지붕우에 따발총을 의탁해놓고 선전사들을 향해 《동무들!》 하고 목멘 소리를 지르며 내달려갔다.

차는 멎었다. 하지만 두정의 총구는 여전히 소림이네쪽을 겨누고있었다.

날카로운 눈길들이 《우리는 ×사단 정찰이요.》라고 소리치는 《괴뢰군장교》와 《귀부인》을 수상쩍게 보았다. 그런데 운전실에서 초연에 얼굴이 검실하게 그

슬린 소위가 내렸다.
《태룡동무 아니요?》
《현무!》
그와 태룡은 거의 동시에 소리쳐부르며 마주 달려가 붙안았다. 포옹이라고 할지 씨름이라고 할지 모를 상태에서 붙돌아가던 태룡이가 소림이에게 고개를 돌리며 웨쳤다.
《모르겠소? 3고중동무요.》
소림은 언뜻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3고중동무》가 자기를 보며 빙그레 웃을 때 기억의 한구석에서 펑끗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3고중동무》는 느닷없이 붉어지는 소림의 얼굴을 보며 유쾌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나에게 닭알 열다섯알을 빚지운 동무군요.》
소림의 뇌리에는 3년전의 봄철 경기장이 생생히 떠오르며 기쁨의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웃음이 찰랑이는 눈길로 현무를 보며 공손히 말했다.
《그 값으로 차를 꼭 태워주세요.》
말을 하고나니 또다시 눈물이 나와 이번에는 손등으로 훔쳤다.
현무의 억지에 못이겨 운전실에 탄 소림은 첫순간 마치 즐거운 려행길에 들어선 기분이였다. 그러나 운전사로부터 이들이 다섯시간동안 다리목에서 도로차단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찰척후로 나온 적땅크 두대를 부시고 다리마저 끊어버리고 온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지금 적의 기계화보병이 추적해올지 모른다는것을 알았을 때 불안을 느꼈다.
운전사는 전투전말을 상세히 말하면서 주로 현무의 용감성에 대해,비상한 기지와 총명함을 두고 끝없이 칭찬을 했다. 이제 한두대의 땅크만 더 까면 현무는 영

웅이 될것이라고 했다. 이야기가 현무에게로 번지자 소림은 호기심이 벌물처럼 넘쳐 불안마저 잊었다.

그는 이번의 상봉을 운명적인 해후라고 생각하며 평화시기에 얼핏 본 현무와 현재의 현무를 일치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첫상면》시의 광경을 자상히 그려보았다.

그는 현무가 닭알바구니를 떨궈버린것은 자기한테 위압되여 당황해진 묘한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하였다. 절망과 피로 뒤끝에 찾아든 구원과 상봉의 기쁨은 소림이를 어지간히 들뜨게 하여 남성들의 우상이 되는 그런 미모의 녀성들이 가끔 빠져드는 자아도취와 공상의 세계에 밀어넣었다.

현무가 먼저 자기를 알아봤으며 이 준엄한 정황속에서도 그때의 일들을 상기해낸것은 그의 기억속에서 자기가 늘 살아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차우에서 태룡이가 분명 이번의 정찰전에 대해서 말할것이니 이 소림이가 자진해나섰고 괴뢰군 수색대가 뺑뺑 돌아치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태연히 무선전건을 두드렸다는것을 알면 화력부관의 심장엔 자기에 대한 군인식존경심까지 생기리라고 기쁘게 생각했다.

그 과정에 소림의 상념세계에서 현무는 가장 뛰여난 남동무로 되여갔다. 《정의감과 의협심의 권화》라고 한 태룡의 평가는 절대로 과장이 아닐것이였다.

이렇게 달리는 차안에서의 몇시간동안에 소림의 사색과 감정 속에서 현무는 놀라울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되였으며 그와 소림이와의 거리는 무척 가까와졌다. 특히 연유를 다 소비하고 돌아가던 쌕쌔기가 자동차를 발견하고 기총소사를 할 때,비행기가 채 사라지기도전에 운전실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현무의 념려어린 눈길을 보았을 때 그 거리는 거의 령으로 되여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기분좋은 려행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날아가던 쌕쌔기가 호출했는지 아니면 폭격을 마치고 돌아가던 놈들인지 석대의 비행기가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무의 명령으로 차를 세우고 길가의 조밭으로 뛰여들었다. 소림은 움푹진곳을 찾느라고 그냥 뛰였다. 뒤에서 누군가 《엎디오！》 하고 성나 소리쳤다. 밭고랑에 폴싹 주저앉았다. 《엎디라니까！》 재차 소리칠때에야 현무임을 알아보았다. 밭고랑을 따라 편히 엎디여 돌아보니 그때까지 현무의 근심어린 눈길은 소림이를 지키고있었다. 소림은 부끄러워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따르륵— 하는 기관총소리가 울리고 거의 동시에 땅이 지동치며 벼락치는듯한 폭음이 련이어 울렸다. 매캐한 화약내와 더불어 돌과 흙덩이들이 우두락투두락 떨어졌다.

돌멩인지 흙덩인지 하나가 어깨를 때리는바람에 소림은 엉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현무가 《상했습니까？》 하며 뛰여일어나 달려오려 했다.

《엎디세요.》

소림은 웃으며 소리쳤다. 자기가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웃을가 하고 생각하며.

현무는 소림의 말이 명령이런듯 엎드리며 여전히 생글거리는 소림의 얼굴을 보고 억이 막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위협적으로 주먹을 쥐여흔들었다. 소림이도 마주 주먹을 쥐여흔들었다.

그러나 둘사이의 웃음은 잠간이였다.

로케트탄에 맞았는지 자동차가 불에 휩싸였던것이다. 《유쾌한 려행》은 끝난것이다.

적기가 사라진후 행길에 나와선 모두의 얼굴이 우울해졌다.

소림은 더욱 그러했다.

하나 현무는 포가 살아있는것을 보고 거의 흡족한 빛으로 말했다.
《끌어봅시다. 적이 다쫓아오면 한바탕 붙어보고—》
비장한 각오속에 포에 견인바줄들을 매고 끌자리들을 잡아 들어서자 소림이도 끌려고 들어섰다.
전사들은 한결같이 만류했다. 태룡이까지 결달았다.
《소림동무 언젠 발탈이 나 못걷겠노라고 통곡을 하더니 어찌된거요. 괜한 객기를 부리지 마오.》
《아니, 전 끌래요.》
소림은 얼굴이 빨갛게 질려 고집했다.
현무가 그를 지지했다.
《소림동무도 바줄을 쥐십시오. 함께 끌면 한결 쉽답니다. 그런데 신발이 문제군요.》
현무는 매생이같은 소림의 군화에 어처구니없는 눈길을 던졌다. 소림은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요.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저런—》
태룡이가 어안이 벙벙한 눈길로 혀를 찼다. 산길을 걸을 때 군화때문에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였던것을 상기한 소림은 낮이 붉다못해 감빛이 되여 그 사실을 까밝히면 어쩌나싶어 가슴을 조였으나 태룡은 더는 말이 없었다.
다행히 운전사의 예비지하족이 좌석밑에 있었는데 화재를 면했다.
그런데 그 신발도 소림이한테는 엄청나게 큰것이였다. 신발을 들고 소림의 발을 내려다보던 현무는 《발싸개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신발만 신으면 날아갈것 같아요.》
소림은 웃으며 말했다. 현무는 들은듯만듯 이마살을 찡그리고있다가 《잠간 기다리시오.》 하고는 길옆 숲속으

로 들어갔다.

어스름속에 한결 컴컴해보이는 숲속으로 도대체 무엇하러 들어갔을가 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안있어 돌아온 현무는 신발과 함께 두쪼각의 흰 천을 내미는것이였다.

《신통치 못한 발싸개입니다.》

소림은 얼결에 받아들었다. 무엇으로 발싸개를 만들었을가? 감촉에 신발앞코가 뜬뜬한것으로 봐 거기에도 무언가 밀어넣은것 같았다. 소림은 미안하였다. 그러나 인사치레가 싫었다. 그는 그저 상긋 웃으며

《제가 〈닭알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군요.》라고 하며 어색해지는 자신을 숨겼다.

군화를 벗어버리고 발싸개를 하고 지하족을 신으니 마치 발이 포근한 솜에 싸인것 같았다.

포를 끌기 시작할 때 현무는 소림이의 위치를 자기옆에 정하고 자기가 쥔 바줄 한끝을 잡게 했다.

이때에야 소림은 현무가 바줄을 끌게 한 리유를 알았다. 두가닥으로 비끄러맨 그 한가닥을 소림이가 꼭 잡으면 잡을수록 현무의 힘에 끌려가게끔 된것이다. 결국 그는 포를 끄는것이 아니라 현무의 부축을 받아 끌려가는셈이다.

(인정?!… 녀성적인 세심한 배려?!…)

소림은 속으로 웃었다.

한팔을 바줄에 감고 몸을 앞으로 숙일사하고 꿋꿋이 걷는 현무를 살피다가 소림은 불쑥 말을 떼였다.

《동문 수학을 잘하겠어요.》

《네?—》

현무는 의아하여 돌아보다가 소림이의 눈동자 깊숙이에서 타끓는 장난기어린 빛을 간파하고 시무죽 웃었다.

《화력부관은 계산을 잘해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빚을 지우는 행동은 삼가해야지요.》

현무는 눈섭을 치떴다.
《빚을 지우다니요. 나는 빚을 지우는것도 지는것도 싫어합니다.》
《그럼 바줄위치를 바꾸자요.》
《아하, 알만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녀자로 될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속에 소림은 힘든줄을 몰랐다. 발아프던것도 잊었다. 자기의 신발안에 들어간 마른풀과 발싸개가 이 남자의 손을 거쳤다는것으로 그 어떤 만족과 야릇한 행복감을 느끼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무의 숨소리가 처음보다 높아지고 현무의 발걸음소리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신경을 썼다.
그들은 새벽녘에 새로운 방어진을 형성하고있는 아군지대에 들어섰다. 길목마다 공병들이 지뢰매설을 하였고 벌판과 산릉선은 전호작업을 하는 군인들로 덮였다.
길목을 지켜선 경무원들이 부대와 병종을 알아보고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군사령부에서 내려온 중좌가 현무네가 끌고온 포를 보자 인수증을 써줄테니 포를 둬두고가라고 했다. 중좌는 현무가 선뜻 대답을 안하자 개별적 군인과 소구분대들은 이 중좌의 지시에 복종하라는 방어사령관의 명령서를 보이였다.
현무의 낯은 창백하게 변하였다.
《중좌동지, 포를 주면 저흰 어떻게 합니까? 저흰 반땅크포병으로 싸워야 할 군인입니다.》
중좌는 엄하게 현무를 보았다.
눈섭 한번 까딱않는 현무의 침착한 눈길을 띠여본 중좌는 부지중 호의어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 떨어져 함께 싸우지 않겠소? 여긴 포가 매우 부족되오. 적은 큰 기갑무력으로 덤벼들것이요.》

《그럼 저희부대는 어찌합니까?》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여도 일없게 되였소. 물론 포병은 다 있소. 강요하지는 않겠소. 그런데 이번 싸움은 간단한것이 아니요. 서울,인천 방어와 관련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전투요. 결심해보오.》

현무는 고개를 돌렸다.

약간 초조한듯한 눈길이 소림이에게 멎자 부드러운 웃음을 보이려는듯했으나 그것은 소림의 착각인것 같았다.

현무는 묻는듯한 시선으로 대원들을 보다가 중좌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약간 갈린 말소리가 울렸다.

《좋습니다. 저흰 포와 함께 여기 남겠습니다. 다만 싸움이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중좌는 나직이 되뇌이고는 애정어린 눈길로 현무를 한참이나 보다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오. 그때면 차를 줘서 보내겠소.》

《알았습니다.》

현무가 소림이들쪽으로 왔을 때 속이 한줌만해진 소림은 얼굴이 해쓱하여 조심스레 물었다.

《꼭 떨어져야 하는가요?》

《저흰 반땅크포병이니까요.》

현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고는 소림의 신발에 눈길이 닿자 근심어린 안색으로 변하였다.

《걷기 힘들었지요?》

따뜻한 동정이 슴밴 그 물음에 소림은 가슴이 뭉클해 간신히 입술을 놀렸다.

《아니 일없었어요. 조금도—》

현무는 미간을 찌프린채 산등으로 가리마처럼 뻗어올라간 도로를 묵연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이제도 수태 걸어야겠군요.》

소림은 그의 눈길과 마주칠가봐 겁내며 고개를 돌렸다.

포를 끌어 구뎅이에 밀어넣는 전사들, 목함지뢰를 안고 가는 늙수그레한 공병, 통나무를 메고달리는 내의바람의 청년의 모습이 휙휙 스쳐지나갔다.

소림은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여기서 싸울수 있다면… 현무동무와 함께 싸울수 있다면.)

그는 간절한 희망에 불붙는 눈길로 현무를 바라보았다.

《저—》

입을 떼자 그 호흡의 격함에 놀란듯 현무가 긴장한 눈길로 소림이를 주시했다.

소림은 얼굴에 피가 가득 몰리는것을 느끼며 말했다.

《함께… 싸우고싶어요.》

현무는 눈을 내리깔았다.

《여기엔 동무자리가 없습니다. 정찰조는 부대로 가라고 하잖았습니까.》

현무의 말은 딱딱하게 들렸으며 소림이를 서운하게 했다.

이때 중좌가 현무를 불렀다. 포좌지를 잡자는 소리에 현무는 《알았습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하고도 인차 떠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듯말듯하였으나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림이를 보기만했다.

소림은 자기가 그를 지체시키고있어서는 안된다는것과 동시에 그는 여기서 자기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별반 인정하지 않는다는 야속함에 차 작별의 뜻으로 인사를 했다.

《몸 무사하세요.》

그러나 말을 떼니 가슴이 짜릿하였고 목이 메여올랐다. 그리고 자기가 이 순간 응당 군인으로서 거수경례

를 해야겠으나 눈인사로만 하고말았다는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인사에 현무는 엉겁결인듯 《잘 가시오》 하고는 손을 내밀다 말고 소림이가 까딱않자 그대로 돌따서 달려갔다.
돌개바람이 먼지를 휘몰아안고 맹렬히 불어왔다. 소림은 눈을 감았다. 온몸을 휘돌굴듯 심술궂게 요동치던 바람이 한고패 물러가자 소림은 눈을 떴다. 벌써 현무는 저만치 뛰여가고있었다.
《현무동지!》
저도 놀랄 정도로 웨쳤다. 우뚝 멈춰서며 돌아보는 현무를 보자 숨이 딱 멎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어린애처럼 되여 소리쳤다.
《부대로 꼭 와야 돼요. 안오면 〈나쁜 사람〉으로 보겠어요.》
하고는 폭격시에처럼 주먹을 쥐여 흔들어보이려 했으나 그럴 힘이 없어 팔을 내리우고말았다.
소림은 태룡이와 고개길에 오를 때까지 아무말 않고 부지런히 걸었다.
고개마루에 오르자 그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듯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곳을 돌아보았다.
푸른 벌판에서 뛰여다니는 군인들의 모습이 얼찐거렸다.
《래일쯤이면 부대로 돌아올가요?》
소림은 현무를 생각하며 물었다.
그러자 태룡은 귀찮은 질문에 부닥친 사람처럼 얼굴을 찌프리고 성난듯이 말했다.
《래일은 저기가 불바다가 될것이요.》
새삼스러운것은 아니였건만 남의 입으로 그 말을 듣자 소림은 속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결사적인 싸움일것이요. 해볼만한것이지. 그걸 두고

떠난다는것은 넨장—》

태룡은 낯이 거멓게 되여 부르짖고는 《갑시다.》 하고 제먼저 걸음을 떼였다. 커다란 돌멩이를 걷어찼으나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소림은 그대로 서있었다.

《결사전》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뜀박질을 하며 가슴을 활랑거리게 만들었다.

현무에게 함께 싸우면 좋겠다고 한 말이 돌이켜지며 마치 그 말이 위험에서 벗어져나가는 사람의 허울좋은 변명처럼 부끄럽게 돌이켜졌다.

소림은 문득 무엇에 떠박질리운 사람처럼 태룡에게 달려갔다.

《태룡동지, 우리도 가서 싸울수 없어요?》

소림은 간곡히 호소하듯 말했다.

《정찰자료는 한사람만 가서 보고하면 되잖아요.》

《제기를 해봤소. 하지만 가서 새 임무를 받으라는거요. 어쩌겠소. 각자에게는 자기의 위치와 임무가 있는걸.》

부대에 돌아왔을 때 태룡이네는 다시금 새 전투임무를 받고 떠났으나 소림은 참모부무선대에 앉는것으로 태룡이가 말하던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의 위치를 차지했다.

소림은 통신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았으나 현무와 함께 결사전의 벌판에 떨어지지 못한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그 후회는 현무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함께 또 다르게는 현무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북돋았다.

그는 현무를 안타까이 기다렸으며 포병참모부에 가 알아보기도 하였다. 하여 그는 포병부서의 많은 군관들을 알게 되였으며 그들 역시 아릿다운 녀성무선수인 소림이를 알게 되였다.

기다려 나흘째 되던 날 진종일 바람이 불더니 저녁부터 느질느질 비가 내렸다. 을씨년스러운 마가을찬비

는 사람의 심회를 이상스럽게 휘젓는다.

돌아오지 않는 현무로 하여 소림은 그날밤 인차 잠들지 못했다.

(어찌되여 소식조차 없을가. 혹시?…)

불안한 예감과 싸우던 끝에 기연미연 잠들었다. 그러나 그 잠은 안식의 잠이 아니라 과중한 정신적번민에 지친 신경의 강제적휴식이였다.

소림은 자다말고 병실보초의 구령소리에 깨여났다.

《군호!》

《묘향!》

《어데로 옵니까?》

(누가 이 밤중에 다닐가? 순찰은 아닌데—)

소림은 바싹 귀를 기울였다.

《…윤소림동무가 있지요? 난… 그 동무를—》

《모르겠습니다. 보초장을 부를가요?》

《아, 아니, 됐소. 참 내가 취침시간이 지난걸 잊었군.》

소림은 모포를 차고 후닥닥 일어났다. 비상소집때처럼 옷을 입고 신발을 꿰였다. 발싸개를 감으려다가 뿌려던지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내달리려던 그는 자기가 웃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웃옷을 입고 단추를 채웠다. 머리를 대수 만지며 문을 열었다.

비는 멎었으나 밖은 먹물을 푼듯 까맸다.

비릿하고 선뜻한 바람이 밀려들며 머리가 확 맑아졌다.

소림은 서너발자국앞에 서있는 보초병을 보고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았는가 주저했다.

보초병은 홱 돌아서 수상쩍게 소림이를 보았다.

《저… 이자 누가 오지 않았댔어요?》

《왔댔습니다. … 약속한 동무였습니까?》

보초병은 악의없이 이죽거리는투였다.

소림은 낯이 화끈해 쏴붙였다.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의 말투에서 보초병은 자기의 헤식은 태도가 근무규률에 어긋남을 알았던지 갑자기 딱딱한 태도로 변하며 엄하게 말했다.
《접근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난 알아야겠어요. 찾아온 동무가 포병군관이 아니예요? 서울방어전에 참가했다가 오는 동무일거예요.》
《그렇댔습니까?》
보초병의 말은 갑자기 상냥해졌다. 요즈음 온 부대가 가렬한 서울방어전을 두고 떠들기때문이였다.
보초병은 사위를 두릿거리다가 아쉬운 어조로 말했다.
《동무가 말하는 그 군관이 옳은것 같습니다. 화력부관이라고 하더군요.》
소림은 온몸이 졸아들듯한 기쁨에 취했다.
《어느쪽으로 갔어요?》
소림은 즉시에 달려갈 태세로 물었다.
《저기로… 내려갔는데… 어두우니… 가만… 들어가십시오. 근무교대시간이 다 돼옵니다. 이젠 말을 시키지 마시오.》
소림은 그냥 서있었다.
얄궂은 어둠이다. 오늘따라 왜 달도 없을가. 소리쳐 현무를 부르고싶다.
그러나 소리칠수도 없고 어데가 찾지도 못하게 되였다는것을 알 때 그는 울고싶었다.
《끝내… 왔구나.》
소림은 한식경이나 서있다가 두손을 가슴에 포개고 방안으로 뛰여들어갔다. 급급히 모포를 펴 머리우까지 뒤집어쓰고 누운 그는 모포밑에서
《현무동무, 얼마나 고생했어요.》라고 조용히 불러보고 방그레 웃었다.
다음날 아침 소림이와 현무는 군관식당앞에서 만났다.

그들은 말과 행동에서는 가벼운 인사로 지났으나 서로의 눈빛에서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가슴속깊이 느꼈다.

그런데 이로부터 석달만에 그들의 사이는 뜻밖의 《충돌》로 버그러지고말았다. 그날 소림이가 통신대대에만 가지 않았더라도, 그 길에서 적기의 공습을 받는 포탄차를 보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불화는 없었을는지 모른다.

석대의 적기가 자동차를 꼬리잡이하며 기관총을 쏘아대는데 차우에서는 웬사람이 경기관총을 휘둘러 맞불질을 하였다. 통신대대가 있는 산봉우리에서도 고사기관총과 중기들이 맹렬하게 불을 뿜었다. 그러나 적기들은 검질기게도 쫓길념을 안하다가 한대의 적기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내려꼰져서야 고공으로 솟구쳤다. 바로 그때는 자동차도 산협길에 이르러 불길에 휩싸였다.

통신대대사람들속에 섞인 소림이가 불붙는 자동차에 달려가니 얼굴이 피로 랑자한 운전사가 이미 숨을 거둔 협조원을 안고 무어라 애통히 부르짖고있었다. 차에서 대여섯걸음 떨어진곳에는 맨머리바람의 소좌가 한손에는 경기를, 다른손에는 흙에 발린 76미리포탄을 움켜쥔채 사라져가는 적기를 노려보고있었다. 적기가 더는 보이지 않게 되였을 때 고개를 떨군 소좌는 주변에 널린 포탄들을 보자 손에 쥐고있던 포탄으로 땅을 내리쳤다. 소림은 신음소리 비슷한것을 들었다.

통신참모가 재빨리 달려가 소좌에게서 포탄을 뺏자 피진 눈길을 쳐든 그는 얼없이 뇌였다.

《전화를, 련락을 해야겠소. 어떻게 빨리… 손써주오. 당장 포탄이 가야 하는데…

그들은 포탄을 기다리오. 포탄! 포탄!》

《병기부과장동무, 진정하시오.》

통신참모가 어깨를 잡아흔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듯

일어선 그의 피진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아니, 저 소좌동지가!)

소림은 숨이 콱 막혀들었다. 소림이가 잘 아는 유선형 병기부과장이였다. 선형은 소림의 가슴속에 한없는 존경과 친근감으로 깊이 새겨져있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선형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포탄을 기다리겠는데, 포탄을!》

불에 타서 너슬너슬해진 팔소매를 펄럭거리며 유선형은 술취한 사람처럼 걸어갔다.

《부과장동지!》

소림은 울먹거리며 달려가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어델 가요? 왜 이러세요?》

선형은 소림이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보다가 《오, 동무요.》라고 했을뿐 그대로 걸어가려 했다.

소림은 그의 팔소매를 놓지 않았다. 유선형은 소림의 손을 잡았다.

《이러지 마오. 나때문에 전방에서… 전사들이 쓰러질거요. 에익!》

그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눈에서는 불이 펑끗했다. 그에 더욱 놀래이는 소림의 눈길과 부닥치고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구나. 시간이!—》

그리고는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소림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혔다.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의지하고싶던 사람의 고통은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오후 로획품무전기에 맞을 건전지를 얻으러 기재창고로 가던 소림은 《병기수리소》라고 써붙인 야장간에서 벼락치듯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소스라

쳐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마당에 놓인 방순이 찌그러진 포의 가다리와 바퀴에 몇몇 전사들이 죄지은 사람처럼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소림은 엿듣는것이 나쁘다는것을, 더구나 전사들이 보는데서 그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는것을 알았으나 울려나오는 목소리의 임자가 다름아닌 현무라는것을 알고 한걸음, 두걸음 다가갔다. 문은 반쯤 열려있었다. 한사람은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서있었다. 앉은 사람은 낮에 본 유선형이였고 선 사람은 현무였다.

현무의 두눈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황황히 이글거렸고 땀줄기가 흰선을 그어내린, 매연에 절은 까만 얼굴은 사납게 이지러져있었다.

그는 마디마디 떨며 웨쳤다.

《…전사들은 쓰러지면서도 포탄을 찾았습니다. 숨지는 그 순간 마지막말이 포탄이였단말입니다.

무한궤도가 포를 깔고넘을 때 우린 가슴을 치며 병기부과장동무를, 뒤에서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어쩜 그럴수 있습니까. 승리에 보탬은 못해도 장애를 놀다니.

차라리 물러서는것이 나을것입니다.》

현무는 팔을 들어 허공을 내리치고는 돌따서 나왔다.

소림이를 보고도 아는지모르는지 그대로 찬바람을 풍기며 지나갔다.

소림은 영겁결에 한걸음 물러섰다. 아연실색했다. 이즈음 자주 만나는 현무였지만 언제한번 이렇게 스쳐지난적은 없었다.

과연 이 사람이 그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소중히 들어섰던 그 현무가 옳은가.

나이많은 상급을, 그것도 필사적으로 임무수행을 위해 싸운 성실하고 용감한 군관인 유선형동지를 어쩌면 저

렇게 모욕할수 있단말인가.
자기가 잘못보지 않았는가. 무슨 악몽속에 있지 않는가 확인하고싶었다.
소림은 야장간을 에돌아가는 현무를 따라잡았다. 현무는 소림이가 앞을 막아서자 눈살을 찌프렸다. 그 잊을수 없는 밤과 감격적인 상봉의 아침이 과연 있었던가 싶게 험상궂은 얼굴이였다. 소림은 그 눈길이 보기 두려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어찌…된 일이세요?》
《…》
《어쩜 그렇게… 말을…》
《동무 뭘 말하자는겁니까?》
《병기부과장동지는 오늘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피로와했는지 아세요?》
《피로와했다구요. 그래 그것이 어떻다는것입니까?》
《리해해줘야잖아요.》
《그래서요?!》
현무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지였다.
소림은 왜서인지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는것을 참으며 떨리는 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그를 위로하세요. 사과해야지요.》
《무얼 사과한단말입니까. 수고한걸 몰랐노라구?》
현무의 얼굴빛은 험악하게 변했다. 그의 목소리가 아까처럼 급기야 높아졌다.
《그래 수고 안하는 사람이 어데 있습니까. 그런자가 있다면 쏴갈겨야지요.》
소림은 흠칫했다. 그러나 최대의 인내성으로 자신을 다잡으며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말할수 있어요.》
《말?!… 말이란게 뭐요. 말은 말로 끝나지만 싸움에서는 피로 계산된단말이요. 피로!…

전투의 실패는 목숨으로도 보상 못하는 법이요.》
《그렇다고 해서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을 마구 모욕할수야 없지 않아요.》
소림은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소리쳤다. 그 눈물때문인지 현무는 눈길을 돌렸다.
《동문… 성실하고 용감하다는 그 하나로 잘못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으로 태여나 성실하고 용감해야 하는것은 응당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한풀 누그러졌다.
《여기엔 모욕한 사람도 모욕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림이에겐 이 말이 변명으로 들렸다.
현무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소림은 입술마저 하얗게 변하며 나직이 말했다.
《그럼 어쩔수 없는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힐책하는것이 과연 모욕이 아니란말이예요.》
현무의 이마살이 찡그러졌다.
악문 입술엔 비웃음이 어리는것만 같았다.
《도대체 〈모욕〉이란것이 무업니까.
동문 싸움이 무언지 압니까? 전투에서 실패가,피흘린다는것이 뭔지 아는가말입니다.
그래 동문 〈실수〉에 대해서 동정하고 눈물을 흘려달라는것입니까.》
《현무동무!》
소림의 눈앞은 뽀얗게 흐려졌다.
입술이 떨리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소림은 강잉히 힘을 내여 말을 이었다.
《전 그런건 아니예요. 물론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싸움을 한대서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이 무시되고… 례의를 저버릴순 없잖아요.》
《그런건 난 모릅니다.》
《동문 거짓말도 하는군요.》

《그러나 명확한것은 이 판가리싸움판에서 승리에 지장을 준다면 나는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용서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전쟁에선 실패를 용허할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동정은 서푼어치의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 감상주의자군요.》

소림의 가슴에서 타끓던 애모쁨의 용암은 잦고 싸늘한 재가 짝 짓눌렀다.

현무는 대답을 않고 컴컴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소림은 한동안 거의 절망적인 눈으로 현무를 보았다. 앞에 선 현무는 자기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자기과신에 찬, 리해성도 아량도 너그러움도 없는 거칠고 차거운 인간이였다.

《가까운 사람》으로 소중히 심장에 새기고 접근한 소림이의 심정에 아랑곳도 않는 목석같은 인간이였다.

《전 동무에게서 뜨겁고 참된 인간을 보았댔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런 말이 소림의 뇌리에 떠올랐으나 이제는 구태여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안녕히 계세요.》

짤막한 인사말을 남겼을따름이였다.

그리고는 북받치는 설음을 참으며 홱 돌아서 달렸다. 길과 풀밭이 몽땅 한색갈로, 회색빛으로 보였다.

《소림동무！—》

놀란듯한 목소리가 뒤따랐으나 소림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헤여졌다. 만나지 않았다. 기억에서조차 쫓아버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것만은 좀해 되지 않았다.

때로 그는 조용히 자기자신과 속삭여본다. 내가 그

를 너무 리상화한때문에 지금의 실망과 환멸이 이처럼 큰것이 아닌가고.

그러나 어찌하랴. 여하튼 자기에게는 그런 랭혹한 인간, 전쟁이라 하여 인정미마저 잃은 인간에게 따뜻이 미소할 아량이 없는것이다. …

《소위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후방부 군관은 소림의 배낭이 자기에게 쏠린것을 조심히 밀며 말을 걸었다.

《미안해요.》

소림은 유쾌하지 못한 추억을 덜어준 군관을 감사히 바라보았다.

후방부 군관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기뻐했다.

6

사단은 갔다.

꼬리 짜른 역마들이 끌어대는 후방부의 마차마저 떠나갔다.

한개의 경비소대와 운수중대의 몇몇 성원들만이 현무네들과 함께 이 골안의 주인으로 남았다.

너렁청한 골안은 적막속에 잠겨있었다.

현무는 선형이와 함께 어제밤까지 군인들의 병실로 되여있었던 반토굴과 초가집들을 돌아보았다. 포탄과 무기들을 받아들일 창고들을 고르는것이였다.

선형은 매 집의 번호를 매기고 《여긴 122미리.》, 《여긴 박격포탄.》 하며 수첩에 표식했고 그때마다 의향을 묻는듯 돌아보군하였다.

《좀 리해 안될수도 있을게요. 병기창고를 이런데 전개하게 되니 나도 딱하오. 원래야 중앙선두병기창에서

전방에 직접 나르지. 그런데 이번엔 사단의 〈특수작전〉을 위해서 여기다 모았다가 요구될 때 콱 안겨준다는 게거던.
그러니 여기는 림시지. 하지만 갖출것은 다 갖춰야지.》
선형은 현무가 이번에도 대꾸가 없자 쥐고있던 나무회초리로 장화코를 탁 치고는 옛날 민요를 흥얼거리며 앞서 걸었다.
(그러니 이제는 보장성원이로구나.)
현무는 위장을 하느라 꺾어다덮은 솔가지들이 누렇게 마르는 병실지붕들을 쓸쓸한 눈매로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새벽에 포병참모장이 나타나 《비편제 병기소대》 조직을 선포하고 《비편제 병기소대장》으로 자기를 임명하던 때의 일만이 줄곧 감돌았다. 그때 포병참모장은 이 조직은 림시이고 작전이 끝나면 새롭게 대렬편성이 있으리라는것을 암시하였다. 그때면 자신의 시력도 좋아져 다시 원래의 초소로 갈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나 마음은 더욱 우울해졌다. 따지고보면 그 우울증의 원인은 그 희망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직무나 초소를 가지고 어린 신대원처럼 골을 앓는 자기자신에 대한 역정때문이기도 하였다.
어찌하여 태룡의 앞에서는 천연스럽게 큰소리 친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는 의욕을 잃고있는가.
전선은 지금 팽배한 긴장속에 있다.
포병참모장의 말에서도 그렇고 또 일전에 들은 태룡의 말이나 《전사참모》들의 예언으로 보면 수일내로 사단은 용암의 분출같은 격전에 휘말려들것이다.
목잘린 맥아더의 뒤를 이은 리치웨이는 새로운 미치광이짓을 연출하려고 하는것이다. 그 흉계는 크고 위험스럽고 지구성을 띤 발악이였다.
외적으로 볼 때 전선은 아직까지 균등한 힘의 대치상태에 있는듯하였다. 이 균등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깨치는것이 이번 작전의 한 목적일지도 모른다.

이미 5차 1작전이 그 균등을 깨쳐 적을 파국에 몰아넣는 타격이였다면 그 작전은 그것을 완결시키는 작전일것이였다.

사실 이때 현무는 다는 몰랐으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미 전쟁의 새 단계를 내다보시고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구상하고계셨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유엔군사령관직에 올라앉아 주제넘게 사태의 역전을 기도하는 리치웨이의 흉모를 눌러버리고 전반적인 전선에서 유리한 지대를 장악하며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 소멸하고 그의 사등뼈를 분지르기 위하여 5차작전을 벌리였던것이다.

현무는 이런 상황에서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기통수로부터 저격수에 이르기까지 매 초소와 위치에서의 책임적역할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잘해보자고 의식적으로 자기를 추세워보지만 기분은 전혀 추세워지지 않는것이였다.

그의 마음은 적땅크와의 치렬한 싸움이 있을 포좌지에 가있었으며 원쑤의 포와 땅크들에 죽음의 불을 안기는 그 위치를 간절히 그리는것이였다.

적땅크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채 주저앉는것을 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기쁨과 통쾌함을 갈망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잊어야 되는것이다.

현무는 선형이가 자기를 미타히 또는 측은히 자주 곁눈질하며 말을 많이 하는것은 뜨직해하는 자기를 《사업》에 이끌려는것임을 알았다.

그 심정은 리해되며 공감되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자신도 《사업》에 집중하려 애썼다. 마침 스쳐지날수 없는 《부주의》를 포착했을 때 거의 기쁨에 가까운 심정이 되였다. 자기의 《일몫》을 찾은 심리였다.

창고로 될 집이 적비행사의 폭격대상으로 유리한 사계에 있다는것을 발견한것이였다.

현무의 입이 열리자 선형은 더없이 소중한 의견인듯 기뻐하며 입이 벙글써해 들었다. 그리고는 회초리로 장화목을 기분좋게 탁 치고 현무의 론쟁열을 올리려는듯 큰소리로 말했다.

《…적을 너무 쎄게 봤소. 적비행사는 저쪽 산봉우리를 지날 때야 이걸 발견할거고 그때야 부랴부랴 사격단추를 누르려 한단말이요. 그러면 그때의 폭탄은 어디로 가겠소? 극상해야 저 산비탈에 떨어진단말이요. 이 병실주인들도 이미 그런 계산은 다 했을테니까.》

《아닙니다. 〈그라망〉같은것은 저기서 기수를 숙여 저공에서 폭탄투하를 할수 있는데 명중사격을 해댈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에프—86〉도 비행사가 햇내기가 아닌이상 스포츠비행을 해서라도 여길 맞힐것입니다.》

현무는 유선형이 실눈을 한채 시험치는 학생을 보듯 자기를 보는데 화가 나 산봉우리부터의 거리와 비행기의 속도, 급강하와 급상승의 각도에 대한 계산풀이까지 하며 론박했다.

현무가 입을 뗀것만도 반가와 기뻐하던 유선형은 이제는 이마에 주름살을 짓고 근심어린 빛이 되였다.

《어떻게 한다?… 토굴엔 넣을수 없고, 더구나 야적은 할수 없고…》

《반항공대책을 세우겠지요?》

《우린 그런것이 없다 하고 계산해야 되오. 난 만사튼튼하다 하고 배포가 뜬뜬해있다가 혼난적이 몇번이나 되지.

물론 동무가 날 〈혼뜨검〉내던 그날은 떠날 때부터 불안했지만.》

현무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긴장하여 대기하던 그 불유쾌한 《사건》을 선형은 무심중인듯 상기시켰다.

현무는 낯이 화끈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그때에 노여웠습니까?》
《허허, 난 그런 욕엔 인이 박혔소. 면역이 생겼다구 할가.》
(인이 박혔다?… 면역?…)
어쩌면 그런 실패를 이처럼 무심히 웃으며 말할수 있을가. 뭔가 선형이앞에 궁색스럽던 감정이 삽시에 날아가버렸다. 이러한 현무의 눈길과 부딪치자 선형은 저으기 붉어진듯한 얼굴을 황황히 창고쪽으로 돌렸다.
현무 역시 못볼것을 본것처럼 고개를 수그렸다.
(내가 옹색해할가봐 그런 말을 했구나.)
현무는 자기의 혼란된 심회를 드러낼가보아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다.
《다른 집이 없으니 이걸 쓸수밖에 없군요.》
그러자 선형은 《에라, 침실이다.》 하며 수첩에 적어넣고는 큰일을 치른 사람처럼 흡족한 기색을 지었다.
《자, 이젠 아침이나 먹어봐야지. 참 동무의 식성을 알아본다는걸 못알아봤구만.》
선형은 수첩을 아래주머니에 쓸어넣고 슬렁슬렁 앞서 걸었다.
그의 넙적한 잔등과 실한 목덜미를 보며 현무는 이 사람이야말로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어느 소비조합 책임자나 식당지배인 같은것을 하면 적임일것이라고 생각했다.
길을 따라 걷던 유선형은 갑자기 개울건너 산기슭에 버섯머리처럼 붕긋한 토굴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건 방공홉니까?》
《휘발유저장고일세.》
선형의 대답에 현무는 의아해졌다.
《아니 탄약창주변에는 휘발유저장고를 못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그래. 하지만 어쩌겠소. 운수중대 휘발유고인데 이제 밀려들 차들에 휘발유를 대줘야거던. 그런데다 여긴 고정병기창이 아니니까. 며칠이나 있으려는지 걱정거리긴 해. …》

개울을 훌 건너뛴 선형은 저장고 흙지붕에 민들레가 다문다문 피여있는것을 보자 이마살을 찡그리였다.

씽—하고 저장고우에 오른 선형은 그 민들레가 마치 극악한 원쑤이기나 한듯 와락와락 뽑아버렸다.

《도대체 여긴 사내녀석들이 있었나, 계집애들이 있었나.》

현무는 얼굴까지 벌개진 그의 행동이 괴벽스러워 웃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건 왜 뽑습니까?》

《우리 눈은 민들레를 꽃으로가 아니라 인화성물질로 봐야 하오. 저게 말라보오. 불길만 와도 확 붙지 않나. 그러면 휘발유가 튀고 다음은 주변이 불바다로 될거구. 포탄창고들이 하늘로 날아가지.》

유선형은 바람에 날려온 묵은 가랑잎까지 말끔히 주어 시내물에 던져버렸다.

이때 호리호리한 몸매에 눈매가 무척 부드럽게 생긴 각광(상사)을 단 하사관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유선형은 허리를 펴고 실눈을 지었다.

《다 됐나?》

《네. 근데… 그건 못구했습니다.》

《그래— 할수 없지.》

선형은 《그것》이 무언지 적잖게 랑패한 기색이나 현무에게 고개를 돌릴 때는 무척 밝은 표정이였다.

《식사가 늦는다고 독촉을 왔구만. …

농삼동무, 먼저 가서 식사모엿을 하라구.》

《알았습니다.》

상사는 돌아서다 말고 현무를 향해 상냥한 웃음을 지

어보이고 올 때처럼 달려갔다.

《전쟁이 일기전부터 병기창고에 있은 동무요.》

선형은 껑충거리며 달려가는 상사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보기엔 색시같은데 의지가 강하구 근면하지. 얼마전에 사단에서 그를 군관학교로 보내자는걸 내가 짤랐다니. 이번 전투만 끝나면 꼭 보내자고 제기하겠네.》

전사들은 식사들을 할념을 않고 기다리고있다가 현무네가 나타나서야 급급히 렬을 지어 식당으로 들어갔다.

《동무랑 함께 식사를 하자는걸세.

새 지휘관이 왔으니 명절인셈이지.》

선형에게 이끌리여 식당에 들어선 현무는 쑥스러움이라고 할지 놀라움이라고 할지 모를 기분에 휩싸였다.

통나무를 절반 쪼개서 만든 식탁우에는 백포가 펴있고 노랗고 빨간 꽃들이 꽂힌 105미리탄피로 만든 《꽃병》이 보란듯이 놓여있는데 어느틈에 했는지 기름튀기며 떡이며 지어 만두까지 상이 비좁게 차려져있었다.

선형은 만족해서 손까지 썩썩 비비며 현무에게 귀속말을 하였다.

《저 만두는 농삼이 솜씨야. 떡을 하느라고 두사람이 밤을 밝혔다네. 비상소집바람에 혼났댔지. 아니,앉으라구.》

현무는 얼굴이 붉어졌다. 양은남비에 김이 문문나는 순두부까지 들어왔을 때 그는 얼굴이 화독앞에 선것처럼 달아올랐다.

《여기 가루간장이 있어. 맛보고 치라구.》

선형이가 다심하게 권한다.

현무는 고개를 떨군채 숟가락을 놀렸다. 순두부가 뜨거운지 짠지도 감각 못하고 먹었다.

얼굴로는 땀이 줄져흘렀다. 순두부가 뜨거워서만이 아니였다. 현무는 자기로도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

정속에 파묻혔다.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어떤 께름한 생각이 거마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몇달전의 현무가, 매캐한 포연속에서 흙섞인 주먹밥을 먹던 화선에서의 현무가 이러한 《중위》를 보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가.

포사격권에서, 파편과 돌쪼각들이 우박치는속에서 땅크를 맞받아 싸우던 그때의 전사들이 이 식탁에 앉은 자기를 보면 무어라고 할가.

이 시각 현무는 반포대대의 식탁에도 밀렸던 후방물자가 갑자기 몰려온다든가 통쾌한 싸움을 치른날이면 물고기튀기며 순대며 송편이며 하는것들로 성찬이 마련되군 한적이 있었다는것을 감감 잊었다.

오직 여기만, 후방에서만 볼수 있는 식탁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것밖에 들지 않소?》

현무가 밥 한그릇을 다 비우지 않고 나오자 뒤따라 나온 선형은 입가의 팥보숭이를 닦으며 매우 섭섭한 기색이였다.

《아니,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히 먹었습니다.》

《뭐, 그다지나. 거 카—하는것이 없어 유감이였소.》

《창고장동지, 너무 휴양소기분을 주지 마십시오.》

《휴양소?!…》

선형의 얼굴빛이 홱 변했다. 무언가 언짢은 소리를 할듯하던 그는 성급히 상아물주리를 꺼내여 담배를 꽂았다. 손이 약간씩 떨렸다. 칙—하고 성냥을 켜대고 담배를 빨 때 빽빽 소리가 났다.

《여길 그렇게 보면 안되오.》

한참만에 이렇게 말을 뗀 그는

《포탄상자들을 고일 굄목준비를 해야겠소.》

라고 하고는 휙 돌아서 반토굴로 된 병실쪽으로 걸어가며 성난 음성으로 직일관을 찾았다.

현무는 《휴양소》라는 말에 격분한 선형이를 당황하면서도 거의 존경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순간 현무의 뇌리에는 선형이에게 사죄하라던 소림이의 말이 떠올랐다.…

굄목준비란 곧 나무를 찍어 아지를 쳐내고 둥글면을 깎아 각목을 만드는것이였다. 좋기는 통나무를 기계톱으로 제재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환경에서나 바랄수 있는것이다.

전사들과 함께 산에 오른 현무는 석대의 나무를 찍고 나자 온몸이 땀투성이 되고말았다. 부러졌던 쇄골부위가 뜨끔뜨끔 아파났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좀 쉬염쉬염 하십시오. 〈벌목작업〉이란 전투가 아니니까요. 부상처가 도지겠습니다.》

앙바틈한 몸매에 메밀눈인 하사가 도끼를 든채 가까이 다가왔다. 이전에 정찰중대의 대원으로 현무보다 며칠 앞서 군의소에서 퇴원한 최충기라고 하는 하사관이다.

현무는 도끼밥이 허옇게 떨어진 락엽무지에 지팽이삼아 도끼를 짚고서 충기를 마주하여 돌아섰다.

《몇대나 다듬었소?》

《열댓대 됩니다.》

충기는 씨—익 웃으며 눈을 간자름히 쪼프렸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석달만 도를 닦으면 착실한 농군이 되겠지요.》

현무는 팔소매로 눈에 흘러드는 땀을 씻으며 허—하고 웃고말았다. 충기는 방금 찍어놓은 나무에 걸터앉으며 싱긋벙긋 말주머니를 열었다.

《난 중위동지를 잘 압니다. 글쎄 땅크잡이명수가 이게 뭡니까. 저 꾀보령감같은 창고장동지 눈에 든게 불행

의 시작일것입니다.》
《허허!—》
《글쎄 나도 저 창고장동지때문에 요모양,요꼴이 되였습니다.》
충기는 메밀눈을 한채 입술이 뿌죽해졌다. 그는 일어나 도끼로 나무아지를 따기 시작하며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다.
《발단이야 군의소에 들어간때문이지요. 그 빌어먹을 미군중위녀석이,혀를 잡아서 마대에 넣고나올 때이지요. 넨장,그놈이 마대를 째고나오며 손칼로 내 잔등에 두군데나 칼질을 했거던요. 죽여버렸지요. 아마 지금 정찰중대장동지가 나를 빼가지 않는것은 그 실수때문일것입니다. 참 말이 곁나갔군요. 그래서 군의소에 갇힌 몸이 되였는데 퇴원하기 며칠전에 글쎄 그 말라꽹이 간호장이 어데서 이 제관 5급공을 알아냈던지 소독철함을 만들어달라고 하잖겠습니까. 퇴원암시를 받은 때라 기꺼이 응했지요. 그래 병기수리소 야장간에 가서 포탄탄피를 두드려 한창 오그리고 붙이고 하는데 저 선형동지가(부과장을 할 때지요.) 나타났단말입니다.
〈재간이 있구만. 포무기들을 좀 아오?〉 라고 묻더란 말입니다. 춰주는 말에 난 좀 떴지요.
〈평사포,고사포,아식,미식 다 꿰지요. 정찰이란 다박다식해야 하니까요.〉
술어까지 쓰며 말하니까 하는 소린즉 〈이런데서 일할 생각은 없소? 쇠붙이 다루는 사람이야 여기가 적임이지.〉 한단말입니다. 펄쩍 뛰였습니다.
하나 쓸데 있습니까. 걸렸지요. 에익!》
충기의 도끼타격은 세차고 정확했다.
팔뚝보다 굵은 소나무아지가 일격에 잘라져나갔다. 현무는 거의 동정어린 눈길로 보다가 친절히 말했다.
《동무에 대한 정찰중대장의 〈관심문제〉는 내가 해

결하겠소.》
《그를 잘 압니까?》
《친구요. 그런데는 동무가 진짜배기군인이란걸 증명해야 되오.》
《어떻게요. 여기서요?》
《어떤데서건 사람의 금새는 나타나는 법이니까.》
《글쎄말이야. 그렇지만—》
충기는 시뿟해서 한마디 뱉고는 현무를 넌지시 보다가 계속했다.
《중위동지도 여길 썩 달가와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나말이요?》
충기는 정통을 찌른것이다.
현무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옳게 보았소. 하지만 난 마음을 붙이려고 노력하오.》
현무는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자기로도 궁색스러워 충기의 눈길을 외면하고말았다. 한데 충기는 다 알만하다는듯이 벙긋 웃고는 너그럽게 말했다.
《뭐 괜한 소립니다. 하여튼 힘써주십시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소.》
현무는 얼굴이 뜨끈히 달아올라 다시 도끼질을 시작하였다.
(충기는 나를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겠구나. 우습게 되였는데. 그통에 할말도 못하구.
문제는 이 전쟁에서는 자기의 취미나 기분이 아니라 어떤데서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승리에 보탬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해야 한다는걸 말해줘야 하는데…
어데서건 힘껏!
기쁨이 없건 있건,통쾌감이 있건 없건 성실하게 자기를 바쳐야 한다. 그런데는…)
태룡이며 전우들은 피의 결전을 하는데 자기는 나무를

찍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머리속에 서가던 론리의 기둥이 허물어졌다.

(허참!)

도끼가 빗나갔다. 몸이 기울어지면서 나무에 부딪쳤다. 현무는 누가 보지 않았나 사위를 둘러보고는 침을 뱉었다.

문득 농삼이의 성난 목소리가 울렸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늘 귀인상스럽게 상냥하던 농삼이가 얼굴이 퍼렇게 되여 충기를 닦아세우고있었다.

《이렇게 건성으로 다듬으면 상자를 어떻게 올려놓나말이요. 옹이도 그대로 두고… 또 이 한면은 수평으로 깎으라고 했는데 이게 뭐요? 이우에 상자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소. 춤을 춘단말이요, 춤을—》

충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난 잘 모른다지 않습니까. 그럼 난 나무나 운반하겠습니다.》

충기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팽개치듯 도끼를 놓고 기장이 10여메터는 될 통나무를 메고 달음박질하듯 내려갔다. 농삼은 어처구니없어 충기를, 다음은 현무를 보았다. 현무를 보자 별일 아니라는듯 어색하게 웃었다.

이 순간 현무는 충기를 멈춰세워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렇게 못했다. 생매처럼 적구를 갈개치며 미국놈을 족치던 싸움군이 농촌늙은이들도 할수 있는 이 일을 어찌 쉽게 받아들이랴싶었다.

《이제 스무대면 만세다. 속도 빨리!》

아래에서 누군가 유쾌한 목소리로 웨쳤다.

(그래, 찍어야지.)

현무는 다시 손에 침을 뱉고 도끼자루를 힘있게 틀어잡았다. 그러자 문득 여기를 《휴양소》라고 한데 대해서 격분하여 몸을 떨던 선형의 불깃하게 달아오른 얼굴이 떠올랐다. 강박하듯 웨치던 노염찬 말들이 다시 울렸다.

(내가 이게 뭐야. 난 아직 정신적으로 자기위치를 잊고 있어.)

현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개미들이 게바라오르는 터슬터슬한 밑둥을 향해 도끼를 내리쳤다.

7

산봉우리의 관목숲우에서 가물거리던 해는 진분홍노을을 남긴채 드디여 사라지고말았다.

현무는 몸이 으슬으슬해났다. 한껏 땀을 흘린 뒤끝이여서 그럴것이다.

나무를 다 끌어내려 창고에 집어넣은 전사들은 이 몇분의 휴식을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초가벽에 기대여 눈을 감고있는것으로 보냈다.

현무는 꺾쇠뼈부위가 아파나서 눕고싶었으나 전사들앞이라 차마 그러지 못하고 《병기상식수첩》을 꺼내여 읽으려 했다.

그러나 충기의 말소리가 그것을 방해했다. 어데서 잡았는지 다람쥐를 가지고 장난하고있었다. 두세명의 전사들이 그 모양을 지켜보았다.

《차렷!—》

충기가 다람쥐의 귀를 잡고 쳐들자 다람쥐는 두발을 버둥거리다가 무모한 행위라는것을 깨닫고 량순히 늘어진다.

《보라구. 이 충기 말에는 짐승들도 옴짝 못하지. 자, 그럼 도립!》

뒤다리를 들면 다람쥐는 앞발로 땅을 벋디디고 꼬리를 흔든다. 현무는 보다 말고 다시 수첩에 고개를 떨구는데 한결 큰 목소리가 《차렷!—》 하고 웨쳤다. 또

그 장난이려니 하고있는데 주변공기가 이상하여 머리를 들었다. 네모질사한 얼굴에 관골이 튀여나온 소좌가 《쉬엿하시오!》 하며 현무를 향해 곧추 걸어왔다. 병기과장 김형식이였다.

《병기과장동지, 작업휴식중입니다.》

《수골하오. 화력부관동무! 한데 이건 작업이 아니라 여기선 전투임무중이라고 하오.》

그는 현무의 손을 잡고 속까지 꿰뚫어보려는듯이 작고 예리한 눈으로 깔끔히 보았다.

현무는 눈길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다.

자기의 속을 그가 전부 알아보기나 한것처럼.

아닐세라 형식은 그런데를 들추어 말꽉지를 땄다.

《어뗳소?》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문 나사가 풀렸구만.》

병기과장 김형식은 미간을 찡그리였다.

현무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형식은 전사들이 본다는것도 잊고 성급히 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을 꺼내보오. 활기는 없고 웃단추는 열어졌지, 대답엔 맥이 없지.》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긴장해야 되오. 반포는 몇개의 땅크지만… 이건 지역이며 사단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김형식은 이제껏 이 말을 못박으려고 한듯 낯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유선형이가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괩목설치한 창고들을 다시 돌아보던 그였다. 김형식은 그가 경례를 하기도전에 정중히 손을 귀전에 올려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선형이를 될수록 보지 않으려 하며 나직이 말했다.

《오늘 저녁과 밤으로 포탄이 들어옵니다. 하차로력은 줄수 없답니다.》

《…》

선형은 량미간에 주름살을 지은채 덤덤해있다가 미안쩍은 어조로 물었다.

《보충해줄 인원이 없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네가 할수 없다면 욕을 먹을셈치고 제기해보겠소. 보충없이는 못하겠다고―》

《사정이 그렇다면 구태여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형의 이 말에 형식은 눈살을 찌프렸다.

《거기 사정은 거기 사정이고 우리야 제 임무부터 생각해야잖소. 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글쎄 사람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다면야 우리끼리 할수밖에―》

《그렇다면… 좋지요. 동무가 한다는데 내가 반대할순 없구요.》

선형의 얼굴이 뻘겋게 질렸으나 다른 말은 없었다. 그는 가슴을 내밀고 크게 숨을 들이긋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전사들은 해낼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들 덤덤히 있었다.

현무는 병기과장 형식이와 선형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간격이 있음을 포착하였다. 기질상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사업과정에서 그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서로 어려워하면서도 어딘가 불만해하는듯한 태도들이였다.

하기는 한때는 그들이 다같은 부과장들이였다. 원래있던 사단병기과장이 군단병기부로 소환되면서 형식이가 병기과장이 되였는데 그로부터 열흘만에 선형이가 병기창고장으로 해임조동되였던것이다. 그러니 서로 어색한 관계일수 있다는데는 일정하게 리해가 갔다.

그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나와 담배 한대를 피울가 말가했을 때 첫 포탄차들이 도착하였다. 호

송군관은 여기저기 널린 초가집 《창고》들과 매 차에 붙는 인원이 서너명정도밖에 안되는것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

《도대체 어쩌자는겁니까. 새벽전으로 한탕씩 더 해야 되는데—》

《군화호송증》을 넘겨주면서 근심하는 호송군관에게 선형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10분을 넘기지 않을게요.》

작업조직을 끝내고난 선형은 웃동을 벗어붙이며 농삼이를 향해 왼쪽눈을 끔쩍하며 웃었다.

《우리가 각기 한차씩 말자구.》

하면서 그는 제일 첫 입구의 창고에 붙여놓은 자동차에 다가갔다.

《자, 충기, 뭘 하고있어. 메워라.》

언제 준비했던지 그의 어깨에는 솜장갑이 놓여있었다. 두사람이 상자를 맞들고 비칠거리며 어깨쪽에 가져다 대는 순간 《끙》 하더니 80키로짜리를 공기돌처럼 가볍게 메고달렸다.

《자, 메였다! 농삼이 달려라!》

선형은 창고에 들어가 맵시있게 앉으며 두줄로 맞춘 굄목우에 상자를 사뿐히 놓는것이였다.

《저건 예술이요.… 어쩌겠소. 우린 저런 재간이 없으니 맞들어 나르자구.》

형식이가 이렇게 청하는바람에 현무는 자기도 메여볼가 하다가 그의 짝이 되여 상자를 나르기 시작하였다.

《창고장동지! 8개짼니다.》

《난 9개째다!》

《아니, 창고장동지는 5개를 날랐습니다. 난 10개짼니다.》

《우린 20개짼니다.》

작업장은 씩씩거리는 가쁜 숨소리와 호기있는 웨침

들로 들썩거렸다.

그 소리에 맞추려는듯, 그 률동에 어울리려는듯 형식은 《빨리!》, 《빨리!》 하며 연방 재촉하였다.

현무는 부상처의 동통으로 찡그려지는 얼굴이 밤어둠때문에 드러나지 않는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상자를 메고 그대로 달리는 선형이며 농삼이며 전사들을 보고 그 힘과 상자다루는 《기교》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선형이와 농삼은 각기 한차씩을 맡아서 혼자서 메였는데 세사람이 메는 조보다 앞서 끝냈다. 《10분동안에 끝냈구만.》 호송군관이 혀를 두르며 감탄할 때 선형은 흐뭇해서 말했다.

《빠르지 못했소. 2분을 초과했거던.》

차들이 부릉부릉 발동을 걸고 좁은 길이라 몇번씩 후진선회를 하여 떠나가자 전사들은 약속이나 한듯 펄썩펄썩 주저앉았다. 현무도 다리맥이 싹 풀리며 주저앉고 싶은걸 간신히 참았다. 꺾쇠뼈부근이 쑥쑥 저려났다.

김형식은 주저앉은 전사들을 살피다가 엄하게 말했다.

《옷들을 입으시오. 감기들겠소.》

하고는 회중전등을 꺼내들고 창고로 들어갔다. 선형의 말소리가 그 창고에서 울려나왔다.

《왜 들어옵니까? 쉬지 않고.》

《어째 혼자서 하시오.》

문이 닫기며 말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현무는 풀밭에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덜거덕탕 하는 소리에 창고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자 마주치는 그 소리는 계속하여 났다.

《지휘관이 되면 참 힘들지.》

풀밭에 누운 한 전사가 소곤거렸다. 그러자 불퉁스런 목소리가 타발했다.

《동무가 상자를 똑바로 못맞춰놓은 모양이구만.》

《난 정확히 쌓았어.》

그 소곤거림에 현무는 부지중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휘관이라는 의미에서는 자기 역시 그들과 다를바 없겠으나 주저앉아있는것이다.

그는 아픈 어깨를 꾹꾹 누르고 우쩍 일어났다.

그러나 창고에로 다가간 그는 문을 열려다 말고 손을 내리고말았다.

《선형동무… 난 정말 동무보기 딱하오.》

《그 말은 하지 맙시다. 난 지금의 나의 자리를 조금도 나무람하지 않수다. 그저 가슴아픈건 그때 랑패를 본… 랑패를 본 그 사실이지요.… 그리구… 진정으로 날 동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감정은… 잊으시오.》

《잊게 안되오.… 그래서 오늘도… 인원을 더 받자고… 떼질하다왔소. 동무도 인원을 요구한다면… 사단장동지한테까지… 제길하려고 했지… 난… 동무일이… 잘 안될가봐 걱정이요.》

《과장동무… 그런… 사사로운 감정은 진짜 해롭소. 이 선형의 체면같은게 무슨 문제요. 큰일을 두고… 처벌이나 강직이 뭐요.… 그런걸 생각다간… 아무일도 못합니다.…》

《허허… 그건 동무로서는 그렇게 말할수 있지만.》

《차가 또 오는것 같군요.》

현무도 기관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없이 창고에서 물러났다. 문이 열리며 전지를 든 선형이와 형식이가 허리를 굽힐사하고 나왔다.

새벽 2시까지는 차들이 거의 연방으로 꼬리를 물다싶이했다. 단 2～3분도 쉴새가 없이 80～100키로짜리 상자들을 부리고 쌓았다.

현무는 자주 비칠거렸다. 마주선 형식이 역시 그랬다. 모두의 입에서 헉헉 하고 가쁘게 쉬는 숨소리가 울렸다.

《자, 기운들을 내자구. 상자들을 꽉 잡으라구. 신관이

있는거요.》

선형이의 걸걸한 목소리가 이따금 그 숨소리를 짓누르며 울렸다.

차들이 발동을 걸고 호송원들이 《수고했습니다.》 하는 인사말을 할 때면 지쳐버린 대원들은 나무넘어지듯 쓰러지며 《잘 가시오.》라는 말을 가까스로 번진다. 그리고 둘셋을 셀 사이에 코를 고는 전사들도 있다.

현무는 떠나가는 차의 빨간 후미등이 껌벅이며 사라지는것을 지키다가 그자리에 쓰러졌다. 돌투성이 땅이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되여 그의 몸을 받아안는다. 그다음 몸은 아득한 나락속으로 마치 구름을 탄듯 서서히 내려간다. 누군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으나 돌아볼 힘이 없다.

《이걸 씹으십시오.》

농삼이가 현무에게 땅땅 굳은 누룽지를 주고는 저쪽으로 가려 했다. 현무는 그의 팔을 잡았다.

《힘들지 않소?》

농삼은 싱그레 웃으며 별빛을 받아 더욱 빛나는 눈길로 현무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습관이 돼서 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덮인 땀은 그 역시 몹시 힘겨워하고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어깨를 보기요. 떡살이 얼마나 배기면 일없는가.》

현무는 단추를 터놓은데 손을 디밀어 그의 어깨근육을 만지려 하다가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어깨껍질이 벗겨졌던것이다. 그래도 농삼이는 싱그레 웃고있다. 현무는 그가 어린애라면 꽉 끌어안아주고싶었다.

《다음부터 메지 마시오. 메워만 주고.》

《원 중위동지두—》

농삼이는 엉금엉금 저쪽으로 갔다.

《충기, 자나? 이걸 씹으라구.》

현무는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온몸이 천길나락속에 떨어져내리는것만 같았다. 형식이와 선형이가 나누던 대화의 토막들이 떠올랐다.

(선형이의 강직건을 두고 과장동지가 괴로와하는구나. 그건… 좋은 일이지. 좋은…)

현무의 생각은 끊어졌다. 잠에 진것이다. 그는 구름을 타고 안개의 바다를 헤쳐가는 꿈속에 빠져들었다.

현무는 빨간수기를 들고있었다. 가로수들이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갔다.

뒤에는 그처럼 빨간수기를 든 포병지휘관들이 탄 차가 따른다.

차대렬은 끝이 없다. 포수들은 우렁차게 군가를 부른다.

현무도 노래를 불렀다.

앞에 넓은 벌이 펼쳐졌다.

갑자기 그리로 적땅크가 새까맣게 밀려들었다.

《주의! 섯,포 전투준비!》

벌판에는 횡렬로 포들이 배치되였다.

적땅크들의 포탑에서 불꽃이 번쩍했다.

수십수백대의 적땅크에서 시뻘건 포탄이 쏟아져나오자 온 대지가 우르릉거렸다.

그런데 현무네의 세개의 포는 침묵하고있다.

《발사!》

그러나 포탄은 나가지 않는다. 땅크들은 기승스레 다가왔다. 땅크가 지나온 벌은 불과 포연에 휩싸였다.

현무네가 이제 적땅크를 부시지 못하면 저 화염속에 말려들것이다.

현무는 목쉰 소리로 《쏴!》,《쏴!》 구령을 연신 쳤으나 포수들은 까딱하지 않았다. 포탄이 없다는것이다. 현무는 미칠지경이였다. 그때 《허허!—》 하고 웃으며 유선형이가 소랭이에 순두부를 하나가득 담아가

지고 나타났다.

《목쉰데 이게 좋다니.》

《싫습니다. 포탄을 주시오.》

순간 순두부도 유선형이도 사라지고 땅크의 무한궤도가 눈앞에 다가든다.

《에익! 이놈을.》

지철을 눌렀으나 포탄은 나가지 않는다. 무한궤도는 계속 다가온다. 우릉우릉하는 동음은 고막을 터뜨릴것만 갈다. 눈을 떴다.

부릉 부릉!

소리는 계속 들린다. 그런데 하늘이 훤했다. 산봉우리우에서 새벽별이 희미하니 사위여가고있다.

현무는 화닥닥 놀라며 눈을 비비였다.

일어나 앉았다. 맞은편 빈 창고앞에 상자를 곡식낟가리처럼 실은 차가 서있다.

그런데 전사들은 부릴 념을 안하고 빙둘러 모여서있다.

현무는 주변에 누구도 없고 자기 혼자 누워있다가 일어났음을 알았다. 그는 창피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바자를 치고 선 전사들앞으로 나가던 현무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얼굴이 희다못해 푸르게 변한 두명의 낯모를 군인이 반듯이 누워있었다. 한사람은 소위였는데 오른쪽가슴이 피투성이였고 그옆에는 보숨털이 보르르한 상등병이 입귀에 피를 흘린채 고요히 잠들어있었다. 두 사람의 군복은 군데군데 불타있었다.

얼굴이 온통 거멓게 그슬린 운전사가 퍼더버리고 앉은채 눈물을 뚤렁뚤렁 떨구며 이야기하고있었다.

《…운전칸이 직탄을 맞았습니다. 그래 앞차의 운전사 동무와 협조원의 시체는 찾지조차 못했습니다. 저 호송군관동무는 널려진 포탄상자를 나랑 함께 이 차에 싣다

가… 그 망할놈의 쌕쌔기가 날아가며 갈기는바람에 저렇게… 되였…습니다… 나… 물！…》

운전사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어느름에 충기가 바께쯔채로 물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였다. 운전사는 물을 마실듯하다가 옆으로 픽 쓰러지고말았다.

《지나친 긴장으로 인한 허탈이요.》

형식이가 조용히 말하며 운전사의 머리를 받쳐든채 손수건에 찬물을 적셔 이마를 문질렀다.

현무는 그와 이미 숨을 거둔 두명의 군인들을 보다가 자동차에 시선을 주었다.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기관실우가 우묵하게 휘여들었다. 번호판 절반은 톱으로 에여놓은듯이 잘라져있었다.

적의 항공습격을 받았던것이다.

말없이들 상자를 부리웠다.

전사한 두사람을 적재함에 모포를 깐채 눕혔다. 그때까지 운전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선형은 제 무릎우에 운전사의 머리를 베운채 줄담배질을 해댔다. 잘 아는 운전사라고 했다.

형식은 부려놓은 상자를 다 세고나서 천천히 걸어오며 침울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스물두상자가 못왔소. 마지막 차였는데… 희생만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운전사가 깨지 못하는것을 보자 그는 자기가 차를 몰고가겠다고 했다. 그쪽에 볼일도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가 차에 올라 발동을 걸었을 때 운전사가 눈을 떴다. 짐을 부려놓은 차와 둘러선 사람들을 보자 그는 미안한 기색이였다.

《내가 너무 오래 잤군요. 해뜨기전에 신도리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현무는 그 말에 코언저리가 시큰해지는것을 느꼈다.

《동문 차를 못몰아.》

선형이가 성난 어조로 잡아뗐다. 운전사는 눈이 덩둘해졌다.

《무슨 소릴 합니까?… 지금이 어느때라구요.》

《때야 관계있나. 못몬다면 못모는것이지.》

《차, 깜깜이군요—》

운전사는 혀를 차며 거의 깔보는듯한 눈길로 선형이를 보다가 문득 소리를 낮춰 소곤거리듯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선에 나와계십니다. 때가 어떤 때인줄도 모르는군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어떻게 알았소?》

선형이가 운전사의 손목을 꽉 움켜잡으며 부르짖었다. 전사들이 모여오고 운전칸에 있던 형식이마저 뛰여왔다.

《선두병공창에서들 그럽디다. 그쯤하면 알아야지요. 아, 요즘 전선동부에서 어떤 격전이 있는지 모릅니까? 이제 이쪽에서두 벌어질겁니다. 무엇때문에 이 많은 포탄을 일루 보내겠습니까.》

운전사는 끝내 떠나갔다.

푸름푸름한 새벽빛속에 사라져가는 차를 바래던 전사들은 다른 때면 그자리에 꼬꾸라졌겠지만 누구도 누우려 하지 않았다.

《글쎄 이번 작전은 어마어마하대.》

《벌려놓는 케가 특별하거던.》

병실에 돌아온 현무는 인차 잠들수 없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끝내는 차를 몰고떠나간 운전사와 피젖은 군복에 싸여 고요히 잠든 얼굴들, 상자를 메고 악악 소리치며 내닫던 전사들의 얼굴이 엇돌며 떠올랐다.

무엇때문에, 무슨 힘이 그들을 이끌고있을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에 나오신 때라고 하며 의기양양히 떠나가던 운전사의 긍지와 자부에 넘치던 얼굴.

그 긍지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가.

장군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체를 바치겠다는 각오가 있을것이다.

그는 장군님을 위한 싸움의 길에서 결코 화선의 전투원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에 충만되여있다.

화선이란 순수한 전방만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설사 최후방에 있다 해도 그가 자기의 전체를 바쳐 싸운다면 그도 화선에 선 전투원일것이다.

화선! 그 위치는 네 마음속에 있다.

나는 아직 자기위치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다.

현무는 위치에 대하여 현학적인 《정의》를 내리던 태룡의 말을 곰곰히 더듬어보기도 했다.

그의 말도 옳은것이였다.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여기는 온몸의 힘과 열정과 정신력을 증오와 징벌이라는 하나에 재워 까부실 목표인 적땅크도 없고,무한궤도밑에 수류탄을 안고 들어가 폭발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삶을 바친다는 환희롭고 비장한 궁지의 조건도 없다.

그러나 땀과 피와 고통이 흐르는 인내와 의지의 로동이 그런 숭고한 감정에 뿌리박지 않고 어찌 이루어지랴.

여기도 화선이다.

현무는 이런 생각에 궁싯거리다가 12시반까지 내처 잤다.

깨여보니 퇴창으로 밀려들어오는 엷은 해빛이 눈을 시게 했다. 그런데 옆자리에 누웠던 선형이는 보이지 않고 구겨진 모포는 발치에 가 부풀어있다.

다른 전사들은 코를 골기도 하고 입으로 풀무를 불기도 하고 꺽꺽 신음소리도 내며 요란스럽게들 자고있었다.

그런데 웅글은 폭음이 울려왔다.

밖으로 황급히 달려나가보니 토굴앞에 선형이가 고

개를 찌불서하고 서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송천리다리를 치는것 갈네.》

현무는 그때에야 비행기소리와 폭탄의 작렬음을 똑똑히 들었다.

《폭격한지 오래답니까?》

《모르겠어. 나도 저 소리를 듣고 깨여났으니까.》

《아니,저 소릴 듣고 깨여났단말입니까?》

선형이처럼 생긴 사람들은 집이 무너져도 끔쩍않는 신경을 가졌음을 전쟁의 나날에 여러번 목격한 현무였다.

《근데 저 개새끼들이 이쪽으로 오면 야단이거던.》

선형은 그쪽 하늘만 쳐다보았다.

이제는 기총사격소리까지 들렸다. 30리가량 되는 곳이다.

《벌써 세번째요. 또 역사질을 해야겠구만.》

《공병들이 있겠지요.》

《글쎄 그들도 한다지만… 다리를 빨리 못고쳤다가 갑자기 발급하라면 어쩌겠소. 다리가 구실이 되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선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다.

《그렇게 하기요. 병기과장동무한텐 내가 승낙을 받겠소. 그리고 난 그와 함께 포탄접수대장을 만들겠소.》

한자리에 배겨있는데 근질거려난 전사들은 송천리로 간다고 하자 무턱대고 좋아들했다. 선형은 떠날 림박에 공구준비상태를 알아보다가 자동차 위장이 잘 안된것을 보고는 버럭 성을 내였다.

《뭐 놀러들 가는줄 알아. 매인당 위장풀 두단씩 해올것!》

모였던 전사들이 와하고 흩어져 숲으로 뛰여들었다. 한데 충기만은 이 일이 시답잖은듯 그냥 서있다가 선형의 엄한 눈길을 받고서야 억지걸음을 떼였다.

그는 선형이를 곁눈질하며 들으라는듯 풍월인지 타령인지 모를 소리를 읊조리는것이였다.
《폭격은 끝났겠다, 때는 오후요. 해는 바야흐로 떨어질 때라, 전선은 멀고 산골은 깊은데—》
선형은 눈살을 찌프렸으나 웃고말았다.
충기는 어데 가서 마른 새초를(아마 후방부마사원이 말을 먹이려고 베여놓은것일것이였다.) 둬웅큼 쥐고 싱글싱글 웃으며 나타났다.
현무는 아예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싶지 않아 외면하였다. 한데 그는 비위좋게 현무에게 다가오며 제먼저 입을 떼였다.
《깔고 가자는것이지요.》
마른 새초를 보란듯이 흔들었다.
《우리야 이런 시시한 〈로동〉엔 손님격이지요.》
충기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듯만싶었다.
순간 현무는 뼈아픈 반성과 수치감을 동시에 느꼈다.
충기의 행동이야말로 희생된 포탄호송병들이며 벗어진 농삼이의 어깨에 대한 무시처럼 여겨졌다.
현무는 자기의 감정이 지난 기간의 자신에 대한 반발로 하여 더욱 격해짐을 잊고 엄하게 말하였다.
《동문 여기 떨어지오. 기타는 승차!》
현무가 다른 대원들에게 눈길을 돌리자 충기는 오만상이 되여 한걸음 다가섰다.
《어째 떨어지라는겁니까?》
《최충기동무!》
현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날카로왔다.
최충기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까딱않은채 숨만 가삐 쉬였다. 현무는 여전히 그를 엄하게 보며 말했다.
《동문 군인이요.… 그리고 지금은 놀러다니는것이 아니요.》
현무는 그에게서 돌아서서 유선형에게 다가가 절도

있게 보고했다.

《창고장동지, 다리복구장에 갔다오겠습니다.》

유선형은 황황히 경례를 받으며 울그락불그락해진 최충기와 눈매가 서리낀 하늘같이 랭랭해진 현무를 엇갈아보았다.

현무의 눈길과 선형의 눈길이 일순 마주쳤다.

《양보를 하지, 응?》

《안됩니다.》

두 시선의 맞부딪침은 이것으로 끝났다.

유선형은 꾸짖는 기색으로 최충기를 일별하고는 기침을 쿨럭쿨럭하며 현무더러 어서 가라 손짓하고 돌아섰다.

현무는 충기를 보며 벌목시에 도끼를 던져버리던 일을 제때에 깨우쳐주지 않은것을 심심히 뉘우쳤다.

8

연기가 채 빠지지 않은 다리주변은 사람들로 끓었다. 사민들도 있었다.

현무는 50여메터의 길이를 가진, 산간다리치고 매우 큰 다리의 중간이 뭉청 무너져내린것을 알아보았다. 선형의 예견이 맞았던것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솜씨들이 어떻게나 잰지 벌써 나무들이 죽죽 건너가 본래의 형체를 살리고있었다.

현무가 공사지휘관을 찾으니 키가 작달막한 공병부소대장이였다. 그는 자기보다 머리 한기장은 더 큰 목이 설렁한 웬 운전사와 말다툼을 하고있었다.

공병부소대장은 목소리를 높였고 운전사는 낮추었다.

《안된다지 않소. 운전사동문 눈이 없소? 여길 어떻게 건는다고 그러오.》

《거 기둥이랑 가름목이랑 다 세우지 않았소. 원, 어떤데서는 사람으로 기둥을 놓고 차를 건네보내기도 하더니.》

그 말에 공병부소대장은 빨끈 성을 내였다.

《동무, 그런 말같잖은 소린 하지두 마우. 우리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우릴 어떻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때 딱 옹고집이요? 저 물자가 어떤건지 아오? 전선에서 초를 다퉈가며 기다리는 거란말이요. 전선형편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알지 못해. 하여튼 안되오. 우린 사단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소.》

이렇게 말한 공병부소대장은 도끼를 든채 홱 돌아섰다. 그는 현무를 보자 이건 또 웬 떼질군이 왔느냐는 듯 곱지 않게 눈섭을 치떴다.

《군관동지, 도로수리가 끝날 때까지 일체 통과자들을 다리작업에 동원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현무는 이 오달지게 생긴 공병부소대장의 어마어마한 말투에 웃음이 나는걸 간신히 참으며 정중히 말했다.

《작업인원이 18명이요. 어데다 붙이라오?》

공병부소대장은 현무를 보다가 저쪽 다리목에 완전한 작업준비를 갖추고있는 농삼이네를 보고는 얼굴이 환해져 현무의 손을 꽉 잡는것이였다.

《고맙습니다. 글쎄 다 이래야지요.

7시까지 보수하라는 후방부사단장동지의 명령입니다.

군관동지는 이런 동무들을 좀 통제해주십시오. 영 벽창호입니다. 그런데 저… 데리고 온 동무들중에 저보다 직급이 높은 동무는 없습니까?》

《없소.》

《그러면 두시간동안 저 동무들을 저의… 권한밑에 배속시켜주십시오. 중위동지는 이 길 통제를 하시구요.》

《좋도록 하기요.》

현무는 공병부소대장의 제기가 현명하다는것을 알고 선선히 응했다. 그는 작업에 대한 몇마디 의견을 주고 농삼이네를 공병부소대장의 지휘에 맡겼다.

이러는동안 멀찌감치 피해 하회를 기다리던 운전사가 공병부소대장이 사라지기 바쁘게 현무에게 다가왔다.

그는 옆에서 일하는 사민들이 눈이 퀭할 정도로 정보로 걸어와서는 기세좋게 경례를 붙였다.

《중위동지,운수중대 분대장 엄문규 만날만 합니까?》

《왜 그러오? 동무도 일해야 할게 아니요.》

《…병기창고장 유선형동지가 안왔습니까?》

《안왔소.》

《그를 알지요?… 전 사실상 병기과의 직속운전사와 다를바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저희도 나르게 된답니다. 쇠만두(수류탄)운반에야 우리가 없으면 안되지요.》

《용건은 뭐요?》

현무가 운전사의 끈덕진 말에 웃음을 띠우자 운전사는 제법 사기가 나 히쭉 웃었다.

《사실 저… 우리건 긴급물자인데 오전중으로 도착해야 할겁니다. 한데 저 고집쟁이는 다리우에 흙을 입힐 때까지 잡아둘 심산인데 그렇게 되면 나야 영낙없이 〈명령위반자〉로 될것 아닙니까. 쇠만두운반령이 내려두 명령위반자니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거구요.》

《무슨 물자요?》

《그건 비밀입니다.》

운전사 엄문규는 빳빳이 차렷을 하며 자기의 군사적 절도로 비밀을 대주지 못하는것을 량해라도 구하는상싶었다.

《알겠소. 하여간 지금은 일을 하오. 저 공병부소대장 동무가 승인을 하면—》

《하참! 이건… 좋습니다.》

엄문규는 툴툴하며 돌아서가다가 아름드리 통나무 한대를 골라잡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현무를 불렀다.

현무는 껍질을 벗긴 느릅나무를 메다말고 엄문규가 손짓하는데로 따라갔다. 문규는 능청스레 웃으며 말했다.

《군관동지, 이걸 하나 메면 통과증이 나오지 않을가요? 방조를 주십시오.》

혼자서는커녕 둘이서도 메기 바쁜 통나무였다.

엄문규가 한번 골탕을 먹이련다는것을 안 현무는 씽긋이 웃었다.

《자신있소?》

《글쎄, 중위동지가 한쪽을 메여준다면… 저쪽 꼬리쪽을 메십시오.》

《아니 그쪽은 동무가 메오.》

둘이서 그 생나무를 메려는것을 알자 로인들이 범치듯 말렸다.

그러나 메였다.

현무는 어제밤 상자를 처음 나를 때처럼 입을 악물었다.

사람들이 환성을 올렸다.

《군대들이 달라.》

사민들의 말이였고,

《허 군관동지가 보통이 아닌데.》

하는것은 공병친구들이였다.

농삼이네는 엊그제까지 병원생활을 했다는 이 중위가 혹시 넘어지지나 않겠는가 하고 손에 땀을 쥐였다.

통나무는 버팀기둥자리인 강복판에까지 날라갔다.

《어때, 또 하나 고르라구.》

나무를 내려놓고 현무가 요구하자 그러지 않아도 숨이 차 헐떡이던 엄문규는 울상을 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군관동지… 내 나무대 하나

흔들지 않고 건널테니 이 사람들을 잠간만 피하게 해주시오.》

현무는 망설였다.

통나무만 건너질러 아직은 틈새가 숭숭하지만 잘하면 차는 건널수 있을것 같았다. 이런 때 뒤에서

《여기 지휘관이 누굽니까?》 하는 목소리와 함께 불그스름한 얼굴의 소성 세알을 단 군관이 인상좋은 웃음을 짓고 마주왔다.

《무슨 일때문입니까?》

현무는 방금전까지 없었던 무선차가 다리끝에 와 머물러선것을 눈여겨보며 상위에게 되물었다.

상위는 인츰 대답을 않고 다리와 작업하는 전사들을 신중한 눈길로 살피다가 담배갑을 꺼내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안피웁니다.》

《군단에 가서 위문품으로 온결 한갑 얻은겁니다. 일이 끝나면 저 동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현무는 담배를 받으면서도 눈길은 무선차에서 떼지 못했다.

저런 차에 소림이가 타고다닐것이였다.

그의 머리엔 이제껏 《포탄》과 《창고》에 가리워 잊혀졌던 소림이가 종잡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슴을 이상스레 들추어놓았다.

《…통신기재를 가져가는건데… 무선차입니다. 작전개시전에 제일 바쁜 차지요.》

상위의 말이 바람결처럼 지나갔다. 그런중에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뇌리를 치며 자기의 때맞지 않은 생각을 꾸짖는듯하였다.

그는 상위와 다리를 일별하고 조용히 말했다.

《준비하십시오.》

현무는 량해를 구하러 공병부소대장을 찾았다.

《역시 별을 달아야겠군.》

엄문규가 투덜거리며 돌아서다가 현무의 눈길과 마주치자 당황한 웃음을 보내며 긴 팔을 휙 쳐올려 경례를 했다.

《감사합니다. 중위동지.》

현무는 공병부소대장에게 말하여 당분간 작업을 중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건만 장화를 벗고 다리에서 내려 강물에 들어섰다.

공병부소대장의 결심을 변경시킨데서 오는 일종의 미안스러움이 그를 보조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속에 들어서게 만든것이다.

엄문규의 차가 제일 먼저 다리를 건느게 되였다.

덜렁거리던 품으로 봐서는 여간만 조심스럽지 않게 새색시 첫날걸음처럼 얌전스레 차를 몰았다. 그런중에도 여유가 있어 그는 운전칸에서 한손을 내밀고 흔들어댔다. 그 차에서는 금시까지 다리복구에 조력했던 세명의 군인들까지 마치 현무네를 처음 보는 사람인듯 손을 저었다.

전선으로 가기때문인것이다.

래일이면 벌써 그들은 몇메터의 계선을 담당하고 앞에 나타나는 적을 쏴눕힐것이다.

현무는 물에 반사되여 비쳐오는 해빛에 눈시울을 쪼프리면서도 그 차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의 마음이 가닿는 전선으로 가는 차이기에.

마지막으로 무선차가 지나갔다.

조그마한 차창문이 열렸다.

인상좋은 그 상위가 무어라 인사말을 하며 손을 젓는다. 그 얼굴과 나란히 또 하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둥근모자밑에 곱슬곱슬한 머리,희고 갸름한 얼굴.

《녀성군관이구나.》

《협주단배우 아니야?》
첫순간 현무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다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는 차안의 녀성이 다름아닌 소림임을 알았다.
심장이 놀란듯 후두둑 뛰였다. 반가움에 찬 웨침이 튕겨나오려 했다. 그러나 유난히 크고 검은 소림의 두눈이 자기에게 멎자 그 웨침은 입안에 잦아버리고말았다. 측은한 빛을 띤, 어딘가 애수어린 소림의 눈은 현무를 전혀 생소한 사람처럼 봤던것이다.
《소림!》
그 말은 입속에서 조용히 울렸을따름이였다.
고개를 떨군 현무는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소림은 통신기재를 타가지고 돌아가는길이였다.
《저 동무들이 참 수고하오. 이름도 없이, 영예도 없이—》
후방부 군관의 말에 바깥을 내다본 소림이의 첫눈에 뜨인것이 다리에 보조받침대를 번치고 선 흰 내의바람의 군인들이였다. 그들속에 유독 군관복상의를 그대로 입고 까딱않고있는 군관이 시선을 끌었다. 그 얼굴에 시선이 가멎었을 때 소림은 화석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저 군관동무가 아니더면 그냥 기다릴번했소. 리해성이 있두만.》
(어찌된 일인가. 환각인가?)
오른쪽눈가에 검스레한 상처자국만이 다를뿐이였다. 다음의 모든것은 현무였다.
곧은 눈섭, 유난히 까만 눈, 꾹 다문 입, 창백한 얼굴…
소림은 눈앞이 핑 돌았다.
혹시 그가 아닐가.
《차를 세워요.》

소림은 의식하지 못하며 청했다. 하나 그의 실날같은 목소리는 자동차의 소음에 묻혀버렸고 차는 그대로 달렸다.

그사이에 그 군관은 저만치 멀어져갔다.

그는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비칠하다가 몸을 다잡아 세운다. 그리고는 고개를 수그리고 물만 쏴본다.

《이자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후방부 군관이 눈이 휘둥그래져 물었다. 소림은 고개를 저었다.

《혹 아는 동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젠 다리를 넘어선것 같은데 세울가요?》

《아니, 아는 사람… 없어요.》

소림은 얼결에 말하고나서 혀를 깨물었다.

(그가 만약 진짜 현무동무라면…)

가슴이 싸늘히 식어들었다.

현무가 설사 배척해버린 《좋지 않은》 인간이라쳐도 이 전쟁에 함께 나선 전우일진대, 더더구나 부상까지 당한 동무일진대 응당 인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가령 그가 현무였고 나를 알아봤더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가.

그렇게 되면 나는 례의도 인정도 말라버린 맹꽁이지. 아이, 이를 어쩌나.

소림은 안타까왔다. 차가 조금만 더디게 달렸어도 똑바로 알아봤을걸 하는 생각이 더욱 그를 조바심치게 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합니까?》

《아까 그 동무들은 공병들이겠지요?》

소림은 후방부 군관을 똑바로 보았다.

《네. 늘 저런 역사를 하지요.》

《그럼…》

소림은 머리속에서 뱅뱅 돌아가는 의문을 입밖에 낼가말가 망설이다가 끝내 물었다.

《저… 포병에서 화력부관으로 있다가 공병에 갈수도 있나요?》

《화력부관이 공병으로요? 원 천만에.》

후방부 군관은 너털웃음을 웃고는 친절한 태도로 설명했다.

《포병들은 전투에서 저힐 사자어금이만큼이나 여기지요.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런 포를 지휘하는 화력부관이 다리밑둥이나 와서 받치고있겠습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면 몰라도… 사람을 착각한게로군요.》

후방부 군관은 알만하다는듯이 너그럽게 웃었다. 소림은 황급히 부정했다.

《그런게 아니예요. 참 저긴 어저께 올 때만도 그네가 있었는데 폭격을 맞았군요.》

소림은 자기의 복잡한 심중이 드러날가봐 겁냈으며 또 자신 그 혼란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잊고싶었다.

후방부 군관은 밖을 내다보고는 철학가연한 표정으로 실눈을 지었다.

《전쟁이니까요.

나무가 있었는가 하면 없고 엊그제까지의 잔디밭은 폭탄구뎅이로 되고… 이건 좋지 않은 의미에서지요. 사람으로 말하면 남남이던 사이가 죽자살자하는 전우로 되고, 벗으로 되고… 이건 좋은 의미지요.》

그저께부터 듣는, 명백한 사실을 아리숭한 론리의 그물로 엮어대는 그의 장광설에 소림은 늘 웃었으나 지금은 잠자코 있었다.

소림은 두팔로 무릎을 감싸안고 흘러오고 흘러가는 마을과 야산들을 바라보았다.

비에 씻겨 사태진 산비탈, 마른 쑥대와 새초가 설렁거리는 묵은 밭들, 희뿌연 구름에 가린 해그림자가 길게 건너간 산, 그저께 송아지를 끌고가던 소년이 넘어질번한 둔덕엔 움푹한 폭탄구뎅이가 생겨났다.

불에 그슬려 까칠한 강아지가 차를 보고 멍멍 짖어댔다.
이 촌락은 폭격에 하루사이에 없어져버리고만것이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지요. 이젠 심장이 저기에 다르게 반응해야지요. 아픔 대신 증오와 복수라는 차겁고 예리한 면역이 형성돼야 하거던요.》
후방부 군관의 말을 귀밖에 들으며 소림은 그저께 본 그 순박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수도 있으리라는것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자 문득 현무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현무를 그려보느라니 그 역시 다시 못볼수도 있으리라는 소름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아까 본 군관의 오른쪽눈가의 검스레한 상처자국이 확대되며 그 푸름푸름한 새벽 중상당한 현무가 실려왔다는 군의소로 달려가던 시각에로 이끌어갔다. 흰 붕대 널린 앵두나무밑에 서서 이따금 새여나오는 신음과 수술도구들의 절그덕거림과 군의들의 얼리는듯 위협하는듯하던 말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의 가슴떨림이 다시금 반복되는듯만싶었다.
…
《눈이 보일가요？》
현무의 목소리.
《마취가 잘 안됐군. … 주사！…》
《눈이 일없는가말입니다.》
고집센 성칼스런 웨침.
《이 동무가！… 일없소. 깨끗이 나을것이요. 상처자리 하나 없이！—》
낮은 신음소리가 뼈를 에이며 울렸다.
그때 소림은 어릴적처럼 손가락을 맞잡고 비틀었다.
《혈압은？》
《정상입니다.》
딸그닥！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요놈의 파편쪼박이 말썽이였군.》

1분 2분… 소림은 자기의 맥박이 서서히 떨어져내리는것을 느꼈다.

드디여 《됐소.》 하는 소리가 울렸을 때 소림은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그자리에 폴싹 물앉을것만 같았다.

《군의동지, 땀을 많이 흘렸군요.》

《허… 이 동무가… 동문 보통 체질이 아니군.》

소림은 한결 마음을 놓으며 그자리에서 물러났었다. 물러가며 자기가 어찌하여 이렇듯 허겁지겁 달려왔을가 놀랍게 생각하였다.…

그때를 상기하자 아까 본 눈가에 상처자국이 난 군관이야말로 현무라는 생각이 집요히 파고들었다.

소림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태룡동문 그가 중요한데 배치된다고 하잖았어.)

그렇게 되자 현무의 모습을 《이것이다!》 하고 똑바로 기억해낼수 없었다.

그 군관같기도 하고 전혀 그와 다른 얼굴로 떠오르기도 했다.

(확실히 난 나빠. 그에 대한 기억조차 선명하지 못하다니—)

이 순간 소림은 사람이란 때로 길가에서 한번 스쳐본 사람의 얼굴을 그 귀의 생김새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할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련인의 얼굴도 전혀 완성된 초상으로는 기억해내지 못하는수가 있다는것을 몰랐다.

과연 자기와 현무는 어떤 사이이며 그 래일은 어떨것인가.

아직은 해묵은 풀들이 파아란 풀싹을 가리우고 쓸쓸한 들에 마른 풀잎들이 날리고 여윈 나무들이 앙상한 자

태를 서글퍼하지만 미구하여 잎이 무성한 계절이 오는데 이 변화를 아는듯 모르는듯 축축한 전호나 메마른 모래 밭에 엎드려서 쏟아지는 총탄을 이겨내다가 문득 숨을 멈추고 새소리도, 꽃들의 설레임도, 다정한 사람들의 포옹도 모르고 영원한 망각의 세계로 가버리는것은 전쟁에서 있는 슬픈 우연이다.

현무와 자기는 한때는 가까왔다가 한발자국씩 물러나 평행선에 서있다.

이렇게 서로 물러선채 있다가 그 누구든 쓰러진다면 그는 몰라도 소림이 자기는 영원히 괴로움을 안고 모대길것이며 자기의 생은 쓸쓸할것이라는 생각이 눈물겨웁게 가슴가득 차올랐다.

만약 이때 현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면 소림은 손을 내밀고 말할것이다.

《좋지 않았던것은 다 잊어주세요. 저도 잊어버렸답니다.》

산굽이 하나를 돌자 사위엔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해는 먼 산봉우리뒤에서 가물가물 비치고있었다.

그쪽하늘에서는 연분홍 입김같은것이 피여올랐다.

미구하여 그 빛은 하늘을 가득 채우며 어떤 인간에게는 행복스런 추억과 환희와 정서를, 어떤 인간에게는 크나큰 비애와 슬픔을 더해주게 될것이였다.

《야간폭격기들이 기름을 넣는 시간입니다.》

후방부 군관은 명상에 잠긴 처녀군관의 사색을 자기에게 끄당기려 조심히 말을 떼였다.

그러나 소림은 여전히 창밖에만 시선을 주었다.

현무는 운전칸에 앉지 않고 전사들과 함께 적재함에 앉았다.

져가는 해의 마지막 입김인양 짙게 서렸던 황금빛노을이 사라지고 슬밋슬밋 기여드는 어스름이 멀리 촌가와

골짜기들에 차분히 내려앉았다.

전사들은 올 때와 달리 조용조용 노래를 불렀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

찌글써 등허리가 굽힌 소나무, 움푹 패인 검붉은 흙채기, 산비탈의 고압철탑에 틀어올린 까치둥우리가 눈앞으로 흘러갔다.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서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현무는 속으로 그 노래를 따라불렀다.

전사들과 하나의 감정이 되고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노래의 매 소절속에 소림이가 끼여들었다.

심장은 아까 그 순간처럼 뛰지는 않고 이제는 쓸쓸한 체념의 고개마루를 넘어서 쓰디쓴 미소만을 자아내지만 거기엔 그리움이 깊이 슴배여있었다.

소림을 알아본 첫 순간 그의 감정은 반가움이였다.

그러나 자기를 보는 눈이 전혀 남의 눈이 되여 측은함과 동정을 안고 주시할 때 받은 감정은 모욕감이였다.

소림이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떠오르며 그가 자기를 못알아본것이 아니라 모르는것처럼 하는것이라는 모욕감에 흐릿해진 리성의 음울한 목소리가 전신을 모닥불처럼 태웠다.

전사들은 뜨거운 눈길로 자기를 보며 웨치더라고 했지

만 그것이야 다리를 떠받든 전사들에 대한 감탄과 고마움의 인사였겠지.
현무는 랭혹히 자신을 비웃었다.
(소림은 결코 모르는척할 녀성은 아니다. 다만 그는 나를 의식적으로 잊었을따름이다. 그거야 충분히 그럴수 있지 않는가. 그가 나를 잊지 말아야 할 리유가 있는가.)
하나 이럴수록 서글픔은 독연처럼 심장을 휩쓴다.
아마 그것은 현무가 녀성들중에서 소림이를 가장 가까이 여기고 존경했기때문일것이였다.
소림은 그에게서 평범한 녀성이 아니였다.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의 상징이였으며 매일매시를 기쁨과 행복 속에 충만케 하는 힘이기도 하였다.
서울—인천방어계선전투에서 적기계화선견대와 피의 격전을 치르고 돌아올 때 살아서 다시 소림이를 만난다는것으로 그는 얼마나 크나큰 환희속에 있었던가.
하여 돌아온 즉시 취침시간이 넘었다는것도 잊고 소림의 병실로 달려갔던것이다.
그다음날 아침에 만났을 때 현무가 땅크와의 싸움에 대해서 파편과 총탄의 우박속에서 전사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켜 싸웠는가를 이야기할 때 소림의 눈은 황홀한 노을빛을 담고 자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없이 살틀한 어조로 부러움에 차 말하였다.
《남자로 못된것이 한스럽군요. 정말 반땅크포병이 부러워요. 나도 거기 있었더면 얼마나 좋았을가.》
이 순간 현무는 전투적갈망에 타는 처녀의 열정을 느꼈으며 동시에 남자로 태여나 포병군관이 되였다는 궁지를 흠뻑이 받아안았다. 그에게서 소림의 웃음은 행복의 선물과도 같았으며 그 아름다운 눈이 정 그윽히 자기를 볼 때면 취한 사람처럼 자기를 다잡기 어려웠다.
(이것이 혹 사랑이 아닐가.
전시에 내가 사랑에 취하다니—)

하면서도 그는 소림의 얼굴에 어린 미소와 그윽한 눈동자를 피해갈 힘이 없었다.

따뜻한 훈풍이 밀려와 가볍게 어리광치는 심정이였다.

현무에게서 이것은 일생에 처음 당하는 감정이였다.

선형이와 다툼이 있은 그 운명적인 날 소림이가 결별의 선고인양 차디찬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 때 일순간 그는 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때에야 자기와 그와는 갈라져서는 안되며 그가 없는 자기를 상상한다는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애정을 저도 모르게 소중히 간직한 그의 심장은 아프게 신음하였다. 하나 그는 멀어져가는 소림이를 향해 손을 뻗치지는 않았으니 그것은 단순히 스물셋나이의 젊은 자존심때문에만 아니였다.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공민적감정을 리해해주지 않는 한 화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무였다. 그러면서도 《리해해주지 못하는》 그 밑바탕에 무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정이 깔려있음을 알았다. 하여 현무는 이 《절교》에 번민하며 그가 되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것이였다.

현무는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 묵은해의 옷을 벗지 못한 황량한 들과 앙상한 활엽수들이 엉성히 서있는 산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 소림 역시 자기라는 인간을 생각한다는것은 조금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결론지었다.

(그러니 이젠 그와 더욱 멀어졌구나. 혹시 어데선가 만나 《무얼 하는가요?》, 《어떻게 지냅니까?》라는 인사말로 시작해서 옛날로 돌아갈수 있을가. 아니 그건 꿈이다.)

현무는 입술을 지그시 악물었다.

…

진군이다 진군이다 앞으로 진군 또 진군

원쑤 미제 물리치며 용감하게 나아간다
…

전사들은 신명이 나는 노래로 넘어가 자기네 젊은 지휘관의 명상을 현실로 이끌었다.

현무가 전사들을 둘러보자 농삼이가 그의 어깨에 볼을 댄채 나직이 물었다.

《어데 말째지 않습니까?》

《아니, 그저 피곤하오.》

《알립니다. 이자 졸더군요.》

《졸았댔소. 아직 병원냄새가 안빠진것 같애.》

차가 병기창고구역에 들어선것은 어두울무렵이였다.

9

그날밤 현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소림이로 하여 자극을 받은 심장은 억센 손아귀에 잡힌 새처럼 몸부림치며 그를 괴롭혔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그는 어둠속공간을 노려보며 자기자신의 박약한 의지와 군인답지 못한 태도를 비난해보기도 하였다.

기상구령을 고맙게 들으며 일어난 그는 신발을 꿰면서 《잊어야 된다. 잊어야 해.》 하고 느닷없이 중얼거려 선형의 의혹어린 눈총을 받았다.

새날이 시작되면서 현무는 이제부터 자기는 과거의 잡스러운 사념과 영원히 결별할것이라고 굳게 마음다지였다.

그러나 결심과 감정의 흐름과는 매양 맞아떨어지는것이 아니였다.

선형이가 작업조직을 하고 현무더러 떨어져 지도연구를 하라고 빈방에 떨구었을 때 마음속으로 지워버리려던 어제

날일이 또다시 그의 머리속에 갈마들었던것이다.

《나사가 풀렸어.》

그는 볼부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수류탄상자우에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의 온 정신을 거기에 쏟아부으려 이를 강물고 마주앉았다.

이를 강문 덕분인지 아니면 지도자체의 흥미때문인지 현무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얻을수 있었다.

보풀이 일다 못해 뒤면에 가제천을 붙인 지도에는 깨알을 뿌려놓은듯 잔 글씨들이 촘촘했다.

…두대가 은폐할수 있음… 사태가 자주 내림…주의！…

알수 있는, 알수 없는 부호들, 빨간색, 파란색 연필로 덧선을 그은 표기들로 가득한 지도는 이 지역일대의 도로들에 대한 해설서같았다.

선형은 이 지도를 현무에게 주며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을 했다.

《우린 길을 잘 아는것이 장땡이요.

그동안의 우리가 얻은 경험들이 여기 담겨있소.》

현무는 벌판과 산협, 강과 길, 적아의 대치선들과 쏘구역들을 보며 자기가 앞으로 호송할 구간은 어데일가. 그리고 자기는 어떤 경험으로 이 지도에 보충자료를 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노란색 연필로 덧선을 치며 뻗은 도로의 한 점에서 그의 생각은 멎고말았다.

×표로 강조된 그 점옆에는 화학연필로 《적기를 만나면 피할곳이 없음！》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포탄이 오지 않아 현무네가 실패했던 전투장에서부터 20키로 못미친곳이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형이가 항공습격에 포탄을 잃었던것이다.

현무는 그때의 정경이 눈앞에 되밟히우며 가슴속이 끓어올랐다.

선형이를 원망하고 규탄하며 몸을 떨던 일이, 그로 하여 자기에게 얼음같이 싸늘한 눈길을 던지고 돌아서던 소림이의 모습이 숨까지 막혀들게 하였다.

현무는 거기서 헤여나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일어나 뙤창문을 활 열었다.

새끼퉁구리를 메고 가는 두명의 군인이 눈에 띄였다. 땅을 보며 터벌터벌 걷는 한사람은 충기였다.

《충기가 풀이 죽었다니—》

아침 작업조직시에 지나가는 소리처럼 슬쩍 하던 선형이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때 현무가 얼굴을 붉히며 《제가 그를 떨군것이 잘못입니까?》라고 묻자 선형은 매우 궁색스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허, 무슨 잘못까지야… 그저 뭐라고 할가… 전사들이란 때로 응석을 부릴 때도 있어… 그 심정을 몰라주면… 랑패라니—》

불쑥 괴로운 의혹이 번개치듯 뇌리를 스쳤다.

(혹시 그가 소림이의 말처럼 지난날의 나의 비난을 모욕으로 새겨안고있는것이 아닐가?)

서글픈 웃음을 머금은채 지도앞에 다가가 우두커니 선 현무는 다시금 ×표를 친 지점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소림의 말대로 내가 나빴는가?)

《무얼 생각하오?》

하는 소리에 현무는 점잖지 못한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놀라 돌아보았다. 유선형이가 벙글벙글 웃는 얼굴로 문가에 서있었다. 다행히도 방안이 어두운탓에 선형은 현무의 눈빛이 허둥거림을 볼수 없었다.

선형은 벽에 걸어놓은 배낭에 다가가 인즙통을 꺼내며 별치 않은 사실을 말하듯 《포탄을 가지러 왔구만.》하며 현무를 힐끔 보았다.

《어데로 가져갑니까?》

현무는 침착성을 회복하며 지도를 차곡차곡 접기 시작

했다.

《반포대대요. 동무네 특무장이 왔더군.》

《네?!》

현무는 숨이 떡 막혀들었다.

《그 사람이 굉장한 자랑군이던데—》

선형은 떡판같은 잔등을 돌려대고 발급령장을 손바닥에 놓고 도장을 꾹꾹 찍었다.

《혼자 왔는가요?》

《혼자지. 우리가 호송원을 한명 더 보충해야 할것 같소.》

고맙게도 선형은 여전히 현무를 돌아보지 않았다.

현무는 금방이라도 달려나가려는 자신을 간신히 다잡으며 옴짝 않고 서있었다.

《가봐야지. 상차조직을 했지만—》

선형은 발급령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때야 현무를 향해 돌아섰다. 찌긋이 감추린 눈에 호기심의 불꽃이 튕겨났다.

현무는 화끈 단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제가 여기 있는걸 그 동무가 알겠지요?》

《그럼, 오자바람에 동무부터 찾았소. 창고에서 포탄을 인수하고있소. 가보기요.》

현무는 몸이 둥 뜨는것만 같았다. 밖에 나섰을 때 그는 앞에서 늘쩡늘쩡 걸음을 옮기는 선형이만 아니면 마구 달려갔을것이였다.

포탄창고가 눈바투 보이는 길목에서 선형은 걸음을 멈추었다.

《전사들이 동무를 볼걸세.》

《?》

《너무 야단법석하지는 말게. 그 자랑군의 얘기에 전사들은 침을 삼키더라니.》

《알겠습니다.》

현무는 이 엉큼한 선형의 속생각에 따뜻한 웃음을 머금

었다. 선형이도 말해놓고나니 면구한지 껄껄 웃었다.

《하긴 그들을 보면 나도 마음이 뜨거던. 나도 그들처럼 직접 총창을 잡고 적들을 푹푹 찔러잡고 땅크건 화점이건 요정을 내고싶네. 하지만 때마다 우리가 보낸 포탄으로 놈들이 다 뒈진다고 생각하면 그놈들을 다 내가 쳐잡는다는 기분일세. 허허.》

선형은 호인답게 웃으며 그렇지 않느냐는듯 현무를 돌아보았다. 현무는 그의 눈길을 피하였다. 짙은 감동이 한동안 현무의 가슴노리를 에워쌌다.

선형이의 진심의 토로가, 그 말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에 대한 존경이 서뿔은 대답을 피하게 했다.

그들이 다시 걸음을 떼는데

《화력부관동무!》 하며 차의 적재함우에서 바줄을 동이고있던 장대한 몸집의 군인이 뛰여내렸다.

중대특무장(사관장)을 알아본 현무는 마주 달려갔다.

한손으로 포가다리를 잡아들고 휭휭 내닫는 힘장수인 특무장은 현무에게 다가와 공기돌 들듯 훌쩍 들어안고 한바탕 휘둘렀다.

《몸이 났군요. 몸이! 정말 여기서 몸만 낼텝니까.》

현무는 적재함에 위장그물을 씌우는 전사들을 보며 특무장의 팔을 풀어헤쳤다.

《그래 중대장동무랑 다들 잘 있소?》

현무의 물음에 특무장은 웃음을 거두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중대를 아주 잊지는 않았군요.

지금 전사들이 화력부관동질 뭐라는지 압니까. 〈변절자〉라고 해요.》

《저런!》

《하 웃음이 나와요? 울어도 씨원찮겠는데—》

특무장은 두덜거리며 운전칸에 가 커다란 배낭을 들고왔다.

《뭐요?》
《모르겠습니다. 뭐 중대장동지랑 전사들이 법석 떠들며 꿍져만들어넣더군요. 편지도 있을겁니다.》
현무는 가슴벅찬 기쁨에 휩싸였다. 그는 선형이가 어떻게 보는지도 아랑곳않고 배낭을 든채 창고뒤로 재바삐 걸어갔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운 전우들과 조용히 교감하고싶은 심정이였다. 특무장이 뒤따라오며 두서없이 대대와 중대가 치른 전투며 개별적사람들의 소식에 대해서 늘어놓았다.
《글쎄 요즈음 다른 중대특무장들의 인사가 뭔지 압니까. 〈여 당신네 화력부관동진 후방엘 갔다지.〉 밸이 꼴려서. 며칠전에 상급참모동지까지 〈거참, 현무동무가 이번 싸움만 치르면 영낙없이 영웅내신을 받았겠는데—〉 하며 유감스러워하더군요. 지금 중대에서는 화력부관동지가 돌아오지 않은데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긴 이 문제때문에 대대장동지가 군관하사관회의에서 야단을 했지요. 〈누가 그를 후방에 갔다고 시비질이요. 포탄의 가치를 잘 아는 동무들이 고작 생각한다는게 그거요?〉 하며 을렀고 중대장동지랑도 〈이제 현무동무가 거기 갔으니 포탄걱정을 놓게 됐어.〉 라고 합디다만 그거야 해보는 말이지요.》
현무는 웃으며 그 말을 들었으나 가슴은 쓰렸다. 배낭을 풀어헤쳤을 때 그 감정은 더욱 뭉쳐졌다.
《아니, 음식은 뭐라 해왔소?》
《글쎄말입니다. 나야 반대했지요. 여기서야 잘하면 참외농사까지 해먹는다는데—》
특무장은 자기의 《예비폰트》로 만든 음식봉지들을 집어서 꺼내였다. 반대를 했다고 하는 특무장자신의 솜씨가 깃든 음식들임을 현무는 알아보았다.
드디여 유지로 싼 편지뭉테기가 나왔다. 그것을 받아헤집을 때 현무의 손은 떨렸다. 편지의 피봉들만 대수

보았다. 《현무동무앞!》, 《화력부관동지!》, 《리현무전 상서》, 대대장이며 소대장들, 현무가 만나 일주일밖에 사귀지 못한 신입대원의 편지까지도 있었다.

《중대장동지의 명령으로 취침시간을 침범해 쓴겁니다. 전사들은 이걸 〈귀환공작〉이라고 합니다.》

현무는 매 편지의 겉봉을 살폈고 쓸어보았다. 당장 뜯어보고싶었으나 조용한 때 혼자서 음미하며 보리라 맘먹고 다시 유지에 쌌다. 그 모양을 거의 측은한 눈길로 지켜보던 특무장은 배낭밑창에서 두툼한 수첩을 꺼내 내밀었다.

《그게 어디 있었소?》

《화력부관동지의 사물함에 있더군요. 중대장동지가… 다시 오지 못할것 같은데 보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현무는 짜릿한 아픔을 느끼며 수첩을 받아들었다. 1950년 설날에 위문품으로 받은 이 수첩에 현무는 자기가 치른 전투들과 전쟁의 나날에 체험한 환희와 슬픔, 승리와 희망을 적었다. 대대에서는 이 일기장을 그가 군의소에 입원했을 때도 보내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기에 보내준것이다.

현무는 묵묵히 수첩의 갈피를 번졌다.

얼핏얼핏 지나가는 글구들을 더듬던 그는 한군데서 눈길을 멈췄다.

《…포탄! 이것은 나다. 나는 저 포탄이 되여 적의 가슴팍으로 돌진한다. 육탄이 되여 적을 막아 짓부시는 여기에 나의 운명, 나의 행복이 있다!…》

첫 반땅크전투가 끝난직후 불타는 땅크를 눈앞에 보며 포가에 걸터앉아 흥분해 쓴 글이였다. 현무는 시름없이 수첩을 접었다.

그가 수첩을 웃옷안주머니에 넣는데 선형이가 나타났다.

그는 편지뭉테기와 현무의 얼굴을 엇갈아보다가 시

름겨운 눈길을 특무장에게 던졌다.

《특무장동무, 떠날 시간이 되지 않았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가요.》

특무장은 중대장에게서 빌려찬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입을 다셨다.

현무는 자기가 회답할 생각조차 잊고있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여 나직이 한숨을 쉬였다. 그러나 바재이며 우물거리기만 할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서 선형이에게 청했다.

《한 십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얼떨한통에 회답을 쓸것도 잊었습니다. 몇자 써보내야겠습니다.》

《그만두오.》

무뚝뚝할 정도로 잘라맨 선형은 차쪽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동무가 반포대대에까지 갔다오시오. 방조호송으로 말이요. 경험도 쌓는겸—》

《정말…입니까?… 내가 가서 일없을가요?》

현무는 터져나오는 환성을 가까스로 참았다. 선형은 돌아보고 싱글싱글 웃었다. 현무에게 순간이나마 기쁨을 주는것이 흡족한 모양이였다.

《가보시오. 병기과장동무한테는 내가 승낙을 받겠소. 그러되 거기 붙박혀있을 생각은 아예 말라구.》

10

바다는 가벼운 미풍에도 파도를 일으키고 물거품을 날린다.

그렇게 현무의 가슴속에도 파도가 일었다.

오래간만에 고향집을 찾아가는 어린애의 심정이랄가,

그 흥분은 랭철한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설레이는 마음을 고지에로, 포에로, 전우들에게로 이끌어갔다.

옆에 앉은 특무장이 그 다변장광설로 부채질을 하였다. 목단추를 열어제끼고 차가 들출 때마다 현무의 혁띠를 잡으며 특무장은 껄껄 웃기도 하고 혹은 심중한 빛으로 목소리를 죽이기도 하며 최근의 전투들과 생활일화들을 구수하게 늘어놓는데 말끝마다 《그때 현무동지가 있었더면…》, 《…화력부관동지가 보지 못한것이 유감입니다.》 하는 말로써 대대를 그리는 현무의 마음을 더욱 안달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현무는 입을 꾹 다물고 눈섭을 찌프린채 앞만 쏴보았다.

920고지가 가까와지자 길이 온통 벌둥지처럼 되여있었다. 차가 말처럼 껑충껑충 뛰였다.

특무장은 현무의 허리를 단단히 그러잡고 소리쳤다.

《주의해야 됩니다. 적들이 갈겨댈지 모르니까요.》

특무장의 시선은 920고지 오른켠에 솟은 1035고지에 쏠려있었다. 1035고지는 적들이 차지하고있었다.

현무는 두 고지사이가 직선거리로 2키로도 못되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니 이 포탄은 저 고지의 화점을 때리자는 건가？》

《네. 화점이건 자동차건 포탄만 많으면 다 때릴판이지요. 저격포활동이라 할가… 재미난 싸움이지요.》

특무장은 현무에게 눈길을 돌리며 씽긋 웃고 계속했다.

《중대장동지는 이번 저격포활동임무를 받은 날 〈현무동무가 있으면 멋지게 해댈걸.〉 하고 속을 앓더군요.

아마 이 포탄을 가져가면 시험삼아 화점 몇개는 때릴겁니다.》

《잘 구경하게 됐군.》

《왜 구경만 하겠습니까？ 한번 쏴봐야지요.》

《그래？！—》

현무는 더 말을 않고 입을 다물었다. 특무장의 말대로 한번 포에 마주서 적의 화점과 포를 날려버리는 싸움을 한다면 얼마나 통쾌하랴.

《까짓거 이번길에 중대에 눌러버티기를 하십시오. 대대장동지도 반대는 안할겁니다.》

《그만—하오.》

현무는 이마살을 찡그리였다. 그러나 특무장의 말은 달콤한 사탕처럼 되여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차는 920고지 기슭의 숲가에 이르러 급제동을 쓰며 멈춰섰다.

도로가 뭉청 파헤쳐져있었다.

《아침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특무장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현무는 황급히 뛰여내려 에돌음길이 없겠나 살폈다. 왼쪽은 온통 바위와 나무투성이여서 더 나간다는것은 불가능했다.

현무는 파헤쳐진 도로를 보고 항공폭탄에 의해 그리 되였으리라 넘짚었다.

구뎅이밑바닥에 불그레한 물이 차기 시작했다.

수리하러 군인들이 오지 않은것으로 보아 고지우에서는 모르는 모양이였다.

현무는 운전사와 함께 길을 찾느라 어정거리는 특무장을 소리쳐 불렀다.

《특무장동무, 지고 올라가자구.》

현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재차 소리칠 때야 알아들은 특무장은 손벽까지 철썩 쳤다.

《옳습니다. 화력부관동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군요.》

《건 무슨 소리요?》

《고지에 가는걸 서두르니까요.》

《포탄이 없다면 볶아쳐야지.》

《암, 여부가 있습니까. 한데 화력부관동진 여기서 기

다리십시오. 내가 대대에 가 전사들을 데려올테니—》

《태평스런 소린 그만하오.》

현무는 적재함에 뛰여올라 견인바줄을 동강내여 질빵을 만들었다.

현무가 상자를 등에 지자 특무장은 히죽이 웃었다.

《이젠 손님인데 그만두십시오.》

《이게 내 본업이요. 동무도 지라구.》

특무장도 상자를 지였다. 그러자 운전사도 여기 있어 뭘하겠는가 하면서 상자를 지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그들이 몇촌보 옮기지 않았을 때 열댓명의 전사들이 산에서 구을듯이 달려내려왔다.

현무는 자기의 옛대원들을 알아보았다.

《화력부관동지！—》

현무는 그 소리에 더욱 사기충천해 뛰여오르다가 달려내려오던 전사와 부딪칠번하였다.

여럿의 손들이 그의 어깨며 팔을 잡았다.

현무는 누구의 손부터 잡을지 몰랐다. 숨을 톺지도 못하고 헐썩거리며 인사들을 받았다.

대대공급장까지 내려왔다.

현무는 그가 상자를 벗겨내리려는것을 못하게 하며 좀해 하지 않던 롱말까지 했다.

《나난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가？…근데 어떻게 내가 현신한걸 봤소？》

《꿈에 봤지.》

공급장은 포대경으로 자동차를 지켜보다가 길이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함을 알고 대대장의 명령으로 포탄을 가지러 내려왔음을 말하였다.

《대대장동지가 동무 온걸 알면 막 기뻐할걸세. 그런데 어쩐다？ 환영준비를 못해놨으니—》

《원 별소릴,빨리들 가자구.》

현무는 공급장의 어깨를 탁 치고는 먼저 오를 잡도

리로 걸음을 옮겼다. 고지에서 내려온 전사들이 포탄 한 상자씩 메고 저마끔 그의 곁에 서려 다쫓아왔다.

현무는 그들과 말을 건네며 오르느라니 몇갑절 숨이 찼으나 조금도 힘든걸 몰랐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상스러운 바람째는 소리가 울리고 다음은 고막이 터져나가는 굉음이 울리며 발밑의 땅이 진동했다.

《아니！》

현무는 불맞은 사람처럼 몸을 떨며 돌아섰다.

방금 떠나온 산기슭에 거대한 흙기둥이 일어섰다.

꽝！ 꽝！

폭음은 련속되며 불과 먼지와 재개비가 산기슭을 덮어눌렀다. 파편들이 휘파람을 불며 현무의 머리우로 날아왔다. 파편에 맞아 부러진 참나무아지가 얼굴을 허비는것도 모르고 현무는 굳어진듯 서있었다.

《엎드렷！》

누군가 웨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포탄！》

현무는 얼없이 뇌이며 지였던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중구경곡사포탄이 련속 번개치며 터지는 아비규환의 불속을 향해 내리달렸다.

《정신있소？》

대대공급장이 그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현무는 이미 자동차도 포탄도 사라져버린 산기슭의 그 불길속으로 뛰여들었을것이다.

대대공급장의 손탁에 바지가랭이를 잡힌 현무는 태질하듯 몸을 떨었다. 포화속에 든 자동차에는 아직도 많은 포탄들이 남아있었던것이다.

피눈물이 어린듯한 그의 눈길이 사색이 된 특무장과 마주쳤을 때 불꽃이 튕길듯했다.

《저기가 쏘구역인걸… 몰랐단말이요？！》

현무가 소리칠 때 특무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보자 현무는 앞에 보이는 물푸레나무를 잡아비틀며 절통하게 부르짖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특무장을 탓할 리유가 무언가. 벌써 도로가 포탄에 끊기웠으면 그쯤한것을 알아야 할것이 아닌가.

그는 풀썩 물앉아서 눈을 감고말았다.

(제정신이 아니였어, 제정신이… 차를 대피시킬 생각을 왜 못했던가.)

포사격은 시작되던것처럼 불시에 멎었다. 아마 항공기의 정찰감시에 의하여 제원구득을 하고 시간제에 의한 집중사격을 해대는 모양이였다.

현무는 혹시나 하여 아직도 열풍속에 재개비가 휘몰아치는 산기슭으로 내뛰였다.

발목까지 푹푹 빠져드는 길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현무는 부서져나간 적재함 쪼박이 너슬너슬 타는것을 보았다. 그리고 흙속에서 삐죽이 머리를 내민 포탄을 보자 죽었던 벗을 만난듯 와락 그러안았다. 뒤따라 내려온 전사들이 그런 포탄을 몇개 주었다. 사방에 뿌려처진 포탄을 모아놓고보니 열댓발은 되였다. 이것이라도 남은것은 신관을 꽂지 않은것이여서 완전폭발을 면했던것이다.

현무는 토막난 바줄을 얻어서 포탄을 장작단 묶듯 네개씩 묶었다.

그리고 일어서니 전사들은 마치 자기들의 잘못이런듯 현무를 보기 저어하며 황황히 시선을 돌리는것이였다.

대대공급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어쩌겠소. 현무동무, 올라갑시다.》

현무는 수치와 가책에 가슴이 타들었다. 부끄러움과 함께 울분이 불뭉치처럼 솟구쳤다.

《난… 돌아가겠소. 가면… 모두에게… 인사를 전해주

시오.》
《아니 지금?… 이대로?》
공급장이 놀란 소리를 칠 때 현무는 돌아섰다. 놀래인 전사들의 눈길앞에 부드럽게 웃어보이고싶었으나 수치감과 후회와 분격 속에 타끓는 그의 마음은 눈물을 터칠 형세였다.
《잘들 있소!》
그는 손을 한번 들었다가 홱 내리치고는 튕겨난 용수철마냥 그자리를 떴다.
여러 부름소리들이 뒤따라왔으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빨리 가서… 잃어버린것만큼 되가져오자!)
현무의 머리속에는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현무가 한 5리가량 걸었을가 했을 때 마차 한대가 질풍같이 따라왔다. 서서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은 대대마사원이였다. 마차는 현무옆에 이르러 속력을 늦추었다.
《타십시오. 대대장동지가 보냈습니다.》
《나때문에?…》
《네… 쌀도 타오는겸…》
마차의 한쪽 굴대가 부러져있었다. 현무가 그것을 유심히 보자 마사원은 눈살을 찌프리며 우는소릴 했다.
《화력부관동지가 단단히 값을 치러야겠습니다. 길아닌 비탈로 몰고내려오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길은 수리하오?》
《예, 두개소대가 붙었습니다.》
현무는 묵묵히 마차에 올랐다. 마사원이 《쩌—》 하며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가 위세좋게 달렸다.
그들이 사단지휘부골짜기로 들어선것은 저녁무렵이였다. 새로 닦은 오불꼬불한 산길로 들어서자 저녁식사시간을 알리는 류랑한 나팔소리가 울렸다. 골짜기의

여기저기에 공병솜씨의 반토굴과 천막들이 널려있었다. 산턱을 깎고 야적한 쌀더미앞에서 마사원과 갈라진 현무는 이동보초에게 포병부를 알아가지고 그리로 곧추 올라갔다.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이를 직접 만나 포탄을 졸라댈 심산이였다.

로병익은 통례로 지휘관들에게는 무척 엄하였으나 하급군관들에게는 더없이 상냥한 사람이였으며 특히 현무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이 컸었다.

어슷비슷한 반토굴중에 어디가 포병부사단장실일가 하고 점치는데 통나무귀틀집앞에서 무슨 서류를 태우고 있던 군관이 반색하며 일어났다.

《공병중대장동무 아니요?》

현무는 다리복구장에서 만났던 혈색좋은 상위를 알아보았다. 그 군관은 현무를 공병중대장으로 알았던 모양이였다.

그는 현무를 구면친구런듯 반기였다.

《어데 오는 길이요?》

《포병부에.》

《아하, 포병이였구만. 내가 색맹이였군. 견장도 못알아보다니… 포병중대장이요?》

《아니, 난… 병기… 군관입니다.》

현무는 그를 그냥 지나치려 하였다. 하나 그 군관은 쉽사리 놓아줄념을 하지 않았다.

《거 병기라면 나와 사촌간이요. 참, 그건 그렇고… 윤소림동무라고… 압니까?》

현무는 눈섭을 찌프리였다.

《좀… 압니다.》

현무는 그가 더 뭐라 할 틈을 주지 않고 올라갔다.

(소림?!)

현무는 전혀 생소한 사람의 이름을 접한듯 속으로 뇌여보고는 얼굴을 더욱 찌프렸다.

포병부사단장실을 알아가지고 접근하니 보초가 쉽게 통과시키려 하지 않았다. 현무의 행색과 사정하는 말을 듣고는 호각을 불어 보초장을 호출하였다.

멀리 외딴 천막에서 보초장이 나오는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는데 바로 대여섯발자국앞의 토굴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등이 약간 굽을사한 대좌가 나왔다.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을 알아본 현무는 대번에 활줄처럼 긴장되는것을 느끼였다.

수면부족과 피로로 입술이 터갈린 대좌는 자기앞에 다가와 보고하는 현무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찬찬히 보았다.

《다치진 않았소?》

(다 알고있구나. 하긴 전화로 보고되였을테지.)

현무는 낯이 화끈해 입안의 소리로 대답했다.

《전 일없습니다.》

《음.》

로병익은 머리를 끄덕이고 잠시 눈주어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차를 숨겨야 한다는걸 몰랐소?》

《…》

《모르겠어. 창피야. 화력부관까지 한 병기군관이… 응?》

그의 말은 련락병이 나타남으로 해서 중단되였다.

《사단장동지가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알겠소.》

로병익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현무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최대의 용기를 발휘하여 말을 떼였다.

《포탄을 더 가져가게 허락해주십시오. 이번엔 목숨으로 해내겠습니다.》

로병익의 눈에는 순간 웃음이 스친듯했으나 미간에 주름살은 더욱 깊어졌다.

《그 포탄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되오. 그걸 이제 꺼내면 다른것이 튀오. 막 쥐여줄만큼 포탄이 흔하다면 얼마나 좋겠소. … 이제 반시간후에 동무네 창고로 가는 운수차가 있소. 그걸 타고 떠나오. 그리고 병기창고장동무에게 나의 명령을 전하오. 동무한테도 해당되는건데… 잘 기억하오. 적의 항공습격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철저한 보관경비대책을 세울것.
사단에서 줄수 있는건 고사총 한개소대요. 그러니 창고보위는 전적으로 동무네한테 달린셈이요. 알겠소? 복창은 시키지 않겠소.》
《알겠습니다. …》
《그럼 가보오. … 아니 잠간.》
로병익은 뒤에 서있는 련락병에게 고개를 돌리였다.
《동문 이 군관동무에게 식사를 시키오. 끝난다음 나한테 보고하시오.》
그리고는 현무를 조심어린 눈길로 보며 손을 내밀었다.
《난 동무의 그 실수가 진짜… 실수였기를 바라오. 잘 가오.》
현무는 사라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우두커니 쫓으며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대좌의 눈에서 자기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을 혼자 묵새기며 괴로와하는것을 읽었기에.
식당에 가자고 하는 련락병의 말도 건숭 듣기만하고 움직일념을 못했다.
《아바이한테 혼나려구 그래요? 빨리 갑시다.》
련락병은 그의 팔을 껴잡고 억지다싶이 이끌었다. 할수없이 끄는대로 걸음을 옮기는데 뜬김이 물물 피여나오는 널로 된 집에 이르자 련락병이 귀속말로 물었다.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건… 왜?》

련락병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현무의 호기심어린 눈에 부딪치자 어색한 빛으로 설명했다.

《아바인 처벌을 받았다든가 전투에서 실패한 사람인 경우에 꼭꼭 식사감독까지 보내서 식사를 시킨답니다.》

현무는 얼굴이 화끈해왔다.

태룡이의 말이 불쑥 떠올랐다.

《치욕을 받느니 죽는것보다 못해.

인간으로서, 전사로서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는 것 이것은 곧 빛나는 위훈속에 있으며 이게 곧 삶의 목표지.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

련락병은 식당에 들어가보고 사람들이 많아서 식당 직일관과 《사업》하겠다고 하며 뿌르르 달려갔다.

현무는 그대로 떠나갈가 하다가 어린 련락병한테 용렬한 사람으로 보일가봐 그냥 있었으나 식당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스럽게 보는것만 같아 그자리를 떴다. 몇걸음 옮기는데 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까르르— 울리고 잇달아 녀성의 발랄한 목소리가 귀전을 쳤다.

《…난 첨에 무슨 물건을 넣은 마대인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동무가 끈을 푸니 아니 글쎄… 호호, 메돼지같은 미국놈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벌벌 기여나와 대뜸 꺼내드는것이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는 〈안내서〉(당시 적들은 포로되는 경우를 예견하여 죽이지 말아달라는 여러나라 말로 인쇄된 종이장을 가지고 다녔음)가 아니겠어요. 그것도 장교라는게 사방에 대고 무릎절을 꾸벅꾸벅하며말이예요. … 그런데 그놈을 잡은건 저희 동창생이랍니다.》

현무는 오도가도 못하고 숨까지 멈추었다. 그가 흠칫한 그 순간부터 뒤에서 울리던 말소리도 끊어졌다.

《그래서?… 그러니 동문 결국 제 동창생자랑을 하려

는것이였구만.》
석쉼한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없다.
현무는 그대로 걸으려다가 앞에 도랑이 막아선것을 보고 멈춰섰다. 망설이다가 휙 돌아섰다.
여섯발자국앞에 소림이가 서있었다.
《아이!》
반쯤 벌리는 소림의 입술사이에서 가벼운 신음같은 것이 튀여나왔다. 그의 옆에 선 통신참모의 눈이 소림이와 현무를 엇갈아보며 휘둥그렇게 커졌다.
《안녕하시오.》
현무는 소림이를 향해 거의 기계적으로 말했다. 얼굴이 삽시에 빨개지며 소림이도 따라외우듯 대꾸했다.
《안녕하세요.》
통신참모는 두사람을 의아스럽게 보다가 더 있으면 안될것을 알았던지 자리를 떴다.
그가 저만치 사라졌을 때 소림은 당황한 빛을 감추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 부상처는… 일없는가요?…》
《네… 태룡동무가 여기 와있습니까?》
《아니, 그의 중대동무가 포로를 끌고 왔더군요.》
《그래요.》
땅바닥을 좇던 눈길들이 우연스레 부딪쳤다가 황급히 헤여졌다.
묵묵히들 있었다.
다리목에서 얼핏 본 그날부터 이틀, 그 불화의 날로부터는 석달… 그사이에 하많은 말을 혼자속으로 주고받았건만 지금 서로 만난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숨가쁜 침묵.
서로 빨리 피했으면, 그러면서도 피할 용기를 잃은 두

사람이였다.
소림이가 견디지 못하였다.
《어델 왔댔어요？》
《포병부에—》
《다른 부문에 갔다고들—》
《예, 후방… 병기창고에 갔습니다.》
현무는 왜서인지 이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 창백한 얼굴이 히벗하게 질리기까지 했다.
현무는 어금이를 지그시 악물다가 랭정한 태도로 계속했다.
《거기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왔지요.》
《그…래…요？》
소림은 현무의 질려가는 얼굴, 수척하고 변모된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는 애처로운 미소를 보냈다.
자존심이 강한 사내의 고통앞에 순간이나마 그에 대한 반감을 잊은것이다.
하나 소림이의 그 미소는 현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 어떤 반발비슷한 감정에 휘말려 말했다.
《보장근무조차 제대로 못해내는 바보가 되고말았습니다.》
《그런 말은 무엇때문에 하세요.》
소림은 모욕감에 질린 눈길로 곧추 현무를 쏘아보았다.
현무는 부끄러웠다. 입술을 깨문채 자기의 장화신은 발만을 지꿎게 보았다.
(괜히… 내가… 이자 무슨 말을 했던가.)
문득 청낭은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너무 괴로와마세요. 전쟁인데… 무슨 일인들 없겠어요. …》
현무는 자기자신이 가긍하고 역스러워 웃고말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순간이였다. 불시에 가슴속으로부터 피가 꺼꾸로 솟는듯한 폭발이 터져나왔다.

《난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다리목에서처럼 쏴보든가… 지나쳐가든가 하지 않습니까?》

소림이의 다홍빛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초점 잃은 놀랜 눈길이 현무의 얼굴에 닿았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니… 동무였군요.》

입안의 소리라 현무는 바로듣지 못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어리석은 《주정》을 한다는것을, 그에 대한 미련을 쏟아놓았다는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이 동무앞에서 이처럼 옹졸하고 소갈머리없는 철부지가 되는가.

그런데 소림은 이자 뭐라했던가. 다리목에서 나를 몰라봤다는 말이 아닌가?!)

《군관동지, 밥을 타놓았어요.》

련락병이 그의 팔소매를 다치는바람에 현무는 다행이다 싶어 《잘 있으시오.》 하고는 황황히 걸음을 옮겼다.

소림의 얼굴이 차디찬 대리석처럼 얼핏 보였다. 흥분으로 안개가 낀 현무의 눈은 소림의 눈에 슬픔과 오뇌가 타끓는것을 볼수 없었다.

식당에 들어간 현무는 국사발을 받다가 떨어뜨려 지하족을 말짱 적셨다.…

11

《뭐? 고사총소대요?! 기다렸소. 어저께부터 온다온다하더니… 자, 다들 내려오우.》

정문에 들어선 자동차가 멎기 바쁘게 기다렸던듯 선형이가 마주왔다.

누구와도 만나고싶지 않은 심정인 현무는 전사들까지 나와섰는 속에서 선형이를 만나 보고한다는것이 무척 괴로운 일이였으나 선참 뛰여내렸다. 하나 선형은 현무를 알아보자 보고를 받을념않고 병실에 들어가 쉬라는 말을 하며 고사총소대장부터 만났다.

현무는 목 꺾인 사람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이번에 차가 직탄을 맞게 된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로 생각는 현무로서 전선에 가고싶어하는 자기의 소원을 풀어주려 믿고 보내준 선형이를 대하는것이 여간만 어렵지 않았다.

가스등이 호젓이 타는 방에 들어선 그는 담벽에 희미하게 그려지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할가.) 하고 용기를 내려 했으나 쓸데 없었다. 그러는데 좀있어 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선형이가 들어섰다.

《저녁은 먹었소?》

《네.》

현무는 벌떠덕 일어섰다. 숨구멍이 콱 막히는듯했다. 그는 안깐힘을 써 말문을 열었다.

《차와 포탄 14상자를 잃었습니다.》

《알고있소. 그런데는… 앉소. …》

선형은 나무꼬챙이에 걸어둔 마른수건으로 뻑뻑소리가 나게 손을 닦으며 현무를 보지 않았다.

현무는 자기의 어조가 떨릴가봐 겁을 내며 마디마디 힘을 주어 사고과정을 이야기했다. 자기가 어떻게 되여 그런 실수를 했는가, 무엇이 잘못이였는가를 빨리 밝히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듯 열심히 말했다.

선형이가 자기 말을 별로 귀담아듣지 않는 기색을 눈치챈 현무는 용기도 사그라져 더 태연한 태도로 말할수 없었다.

《문제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자기 직분을 망각

했습니다.》

《책임？！…》

선형은 수건을 되는대로 나무못에 걸어놓고 돌아서다가 저으기 놀란 소리를 했다.

《아니, 왜 아직 서있소. 앉으라니.》

선형은 하루새 까맣게 탄 현무의 얼굴을 측은히 보며 어깨를 눌러앉히였다.

《로동계급군관이 될려면 아직 멀었소. …》

선형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가 병실이란것을 알았던지 도로 쓸어넣었다.

《잘못을 말하자문 내가 신칙하지 못한게요. 병기일군이란… 글쎄 다 그렇지만 빈틈이 없어야지. 제 기분에 빠져 한곬으로 달리다간 야단이거던… 그런데 문제는 동무얼굴이 흐려있는게요. 웃어보라니, 응—》

선형은 아이를 얼리듯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그러나 현무가 여전히 우울해있자 그 문제는 일단락 지었다는 기색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제 병기과장동무가 내려오면 내가 고사총진지때문에 산에 올라갔다고 하오.》

《과장동진 어데 있습니까？》

《82미리포탄창고에 비맞은것들이 있어 선별하러 올라갔소.》

선형이가 막 문을 열 때 현무는 얼핏 포병부사단장의 명령을 상기했다. 하마트면 제때에 전달하지 못할번했다는것으로 가슴이 섬찍해졌다.

《창고장동지！》

《왜 그러우？》

선형은 문을 닫으며 돌아섰다.

《저, 포병부사단장동지의 명령을—》

《명령？…》

《항공습격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철저한 경비보관대

책을 세우랍니다.》
《뭐라구?!》
문설주를 잡은 선형의 손이 부르르 떨었다. 그는 현무가 명령내용을 다 말할 때까지 문에 기댄채 움직이지 않았다. 코날개가 연신 벌름거렸고 미간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래 대책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소?》
《그런 말은 없었—》
《물어보지 못했소?》
《위장같은것을 념두에 뒀겠지요.》
《위장?! 위장도 해야지. 그러나 풀지붕이나 만든다해서 이 골안을 목표로 날아드는 놈들한테 안걸릴상싶소? 고사포로 장벽을 친다 해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는 우리가 아니요.》
선형의 얼굴에 울기가 돋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에 유선형은 얼굴이 완전히 뻘겋게 되였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동문 정말!… 이걸 다 맡은 사람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란말이요. 벌써 포병부에까지 항공습격신호가 왔다면 99프로 온다는 말과 같소. 에 참…》
현무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선형의 말대로 이걸 다 맡은 사람의 립장에는 서보지 못한 그였다. 포병부사단장앞에서 명령을 받을 때도 자기의 《실패》에 번민만 하며 기계적으로 접수하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과 결부시켜보지 못하였다. 자기의 《실패》에 그토록 너그럽던 선형이가 이 문제로 이처럼 격분할줄은 조금도 예상 못했던 현무로서는 놀라움도 컸지만 가책도 컸다.
현상적으로 볼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해도 선형의 질책은 역시 옳은것이 아니겠는가.

선형은 현무가 아무 대답없이 있자 가쁘게 숨을 쉬다 말고 후들거리는 손으로 물병의 마개를 열고 물을 연거퍼 세모금이나 마셨다. 고개를 젖혀 더욱 유표히 드러나는 시뻘건 목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현무는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물을 다 마시고난 선형은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긴 내가… 동무한테 너무 수다를 떨었소. 창고야 위장해야지.》

그는 한결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며 물병의 마개를 막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문득 푹 갈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로선 뼈저린 교훈이 있소.

병기부과장에서 창고장… 이건 큰 문제가 아니요.》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그의 말을 중둥무이시켰다.

문을 활 열어제낀것은 병기과장 김형식이였다.

그는 일어서는 현무를 보자 눈살을 찌프렸다.

현무의 배속까지 투시할듯한 그의 눈길엔 불만의 빛이 가득했다.

《앉으시오.》

그리고는 현무는 더는 보지 않고 선형에게 눈길을 주었다.

《고사총소대동무들을 만나고 오는길이요. 그런데 그들한테 듣자하니 항공습격이구 뭐구 하는데 무슨 말이요.》

《예, 지금 그 말을 하던중입니다. 항공습격이 예견된답니다.》

하며 선형은 현무가 받아온 명령내용을 자기가 직접 전달받았던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형식의 눈길은 더욱 찌프려지고 오른쪽볼이 자주 실룩거렸다.

《대책이란 고사총외에 다른것이 없었소?》

불시에 그는 현무에게 홱 돌아서며 방금전 선형이가

물었던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은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다?!…》

병기과장의 눈이 번쩍하며 불쾌한 빛을 가까스로 참는것이 헨둥하였다.

그는 한동안 현무를 보기만 하다가 터져오르는 분기를 간신히 누르며 한마디한마디 씹어뱉듯 물었다.

《동문 규정대로 〈알았습니다.〉 했으니 다 됐다는것이요? 그렇다면 하나 묻기요. 임무수립시 석연치 못한것이 있을 땐 어떻게 하게 되였소?》

《질문하여 알아보게 되였습니다.》

현무는 진땀이 났다.

선형이가 헛기침을 몇번 하더니 신중한 기색으로 말허리에 끼여들었다.

《대책은 명백한것 같습니다. 사실 알아본다는것도 그렇지요.》

선형의 말에 형식은 어깨를 으쓱하였으나 그쪽엔 눈길도 돌리지 않고 날카롭게 현무를 응시하며 내쏘았다.

《동문… 정신이 자리잡히지 않았소. 이번 호송도 그렇지. 그건 선형동무가 다… 제 책임이라고… 난 말 안하려고 했소만… 동물 어떻게 믿겠는가말이요. 동문 자기위치를 잊고있단말이요.》

그리고는 선형이에게 돌아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전화를 걸었습니까?》

《무슨 전화를?—》

선형은 떨떠름해서 형식을 보았다. 자기 말을 리해 못한것이 불만인듯 형식은 목소리를 높였다.

《제길 해야죠. 기지이동을 요구하던가—》

《사단에서 다 타산이 있었겠는데요.》

《동문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오?》

형식은 노염에 차 웨치고는 현무를 턱질하며 계속했다.

《이 동무도 그런 견해인데 동무까지 장단을 맞춘단 말입니까.》

선형의 목이 또 시뻘개졌다. 그의 귀밑에서 힘줄이 팔락거리는것까지 보였다. 현무에게는 이자리가 그 어떤 심판대처럼 여겨졌다.

흥분을 감추려 뜨직뜨직 잇는 선형의 말소리에 현무는 더욱 옹색해졌다.

《그럴수밖에 없잖습니까. 형편은 뻔한데. 하루이틀때문에 고사포대대를 이리루 돌릴수야 없을게 아닙니까.

또 적기가 습격해온다는것도 아직은 지내봐야 하는거구… 그러나저러나간에 어쨌든 우리 힘으로 명령을 집행해야지요.

위장도 하고 방탄벽도 쌓겠습니다. 허위진지도 만들고 현무동무가 경기관총이랑 안다니 몇사람 떼서 사냥군조훈련도 하구—》

《그렇게 하면… 될것 같소?》

《어쩌겠습니까. 막아내야지요.》

선형이 미간을 찡그리며 못박듯 말하자 형식은 어두운 얼굴로 씁쓸히 말했다.

《하여튼 난 사단에 올라가서 제기를 하겠소.》

선형은 깊은 시름에 싸인 얼굴을 수그린채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었다.

형식이가 나간후에도 여전히 그러고있었다.

이러한 선형을 현무는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느꼈음인지 고개를 든 선형은 현무의 상기된 얼굴을 보자 부드러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달리 생각 말게. 그나 내나… 〈책임〉에 눌리우면

자주 떨보가 된다네.

격정을 하구 화딱지나 내고… 늙어가는 징조지.》

《원 무슨 말씀을—》

무언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싶었다.

《책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진짜 늙은이가 될것입니다.》

《허, 그럴가? 아니야.

책임을 생각 안할수 없어. 물론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하는건 졸장부들의 치사스러운짓이라 그러면 안되지. 하지만 우린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데 대한 책임감은 순시도 잊어선 안돼.

나한텐 잊을수 없는 교훈이 있어. 이자 병기과장동무가 걱정부터 앞세우게 되는것도 다 그때 일이 잘못된데서 생긴거라고도 볼수 있지.

내가 강직되게 된 얘긴데—》

선형은 량미간을 찌프리며 말을 끊고 덤덤히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문제는 제멋대로 한게 실패의 원인이지. 기분 가는대로 망탕이였어. 신중하게 따져보고 움직였어야—겠는데… 허참.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망각했거던. 상급의 지시도 거역하면서… 같은 부과장을 하다가 과장으로 된지 3일째밖에 안돼서인지 형식동문 이 미련한것의 고집을 욱질러버리지 않았지.

그때 내 한걸음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았나. 동문 병원에 있어 잘 모를거네. 한개 대대가 피흘려 점령한 쌍무봉을 내놓았어. 그 고지를 방어하는 구분대에 보낼 탄약을 길가에서 산산이 날려버렸으니 맨주먹의 그들이 어찌 고지를 지켜냈겠나.

에익,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죽고싶은 심정이야.》

선형은 한숨을 후 내쉬고 우울한 빛으로 말이 없다가

계속하였다.

《이로 하여 내가 강직처벌을 받았을 때 형식동무가 몹시 괴로와했소. 그는 사단장에게까지 가서 자기 잘못이라고 제길 했다오. 결곡하고 강직한 동무요. 그가 아마 일선의 병사였다면 영웅이 되였을것이요. 명령이라면 칼끝에라도 가슴을 댈 훌륭한 군관이지.

아까 형식동무가 성낸걸 너무 나무라지 마오. 일이 잘못될가봐 신경을 쓰기때문이지.

하긴 이것이 정도가 넘으면 비겁해지오. 위축되고 가슴앓고, 전쟁에서는 이걸 이겨내는게 제일 어렵지.

책임에 대한걸 항시 명심하면서 대담해지는것, 이게 병기지휘관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품이라고 보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라는 개인을 잊어야지. 조국이 시련을 겪는데 나하나가 무엇인가고.

참, 내가 오늘 너무 다사해졌군.

이제부터 위장, 허위진지굴설, 경기관총사냥군조편성을 해야겠소.》

선형이가 황황히 일어섰다.

현무는 《탄약호송실패》의 구체적전말이 알고싶었으나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 일어섰다. 그러나 머리속에서는 내내 그 생각이 맴돌았다.

자기로 볼 때 선형이야말로 얼마나 신중하고 세심한가. 그런 그가 덤볐다는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다만 명령을 어겼다는것만은 십분 리해되였다. 어딘가 선형이에게는 정규군관이라기보다 수더분하고 끈진 농민의 냄새가 항시 풍기기때문이였다.

《비행기사냥군조》선발이 제기되자 전사들은 저마끔 앞을 다투어 나섰다. 고사총을 다루어봤다는 전사까지 두명이 있었다. 현무는 그 두명외에 세사람을 데리고 창고에 가서 다섯정의 경기관총을 꺼냈다.

그런데 고사총을 다루어봤다는 사람들이 이동목표에 대한 전치량계산법도 모르는 문외한들이였다. 그러면서 그 약점을 무기청소에서 회복하려는듯 손수건따위까지 총동원해서 기름닦기에 열성을 보이며 희떠운 소리는 곧잘 쳤다.

《넨장, 어떤 행운아들은 보총으루두 비행기를 쏴잡았다는데 이걸루야 둬두름씩 떨궈야지.》

《그러면 훈장이 모자라겠소.》

그런대로 그들을 데리고 해보는수밖에 없었다.

산에 올라가 얼추 좌지를 닦고 이른바 화력복무훈련을 해보았다.

전사들은 신명이 나서 해댔다.

《주의！—32 상공 적비행기 속도 250… 조준점 기두, 짧은 점발로 쏫！》

《아니 틀렸어. 언제 구령을 그렇게 꼬불꼬불 치겠나. 대뜸 대가리를 겨눠 쏫！— 해야지.》

떠들썩하는 전사들을 보느라니 불쑥 《비행기를 쏴본 경험이 있소？》 하며 어처구니없어하던 형식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무들, 진지하게 훈련해야겠소. 이건 장난이 아니요. 이제라도 달려들면 싸워야 되오.》

현무는 누구도 장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해질무렵에 허위진지굴설과 위장작업을 돌보던 선형이가 올라왔다.

그는 전사들의 동작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알릴듯말듯 머리를 젓고는 산쿄숭이에 탑처럼 솟은 바위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두손에 침을 밸더니 엉금엉금 바위우를 향해 기여올랐다.

《왜서 그럽니까？》

《여기에 오르면 비행기 탄 맛잡일걸세.》

바위에 다 오르자 선형은 뒤짐을 진채 골짜기를 더듬어 보는것이였다.

현무도 그 바위에 올라갔다. 골짜기가 손금처럼 환히 안겨오는데 산기슭을 따라 옹기종기 솟은 창고들은 온통 풀에 가리워 멀리서 보면 무슨 덤불로 알것 같았다.

《위장이 잘됐군요.》

《그런데 122미리 포탄창고가 아무래도 미타해.》

첫날 현무가 우려하던 창고였다. 위장은 하였으나 눈띄게 도드라져보였다.

(이제라도 다른 창고에 갈라넣으면 어떨가… 하지만 시간이 없지… 아니,괜한 신경과민이야.)

이런 속에 의견을 말할가 말가 망설이는데 선형이가 입을 열었다.

《고사총동무들이 좌지를 저 우두봉으로 옮겼네.》

선형은 골짜기 안쪽에 돌출된,소대가리같이 생긴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그러고보니 현무는 자기가 좌지위치를 잘못잡았다는것을 알았다.

《우리도 그 동무들이 있는데 가야 하지 않을가요?》

《아니,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 있는게 좋대. 적을 혼란케 하고 당황케 한다나.》

선형은 빙그레 웃었다. 그러며 계속했다.

《그 동무들은 큰소릴 치데만 더 가슴이 조이네. 창고의것이 포탄이 아니구 맨무기만이래두 한숨 놓겠는데… 이건 어느 포탄상자 하나만 튀여두 몽땅 하늘로 날아날판이거던.》

현무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귤빛해가 산머리뒤로 떨어져내리며 남겨놓는 붉고 누른 노을을,그 노을 한귀퉁이를 먹어들며 다가드는 어둠을 보았다.

12

불안한 밤이였다.

낮동안의 초조와 긴장을 한꺼번에 털어놓듯 《자,이젠 밤이니 적기에 대해선 잊어먹자구. 난 주변리들에 나가 바줄을 얻어오겠네.》라고 하며 선형이가 떠나간 뒤 왜서인지 현무에게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현무네가 저녁식사를 할 때 적의 정찰기 두대가 골짜기를 핥을듯 지나갔다.

현무는 그 불안감을 잊으려는듯 경기탄창에 총탄을 더욱 부지런히 꽂아나갔다. 그러며 이따금 시계를 보았다. 가스등의 희미한 불빛속에서 시계의 야광문자판은 12시를 가리키고있었다.

현무는 방안을 들었다놓게 울리는 전사들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산우에 사격좌지경비로 떨어진 농삼이를 교대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탄창의 마감줄에 총탄을 끼우고 절그럭소리가 날가봐 조심스레 들어 상자뚜껑우에 놓았다.

그리고 일어서는데 무언가 이상스러운 소음이 귀전을 울렸다.

잠시 서있다가 그 소리가 급작스레 커지는데 놀라며 문을 열었다. 바람이 확 밀려들며 가스불이 죽었다. 제때에 꺼진셈이다.

검푸른 하늘에는 시퍼런 불을 켜단 열일여덟대의 적기가 고도를 낮추며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웅글고 새된 비행기소음이 메아리를 일으켜 온 공간이 와룽! 와룽! 하는 소리로 차넘쳤다.

보초소에서 항공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다급스레 울렸다.

위병장이 달려왔다.

《기상을 시키시오.》

현무는 자기의 혀가 남의것처럼 말을 듣지 않음을 느꼈다. 온몸이 떨렸다.

전투장구류들을 착용하고나온 전사들은 하늘을 살펴보며 불안스럽게 속삭였다.

《여기야.》

《심상찮아.》

하늘에서는 수십개의 불꽃이 튕겼다.

사방에 조명탄들이 매달렸다. 온 산발이 흰 명주자락을 들쓰고 일어나는것만 같았다.

둥그런 바줄타래를 어깨에 멘 선형이가 어둠속에서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왜들 이러고있소? 동문 자기 위치가 어데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오. 저새끼들이 여길 병기창으로 알겠는지… 그러면 그 〈양탄자폭격〉을 하겠지…》

《허위목표들을 움직여야지요.》

《그렇지!》

선형은 비행기와 자기를 엇갈아보는 전사들을 보자 성이나 웨쳤다.

《경기관총은 산으로! 허위목표수들은 빨리 가목표에 불을 지르오. 기타는 방공호로! 빨리!》

선형은 전사들이 뛰여가는것을 바래다가 아직도 현무가 떠나지 못하고있자 두팔을 쩍 벌렸다.

《동문 어쩌자는거요?》

《은페호에 들어가십시오.》

《왜? 내가 걱정돼서… 여긴 내가 지휘관이요. 복종하오.》

《알았습니다.》

현무는 탄창을 둘러멘 전사들을 뒤좇아 부지런히 올리

달렸다.

《여길 때리기전에는 쏘지 말라구.》

《지나갈 꼴이 아닙니다.》

《그래, 쏘라구. 허위목표도 드러내구.》

선형은 그자리에 그대로 선채로 놈들과 눈총질을 해대려는듯 고개를 제끼고 하늘을 노려보고있었다.

현무가 좌지에 채 이르기전에 쏴—하고 여름철 소낙비 쏟아지는듯한 소리가 울렸다.

《때리는군.》

누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쏘라, 사격！—》

현무는 좌지로 뛰여들며 소리쳤다.

경기관총소리와 폭탄터지는 소리는 거의 동시에 울렸다.

현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단번에 여러개의 불기둥이 일어섰다가 서서히 무너져 앉으며 무시무시한 폭음이 산발과 대기를 진동시켰다.

현무는 번개치는듯한 폭탄작렬의 빛발속에서 방공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선형이를 보았다.

(뛰지 않고… 저러다가…)

더는 선형이가 보이지 않았다.

불과 폭연으로 골짜기는 수라장이 되고말았고 육안에 보이는것은 휘뿌려져올라가는 돌쪼각과 나무뿌리들, 흙기둥이였다. 한편 산봉우리의 여기저기에 피워올리는 불길을 본 여러대의 적기들이 그곳을 향해 폭탄을 휘뿌렸다.

고사총과 경기들은 맹렬히 울부짖었다.

그러나 응당 불길에 휩싸여 떨어져야 할 적기들은 뻔뻔스레 그냥 날아쳤다.

발밑 땅이 드릉드릉 울렸다. 적땅크와 맞설 때도 이랬다.

그러나 그때는 훌륭한 포수들, 자신만만한 포사격지휘가 있었다. 몇초사이에 앞에는 불타는 적땅크가 있었으며 그 승리의 희열로 무한궤도의 동음마저 잊군했다.

반포에서는 이런 헛총질이 없었다. 그리고 현무자신이 때로 조준수가 되여 원쑤의 철갑가슴에 불이 이는것을 통쾌히 마련하였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 검푸른 하늘에서 적은 갈가마귀처럼 날친다.

현무는 이를 악물었다.

《똑바로 겨누라!》

그 소리는 련속 터지는 폭음에 묻혀 잦아들고만다.

현무는 한 기관총에 다가가 사수를 밀치고 자기가 들어섰다.

손잡이를 잡고 습관적으로 왼눈을 감으며 조문을 통해 적기를 포착하려 했다. 그러나 캄캄하다. 아니, 조명탄의 빛발에 사위는 안개속처럼 뿌옇다.

(아, 눈!)

현무는 밤어둠에 시력이 좋은 사람도 이렇다는것을 잊고 입술을 터져라 깨물며 두눈을 다 뜬채 적기를 겨누어 쐈다. 련발사격에 어깨가 떨었다.

《맞았다!》

여러 전사들의 웨침에 현무는 정신을 번쩍 차리며 자기가 겨눴던 적기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러나 그 적기는 사계를 벗어나 고공으로 올랐다. 현무는 뒤늦게야 고사총소대쪽 하늘가로 검붉은 연기를 토하며 떨어져내리는 적기를 보았다. 그들이 쏜것이다.

현무는 더욱 다급해졌다. 적기들은 고사화력이 맹렬해지자 저공은 못하고 구름층우에서 폭탄을 던졌다. 허위목표수들이 피워놓은 불무지와 그옆에 포신처럼 세워놓은 나무통에 대고 줄폭탄을 퍼부었다.

갑자기 멀지 않은 옆에서 쾅—하는 폭음과 함께 자

갈과 파편이 우박처럼 날아왔다. 주먹만한 돌멩이가 옆구리를 들이쳤다. 모진 아픔을 느꼈으나 현무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쏘는 탄알은 조명등을 켠 비행기들과는 너무나 먼거리에서 불줄기를 끌며 날아올랐다.

현무는 조준기안에 그 조명등을 포착하려 했으나 모든 것이 뿌예져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무는 입술을 깨물며 원래의 사수에게 총을 넘기였다. 소리쳐 울고싶은 심정을 짓누르고 자신을 위안하며 생각을 돌렸다.

(잘됐어. 적들이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를 치는건 좋은 거야.)

폭탄은 소경 막대질하듯 여기저기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수도 뜸해졌다.

놈들은 고사화력의 사격권내에 들어서면서까지 폭격할 용감성은 없었고 또 눈먼 소경 막대질하듯하는 폭격을 줄창 해대기도 멋적었던 모양이였다.

이때 누군가 비명같은 웨침을 터뜨렸다.

《저거! 122미리 창고가 불탄다.》

현무는 등골로 서리찬 칼날이 닿는감을 느꼈다. 맞았는가, 폭발될수 있잖을가.

《계속 적기를 쏘시오!》

현무는 이 말을 남기고 창고를 향해 내리달렸다. 나무뿌리와 풀덤불에 걸려 넘어지고 딩굴며.

창고는 지붕이 불에 폭 싸였다.

이제 폭발하면 이 주변은 깨끗이 없어질것이다.

모든것이 가루가 되여 허공으로 날아갈것이다.

그것은 5분일지 10분일지 모를 시간내에 벌어질수도 있다.

그것을 확증하는것은 유선형의 모습이였다. 그는 어디서 모자를 흘려버렸는지 맨머리바람으로 창고주위를 번

개처럼 왔다갔다했다.

《기둥을 찍어라… 지붕을 내려앉혀야 한다. 물보다 모래, 모래를！》

현무는 불빛속에 뛰여다니는 전사들을 보다가 창고문이 자물쇠로 채워있는것을 보고 아연했다.

(아니, 포탄을 꺼낼 생각을 않고 뭘해.)

현무는 커다란 돌멩이를 들고 뛰여가 창고자물쇠를 들이족쳤다.

절커덕하고 자물쇠가 떨어지는 서슬에 문을 잡아제치는데 우악진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아채였다.

《미쳤어？》

선형의 이글이글 타는 눈이 번쩍했다.

《상자를 꺼내야지요.》

《뭐라구, 불이 저리로 들어가는 날엔 파국이야.》

선형은 그를 밀쳐버리며 문을 쾅 닫았다.

현무는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내배였다.

반토굴식으로 된 창고가 문만 열리면 삽시에 불길이 밀려든다는것을 왜 몰랐을가.

《당황하지 마오. 2분대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오. 부탁하오.》

선형은 현무의 손을 꽉 쥐였다놓았다. 그리고는 쇠갈구리를 쥔채 우뚝 서 번쩍이는 눈으로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2분대！ 몸에 물을 끼얹고 지붕으로 오르라.》

그의 팔소매가 너슬너슬 탔다.

하나 현무는 그것을 말할 새가 없이 농삼이가 가져다 놓은 사다리로 달려갔다.

불과 연기가 온몸에 덮쳐들며 숨이 콱 막혀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글거리며 타는 이영짚을 아름으로 안아 밑으로 던졌다.

그 순간 하마트면 질식하여 밑으로 굴러떨어질번하

였다. 불어오는 바람에 나래불이 솟구치며 그를 에워싼것이다.
《농삼이… 현무에게 물을 퍼부어라.》
선형이의 힘찬 목소리가 혼미해지는 의식을 바로세워주었다. 자기 옆으로 뛰여올라가는 군인이 있었다. 《야—!》 하고 소리치는 그는 충기였다.
그는 눈무지를 쳐내듯 온몸이 넉가래가 된듯 불타는 이영짚을 그대로 몰아나갔다.
현무는 농삼이가 부어준 물벼락에 정신을 차리며 충기한테 다가갔다.
충기는 그가 채 닿기전에 꼬꾸라졌다. 지붕에서 굴러내리려는것을 껴잡은 현무는 불길이 너울치는 속에서 어쩔바를 몰랐다.
《2분대장, 물바께쯔를 지붕에—》
선형이의 벽력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모래로 지붕… 경비분대장, 추녀가 떨어진다. 현무, 충기를 떨구라…
사다리를 이쪽으로! 넨장, 빨리!
현무, 2분대 지붕에서 뛰라.
1분대 이쪽에 와서 밀엇!》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서슬에 현무는 뛰여내렸다.
《좋다. 몽땅 물바께쯔와 모래통을 들고 준비.》
선형은 립상처럼 서있었다.
날아오는 파편에 한 전사가 쓰러지자 그를 풀밭에 안아눕히고는 다시 그자리로 가서 우뚝 섰다. 전사들도 그를 보고 자기도 전사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창고정면에 선 그는 자기 하나의 의지와 지혜로 전사들을 부축하고 이끌며 소방전투를 지휘하는것이였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헤덤비던 전사들도 고무를 얻어 당황과 공포를 이겨내며 자기 위치에서 여유있게 움직

였다.
《준비! 집이 넘어진다. 빌어먹을, 누가 모래를 뿌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뿌려라!》
선형의 땀에 젖은 얼굴은 불빛에 청동의 조각을 련상시켰고 이글이글 타는 눈은 생사의 판가름을 하는 빛으로 번뜩였다.
현무는 살이 타고 숨이 막히고 더구나 아직 창고가 어찌될지 모르는 처절한 환경에서였지만 거의 황홀에 가까운 감정으로 선형이를 보았다.
현무네의 수고로 불길이 잦아들었던 지붕은 집이 천천히 기울어지자 우지직뿌지직하며 불꽃을 날리고 불길을 솟구쳤다.
드디여 쾅하며 지붕이 무너져내렸다.
《물, 모래!》
선형이의 웨침에 전사들은 들고있던것을 모조리 그 지붕에 끼얹었다.
《물바께쯔외에는 모두 날 따랏!》
선형은 웃동을 벗어 머리에 감으며 아직 불길이 죽지 않은 무너진 지붕에 기여올랐다.
그는 발로 불을 밟다가 딩굴기 시작하였다.
《야!》
전사들은 기압을 쓰듯 웨치며 하나같이 그리로 뛰여들어 불과 싸우기 시작했다.
이 창고의 운명은, 전사들자신의 생명은 물론 부대전투의 승리를 좌우하는것이다.
이제 불이 어느 포탄상자 하나만을 태워도 여기는 모든것이 산산이 재로 되여 하늘로 날아오를것이다.
《됐다!》
울음울듯하는 선형의 목소리에 현무가 정신을 차려보니 고사총소대원들까지 달려왔다.
그때에야 적기가 사라진것을 알았다.

지붕이 무너져앉은 창고에서는 불찌가 날리고 내굴이 피여올랐다.

유선형은 마지막불씨까지 죽여버리고서야 물러났다.

온몸이 불에 그슬고 얼굴에 거멓게 재를 뒤집어쓴 유선형의 손에는 여전히 갈구리가 쥐여져있는데 손잡이가 아닌 끌머리를 잡고있었다. 손잡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 그의 침착성이란 오직 불을 끄는 그 하나에 집중된 침착성이였다. 자기를 잊은것이다.

《옷에 불들을 끄라구.》

선형은 옷에서 내굴이 피는 전사들을 뜨거운 눈길로 한참이나 보다가 돌아서 창고문을 열어제꼈다.

뽀얀 연기와 재가루가 밀려나왔다. 선형은 기침을 쿨럭쿨럭 하면서도 그대로 서있다. 서까래와 흙들에 덮인채 얌전스레 있는 포탄상자들이 보이자 그는 껄껄 소리높이 웃었다.

《좋은 방탄옷을 입었군.》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맺혔다.

그는 천천히 현무한테 걸어와서 재먼지와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팔소매로 닦고는 빙그레 웃었다.

《참, 상한데 없소? 난 서있고 동문 불길속에 있고—》

《창고장동지!》

현무는 뭔가 자기 감동을 말하고싶었으나 목구멍이 메여올라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바지가 말이 아니군. 당장 기워야겠소.》

그때에야 현무는 자기 바지가랭이가 죽 찢어져 치마처럼 펄럭거리는것을 보았다.

《제꺽 깁자구. 내가 꿰매줄가.》

하며 선형은 어느틈에 바늘과 실을 꺼내여 내밀었다. 불에 익어 벌깃하게 물집투성이 된 손가락은 바늘을 간신히 쥐고 떨고있다. 그리고 그의 팔소매는 불에 타 누데기처럼 너슬너슬했다.

현무는 눈뿌리가 화끈해서 받을념을 못했다.

《왜 그러나? 기워야지. 체네들이 봤다간 장가 다 가네.》

현무는 그 말을 들으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13

내려앉은 지붕을 대충 손질하고났을 때 그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았다.

산골짜기의 여기저기에서 피여오르는 연기와 안개에 가리운 해는 빨간 감알처럼 보였다. 이따금 바람결에 연기가 밀려가면 눈부신 해살이 순간의 미소런듯 반짝거렸다.

유선형은 웃주머니에서 가죽뚜껑을 한 수첩을 꺼냈다. 연필을 꺼내다가 두번이나 떨궈버렸다. 손가락들의 감각이 마비되다싶이 됐기때문이였다. 그는 한참이나 손가락을 주무르고 수첩을 펼쳤다. 현무는 뚜껑에 《기록집》이라고 쓴것을 보았다.

선형은 수첩을 펼쳐놓고는 검뎅이가 묻은 새끼손가락으로 턱을 살살 쓸다가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무엇을 씁니까?》

《전투전과를 쓰네.》

《전과란것이… 무업니까?》

《그래 동무생각엔 없을것 같소?》

선형은 쓰던것을 멈추고 심각한 눈길로 현무를 보았다.

《한사람이 중상당했소. 피로써 포탄을 지켰지. 그래 이것이 전과가 아니겠소. 엊그제 들어온 전산데… 회복이 되려는지?…》

유선형은 눈에 티가 들어갔는지 손을 가져다대고 비

비다가 한숨을 지었다.

《지켜냈거던, 응.》

그는 다시 고개를 수그리고 한자한자 정성담아 박아썼다. 두장의 앞뒤페지를 다 채우고는 수첩을 접으며 현무를 보았다.

《동무 판단이 옳았댔소. 저기다 포탄을 넣는게 아니였소. 걸려들었거던.》

현무는 그가 무얼 가지고 그러는가를 알았다. 불길에 휩싸인 창고를 봤을 때 자기 머리속에서 후회비슷이 떠올랐던 생각이였었다. 그러나 선형이의 랑패어린 얼굴색을 가늠한 그는 고쳐 생각했다.

《꼭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때 급강하시 조준사격을 념두에 둔것인데 이번것은 우연히 던져진 소이탄에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럴가?… 아니, 동문 거짓말을 하누만.》

선형은 점직한 웃음을 머금었다. 그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는 군복을 털며 일어났다. 오른쪽 팔굽언저리가 거멓게 타고 앞자락과 무릎에 구멍이 숭숭 났다.

《배고프지 않소?》

《괜찮습니다.》

전사들을 식사하러 보내면서 그더러 남으라고 한 리유가 알고싶어 현무는 배가 쓰릴 정도로 고팠으나 시치미를 뗐다. 선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어떤치들은 전투를 치르면 곱배기를 한다지만 난 먹는걸 싹 잊게 되거던.

자, 저기 가서 몸이나 씻자구. 사실 이럴 때 뜨스한 물함지에 앉아 문지르는 재미도 괜찮은데—》

하며 선형은 슬렁슬렁 걸음을 옮겼다.

폭격이 있었더냐싶게 맑은 시내가에 이르자 선형은 풀쩍 물앉으며 군화를 벗기 시작했다.

《솔직한 말로 난 허위목표건 경기관총이건 안믿었

더랬어. 그런데 그 효과가 대단했거던. 그통에 맘대로 들 못덤벼들었지. 근데 동문 겁이란 통 없어.》

《저말입니까?》

《그렇소. 난 동무가 지붕에 올라가 불속에 닁큼 뛰여들 때 가슴이 조막만했소. 그통에 불이 밑으로 번지지 않았지.》

현무는 부끄러웠다. 자기야말로 얼마나 당황망조했던가. 만약 오늘 선형의 침착태연한 지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였을지 모른다. 폭발을 예고하며 날치는 불길앞에서 석상처럼 끄떡않고 초조와 불안을 날려버리는 그런 의지력이 자기에게 있을가.

현무는 솔직히 말했다.

《창고장동지는 잘못봤습니다.

전 사실 겁이 많습니다. 그걸 알기때문에 겁을 내지말자고, 용감하자고 매 순간 자신을 통제한답니다.》

《누군 겁쟁이가 되고파서 되나? 자기를 초월해서 이겨낸다는말이지. …참 동문… 괜찮아…》

현무는 낯이 빨깃이 달아 신발을 벗고 내물에 들어섰다.

시원한 촉감이 짜릿한 쾌감으로 전신을 떨게 한다.

《좋구만요.》

《좋아.》

현무는 물속에 잠겨 한결 커져보이는 선형이의 발잔등에 도끼로 찍힌듯한 푸르스름한 상처자국을 보았다.

《그 흠집은 어느 전투의 〈기념〉입니까?》

현무가 넌지시 묻자 선형은 씨무룩 웃으며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전투때거면 좋게. 망국노였던 표적일세—》

선형은 두팔을 뒤로 짚으며 턱을 추켜들고 새파란 하늘에 눈길을 주었다.

창창히 맑은 하늘은 구름한점없이 탁 틔였다.

《좋구만, 망국노가 나라의 주인이 되여 주인의 권리를 지켜싸운다, 어떻소. 그렇잖소, 현무동무？》
시를 읊듯하는 그 말에 현무는 싱긋 웃었다.
선형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했다.
《난 이렇게 생각하네. 우리 사람들은 다 한때는 망국노였지. 한데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주인으로 내세워주셨어.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장군님을 위한것이며 또 이 주인된 위치를, 농민은 제땅을, 로동자는 제 공장을 위한 싸움이라구.
오늘두 얼마나 용감히들 싸우던가. 충기를 봐두 그렇지. 난 지금 참 즐겁소. 불행을 막아냈구, 제구실을 했구 살았으니말이요.》
그렇다. 승리자로 된것이야말로 더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또 살아서 이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을 본다는것 역시 기분좋은 일이다.
한동안 말없이 물을, 물에 잠긴 발들을 내려다보았다.
다리를 물에 잠그고있느라니 이제까지 겹쌓인 피롬과 피곤이 깨끗이 씻겨지는듯했다.
파릇파릇한 풀들이 빽빽한 내가에는 노랗고 흰 민들레가 다문다문 박혀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다 발이 잠긴 물을 들여다보면 하얀 돌이 깔린 물밑으로 가재가 기여다니는것이 보였다.
《가재 구운걸 먹어봤나？》
《네.》
《후에 다 날라준 다음 가재구이를 한번 하자구.》
현무는 웃었다. 그러자 선형이도 웃었다.
《왜, 내 말에서 평화주의냄새가 나서 그러나? 허참, 일없네. 글쎄 일이 안되면 살 필요도 없지만 일이 잘되면 가재도 구워먹어봐야지. 안그래？》
유선형은 실눈을 한채 먼 하늘가를 보고있었다.
노래라도 한곡 나올 유쾌한 표정이다.

(동의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했지.)
별난 생각이 불쑥 기여든다.
현무는 유선형이가 전사들의 사랑을 받고있음을 느꼈다. 자기도 이 상관에게 처음과는 달리 몹시 호감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포병들한테서 늘 지청구를 듣던 어제날의 소좌, 포병부사단장만 보면 쥐구멍을 찾는다는 소좌, 군인이라는 의미에서 마음 헤픈 아낙네같이 둥글둥글한것이 약점일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기본을 이루는 마음의 대가 얼마나 깨끗한가.
아무런 가식도 없이 생김 그대로의 인간으로서 선형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보다 완성되고 조화된 인간이 아닐가.
이 선형동지야말로 인간의 첫째가는 미덕인 성실성으로 충만된 사람이다.
유선형은 물매미 한마리를 잡아들고 장난을 시키다가 물에 던지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냈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숲에 에워싸여있을 때엔 별생각이 다 든다네. 아차하면 산판에 누워 졸수도 있지. 그새에 비행기가 날아들어 창고를 치면 사단이 쓸 포탄이 다 날아나는판이야… 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
선형은 말하다말고 그 어떤 괴로운 추억에 덜미를 눌리운듯 이마살을 찡그렸다.
현무가 호기심에 가득차 보는것을 느끼자 그는 한마디로 매듭을 지었다.
《근심보따리를 안은게 우리라니. 그런데서는 사단장만큼이나 하지. 그러나 이런 땐 좋단말이야.》
《선형동진 입대전에 뭘 했습니까?》
《로동계급이였지.》
《로동자였다구요?》
현무는 자기의 짐작이 어방없이 틀린것을 알았다. 그

는 이 유선형은 농촌소비조합상점 책임자나 리위원회 서기장 같은 일을 하다가 입대했으려니 생각했던것이다.

《그래 동무는 날 무얼 했을걸로 알았나?》

《3,000평쯤 다루던걸로 알았지요.》

《예끼,내 이래뵈두.》

유선형은 말꽉지를 떼다 말고 다리를 들고 발싸개로 발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며 눈까지 감츠레하게 쪼프리는것으로 봐 옛기억을 더듬는 모양이였다.

《땅 타던걸 생각합니까?》

《들어볼라나.》

유선형은 헛기침을 하고는 또다시 두눈을 쪼프렸다.

그는 천천히 발싸개를 하고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난 원래 군수공장에 있었댔네. 광복전에는 주물공이였구 광복후에는 반장으로부터 직공장까지 됐지. 반장으로 있을 때는 매번 계획을 초과완수하여 상장과 상금을 다달이 탔네. 아이들은 그걸로 애비자랑을 꽤 했지. 한데 지도원으로 승급한 다음에는 그 자랑거리가 없어졌어.

하루는 시당에서 찾더군. 웬 점잖게 생긴 군복입은 어른이 나하고 담화를 하자는것이였네. 지금도 그 어른과 하던 얘기가 생각나.

그가 악수를 나누며 하는 첫말이 〈유동무 손아귀가 보통 아닌데요. 왜놈감독을 쇠물남비에 처넣었다더니 과시 다르군요.〉 하는것이 아니겠나. 그 사실은 공장에서 거의나 모르는 일인데 그가 알더란말일세.》

이 말에 현무는 놀라움에 차 그를 보았다. 이처럼 호인풍의 인간이 그런 일을 해제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흥,자네 곧이 안들을수 있어. 내 발잔등에 상처를 낸놈을 복수한것이였지. 하여간 그때는 그랬네. 그 어른은 나한테 지나온 경력을 죄 묻더군.

선반견습공, 주물공, 습합공… 그 과정을 낱낱이 알아보더니 불쑥 군대에 가볼 생각이 없는가고 묻지 않겠나. 그때 기쁘던 일은 원, 넨장… 나는 그가 다른 말을 할가봐 얼른 대답했네.

〈보내만 주십시오. 제 일본놈들이 창격훈련을 하는것두 봤는데 쇠장대 하나면 그깐놈들 한두름씩 제낄만합디다.〉 라고 했지. 그러자 그는 껄껄 웃더니 〈그렇게 해야만 군대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하고는 정색하여 〈장군님께서는 동무와 같은 로동계급을 인민무력의 주추돌로 믿으십니다.〉 하는것이 아니겠나. 가슴이 다 찡해지데. 그는 내가 군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투초소에 서게 될것이라고 했어.

그후에 인츰 군복을 입었지. 규정학습을 좀 시키더니 대뜸 군관을 시키더란말일세. 사실은 재목이 못되지. 행동이 굼벵이같이 굼뜨구 우는소리가 많았거던. 그래도 그땐 집에서도 그래, 공장에서도 그래 과시 유선형이를 인물로 알았지. 나 역시 뜨더군. 한데 시키는 일인즉은 병기수리소 책임자란말일세. 그렇게 돼서 예까지 왔지.

전쟁이 일어나자 아이들은 편지마다 무슨 훈장을 탔는가고 물어보네만 넨장, 훈장이 차례지나. 옆의 누구 아버지는 전사영예훈장, 누구 삼촌은 국기훈장을 탔는데 아버지는 뭘 탔나 하고 보채올 때는 속이 다 상한다니.

그래 작년 가을 반공격때 군공메달 탄걸 알려주었댔는데 집에서 굉장한 축하편지가 왔더군. 한데 그 편지에 〈아버지, 사단 정치부장아저씨가 우리 집에 편지를 보내줬어요. 아버지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영웅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이웃집 철남이보고 걔네 아버지보다 울아버지가 더 쎄다고 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겠나. 허 참.》

유선형의 말소리는 여기서 갈리였다. 고향의 눈알 까만

자식들의 생각이 간절한 모양이였다.

현무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그에 대한 측은한 동정이 밀물처럼 차오름을 느꼈다.

(이 선형동지가 훈장을 타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을 때는 언제일가.

아니, 그보다 강급처벌을 받은것을 집에서 안다면…)

《창고장동지, 그전날 전 창고장동지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때의 비난을 잊어달라는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것이 많았다는걸 말하고싶을따름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웃음을 담았던 선형의 두눈은 한껏 커졌다가 점차 가느스름하게 쪼프려지며 심각해졌다. 그는 현무를 외면하며 계속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어쩌겠소?》

앞으로 그런 경우에?… 현무는 대답할수가 없었다. 처세술과 외교를 모르며 거짓을 질색하는 그로서 장담할수 없었다.

현무가 고개를 숙인채 아무 대답도 못하자 선형은 그의 손목을 꾹 잡았다.

《난 잊을수는 없어. 그러나 고맙게 기억하네. 그게 뭐라나. 적을 맘껏 못잡은 분함이고 장군님의 명령을 똑바루 관철 못한 안타까움인데… 난 그 마음을 뜨겁게 샀을뿐이야. 또 그런 자네들의 격동을 받아안으면 더 힘이 생기네.

준엄한 전쟁마당에서 속된 아녀자와 같은 계산법은 버려야지. 그래서 난 동무를 더 미쁘게 본거야. 그렇지 않아?》

선형의 손이 현무의 잔등을 철썩 갈겼다. 현무는 시무룩 웃고말았다.

《그런데 전 그때 창고장동지한테 한 그 말때문에 한

녀동무한테서 배척을 받았답니다.》

《아니, 건 무슨 생뚱같은 소리요?》

선형은 눈이 다 둥그래졌다.

이상스럽게도 마음의 탕개가 풀려 너누룩해진 현무는 오직 소림이와 자기 둘사이의 감정속에서 비밀로 묻혀 있어야 할 떳떳치 못한 결렬의 사연을 선형의 앞에서 아무런 주저도 없이 털어놓았다.

선형은 마치 큰 숙제나 안은 사람처럼 진중해서 듣다가 입을 열었다.

《무선소대의 그 처녀라면 나도 잘 아는 동문데… 금옥같은 처녀지. 한데 그건 그렇고…》

선형은 눈을 꺼먹거리다가 웃었다.

《그 동무이야길 들으니 내가 처벌을 받았을 때의 심정이 돌이켜지오. 그때 아찔하던것말이요.

솔직한 말로 난 거의 절망상태에 빠져 풀죽어있었소. 이러한 나를 사단 정치부장동지가 찾았소. 그런데 방에 들어가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나보다 더욱 괴로운 빛이였소. 그는 나의 손목을 꽉 잡고 말하는것이였소.

〈그 문제는 나도 동의한것이요.

우리는 혁명가들이 아니요. 조국의 운명을 두고 판가리하는 마당에서 사사로운것은 초월해야 됩니다.

처벌은 동무의 충실성을 못믿어서, 동무가 미워서 준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자신을 꾸짖었소. 칭찬을 해주면 잘하고 꾸중하면 맥을 잃는것이 과연 효자겠소. 때리더라도 어머니를 받드는것이 진짜 효자고 사람의 도리지. 매질하는것도 어머니이기에 하는것이고 또 어머니란 자식을 매질할 때 제먼저 마음속으로 울거던. 처벌을 사랑으로 생각는다면 별나게 들리겠지만 난 정치부장동지에게서 그것을 느꼈던것이요. 한데…》

선형은 빙그레 웃으며 현무를 보았다.

《…그때 동무의 말은 참 호되더군. 까놓고 말해서 아프긴 아팠소. 하지만 다시 말하오만 그런 말이 오히려 힘을 내게 하거던. 난 그때 하던 말을 잊지 않소.

전사들은 쓰러지면서도 포탄을 찾는다, 숨지는 그 순간에도 포탄을 찾으며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한다, 승리에 보탬은 못해도 장애를 놀다니…

백번 옳은 말이지. 정말 그말대로 못할바엔 물러서는것이 낫지.

그 불같은 말을 할 때의 동무의 심정을 무선소대장 체네가 리해할 날이 꼭 올거네. 전쟁판에선 사사로운 기분이나 체면따위는 잊어야 한다는것도.

난 그때 동무의 말을 듣고 더욱 제구실을 잘해야겠다 강심을 먹었는데 그렇게 못했어, 못했단말이야. 실패를 범한걸 생각하면… 넨장 잊어먹었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 않아. 잊혀질가하다가도 동무랑 보면 다시 생각나고. 허허…

하지만 이제야 두번 더 실책을 범하겠나. 제 직분을 명심하고 머리를 잘 쓰면 되는거지.

난 지난 기간 일로 가슴 쓰릴 때면 이런 결의로 자기를 위안하네. 또 전쟁승리를 위해 나의 모든것을 바치는 길이 그 모든 실책에 대한 갚음이라는것으로 용기를 얻군하오.

그러면서 승리의 날까지 꼭 살아서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싸우자고 맘먹소.

그 승리의 날 만세소리가 우리 일에 대한 표창으로 될것이요.》

현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것은 한갖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깨끗한 심장에 새겨진 신념인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이 신념은 책에서 배운것이 아니라 파란곡절의 인생길에서 스

스로 찾아쥔 진리이다.

《왜 그리 찌뿌둥해있소. 처녀때문이요?》

선형이가 그의 무릎을 다쳤다. 감동어린 현무의 눈길을 언뜻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내 이제 그를 단단히 윽박을테요. 모욕이요, 인신공격이요 하는건 소부르죠아말이라구.》

선형은 껄껄 웃다가 현무의 귀바투 입을 가져다대고 속삭이였다.

《내 장담하는데 그 얽힌 실꾸리는 내가 풀지. 아직 전쟁하는 남자들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거니— 차— 이거 내가 너무 떠들었다.》

선형은 씽긋 웃으며 일어났다.

《몇시나 됐소?》

《8시 5분입니다.》

《됐어. 깜박 잊었댔는데 포병참모부와 사단직일관실에 여기 정형을 보고하게.》

《창고장동진?》

《난… 창고를 한바퀴 돌아보고 가겠네.》

《식사를 하고 보지요.》

《한바퀴 돌아봐야 밥맛도 좋으니까.》

선형이가 먼저 자리를 떴다.

현무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일어서 걷다가 새로 생긴 폭탄구뎅이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벌써 물이 퍼렇게 고였다.

《뭐요?》

저만치 가던 선형이가 돌아보며 소리쳐물었다.

《폭탄자리에 물이 생겼습니다.》

《흥, 미역감을데가 더 생겼군. 복철이 오면 개별목욕탕으로 씁세.》

선형은 이런 말을 하며 싱그레 웃고는 산기슭의 반토굴쪽으로 무겁게 다리를 끌며 걸어갔다.

현무가 내려오는 도중에 새로 생긴 폭탄구뎅이가 여러개 있었다. 이러고보면 창고가 맞지 않은것이 다행이라고 할지. 하긴 사단에서 여기를 림시병기창고지역으로 택한것도 산세가 묘하여 적기들이 급강하할수 없게끔 되였기때문일것이다.

현무가 위병장실에 들어가 전화로 포병참모부를 찾으니 마침 형식이가 나왔다. 이미 사단직일관실에 통보된 경비소대장의 전화보고를 전달받아 폭격의 전후사를 대략 알고있는 형식은 현무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바쁘게 거의 환성에 가까운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다 무사하단말이지.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그런데 나는 도피분자가 되여있었으니 볼낯이 없소. 허허—》

현무는 늘 랭담하다고 할 정도로 침착하던 병기과장의 흥분에 저으기 놀랬다.

《그래 비행기는 몇대였소? 모른다? 그렇지. 밤이니까… 근데 부과장동무는 어데 있소?》

《부과장이라니요?》

《누구긴 누구겠소? 선형동무말이요?》

《네?!》

《기뻐하오. 명령서가 떨어졌소. 그리고 동무도… 아니, 이건 아직 공개 마오. 이제 내가 내려가겠소. 참, 선형동무한테만 조용히 전해주오. 회복이 되였다고… 내 고민이 하나 덜렸소. 허허!—》

기쁨에 떠있는 목소리였다.

수화기를 놓는 현무의 가슴에도 선풍같이 기쁨이 치밀어올랐다.

빨리 가서 선형이에게 알리고싶었다.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되는것은 행복한 일이다.

현무가 막 일어서는데 문이 열리며 경비소대 전사가 눈이 화등잔이 돼서 나타났다.

《야단났습니다. 구역순찰을 하는데 산에 시한탄이 있습니다.》

《시한탄?》

현무는 덜미가 선뜩해졌다.

그는 마당에 뛰여나가 식사를 하고 나오는 대원들을 급히 집합시켰다.

세명씩 조를 짜서 방향별로 출발시킨후 선형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며 탄약창고들이 있는 반토굴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맞은편 산기슭에서 섬광이 일며 요란한 폭음이 터졌다.

윙윙하고 파편과 돌부스레기들이 날아왔다. 황급히 엎드린 현무의 어깨와 잔등에 흙과 자갈이 쏟아져내렸다.

현무가 일어서려는데 또다시 폭발이 일었다. 휘발유저장고에서 80메터 못미처 있는 시내가옆이였다.

휘발유저장고우에서 터졌더라면 어쩔번했는가.

그만해도 다행이라고 옷을 털며 일어서던 현무는 그만 심장이 딱 멎는것만 같았다.

봉분같이 동그랗게 솟은 휘발유지하저장고우에 희고 푸르스름한 불기둥이 창날처럼 뻗어올라갔다.

현무는 그 불길이 휘발유저장고의 통기구멍에서 뿜겨나오는것임을 알았다. 진공되다싶이 한 저장고에서 저 불길이 조금만 커지면 저장고는 폭발할것이다. 그 폭발은 이 골짜기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수 있을것이다. 현무는 이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내달았다. 그런데 몇걸음 못가 그 창날처럼 솟구치던 불길이 보이지 않았다. 노르끼레한 연기가 그 주변에 퍼져흘렀다.

(어찌된 일일가?)

돌부리에 걸채이고 시내물에 빠지며 휘발유저장고에 이른 현무는 그만 깜짝 놀랐다.

연기타래가 실실이 감도는 봉분같은 저장고의 통기

구멍우에 유선형이가 두팔을 쫙 펴고 깊은 잠에 취한듯 엎드려있었다.

《선형동지!》

현무는 전률하듯 몸을 떨며 소리쳤다.

하나 유선형은 옴짝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내굴이 피여났다.

현무는 한동안 감전된 사람처럼 굳어졌다가 엎어지듯이 유선형을 붙안았다.

그러나 유선형의 몸을 뗄수 없었다. 창고안의 불이 죽으며 유선형의 몸을 끄당겨 구멍에 완전히 붙다싶이 해놓은것이다.

선형은 휘발유저장고 통기구멍에 파편이 날아들어 불이 일자 자기 몸으로 불구멍을 막은것이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거기엔 물에 적신 가마니를 들고 선 농삼이도 있었다. 농삼은 가마니를 쥔채 우들우들 떨다가

《창고장동지!》

하고 선형을 끌어안으며 몸부림쳤다.

선형의 손에는 상아물주리가 쥐여져있었다. 그 좋아하던 담배도 휘발유창고앞이라 피우지 못하고 빈 물주리만 물었을것이다.

선형이를 가까스로 떼여냈다.

아직도 통기구멍에서는 뜨거운 화기가 밀려나왔다. 농삼이가 젖은 가마니를 그 구멍에 씌웠다. 그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며 선형이가 이런 가마니만 들었어도 저렇게 되지 않았으리라는 비통한 감정속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현무는 선형의 그슬린 군복자락을 찢고 (그것은 물먹은 종이장처럼 미여졌다.)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심장이 알릴듯말듯 뛰였다.

《뛰오. 심장이 뛰오.》

현무가 펄쩍 뛰며 소리치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발바닥을 주무른다, 모자에 찬물을 적셔온다 법석 끓었다.

현무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유선형의 인중을 문질렀다.

좀 있어 유선형의 눈까풀이 열렸다.

그는 낯선 사람을 보듯 매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농삼이에게 시선이 멎자 알릴듯말듯 입술을 움직였다.

농삼이가 어린애를 다루듯 조심조심 선형이를 일으켰다.

선형은 농삼의 팔에 안긴채 주변을 더듬다가 일반기재창고를 보고는 눈섭을 꿈틀했다. 시한탄폭발에 반나마 무너진것을 알아본것이다.

그는 묻는듯한 눈길을 현무에게 가져갔다.

《걱정 마십시오. 다른것들은 일없습니다.》

현무가 말했다.

유선형은 나직이 숨을 들이그었다. 언제 그의 손에 다시 들렸는지 모를 상아물주리를 보다가 현무에게 눈길을 옮겼다.

《속탈 때 이걸 무오. … 한결… 낫지…》

《아닙니다. 무슨 소릴 합니까.》

현무가 소리쳤으나 선형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여기…》하며 웃가슴을 가리켰다.

농삼이가 그 호주머니에서 례의 그 가죽뚜껑의 수첩을 꺼내자 선형은 어색한 눈빛으로 현무를 보다가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엔… 내가 한건 없소… 후날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가… 수령님을 위해 잘 싸운 사람이라는걸 말해주오. 그리구… 농삼일… 군관강습소… 보내야지. … 한데 소림이라는 처녀한테 말을… 못하고… 가눈 …빚을 졌어… 음… 왜 이리 답답할가… 편히… 못죽겠구만… 저 창고는 왜 무너졌나… 아—》

유선형의 말은 여기서 멎어버렸다.

그는 눈을 뜬채 숨을 거두었다. 화상이 치명적으로 깊었던것이다.

《창고장동지！…》

전사들이 우르르 모여들며 호곡하듯 웨칠 때 현무는 가슴이 산산이 찢기는것 같았다.

농삼이가 유선형의 시신을 안고 내려갔다. 전사들은 그를 중심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현무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자리에 그대로 퍼더버리고 앉아있었다.

현무의 눈에는 시내가에 반쯤 뿌리를 잠그고 서있는 들꽃 두송이가 안겨왔다.

하이얀 꽃망울 세개가 열렸다.

유선형이가 인화성물질이라고 하면서 뽑아버린 민들레였다. 물속에 잠겨진 줄기는 희멀갰으나 꽃은 산뜻하게 고왔다.

선형은 가고 꽃만 남았다는 허무하고 기막힌 사실앞에 현무는 심장이 비틀리우는듯했다.

(그 인자하고 선량한 사람을 이제 다시는 못본단말인가. 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하여주고 헤여졌다면—

부과장으로 회복된 사실이라도 알려줬더라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운명하는 순간에도 창고가 걱정되여 편히 못죽겠다고 하던 그의 말이 귀전을 쟁쟁히 울렸다.

《…편히… 못죽겠구만… 저 창고는 왜 무너졌나… 아—》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림종하는 어머니의 웨침이며 눈빛이였다.

(내가 제구실을 하였더라면 그가 그토록 걱정하며 눈을 감지 못해하지는 않았을것이 아닌가.)

14

간간이 포성이 울려온다.

고요한 이런 밤이면 그 폭음의 크기로 군단포와 사단포를 가리기도 한다.

선형이네 집에 편지를 쓰려고 만년필을 뽑아든 현무는 여직껏 한자도 쓰지 못한채 그 폭음에 귀기울였다. 복수를 불러 소리쳐 일떠나고싶은 심정이 공간속으로 흘러오는 폭음속에 담겨있는듯.

고개를 들면 뾰족한 탄알끝에서 직선으로 뻗쳐나오는 가스불이 마치 포구에서 뿜겨나가는 발사시의 불길처럼 보인다.

《쐇!》

《쐇!》

현무는 눈에 불을 담고 원쑤격멸의 노한 사자가 된 자기를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다시 편지지에 시선을 준다.

이전에도 현무는 전사한 대원들의 가족에게 편지를 쓴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간단했다. 《땅크를 격파하고》 혹은 《화점을 까부시는 싸움에서》라는 말마디면 전사의 업적을 충분히 전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휘발유창고의 불을 끄다가 희생된것이 얼마나 비상한 위훈이라는것을 사람들은 모를것이니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써야 하는가.

현무는 선형이가 남긴 가죽뚜껑의 《기록집》을 펼쳤다.

그것을 보느라니 끊어진 다리와 진창길, 시한탄이 누워

있는 도로가 떠올랐고 불붙는 화차에 뛰여올라 탄약을 부리우는 화폭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현무가 만약 오늘일을 겪어보지 못했더라면 여기에 적힌 한자한자가 피와 신경과 젊음을 바쳐가는 희생적인 투쟁의 기록이라는것을 다는 몰랐을것이다.

《…4차의 호송에서 두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 …》

《×월 ×일

김농삼동무는 싸우는 고지에 한차분의 수류탄을 등짐으로 날랐다. …》

《×월 ×일

살얼음낀 여울목 중간에서 보총탄을 실은 차가 고장이 났다. 날이 밝아 좀 있으면 비행기가 올것이다. 운전사와 함께 상자를 나르는데 무전소대의 두 처녀가 나타났다. 윤소림, 리윤옥 이 동무들은 빈몸으로도 건느기 어려운 여울목에 뛰여들어 탄약상자를 날랐다. 앓지 말아야겠는데… 통신과장에게 알려줄것！…》

(소림동무를 여기서 알게 되였구나. 후퇴때였구나.)

현무는 시름없이 몇장을 넘기다가 한 대목에서 시선을 뗄군채 굳어졌다.

《…반포대대에 포탄을 보장 못함으로써 전투가 실패하였다. 젊은 화력부관의 눈물을 보았다.

아, 어쩌면 내가 그 피와 눈물을 보상할수 있을가…》

현무는 자기와 관계된 글을 보며 어깨를 실그러뜨렸다.

다음부터는 글줄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색연필로 박아쓴 글줄이 나타났다.

《×월 ×일

쌍무봉의 방어중대로 가져가던 탄약차 두대를 적의 포격에 잃었다. 아니, 유선형이가 그 포격권에 밀어넣었다.

탄약이 떨어진 전투원들은 고지에서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승리에 저애를 준 유선형!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유선형.

△ 명령에 복종, 자의적인 행동은 금물

△ 치밀한 타산, 침착!》

빨간 글씨는 방울방울 선형의 피로 새겨진듯싶었다. 오뇌에 몸부림치며 이 글을 썼을 선형이가 눈앞에 방불히 보였다.

(이때 강직되였구나.)

현무는 찌르는듯한 아픔을 느끼며 수첩장을 더 번지지 못하고 굳어졌다.

《…명령… 자의적인 행동은 금물… 치밀한… 침착!》

글발들이 살아뛰며 가슴을 울렸다. 비분과 통탄, 후회 가득히 선형은 이 교훈을 적었을것이다. 이때의 아픔은 아직도 선형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을것이 아닌가.

불이 껌벅하였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돌아보니 방문이 소리없이 열렸고 고사총소대에 갔던 김형식이가 들어섰다.

그는 일어서는 현무와 쓰다 만 편지지며 수첩을 묵묵히 내려다보다가 포탄상자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고통스럽게 번뜩이였다.

《도대체 적기가 간 다음, 창고불을 끈 다음 무얼 하고 있었소?

불이 꺼진 뒤부터 시한탄이 터진 사이가 무려 시간반이 되오. 응! 동무는 얼을 잃었단말이요.

그래 그런 폭격시에 시한탄같은것을 떨구리라는것을 몰랐소? 대답해보오.》

형식은 선형이를 잃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며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있었다.

《만약 조금만 정신을 차렸어도 창고를 돌아봤을것이고 시한탄을 발견했을것이며 유동무의 희생은 방지되였을것이요.》

《선형동진… 창고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 혼자 돌아봤느냐말이요. 또 그때에야…》
현무는 그때 위기를 막아냈다는것으로 하여 자기는 물론 선형소좌까지도 순간이나마 마음이 풀려있었음을 상기했다.
그러나 선형소좌는 여기에 없다. 죽은 사람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다. 전장에서 죽은 사람은 영웅으로 남아야 한다.
현무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는 인차, 제때에 돌아봤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제가 돌아본곳이였습니다. 저의 불찰이였습니다.》
현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한심하오.》
형식은 눈살을 찌프렸다.
《총은 누가 먼저 쐈소? 허위목표지 뭔지를 드러내서 그로 하여 창고구역을 로출시킨것이 아니요?》
현무는 숨이 답답하여 가까스로 말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폭격을 당하지 않을수 있잖았는가, 희생도 막을수 있잖았는가 알자는거요.》
현무는 낯빛이 하얗게 되여 가슴에서 고패치는 통절한 후회를 담아 짜내듯 힘겹게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모든건… 저의 잘못이였습니다. 그런걸 예견했어야 했는데… 다 제탓입니다.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그만두오. 누가 그런 소릴 듣자고 하오.》
형식의 말소리는 힘을 잃고 떨렸다.
그는 무언가 타끓는 격동을 주체 못하는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가 푹 꺼져든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는 말하지 마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내 책임이지. 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오.》

형식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노리를 누르다가 문득 책상우의 수첩이 눈에 띄자 그것을 끄당겼다.

파아란 피줄이 뻗친 손이 알릴듯말듯 떨었다. 《음.》 하는 소리가 이새로 새여나왔다. 수첩을 제자리에 밀어놓은 그는 현무의 얼굴에 침통한 눈길을 던지며 천천히 말을 떼였다.

《내가 좀 더 제 역할을 바로 했더라면 그가 강직되는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것이요.》

《전 선형동지가 과오를 범했다는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럴거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침묵해있다가 혼자소리하듯 말했다.

《아차하는 실수가… 그렇게 망쳤지. 15분때문이였소.

우리가 쌍무봉으로의 탄약발급명령을 받은것은 저녁 6시였소. 고지에 탄약이 거의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안 선형동무는 자기가 직접 호송지휘를 맡겠다고 나섰소. 30분동안에 탄약상차를 끝냈는데 선형동무는 그 즉시에 떠나려는것이였소. 한데 사단에서는 7시에 출발하여 8시반까지 도착하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요. 항공습격이 우려되여 어슬녘에 행동케 하자는것이였지. 그리고 중요하게는 갑자령을 통과하는것은 8시부터 8시 15분사이에 하라고 강조했소. 동무도 알겠지만 거긴 적의 〈쏘구역〉이였는데 15분에 한번씩 집중포사격을 해댔던것이요.

이런 사정으로 하여 나는 선형동무의 결심에 동의하지 않았소.

그러자 같은 부과장으로 너나들이하던 그는 몹시 격하여 나를 힐책했소.

〈과장동문 지금 이 시각에 우리 전사들이 탄약이 떨어져 적들을 족치지 못하고 피흘려 쓰러질수 있다는걸

생각 못하시오. 우리가 무엇때문에 있소.〉 하면서 얼마전에 한 포병군관으로부터 제구실을 못할바엔 물러나라고, 뒤에서 밥먹고 도대체 뭘하는가고 호되게 얘길하더라며 그 젊은 군관을 생각해서라도 한시바삐 떠나겠다는… 아니, 왜 그러오?》

형식은 말허리를 끊고 의아히 현무를 보았다. 현무는 꼼짝않고있다가 괴롭게 중얼거렸다.

《그건 제가… 비난한것입니다.》

《…그…렇소?!…》

형식은 저으기 놀란 빛으로 현무를 보다가 말을 계속했다.

《뭐, 그런 말이야 동무만 했겠소. 전방동무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리는 나도 여러번 들었소. … 건 그렇고, 그때 난 선형동무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타협이 된셈이였지. 그래 좀더 신칙해야 했는데 못했소.

차는 7시에 떠났으나 어찌나 다몰았던지 15분전 8시에 갑자령에 이르렀다는것이요.

때마침 비까지 내려 더욱 캄캄한데다가 이삼분 기다려도 포사격이 없으니 〈돌파〉할것을 명령했소. 이게 사달이였지. 갑자령에 오르자 적의 155미리 포들이 집중사격을 해왔던것이요.

삽시간에 두차가 화염속에 휩싸였지.

선형동무는 탄약상자를 구하겠다고 몇번이나 뛰여드는것을 옆의 동무들이 붙안아 막았소.

그날밤 내앞에서 가슴을 쾅쾅 치며 괴로와하던 그를 생각하면… 그 일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너무나 아픈 교훈이였소.

실은 잘하자는데서 그리한것이고 또 그 시각에 꼭 포탄이 날아온다는거야 귀신이 아닌 이상 알아맞힐수 있소?

하지만 이건 성립이 안되는 리유지. 욕망만으로는 안

되지, 전쟁이니까. … 그런데 처벌은 그만 받고… 오늘 회복되는 날에… 회복되는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가다니, 응—

그러니 그는 가슴에 상처를 안은채 간것이 아니요.》

《과장동지! 선형동지는 처벌로 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무는 방금까지 자기도 이렇게 생각했다는것을 잊고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 다만 그가 가슴아파했다면 저희가 구실을 못하는것이였을것입니다.》

형식은 《음—》하며 신음하듯 뇌이고 책상을 탕 쳤다.

《너절한 우연이 많단말이요. 그 우연이 없게 우린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동무를 또 어데서 얻는단말이요.》

현무는 낮에도 울지 않던 그의 까뭇한 얼굴에 눈물방울이 번쩍이는것을 보았다.

《물을 마시십시오.》

《아니! 동문… 자오!》

형식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갔다.

현무는 그가 지금 얼마나 큰 피로움에 시달리는지, 선형이가 잘못되는 그 시각에 사단에 올라가있은것을 두고 얼마나 아프게 후회하는지 다는 몰랐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그의 질책이 그 고통의 몸부림이라는것만은 알았다. 그러자 선형이의 희생에는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가책이 가슴을 때렸다.

(폭격직후에 인차 돌아봤더면…)

현무는 산소의 부족을 느낀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잡고있었다. 화끈 단 손에 딱딱한것이 감촉되였다.

웃주머니에 넣은 선형의 상아물주리였다.

《속탈 때가 있을것이요.》라고 하던 선형의 말이 귀전에 쟁쟁히 울리였다.

불쑥 선형이가 과오를 범하게 된 심리적동기가 자기의 비난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였다.

일단 생각이 그에 덜미를 잡이자 헤여나오기 힘들었다. 죽은 사람처럼 히벗해있던 현무는 한참이나 있어서야 머리를 저으며 수첩을 번졌다.

파란색연필로 활기차게 쓴 글발에 빛을 잃은 눈길을 던졌다.

《…오늘 사단이 20키로 전진.

전투대대들에 우리가 탄약을 직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점령한 월기봉에 올랐을 때 5대대장은 우리를 부둥켜안고 말했다.

〈동무네가 등짐으로 탄약을 날라왔기에 우린 여기까지 먹었소.〉

나는 우리의 포탄과 탄약에 만신창이 된 적의 시체와 화점들을 보며 만세를 불렀다.

우리의 승리！ 우리가 점령한것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감탄부호까지 치며 썼을가.

현무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장들을 번져갔다.

오늘 쓴데 이르러 내용을 더듬던 현무는 얼빠진듯 굳어지고말았다.

《…새로 온 리현무동무는 판단이 예리하고 과감하다. 허위목표리용을 착안함으로써 적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105창고화재시 불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특히 대공사격을 조직함으로써 적기를 제압하고 창고폭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

현무는 손바닥으로 수첩을 덮고말았다.

기가 막힌 일이였다.

선형은 자기의 위훈에 대해서는 한자도 적지 않았다.

전사들의 이야기에서와 오늘 오후에 있은 장례식의 추도사에서 현무는 선형이가 사단의 대소전투들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선형의 기록집에는 하나도 없는것이다.

과연 선형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현무 자기가 바라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경위전사가 아니겠는가.

장례식때 느끼던 감정이 생생히 되살아올랐다.

사단에서는 그 바쁜 때이건만 여러 간부들이 내려왔었다.

휘발유창고우의 양지바른 언덕에 솟은 봉분앞에서 병기과장 김형식이가 두눈이 숯불처럼 이글이글해서 사회를 하였다.

《병기부과장 소좌 유선형동무와 영결하겠습니다.》

그는 이 말이 그대로 복수의 뢰성처럼 울리기를 바라듯 비장하게 했다.

《소좌 유선형!》

그 두 단어는 하나의 강한 충격파로 현무의 심장을 아프게 때렸다.

그는 붉은 천에 덮인 령구를 보며 이 충실한 중년군관에게 어울리는 칭호는 과연 무엇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소좌로부터 상위로, 다시 소좌로.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이 추도사를 하였다.

그는 해가 지는 어슬녘이여서인지 눈바투 추도사를 보며 읽다가 갑자기 불어치는 바람에 추도문 한장이 꽃잎처럼 날아가자 보지 않고 말했다.

《유선형동무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작전방침 관철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장군님을 위하여 살았고 장군님을 위해 죽은 로동계급의 이 참된 아들의 고결한 정신은 영원히 살아 빛날것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것이 아니였으나 현무는 울었다. 참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우애와 추모의 감정이였다. …

현무는 만년필을 다시 들었다.

하얀 편지지에 만년필을 가져가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문제는 순백한 마음속에 깃든 충실성이다. 그의 이 정신은 어떤 노력으로 형성된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질화된것이다. 그 정신은 그라는 인간의 피며 숨결이였다. 신념이였으며 량심이였다.》

현무는 선형이야말로 인간중의 인간, 가장 성실한 인간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선형이의 충실성은 바로 이 성실성과 손잡음으로써 참되고 진실한것으로 되였다.

성실치 못한 인간에게서 충실성은 말자체도 성립이 안되지만 있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뒤집어쓴 위조적인 보자기일것이였다.

성실하라.

이것은 현무에게도 역시 하나의 생활신조이긴 하였으나 선형의 세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충실하자.

현무에게서 이것은 일생을 규정하는 맹세이기도 했다.

하나 선형이의 세계에 비할 때 현무의 신념과 신조란 아직 결심이고 지향일따름이지 피와 살로는 되지 못하였다.

현무는 이제껏 많은 경우 자기 본위의 울타리에서 헤여나지 못했다. 어떤 정황, 어떤 변화 앞에서나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삶의 영예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수치를 당하느냐, 영예를 얻느냐.

물론 이것은 인간의 자존의식으로 볼 때 잊거나 무시해서는 안될 생각이다.

하나 이 전쟁에 자기를 묵묵히 바쳐 참호를 쌓는 한줌 흙으로, 적을 때리는 하나의 포탄으로 되려는 애초의 그의 구호에 맞지 않는것이였다.

자신은 어찌되든 관계없다는 높은 정신적앙양속에 사는것이 기본이다.

명예도 사랑도 죽음도 필요하면 다 희생하라. 감정과 사색은 오직 전쟁승리 하나를 지향하여 불타야 한다.

현무는 조용히 자기 생각을 아퀴지었다.

성실한 농군이 땅을 타발하지 않고 땅을 걸구어 풍만한 소출을 내듯이 성실한 전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명령이건 묵묵히 받아 성심으로 수행하는것이다.

그 성실성이 평화시기에는 땀으로 지불되지만 전쟁에서는 땀만 아니라 피까지 바치게 된다.

그렇다. 언제 어데서나 필요하다면 피까지 서슴없이 바치는 여기에 혁명전사의 본분도 량심도 명예도 있다.

여기에 군인의 성실성이 있다.

또한 이 성실성은 사심없는 충성심에 바탕을 두는것이며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에서 표현되는것이다.

오늘 포병부사단장은 떠나기앞서 (전선사령부로 가는 길에 선형의 희생때문에 들렸던것이다.) 현무를 병기창고장으로 임명하는 사단장명령서를 발표하였다.

병기창고장은 한급 높은 직무였다.

직무나 직위의 높고낮음에는 개의치 않던 현무로서는 이전같으면 화력부관에서 병기창고장이 되는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을것이다. 병기창고장으로 정식 임명된다는것은 다시 반포로 가리라는 엷은 희망마저 버리게 되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로 하여 불만해할수 없었다.

운명하기전에 선형이가 폭풍에 찌그러진 창고를 보며 편히 죽지 못하겠다고 불안에 차 중얼거리며 걱정을 덜지 못한채 눈을 감던것을 영원히 잊을수 없는 현무였다.

자기가 보다 믿음직하게 보였더라면, 자기가 진실로 제구실을 하는 사람이였더라면 선형이가 마음가벼이 눈을

감았을수도 있지 않았을가.

하긴 이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문제는 선형이처럼 사는, 선형이같은 인간이 되는것이다. 선형이처럼 정신의 위치, 마음의 위치를 바로잡는것이다.

(수령님의 뜻을 관철하는 그 참된 전사의 위치는 어데서건 붉은 화살의 예각으로, 육탄으로 나간다는 결심과 각오가 굳게 자리잡히면 되는것이다.

정신의 위치, 마음의 위치인것이다!)

숭엄한 기분에 도취된 현무는 선형의 《기록집》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금 뚫어질듯 또 보았다.

진창길, 피로 엉킨 길, 피로 헤쳐가는 길이 끝없이 뻗어있다.

현무는 비상한 충격에 입술을 악물었다.

나도 그처럼 싸워나갈것이다. 아니, 그가 못한것까지 해낼것이다.

나는 최전연에 서있다. …

현무의 얼굴엔 감빛 홍조가 어렸다.

그러나 현무는 아직 자기의 결심과 실천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가 하는것은 다 몰랐다.

15

슬픔은 일로 잊는다지만 꼭 그렇게 되는것도 아니였다.

이튿날은 아침부터 전방련대와 대대들에서 포탄들을 가지러 와 바쁘게 뛰였다.

저녁이 되자 절반넘는 창고들이 텅 비게 되였다. 마지막 차에 포탄을 실어보내고난 현무는 창고들을 돌아보다가 122미리포탄창고에 이르러서는 한참이나 떠날

념을 앓았다.

연기에 끄슬린 바람벽, 숯처럼 된 나무개피들과 흙덩이들이 어지러이 널린 바닥, 한상자의 포탄도 남김없이 말끔히 실어간 어둑시그레한 창고안을 살피는 현무의 가슴은 무척 아팠다.

문가에 세워둔 쇠갈구리가 눈에 뜨이자 그 아픔은 더욱 뼈저렸다. 그 쇠갈구리를 쥐고 불길과 싸우며 범처럼 뛰던 유선형이가 금방이라도 나타날듯싶었다.

그가 지금 있다면 기분좋게 웃으며 말할것이다.

《시원섭섭한걸.

우리 일은 그저 이런거라니.

보내놓은 포탄으로 놈들을 족치니 씨원한거구 또 한편으룬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떠나보낸 허전한 기분이기두 하구. 자, 이젠 가재구이나 해볼가—》

선형의 땀과 체온이 슴배여있을 그 쇠갈구리를 쥐자 가슴이 저릿해났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런 심정이였다. 단순한 슬픔만이 아닌 그 어떤 숭엄하면서도 또한 그것으로 하여 상실의 아픔이 더 큰 그런 감정이였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의 기억에서 가장 인상깊은것은 1945년 10월 14일과 그로부터 얼마후의 병원침상에서였다. 원래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광복작전시 그에 보조를 맞추어 평양에서 폭동을 일으키려 한 무장단성원의 한사람이였던 아버지는 공장사업을 책임지고 바쁘게 보냈는데 10월 14일 전날밤엔 새벽이 다 돼서야 돌아왔다. 현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김일성**장군님을 맞는 개선식장에 옷이랑 빨아입고 가려면 일찍 와야 할것이 아닌가고 묻자 아버지는 심중해서 말했다.

《아직 반동들이 날치고있어. 어저께두 두명의 이전 형사를 잡아냈다. 우린 혹시 쥐새끼같은놈들이 래일 끼여들어 쏠라닥거릴가봐 로동자규찰대를 조직했다. 너도 함께

가자.》

《원 아버지도… 어느놈이 감히—》

《아니다. 장군님을 받드는 사람은 그런 풀려진 기분에 있어선 안된다.》

이리하여 다음날 현무는 아버지와 함께 공설운동장에 가 환호하는 군중의 맨앞에 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단에 나오시자 아버지는 열광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하면서도 규찰대의 직분을 잊지 않고 예리한 눈길로 사방을 휘살피는것이였다. 어떤 쥐새끼라도 대번에 밝혀내여 짓눌러버릴 기상이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는 비오는 날 저녁 아버지는 공장을 파괴하려던 반동놈들과의 격투시에 칼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

아버지는 병원침상에서 장군님의 초상을 모신 신문《정로》를 가슴에 안은채 운명하며 현무에게 일생 잊을수 없는 말을 남겼다.

《나라를 찾고 민족을 살리게 된것은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이다.… 나는 그 은덕에 보답 못하고 간다만 너를 믿는다.

장군님 받들어 한생을 똑바로 살아라.

이건 조선사람의 도리이다.…》

아버지와 선형이는 어찌보면 신통히도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였다.

《창고장동지!》

문이 벌컥 열리였다.

현무는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농삼이였다. 그는 현무의 손에 쥐인 쇠갈구리를 보자 못볼것을 본듯 고개를 수그리며 문을 열 때의 다급스런 기색과는 정 반대되게 풀이 죽어 말했다.

《전선사령부에 갔던… 포병부사단장동지가… 오셨습니다.… 찾습니다.》

현무는 쇠갈구리를 굄목우에 놓았다가 다시 바람벽에 세워놓고 농삼이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병실에 이를 때까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현무가 방에 들어가니 두개의 가스등을 올려놓은 책상앞에 로병익대좌가 낯모를 중좌와 함께 앉아있었고 병기과장 김형식이가 긴장된 자세로 수첩에 무언가 적어넣고있었다.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은 현무가 보고를 하기전에 그의 손을 잡으며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몹시 축갔구만.》

《괜찮습니다, 부사단장동지！》

《창고엔 왜 혼자 남았댔소？》

《좀 쉬였습니다.》

《쉬였다？！… 쉬였다면 좋소. 하긴 쉴수 있으면 많이 쉬여야지. 이제 눈코뜰새없이 바쁠 때가 올테니—》

로병익은 다심한 정이 어린 부드러운 눈매로 현무를 보다가 눈길을 돌렸다.

《선형동무때문에 가슴들 앓는군.》

로병익은 고요히 가물거리는 가스등의 파란 불꼬리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의 눈시울이 알릴듯말듯 떨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유선형동무에 대한 교시가 계셨소.》

《네？！—》

현무와 형식은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로병익은 한손을 들어 일어서려는 그들을 제지시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그렇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교시하시였소.》

로병익은 북받치는 흥분을 묵새기려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번에 석수가 흘러내리는 채 꾸리지 못한 갱도회의실에서 그이를 뵙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소.

그이께서는 갱도를 채 꾸리지 못해 송구해하는 일군들 앞에서 〈동무들, 이것은 궁전과 같소. 지금 적탄의 불비속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생각하며 회의를 합시다.〉 하시며 련합부대지휘관들과 포병일군들에게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하시였소.

그러시고는 이번 작전의 주공을 담당한 부대들의 전투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소.

그런데 그이께서는 회의실 맨 마감줄에 앉아있는 나를 부르시여 작전물자준비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 아니겠소.

나는 충분히 준비되였다고 말씀드렸소. 그러자 그이께서는 엄하신 표정으로 〈나는 그런 위안이나 바라는 사람이 아니요.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말하시오.

어제께도 동무네 부대 병기창고가 공습을 받지 않았소.

나는 무엇이 난관이며 애로인가를 알자는것이요.〉

하여 나는 사실그대로 말씀드렸소.

적기의 공습으로 운반과정에서나 보관시에 피해를 당한 몇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는중에 유선형동무의 희생적투쟁으로 병기창고가 구원되였음을 보고드리였소.

그이께서는 묵묵히 들으시며 한동안 침묵하고계시다가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떼시였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있습니다.

더없이 귀중한 사람들을, 영웅들을 잃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하는것입니다.

나는 이런 불타는 충성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진

인민이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형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기억속에 영웅으로 살아남게 되였소.》

현무는 울컥하고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고개를 푹 숙이였다. …

차고 신선한 밤이였다.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은 바래주러 나온 현무와 형식이에게 전투행동이 수일내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발급준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한 후 차에 올랐다.

그는 악수를 하려고 현무에게 손을 내밀다가 불쑥 물었다.

《아직도 반포생각을 하오?》

《네.》

《가고프다 그 말이구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승리하는 날까지 이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그렇소?!… 허허. 이 동무는 땅크잡이 명수였소.》

로병익은 뒤에 오른 전선사령부 작전군관에게 자랑조로 말하고 현무의 어깨를 탁 때렸다.

《두고보기요. 잘 있소.》

휘푸른 달빛이 쫙 깔린 연한 어둠속에 흰 연기동그라미를 퐁퐁 내쏘며 승용차는 삽시에 멀어져갔다.

《오늘아침에 가져온 군단신문을 봤소?》

형식이가 그의 옆에서 뚝뚝한 소리로 물었다.

《못봤습니다.》

《보오. 내 가방에 있소.

선형동무에 대하여 쓴것 같은 시가 있더구만.》

《네?—》

현무는 어안이 벙벙해 형식을 보았다. 이 딱딱스런 과장이 시를 보는가.

그의 눈길이 면구해선지 병기과장은 말문을 돌렸다.
《하긴 시를 생각할 때는 아니지.》
하지만 현무는 방에 들어가 전선신문을 펼쳤다.
2면에 게재된 이름모를 시인의 시인즉은 한계렬영웅을 추모한 시였다.
…

16

해뜰녘에 미식무기 두차가 들어왔다. 사단에서 이틀전부터 독촉하며 기다리던 무기였다.
현무가 그 무기하차조직을 끝내고 창고에서 돌아내려오는데 형식이가 권총갑을 한손으로 내리누른채 팔을 휘두르며 바삐 달려왔다.
《발급이요!》
《얼마나 됩니까?》
《카빈 50, 엠완 100… 그리고 81미리박격포탄 한차요. …》
김형식은 숨이 막혀 둬번 호흡을 크게 한 후에야 말끝을 맺었는데 매 무기에 해당한 탄약을 가져오란다는 것을 다시 덧붙였다.
현무는 대기하던것과는 비할수조차 없이 적은 량임을 듣고 긴장이 탁 풀어짐을 느꼈다.
《그것뿐입니까?》
《그걸 어디까지 가져가는줄 아오? 어제밤까지 적들의 주둔지였던 이화리요. 적들이 틀고앉은 1035고지를 지나가야 되오.
지금 정찰중대와 두개 중대가 거기 쐐기쳐박혀나간 모양이요.》

《적구인가요?》

《적구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지.》

형식은 한풀 누그러진 음조로 계속했다.

《무기는 좋은걸로 골라보내야 한다오. 적후교란전투를 하려는 모양이요.》

그들은 미식무기를 부리워놓기로 한 일반기재창고쪽으로 분주히 걸음을 옮겼다.

오리나무숲을 에돌자 손잡힐듯이 창고가 보이는데 웃음소리가 왁자그르르 터져나왔다.

외식무기를 받는데서는 최충기가 판을 쳤다. 최충기는 정찰중대에 있으면서 뜨내기 영어를 배웠다. 함화문 몇개쯤은 줄줄 외웠고 영어문자도 그런대로 꽤 뜯어읽었다.

이번에 보내온 무기들은 여러 구분대들에서 로획한것을 급히 모아보내다나니 상자도 변변치 못했고 그나마 차에 부리고 싣고 부대끼면서 깨여져나간것도 있고 어떤것은 뚜껑도 없었다.

최충기는 쏟아져나온 무기를 보고는 무슨 영식, 미식, 카나다제 하고 국명을 척척 부르는가 하면 몇년식 몇년식 하고 알아맞혀 위신을 돋구었다. 포탄상자에 적힌 영어를 《류창하게》 읽어 농군출신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기도 하였다. 최충기는 기세가 난김에 자기가 영어로 초보적인 회화까지 한다고 흰소리를 쳤다.

선형의 희생후에 누구보다 슬퍼하고 쩍하면 성을 내고 변덕을 부리던 충기가 웃는다는것이 현무에게는 퍽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충기는 무기를 세여 상자에 넣는 농삼이에게 총을 내밀다가 갑자기 껄껄 웃으며 《동무들, 이걸 보라구.》 하고 총을 거꾸로 쳐들어보였다.

총탁에는 칼로 새겨넣은 그림이 있었다. 코가 뾰족하고 머리가 한광주리나 되는 녀자가 실눈을 짓고있었다.

그밑에는 《엘레리야！》라는 글이 있었다.
전사들은 그 그림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빌어먹을것들.》 하고 걸죽이 상욕을 했으나 충기만은 싱글벙글했다.
《에,이 화상은 이를테면 이 총 주인녀석의 애인일거란말이야. 그자는 늘 총탁에 볼을 대고 제 미인과 입을 맞추었을걸세. 아마 이 임자녀석이 뒈질 땐 작별키스도 못했을걸…》
그러자 전사들이 더 웃음을 참지 못하였던것이다.
한데 농삼이는 얼굴이 불깃해서 웃다가 정색을 했다.
《여,거 시시한 소릴랑 말고 빨리 인주게.》
《허,왜 서두나. 내 이제 부르죠아군대의 도덕적저렬성을 한강의 하려는데—》
《그만두라구. 충기,두엄을 파야 냄새밖에 날것이 없으니까.》
《두엄이라,하긴 그래.》
최충기는 조용히 되뇌이고는 모욕당한 사람처럼 총탁을 노려보다가 집어던졌다. 총탁판은 공교롭게도 삐죽한 바위모서리에 맞아 금이 갔다.
《왜 이래？》
농삼이가 억이 막혀 총을 들어 이모저모 살펴보는데 무기를 인계하던 호송병이 눈살이 꼿꼿해 달려들었다.
《동무,무슨 심통이 그래. 왜 파괴하는가？》
최충기는 그 말에 얼굴이 꺼매졌다. 입술마저 퍼릿하게 질린 그는 호송병에게 쌈싸울듯한 기세로 다가가다가 뜻밖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진정하라구. 저따위게 하나 금갔대서 뭬라나.》
《진정하라구？！ 동무탓에 저 무기는 3급짜리로 떨어졌단말이요.》
《저깐 막대기야 3급도 싸지. 너무 그러지 말라구. 내 저런것쯤은 하루새면 300자루는 얻어다줄수 있어.》

최충기는 얼리는 투였다.

《별사람이군. 미국놈을 쏴잡을 무기를 마스다니.》

《뭐이 어쩌구어쨌어? 저따위 똥지른 막대기같은걸 하나 가지구 무슨 코에 걸자는거야.》

최충기가 어찌나 큰소리를 쳤던지 농삼이가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충기는 농삼이의 눈길과 맞씨름을 하다가 《넨장!》 하고 돌아서며 수자를 맞춰넣은 상자뚜껑에 못을 박기 시작했다. 망치소리가 그의 뒤틀린 심사를 하소하듯 거세게 울렸다.

이때 현무와 형식이가 나타난것이다.

형식은 까딱않고 충기를 주시하다가 슬렁슬렁 걸어가 총탁이 마사진 그 총을 들고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가 총을 상자에 던져넣고는 다시 싸늘한 시선을 충기에게 보냈다.

《동문 군대요 아이요?》

그제야 충기는 상관들이 온것을 알아차린것처럼 부시시 일어나 차렷자세를 했으나 부연 눈길은 현무도 형식이도 아닌 먼 허공을 향하고있었다.

현무는 자신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충기의 어리석은 행동, 그 행동에 대한 형식의 비난은 자기 부하의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감으로 체질화된 현무에게는 뼈아픈것이였다.

《충기동무,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현무의 날카로운 말에 충기는 움쩍하지도 않았다.

고개를 외로 튼채 어떤 욕도 당하리라는 투로 입술을 강문 그를 보며 현무는 충기의 자존심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픈 생각은 없었다.

현무는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화리에 가본 동무들이 없소?》

모두가 잠잠히 서로 얼굴을 쳐다볼뿐이였다.

그때 충기가 볼부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가봤습니다.》

현무는 그의 말은 듣는척 안했다.

《누구도 못가봤단말이요?

이제 그리로 이 외식무기들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자 전사들은 저마끔 호송임무를 맡겠다고 현무에게 제기했다. 현무가 선뜻 결심하지 않자 전사들은 말없는 대신 그의 시야에 부단히 뛰여들어 행동과 얼굴표정으로 빙그레 웃기도 하고 오직 자동차위장에만 전심하는가 하면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다는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자기라는 존재의 가치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누구를 보낼것인가?)

자동차위장을 끌낼 때까지도 현무는 결심채택을 못했다.

김형식은 《호송원선발을 똑똑히 하시오. 처음으로 개척하는 길이고 더구나 동무의 첫 사업이기도 하오.》라고 그루박아 말하기까지 했다.

아닌게아니라 현무는 첫 호송전투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인상깊이 남게끔 하고 싶었다.

형식이도 내려가고 일을 마친 대원들을 식사하러 보낸 후에 이런 생각을 두루 하며 창고를 한바퀴 돌아보는데 비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내려 길이 질어지면 어찌나 하며 내려가는데 길가의 바위뒤에서 충기가 불쑥 나타났다.

《창고장동지, 최충기 만날만합니까?》

최충기의 바지가랭이는 물에 젖었다. 현무를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지름길에 들어선것을 알고 저쪽 시내를 그대로 건너뛰여온것이였다.

최충기의 쇠붙이같은 얼굴에 눈섭과 눈은 한군데 맞붙고 입술은 파르르 떨었다. 현무는 이 고집세고 성칼진

하사관이 자기를 만나기전에 얼마만한 모대김을 겪었는가를 헤아릴수 있었다.

《무엇때문이요?》

《전 무기를 마스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충기는 힘들게 말하였다.

충기는 발끝을 내려다보았고 현무는 하사관의 어깨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런데 뭐요?》

《씻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뭘 말하는거요?》

《이화리는 제가 잘 압니다. 임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무기는 분명 〈무대복〉을 입을, 아니 적후정찰전을 할 저희 동무들에게 가져가는것입니다.

거기 가면 저는 이전 상관과 전우들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동무를 어떻게 보내겠소. 난 동무에게 무기파손건으로 경고를 주겠소.》

《창고장동지!》

타는듯 번쩍이는 눈길이 현무를 집어삼킬듯 보았다.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꼭 보내주십시오. 전…전…》

충기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선형동지한테 여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다른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몹시 가슴아파…했습니다.… 죽어서도… 저를 나삐… 생각할것입니다.… 전 회복해야겠습니다.… 땅속에서도 나를 용서하게말입니다.》

울것만 같은 충기였다.

그 눈엔 간절한 호소와 애원의 빛이 비꼈다.

현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가보시오.》

《알았습니다.》

충기의 대답은 절도있었으나 어깨는 축 처져있었다.
현무가 위병소토굴에 가니 형식은 커다란 군용지도를 펼쳐놓고 보다가 물었다.
《비가 더 오는가?》
《가는비입니다.》
《그곳은 해발고가 낮소. 흙은 점토질이고… 물이 고이면 잘 빠지지 않을것이요. 누구를 보내겠소?》
현무는 손수건으로 얼굴의 비물을 훔치며 말을 듣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최충기동무를…》
《뭐 최충기?… 그 불량기있는 하사관말이요?》
《아까 그 무기를 마슨 동무입니다. 정찰부분대장이였습니다.》
《난 그에게 처벌을 주려고 하오.》
《이미 저는 경고처벌을 주었습니다.》
《그랬군…》
그는 차곡차곡 지도를 접고는 의문어린 눈길로 현무를 보았다.
《전… 처벌은 줬지만 그의 심정은 리해하고싶습니다.》
《그 심정이란게 뭐요?》
《전사들은 선형동지의… 희생으로… 불붙고있습니다.》
지도를 짚은 형식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통어린 눈길로 현무를 일별하고는 문득 푹 갈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전쟁에서 감상적인것은 더욱 금물이요. 슬픔과 분노를 그런 식으로 터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보낸단말이요.》
《저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형식의 어조가 날카로와졌다. 이 순간 현무의 뇌리에는 포병부사단장이 들려주던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격정에 휘말려 빛나던 충기의 눈동자가 생생히 떠올랐다.

현무는 자신을 다잡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가 무엇때문에 싸우는가를 잘 아는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각된 신념은 사사로운 기질상 약점을 이겨낸다고 하잖습니까.》

《동무는 추상화된 리론으로 나를 설복하려 드는구만.》

《아니, 이건 리론이 아닙니다. 신념에 대한…》

《하긴 리론이든 뭐든 그건 옳은 견해지. 그런데 보낼바치고 처벌은 왜 주오?》

형식은 퇴창밖, 음산하게 흐려들며 비꼬치를 떨구는 하늘을 내다보았다.

《처벌을 주고 전투장엘 내보낸다? 글쎄 어떤 나라 군대에서는 처벌을 주고 적화구로 내모는것도 있소. 그러나 그건 폭행이요.》

《과장동지, 우리 전사들은 처벌이 무섭다거나 칭찬이 좋아 목숨을 바치면서 싸우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라는 긍지로 난관도 이겨내고 목숨도 바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본인이 제기한것입니다.》

《책임을 질수 있소?》

《네.》

《그래 누가 또 가오?》

《제가 가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동무가?》

형식은 아연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처음입니다.》

현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건만 형식은 침

묵을 지키고있었다.

《앞으로의 대발급도 그쪽 통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로선료해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료해실습이 아니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과장동지가 있으니 만치 별문제가 없으리라봅니다.》

강렬하게 고집하는 눈과 동요하는 눈이 씨름하듯 맞붙었다.

형식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동무의 심정을 알겠소. 대원들앞에 모범을 보이자는건 좋은 일이요.》

《전 그래서만 아닙니다.》

《결심대로 하오. … 근데… 됐소.》

형식은 승낙하고도 씨원치 않은 기색이였다.

현무가 밖으로 나오니 비발이 더욱 굵어졌다.

그런데 밖에는 비에 푹 젖은 충기가 서있다가 비슬히 피해갔다.

현무를 보는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사의 빛이 흘렀다.

그는 밖에서 모든것을 엿들었던것이다.

17

무거운 구름장이 낮추드리운 하늘에서는 수십만개의 은실을 드리운듯 비가 쏟아졌다.

이미 속옷까지 말끔히 젖힌 충기는 여느때면 잔등골으로 흘러내리는 선뜩선뜩한 비물에 대고 걸직한 욕을 퍼부었으련만 지금은 그깐 비같은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그의 기분은 을스산하면서도 매우 심각했다.

이따금 길이 구배진데서나 폭이 좁은데 이르러 자동차에서 껌벅 켰다가 죽이는 전조등의 덕분으로 앞에서 달리는 현무가 탄 차를 볼 때면 그의 낯빛은 거의 엄숙한 빛을 띠면서 더욱 굳어지군하였다.

그는 현무를 두고 생각하였으며 선형이를 회상하며 입술을 깨물기도 하였다.

사실 충기는 선형의 희생으로 커다란 심리적타격을 받았다. 폭격전날에만도 전투구분대로 보내달라고 쌈싸우듯 떼질한 그였다. 승낙을 하지 않는다고 볼에 밤알을 돋혀서 찡얼거리였다. 그런데 이것이 두고두고 가슴허빌 상처로 될줄 몰랐다. 그는 선형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머리숙여 빌것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잊어주십시오.》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는 장례식이 있은날부터 서리맞은 풀처럼 휘주근해있기도 하고 때로는 괜한 일에 신경질을 내며 자기로도 지내놓고보면 후회되는 광기를 부렸다.

이러한 자기 심정의 밑바탕을 현무가 알아줬다는것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더구나 현무가 형식이더러 하던 《…장군님의 전사라는 긍지로 난관도 이겨내고 목숨도 바칩니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참된 인간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청렴하고 강직한… 그리고 결곡하다. 그야말로 량심적인 인간이지. 그러한 그를 얼마전까지도 랭랭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니 나야말로 바보다.

하여튼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아야지. 선형동지처럼. 그는 내가 이 직무를 시답잖아하자 《충기, 영웅이 되는것도 어렵지만 착실한 병기전사가 되는것도 그 못잖게 어렵다네.》라고 말했지. 나는 그때 코방귀를 뀌였어. 그런데 그 좋은 아바이는 휘발유탕크를 구원하고 소문없이 쓰러졌어. 얼마나 좋은, 얼마나 훌륭한 아바이

였는가.
때문에 현무동지까지 오늘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충기동무, 우리 일은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럴수록 우린 선형동지를 생각합시다.》
그래, 나도 죽기를 겁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죽더라도 임무야 떳떳이 수행하고 죽어야지.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현무가 탄 차가 멈춰섰다.
충기네 차도 섰다.
경비초소인가부다.
우장을 쓴 군관이 회중전등을 번쩍이며 현무가 탄 차에 다가온다. 그옆에는 기관단총을 앞에 건 머리를 기르고 단도를 찬 상등병이 따른다. 저 친군 정찰이군. 그런데 내가 모를 친구다. 허, 내 대신 굴러온 친군가. 차타보겠다는 흥정이구나.
현무가 적재함에서 뛰여내려 그들에게 마주가는것이 보였다.
현무는 차렷을 하며 거수경례를 한다.
경무관인가.
충기는 귀를 기울였다.
《지도를 가지고있소?》
《네, 있습니다.》
현무의 대답.
《꺼내오.》
부시럭거리는 소리. 전지불이 껌벅인다.
펼쳐지는 종이장이 보인다. 《경무관》이 우장을 펼쳐 그것을 가렸다. 보이지 않는다.
《위치가 좀 변경됐소. 더 나가서 여기 적의 뒤통수에 붙었소.
가는데… 여긴 적의 사격권이요. … 이쪽 산은 우리고… 이 산은 적이요. 그러니 적아의 복판으로 가는셈

이요.》
《알고있습니다.》
《호송병이 더 있어야 할걸 그랬소.》
충기는 귀거슬렸다. 흥, 여기에 탄게 《바지저고리》 인줄 아나보지.
《이 동무가… 길을 안내할것이요.》
《정찰중대 대원 박교문—》
머리기른 군인이 차렷자세를 취하며 악수를 한다.
제길, 이름도 건방졌다. 보아하니 풋내기군…
충기는 질투에 차 《굴러온 돌》을 본다. 솔직한 말로 하면 저 전사가 부럽다. 에, 그만 보자.
회중전등을 든 군관이 현무와 악수를 하고 물러난다.
《주의해야 되오!》
그가 큰소리로 현무만 아니라 충기네까지 들으라고 웨쳤다. 정찰병은 현무의 차에 올랐다.
한손을 잡고 휙 뛰여오른다.
(훈련을 좀 한 친구군.)
차는 다시 떠나 얼마 안가서 두길로 갈라진 교차점에 이르렀다. 앞차가 멎으며 현무가 뛰여내렸다. 그는 흙탕칠이 되여 찌글써하게 선 리정표를 바로잡아세웠다.
리정표의 왼쪽철판에는 《이화리》, 오른쪽에는 《춘화리》라고 써있다. 춘화리쪽길목은 철조망으로 차단하고 《×》표를 친 말뚝까지 꽂혀있다. 그 도로로 계속 가면 적들이 장악하고있는 1035고지 기슭으로 감돈다.
현무는 그 말뚝에 다가가 흔들어보고 돌아섰다.
《창고장동지, 그리로 가도 우린 자기 목적지에 이를수 있습니다.》
적들이 살판치는 춘화리도로로 여러번 다녀본적이 있는 충기는 호기있게 말했으나 현무는 비소리때문에 못들었는지 그대로 차에 올랐다.
리정표는 뒤로 물러갔다.

이화리로 표식된 왼쪽길은 원심교를 건너 아군이 차지한 920고지를 에돌아나가고 춘화리로 표식된 도로는 920고지와 1035고지사이의 분지에 난 길로서 적이 장악한 1035고지기슭에 붙어 뻗었는데 이 두 길은 이화리와 춘화리가 끝나는 접경에서 마주치게 되여있었다.

먼 옛날 두쌍둥이가 싸움을 하고 갈라져 걷고 또 걷다가 길이 마주치는바람에 다시 만나 화해를 했다는 길이다.

충기는 자기네 도착할 장소가 그 쌍둥이가 상봉한 지점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차는 얼마 안가서 원심교에 이르자 또다시 멈춰섰다.

전조등불빛이 콩크리트다리의 란간살을 피뜩 비치다가 꺼졌다.

충기는 어둠속에서 뛰여내리는 현무를 보고 으스스한 몸을 일으켜 자기도 차에서 뛰여내렸다.

《원심교》라고 쓴 다리를 묵묵히 살피던 현무가 마주오는 충기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다리가 끊어지면 야단이겠소. 근데 아까 뭐라 했더라… 우리가 가는곳이 춘화리쪽으로 가깝소 이 길로 가깝소？》

《춘화리쪽으로 가깝습니다.》

《가기요.》

현무는 더 말 않고 돌아서 수굿이 걸음을 옮겼다. 깊은 생각때문에 걸음발이 무거워보이는 현무의 뒤모습을 측은히 보며 충기는 속으로 혀를 찼다.

(지휘관이란 늘 근심보따리를 안고있어.)

차가 오불꼬불한 산협길을 벗어나 벌판에 들어설무렵부터 저격무기의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길가에는 깨여진 자동차며 포신이 휘여동그라진 포들이 눈에 띄였다. 전방하늘로 예광탄과 설화탄들이 파랗고 빨간 불줄기를 그리며 날았다.

충기는 오래간만에 보는 전선풍경에 가슴속 응혈이 쑥 풀렸다.

그는 이번길에 옛전우들을 만날수도 있고 잘만되면 정찰전에 참가할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무대복》(적군으로 가장하여 입는 옷)을 입고 한바탕 좌충우돌할 작전이 성숙되고있음을 륙감으로써 느끼고있는 그였다. 이제 도착하여 그 전투가 있어 참가하게 된다면 선형동지의 복수도 통쾌히 하련만.

그는 이마를 휘갈기는 차거운 비방울과 바람도 감촉하지 못한듯 위엄있게 앉아있었다.

만약 이 순간에 적들이 달려든다면 충기는 맹호같이 싸워 맨주먹으로라도 수십놈을 대적할것이다. 그러면 운전사들은 물론 저 정찰병도 뒤차에는 결코 《후방근무바지저고리》들이 아니라 진짜배기용사가 탔다는것을 알것이다.

최충기의 이 부푼 생각은 벌판을 거의 지나 산협길로 들어설 때 끊어졌다.

비소리를 짓누르며 둔탁한 야간폭격기의 폭음이 울려왔다.

(이새끼들은 비도 걷히지 않았는데 싸댕긴단말인가.)

두대의 차는 거의 동시에 전조등을 껐다. 차들은 갑자기 불을 잃자 닥쳐든 어둠에 인차 익숙할수 없어 속력을 콱 떨구었다.

《속도 빨리! 왜 이래.》

충기가 고함을 질렀으나 차는 어둠속에서 길을 헤아리노라 굼뜨게 전진했다.

그때는 이미 적의 야간폭격기 편대가 산을 스치듯 날아넘어왔을 때였다.

앞에 병풍처럼 마주오는 산밑에만 이르면 되련만 지금 거기는 몇천리처럼 아득히 보인다.

충기는 총을 놓고 웃동을 벗었다.

흰내의바람의 그는 솜뭉구리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나는듯이 달려 앞차를 지나치며 소리쳤다.
《날 따라 속력을!》
그의 말은 비행기의 폭음에 지워졌으나 운전사들은 알아차렸다.
죽어라 하고 달리는 충기를 표적으로 차는 속도를 높여 따라왔다.
충기의 목구멍으로 단내가 풍겨올랐다.
준비운동이 없이 갑자기 달리는바람에 숨이 멎든가 심장이 터지든가 할것만 같았다.
충기는 산골짜기에 들어설 때까지는 쓰러지지 말자고 오직 그 한생각이였다.
《충기, 교대하자.》
현무의 목소리가 울렸으나 흰 물체는 사람이 달린다고 할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냥 어둠의 공간을 누벼갔다. 굴간같은 좁은 골짜기가 어서 오라 부르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저기만 들어서면 일없을것이다.
떠나올 때 현무는 선형이가 남긴 지도를 펼쳐들고 항공습격시 대피할 장소의 하나가 이 골짜기임을 충기에게 알려주었던것이다.
그런데 비행기의 폭음이 덮치듯 가까와졌다.
(발견되였는가?)
충기는 덜미가 선뜩해지였다.
이제 300여메터만… 바로 이때에 쏴— 하는 바람소리같은것이 일고 뒤미처 따따따— 하는 야무진 총성이 울렸다.
(한번 해보는 지랄이겠지.)
허연 대낮에 아무도 없는 행길에 대고도 총폭탄을 들이붓는놈들이라 심상히 여겨보려 했다.
허나 사태는 그렇지 않았다.
새된 금속성을 내며 급강하하는 소리와 함께 아츠러운

기관총사격이 다시 울렸다.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는것 같았다.
길바닥에 새겨진 자기의 그림자가 놀랍게 커진것을 보며 고개를 돌린 순간 충기는 아찔해졌다.
현무가 탄 차가 불길에 휩싸인채 달려오는것이였다. 차는 전조등까지 켰다.
(적탄에 맞았구나.)
몸서리가 쳐졌다. 못박힌듯 멈춰섰다.
뛰던 심장이 멈춰지고 숨구멍이 꽉 막혀든다.
얼없이 서있는 그의 앞으로 달려오던 커다란 불덩이는 멈출듯하다가 쏜살같이 에돌아 지나갔다. 분명 충기를 교대하러 운전간발판에 내려섰던듯싶은 흰내의바람의 현무의 모습이 얼찐했다.
《충기, 떨어져있어. 뒤차를 세우고.》
현무의 다급스런 웨침에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적기의 시선을 자기 차에만 이끌어 충기네를 안전하게 하자는것이다.
《창고장동지! ―》
충기는 무엇에 떠박질리운 사람처럼 내달았다.
하나 불덩어리는 점점 멀어졌다.
앞에 무엇인가 쿵―하고 떨어졌다. 언뜻 보니 무기상자였다. 몇발자국앞에 또 하나.
고개를 쳐든 충기는 불길에 휩싸인 적재함우에서 흰 모습이 희끗희끗 움직이는것을 보았다.
좀 있으면 차가 폭발될것이다. 하여 현무는 저 불길속에서 무기상자를 떨어뜨리고있지 않는가.
충기는 이 순간 날아갈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필사의 기력으로 몇발자국 더 내닫던 그는 돌부리에 걸쳐 앞으로 곤두박질하며 넘어졌다.
《아.》
피터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쳐들었을 때 《불덩어

리》는 골짜기에 들어섰다.
(이제라도 세우고 불을 끄면…)
한가닥 희망을 눈물겹게 담아 망연히 보는 그의 눈앞에서 차는 불시에 공중에 뜨는듯하며 불덩어리를 사방으로 뿌려던졌다. 쾅! 하는 폭음은 신음하는 충기의 가슴을 또 한번 쳤다.
차는 폭발된것이다.
까맣게 질린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골짜기에 이른 충기가 처음으로 본것은 벌렁 뒤집힌 차체였다.
다음 현무며 운전사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후에 안것이지만 골짜기에 들어서기바쁘게 차를 세운 운전사가 현무를 붙안고 뛰여내린것이다.
뒤집힌 차체옆에 커다란 불무지가 있었다. 현무는 그앞에 꿇어앉아 자꾸만 불더미를 뒤지고있었다. 그의 손에서 불붙는 종이, 총가목이 떨어진 총신이 날아났다. 행여나 하여 뒤져보는것이다.
충기는 윽—하고 치미는 울음을 삼키며 달려가 현무의 누렇게 탄 팔소매를 꽉 잡았다.
《창고장동지!…》
현무는 놀란듯 고개를 쳐들었다. 매연과 재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서 초점을 잃은 시선이 충기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가목이 타는 총이 들려있었다. 현무는 그 총을 물끄러미 보다가 풀숲에 휼 던져버렸다. 벌렁 뒤집힌 차체며 풀밭의 여기저기에서 너슬너슬 타고있는 종이며 널쪼각을 물끄러미 보며 현무는 한동안 옴짝하지 않았다.
친우의 분묘앞에 서있는듯한 모습이였다. 이윽하여 돌아선 그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길에 무기상자가 있겠는데… 차에 싣기요.》
충기가 탔던 차에 상자들을 날라다가 덧실었다. 여

덟개의 상자였다. 폭파되며 날아난 중에서 열둬자루의 총도 쓸만하여 실었다.
방수포를 다시 치고 동임끈까지 죄였을 때 현무는 운전칸옆에서 충기를 불렀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차를 호송해가서 인계해주오.》
《네? 제가?!…》
《동무가 가오. 가서 모자란 수량은 뒤미처 올거라고 말해주오. 거기 사단정찰중대장은… 내가 가져간다면 믿을거요.》
《호송책임은 창고장동지가 졌으니 창고장동지가 가져가야 하지 않습니까.
대원이 가서 어떻게 인계합니까.》
《부탁이요. 난 보충해가져와야겠소.》
《어떻게 가져옵니까? 시간이 허락됩니까?—》
《어쨌든 가져올테요.》
현무의 눈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번뜩였다.
《자, 그럼 믿겠소. 부탁하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충기는 화상으로 부푼 그의 손을 선뜻 잡지 못했다. 손바닥의 피부가 들린것이 알렸다.
《맘놓고 어서… 떠나오.
충기동문… 잘 싸웠소. …》
현무의 피진 눈에 한줄기 웃음이 피였다. 충기는 명치끝이 찡 저려들어 고개를 돌렸다.
비 그친 하늘은 부연 낯으로 쌀쌀히 대지를 굽어본다.
긴성긴성 내돋친 별들은 자위돌듯 물기를 머금었다.
간간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럴 때면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다.
충기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기가 꺾인 현무,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 애쓰는 현무,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 엄해지는 현무!

충기의 눈앞으로는 불현듯 병기과장앞에 서있던 현무의 모습으로 바뀌여 떠올랐다. 충기를 믿노라고, 꼭 보내야겠다고 결곡히 부르짖던 모습이였다. 불타는 무기를 정신없이 집어내던 모습이였으며 락심천만해 애써 눈물을 참는 숯등걸처럼 까뭇하게 질린 눈물겨운 모습이였다. 또 그 모습은 바뀌여 휘발유창고 불구멍을 막은 선형이로 되여 삼삼히 떠오르기도 하였다.

충기는 걸어서는 온밤 가야 할 이제까지 온 로정을 더듬기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열한개의 상자분을 보충해야겠소.》

현무의 말을 다시 상기하는 순간 그의 눈에는 강건너 적이 도사리고있는 1035고지가 안겨왔다. 산밑 도로로 서서히 움직이는 두줄기 불빛을 본 그는 무엇에 떠박질리운 사람처럼 현무에게 뛰여갔다. 그의 팔소매를 잡고 운전사가 들을가봐 길가의 수풀속으로 이끌었다.

《여기가 어덴지 모르겠습니까?》

《왜 이러오. 떠나지 않고…》

현무는 충기의 돌발적행동에 끌려는 왔으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저길 보십시오.》

충기는 1035고지로 올라가는 자동차의 전조등빛을 가리켰다.

《저 머저리들은 태평해있지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차의 대부분은 무기탄약차입니다. 하나 먹읍시다.》

충기는 흥분하여 이발을 떡떡 마주치며 말했다.

《뭐이, 다시 말하오.》

밤어둠속에 현무의 눈빛이 번쩍하는것이 알렸다. 충기가 다시 그 말을 꺼낼 때 현무는 강 하나를 사이둔

1035고지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충기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손을 내밀며 짓눌린 음성으로 말했다.

《담배 한대 주오.》

18

새벽별이 사위여갔다. 동쪽이 훤하니 들리며 바위와 나무들이 자기들의 자태를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느라고 온몸이 물참봉이 된 현무와 충기는 비에 휘젖혀진 덤불속에 엎드려 벌써 두시간을 보냈다.

그동안에 적의 자동차가 석대씩이나 지나갔으나 포차가 아니면 보병을 실은 차였다.

지금 현무는 망연한 눈길로 길만을 보고있었다. 적의 1035고지밑이라는 긴장된 감각도,초조나 공포에 대한 느낌도 전혀 없었다. 충기의 귀띔을 받아 이루어진 결심에 따라 살아남은 차를 이화리에 보내고 이리로 올 때의 현앙된 흥분상태도 식어버렸다.

두번다시 패자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명령된 무기수자를 기어코 보장해야 한다는 임무수행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기발로 삼아 예까지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행동이 경솔하고 자유주의적인것이며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절망적인 행동인것만같아 괴로왔다.

무기를 구해 가져가기만 한다면 물론 이런 괴로움도 봄눈처럼 녹아버릴것이다.

그러나 그는 랭철한 리성의 도움으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무기를 못구한채 그대로 여기에만 엎뎌있다면 부대행동엔 엄중한 혼란이 조성될것이 아닌가.

현무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불안이였다. 이 불안에 짓

눌려 그는 지금 거의 허탈에 빠진 사람마냥 기죽어있는것이다. 이런중에도 한편으로는 그의 결심을 정당화하고 승산의 가능성을 확약하는 생각이 꿈틀거린다.
무기는 어떻게든 구해야 하는것이고 또 지난 기간의 경험들을 봐도 이런 《모험》으로 적들의 차를 빼어온 일이 허다했다. 적아의 계선이 부단히 변하며 톱날형 전선을 이룬때라 착오를 하여 적의 도로에 들어섰다가 식량이나 탄약을 실은 차를 《공략》해오는 판이였다.
하여 현무가 예까지 왔고 그 《횡재》를 기다려 엎드려있는것만은 사실이지만 지휘관의 위치에서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자각된 위치에서 자기를 보는데 습관된 현무는 그 위안에 전적으로 의지할순 없었다.
물에 젖은 몸이 얼어들어 자주 몸을 궁싯거리며 이발을 쫏던 충기가 현무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꼈던지 슬며시 말을 걸었다.
《창고장동지의 애인이 부대에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흙탕과 풀잎이 더덕더덕 붙어 그림에 나오는 옛날 인디안과 같은 형용을 한 충기는 다 안다는 기색으로 싱글싱글했다.
다른 때면 불쾌한것으로 자극되였을 이 질문이 지금의 현무에게는 따뜻하게 들렸다. 그러나 대답을 생각하자니 가슴이 아팠다.
《없소.》
그는 뚝뚝하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다.
《동문… 장가를 갔겠지？》
《아니요… 그랬더면 그도… 없어졌게요.…》
충기의 얼굴은 대번에 흐려지고말았다.
현무는 그의 가족들인 부모며 동생들까지 다 피살된것을 상기하고는 괜한 질문을 했다고 후회했다.
그래서 사과나 하듯 그의 손을 꾹 잡았다.

충기는 열적은 태도로 말을 이었다.

《약혼녀는 있습니다. 후라이스공이지요.… 한데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 하겠는지—》

《일이 잘 안되는 경우에 후회하지 않겠소?》

충기는 눈섭을 찌프렸다.

《무얼 후회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다하다가 못되는 경우에야 〈운수〉나 탓하겠는지.》

《정말이요?》

《글쎄… 까놓고 말하면 나는 무섭습니다. 약혼녀에게 〈영웅적인 전사〉라는 쪽지가 가면 모르지만 〈행방불명〉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 어쩌겠습니까.》

《나를 탓하라구.》

《내가 뭐 현무동지때문에 전쟁판에 나왔습니까.》

현무는 코언저리가 시큰해졌다. 충기를 꽉 그러안아주고픈 충동이 일었으나 묵묵히 있었다.

둔탁한 기관소리가 울린것은 이때로부터 불과 1～2분 지나서였다. 푸릿한 길우에 벌건 불줄기를 휘두르며 나타난것은 열바퀴차인 대형 제므스였다.

충기가 현무의 옆구리를 황급히 다쳤다.

《호송병이 탔습니다. 식료품과 무기외에는 호송병을 안붙이는 놈들인즉… 〈행운〉을 믿어봅시다. 분명 보급창의 차입니다.》

충기는 금방이라도 뛰여나갈것처럼 들썽거렸다.

《덤비지 마오.》

현무는 총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으며 엄하게 말했다.

차가 그들이 굴려다놓은 바위돌이 있는데서 삑— 하고 멈춰서는 순간 현무는 자동총련발사격을 퍼부었다. 거의 동시에 충기는 적재함에서 놀라 일어서는 두명의 적을 보기 좋게 쏴눕혔다.

그 다음일은 번개처럼 진행되였다.

충기와 현무는 거의 동시에 적재함에 달라붙어 방수

포귀퉁이를 쳐들었다.
두개의 록색상자가 눈에 띄였다.
《ARMY… M－1…》이라는 글자를 알아본 충기가 《됐습니다. 만세！》 하고 소리칠 때 벌써 현무는 적재함에서 뛰여내리며 운전실문을 열어제꼈다.
《가자！》
《갑시다.》
현무가 기야를 넣고 가스변을 밟으며 다시한번 소리쳤다.
《탔는가？》
《탔습니다.》
충기는 적재함 모서리를 잡고 오르려다가 등에 진 브로닝경기총탁이 걸려 다시 내리였다.
총을 바로 메고 적재함 모서리를 잡는 순간 주변이 확 밝아지며 여러발의 탄알이 날아왔다.
머리를 홱 돌린 충기는 적의 순찰병들이 가득 탄 자동차가 맹속으로 달려오는것을 보았다.
《기동순찰입니다. 갑시다. 빨리.》
소리치며 그 날쌘 솜씨로 차에 날아오르려는 순간 충기는 왼다리가 시큰하며 옆으로 넘어지는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때는 그의 웨침을 들은 현무가 제동변을 열었을 때였다.
땅에 꼬꾸라진 충기는 뜨거운 연기를 들씌우며 떠나는 차를 보고 소리치려다가 그만두었다.
듣지도 못하겠거니와 설사 듣고 세운다면 차도 현무도 무기도 다 없어질것이다.
전조등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차를 노려보던 충기는 꺼멓게 죽어든 얼굴에 익살어린 웃음을 띄웠다.
《차라리 잘됐다. 너와 나！ 해보자…》
결심하고나니 자기가 이렇게 떨어진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도가 빠른 저놈의 차를 막지 못하면 이제껏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것이기때문이였다.

충기는 길옆의 도랑에 굴러내렸다.

그리고 현무가 탄 차가 산굽이를 도는것을 저릿한 눈으로 바래였다.

《통과하면 경적이라도 울려주지…》

충기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이미 모든것을 초월한 사람의 무사태평한 얼굴로 기다리다가 코앞에 다가온 스리쿼다의 운전실을 향해 련발사격을 하였다. 순식간에 전조등이 깨여져 달아나고 적의 비명이 귀청을 찢었다.

《받아라. 받아.》

충기는 열광한 사람처럼 경기를 휘둘렀다. 그러다가 절컥하는 소리에 방아쇠를 놓았다.

귀구멍이 뻥하고 마치 최면상태에 빠진듯싶다. 그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탄알은 나가지 않았다. 다 쏴버린것이다.

충기는 빙긋이 웃었다.

그는 총을 집어던지고 아군이 있는 강건너의 920고지로 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한발자국을 옮겼을뿐 더 걸을수 없었다.

그는 나무통에 기대여 앉아 왼다리의 부상처를 보았다. 바지가랭이는 온통 피물인데 장딴지가 펑하니 뚫렸다.

(그래 이젠 단가.)

갑자기 온몸에서 맥이 싹 풀려나가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풀잎에 맺힌 이슬을 힘없이 혀로 핥았다.

바로 그때 현무가 몰고가던 차가 도로로 달려왔다.

오직 눈만 남은듯한 현무의 까맣게 질린 얼굴이 창밖으로 쑥 나와 목메여 충기를 찾았다.

충기는 대답할 힘이 없었다. 출혈과 과긴장으로 온

몸이 천근처럼 된 그는 공중에 대고 총을 쏘았다.
현무는 그를 발견하자 무어라 소리치며 차를 세우고 달려왔다.
현무에게 안긴채 운전칸에 오른 충기는 《창고장동지！》 하고 부르고는 조용히 미소하였다.
그러나 현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차를 산비탈로 올리몰았다가 경사진 밭으로 후진시키며 되돌려세우느라고 애를 썼다.
현무가 차를 돌려세웠을 때 운전실유리창이 깨여지며 총알이 날아들었다.
고지우의 적들이 눈치를 채고 어지럽게 쏴대는것이였다.
그러나 충기는 죽을번하다 살았다는, 또 이런 사람옆에서 죽는것이 한이 될것이 없다는 흐뭇한 기분속에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차가 고개마루에 선 보초소를 뭉개치우며 벗어져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껄껄 웃기까지 했다. 그들은 이화리에 들어서는 접경에서 아군의 직사포사격을 받았다.
현무는 이 순간을 일생 잊지 못할것이다. 자기의 전우들 반포대대의 직일포가 쏘는것일지 몰랐다.
첫 포탄이 운전실 지붕을 긁듯이 날아가 터지고 다음 포탄은 차앞에서 터졌다. 현무가 만약 급곡선으로 차를 꺾어몰아 산굽숭이에 들지 않았더라면 세번째 포탄은 그들을 하늘로 올려보냈을것이다.
온몸에 식은땀을 쏟은 현무는 정신까지 혼미해졌다.
자동총을 든 서너명의 아군전사들이 눈앞에 나타나는것을 보며 겨우 제동변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조향륜에 몸을 덮으며 쓰러졌다.
《누구냐？》
《나왓！ 넘어왔는가？》

현무는 꿈결처럼 그 말을 들었다.

(우리를 괴뢰군투항병으로 아는구나.)

발자국소리들이 울리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내렷,내리란말이요. 아니… 이게 충기동무가 아니야.》

《뭐라구… 충기라구?》

현무는 빙그레 웃으며 금방이라도 잠들듯한 평온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는 태룡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은것이였다. 커다란 자태가 낯익은 걸음새로 겅정겅정 다가왔다.

운전칸문을 열어젖힌 태룡은 현무를 알아보자 입을 쩍 벌렸다.

《동무가?!… 무기를 가지러 되돌아갔다더니… 에익 한심한 사람.》

그는 현무의 어깨를 콱 그러안았다.

괴뢰군소령복을 입은 태룡이의 몸에서는 향수냄새가 났다.

현무는 짜릿한 기쁨속에 빙긋이 웃었다.

《빨리 부려주게. 엠완총같아.》

그러나 기쁨은 이른것이였다.

태룡이와 함께 절룩거리며 천막으로 걸어가는데 끔찍스러운 소리가 울렸다.

《무기는 두상자고… 전탕 천막퉁구리구만.》

현무는 몸을 떨었다.

태룡이가 획 돌아서 엄하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요?》

태룡은 자동차로 달려갔다.

현무는 가볼 힘이 없었다. 아니 가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둥글둥글한 짐짝이 내려지는것을 지켜보던 태룡이가 팔짱을 낀채 먼산에 시선을 주었다.

누군가 안타깝게 말했다.

《이거 야단이군요.》
《뭘 그러오. 우는 소리를 해서 떡이 생기오?》
태룡이가 꾸짖었다.
다른 목소리가 항변하듯 울리나 그것은 너무 낮아서 잘 들리지 않는다.
《어쨌든… 대책을… 봐야.》
토막단어들은 한마디로 현무네로 인한 하소며 안타까움일것이다.
현무는 그들의 심리를 잘 안다. 화력부관이던 당시 그는 포탄을, 포 부속과 기재를 제때에 공급해오지 않을 때, 계획된 수량과 맞지 않을 때 얼마나 신랄히, 얼마나 모욕적으로 비난하고 쏴주었던가.
현무는 앞이 캄캄하여 풀밭에 누워있는 충기쪽으로 절름절름 다가갔다.
왼다리가 온통 붕대투성이가 되여 종이장같은 낯으로 시푸른 하늘을 쳐다보던 충기는 현무가 가자 입술을 감빨며 소곤거리듯 물었다.
《헛탕인가요? 그러니 두상자만인가요?》
《그렇소.》
《또 갈가요?》
《…》
현무는 충기의 피기가신 얼굴을 차마 더 보기 어려워 돌아섰다. 그로부터 열댓걸음 떨어진 바위에 걸어가 앉았다.
온몸이 천길나락속에 잠겨드는것만 같았다. 맨 내의바람이여서인지 오싹오싹 추워나기까지 했다. 불에 군복상의를 태워먹었던것이다.
태룡이가 다가왔다.
《천막에 들어가지 않구 뭘하나.》
《…》
현무가 움직일념을 안하자 어깨를 짚으며 옆에 앉았다.

《너무 걱정 말게.》

일여덟발자국앞에 있는 천막으로부터 소대장 한명이 달려와 현무를 힐끔 보고는 태룡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떼였다.

《13번에서 무선전화가 왔습니다. 이자 들어온 차가 뭔가고 적의 기습인가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 진지를 로출시켰다고 걱정합니다.》

《됐소 됐소.》

태룡은 민망스러운 기색이였다. 소대장이 되돌아가자 태룡은 팔짱을 지른채 묵묵히 있다가 침울한 어조로 입을 떼였다.

《너무 걱정할건 없네. 진지로출이란건… 이미 적들이 아는거고… 무기도, 어쩌겠나… 그것두 일없어… 한데 난 동무일이 걱정이야.》

《…》

《오늘같은건 자살행위야. 요즈음 적들이 고지우에만 몰렸으니망정이지… 개죽음을 한단말이야. 그런데다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하다 잘못되면 동무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겠나. 극상 좋아야 〈행방불명자 리현무〉인데… 너절하지 않은가.》

《그렇겠지. 하지만 어쩔수 없었네.》

《동문 자기를 망치려드는구만.》

《일만 잘 되면 망쳐도 좋아.》

《흠, 난 이래서 동무가 그자리에 가는걸 반대했단말이야.》

현무는 서글피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성내지 말게.

내가 아직 적임이 못되는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임이 될테네.》

《좋군.》

《정말이야. 난 이자리에서 물러설수 없네. 물러선

다면 난 배신자로 될거네.》
　현무는 왜 물러설수 없는가에 대해선 말할수 없었다. 그것을 밝히자면 선형이에 대해서 선형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말해야 할것이기때문이였다.
　태룡은 침울해서 현무를 보았다.
　까뭇하게 탄 얼굴, 불에 그슬고 구멍이 뚫린 흰 속적삼바람의 초췌한 모습을 보던 태룡은 말없이 괴뢰군소령복을 벗었다. 그리고는 안에 입었던 자기의 군관복상의를 벗어 현무에게 내밀었다.
　현무가 고개를 저었으나 태룡은 듣는척도 않고 제잡담 옷을 어깨에 씌우고는 손목을 잡아 팔소매에 디밀었다. 품이 후렁한것이 현무에게는 컸다. 그러나 태룡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딱 맞는구만. 참 거기 내 약혼녀사진이 있어. 잘 건사해주게. 바치고와야 되는걸… 그것 없으면 가슴쓰리거던.》
　쓰린것은 현무의 가슴이였다.
　현무가 떠나가려 차에 오르자 태룡은 매우 어색한 빛으로 속삭였다.
　《무기부족에 대해선 잊어주게. … 사단에두 그렇게 보고하겠네.》
　《뭣이?》
　현무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벗의 근심어린 눈길을 보자 분격은 스러들고 자기자신이 끝없이 혐오스러웠다.
　《태룡이, 그런 〈우정〉으로 괴롭히지 말게. 동무의 거짓보고가 전투계획을 망칠수 있어. 나 하나 책벌이 뭣이 돼서 그러나. 일없어. 문제는 싸움에서 이기면 되지. 옷을 잘 입겠어.》
　현무는 목구멍에 뜨거운것이 괴여올라 더 말을 못하고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는 한동안 옴짝않고있었다.

죄송스럽고 미안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런 감정이 전날의 패기만만하던 화력부관의 자취마저 깨끗이 가셔버렸다. …

19

현무는 차의 앞대가리가 오미자넝쿨에 닿는것을 보며 제동답판을 밟았다.

차는 껑충하며 몸부림을 쳤다.

스무나문발자국앞에 있는 포병참모부의 토굴문이 열리며 한 군관이 뛰여나와 놀래인 낯빛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사단지휘부로 들어오는 갈림길목에서 경무관으로부터 포병참모부에 출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현무는 30도가 넘는 경사길을 3단으로 올리쳐몰았던것이다.

그는 운전칸문을 열고 뛰여내렸다.

《창고장동지, 이마에 혹이 생겼습니다.》

적재함에 누워온 충기가 몸을 일으켰다. 이때야 현무는 자기가 지내 흥분해있다는것을 알았다.

(내가 왜 이럴가? 추궁이 두려워서—)

《근데 창고장동지, 처벌일가요?》

충기는 저윽 진중한 기색으로 눈을 깜박거렸다.

《실없는 소리 말고 자기나 하오.》

《안됐습니다.》

충기는 맥풀린 소리로 말하고는 현무를 물끄러미 보았다.

현무는 충기를 통해 자기의 떳떳치 못한 처지를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며 천천히 반토굴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반토굴앞에 섰던 웬 군관이 현무를 보자 《아,

화력부관동무로구만.》 하고 알은체를 했다.
현무는 병기수리소의 포기수를 알아보았다. 그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현무에게 별로 반가와하는 기색도 없이 눈이 둥실해 악수를 나누고는 남 들을가 저어하듯 소리를 낮춰 말을 떼였다.
《포병참모부에 오는게 아니요? 지금은 들어가지 마오. 동무때문에 불맞은 벌둥지가 됐소. 적구에 들어가는 자유주의를 했다며…
지금 병기과장동지가 추궁을 받고있소.
근데 난 잘 모르겠소.
듣자하니 선형부과장이 잘못된것도 동무불찰이 크다는데 어찌된거요.》
《…》
《뭐… 너무… 속썩이지 마오. 실수도 있으려니—》
포기수는 현무가 고집스레 입을 강물고있자 잘있으라는 말을 한마디 더 던지고 황황히 물러갔다.
현무는 숨을 크게 들이긋고 용기를 내여 반토굴에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반쯤 문이 열리며 형식의 벽돌색으로 단 얼굴이 나왔다. 현무를 알아본 그는 눈섭을 찡그리며 《좀 기다리오.》 하고 문을 닫았다.
현무는 집옆에 놓인 피나무통에 다가가 꺾인듯 주저앉았다.
온몸이 땅속에 잦아드는듯했다.
나이 지긋한 상등병이 카바이드등 세개를 들고나와 재를 털었다.
나무꼬챙이로 굽안의 재를 긁어내면서 이따금 현무를 곁눈질했다.
현무는 그의 눈길이 거북해서 《병기상식》수첩이라도 보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매끈매끈한 상아물주리가 손에 잡혔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입에 물면 한결

마음 가벼워진다고 하던 유선형의 물주리였다.
《현무동무, 어떻소? 담배를 피워보라니ㅡ》 선형이가 말을 하는듯싶었다.
그는 상등병의 지꿎은 시선을 느끼자 우쩍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동무! 담배 좀 없소?》
《있습니다. 그런데 〈차렷담배〉가 아닙니다.》
《난 아무거나 좋아하오.》
현무는 담배를 받아 종이에 말기 시작하였다. 상등병의 집요한 시선속에 더욱 궁색을 느끼며 서툴게 담배를 말아 상아물주리에 꽂았다.
불을 붙여 첫모금에 그는 기침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계속 빨았다. 그럴수록 재채기는 더욱 심해졌다. 상등병은 시무죽 웃다가 동정어린 빛으로 조심히 물었다.
《전투에서 실패를 본 모양이군요.》
《그렇소.》
현무는 연기를 깊숙이 빨아삼켰다.
또다시 재채기가 터져나왔다. 상등병은 민망스런 기색으로 고개를 젓고는 가스등을 든채 황황히 자리를 떴다. 가면서 말했다.
《중대장동지, 그러단 기관지염에 걸립니다.》
(중대장? 태룡이의 옷을 입었기에 큰 대접을 받는구나.)
현무는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뽑아던지고 견장에 손을 가져갔다.
별을 떼려고 했으나 화상에 부푼 손가락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엄지손가락 손톱을 박고 힘을 주는데 앞에 그림자가 얼씬했다.
고개를 쳐들었다.
댓발자국앞에 반짝거리는 장화가 한뼘도 되나마나한 자그마한 장화의 반짝이는 빛이 눈을 찔렀다. 장화굽

을 따라 곧게 뻗은 하얀 다리, 날씬한 몸매를 가늠하던 현무는 감전되듯 놀랐다.

가랑가랑 눈물 고인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 옥문 입술, 비장한 결심과 짙은 고뇌가 비낀 하얀 이마.

(어찌하여 매번 이런 때에 이 녀자를 만나게 되는것일가. 어찌하여 이 녀자는 이런 때에 부디 나의 앞에 나타나는것일가.)

현무는 술취한 사람처럼 일어섰다. 소림의 시선과 다시 한번 부딪치자 그는 눈길을 내리뜨렸다. 소림은 알릴듯말듯 몸을 떨었다.

현무가 본 소림의 눈길은 얼음이였으며 불이였다. 그러나 눈굽에 고인 눈물방울만은 리해할수 없었다.

《정말이예요?》

소림은 입을 열었다.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였다. 흥분어린 그 목소리에는 의혹과 고통, 슬픔이 어려있었다.

《동문 나한테서… 무얼 듣자는것입니까?》

《난 알고싶어요. 동무의… 일을.》

소림은 눈물이 가랑해 현무를 쳐다보았다.

어제도 그제도 현무로 하여 밤을 밝히다싶이한 소림이였다.

선형부과장의 희생이 가져다준 슬픔과 현무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매일 밤의 안식을 깨쳐버렸다.

이즈음 사단지휘통신근무라는 불가피한 위치와 현무에 대해서 항시 《추적》하게 되는 소림의 관심은 현무의 사업권내에서 빚어지는 실책을 남김없이 알게 하였으니 혹 외곡되기도 과장되기도 한 그 소문은 소림이로 하여금 괴롬과 환멸에 빠져들게 하였다. 물론 이미전에 마음속으로 《좋지 않은 인간》으로 외면해버린 현무였지만 그 사실들 하나하나가 몸서리치게 아픈것이였으며 그만큼 현무에 대한 분격이 커갔다.

선형이의 희생보고철을 뒤져보았다는 포병부서의 한

군관은 《시한탄해제》시에 현무가 선형이 혼자 남기고 자리를 떴다는 말로써 소림의 가슴에 무서운 의혹의 씨를 뿌려놓았다.

두려워 피했는가 아니면… 의혹은 좋지 않은 억측들을 자래웠다.

아무리 현무가 나쁘다 해도 자기 상급을 위험속에 뒤두고 피할 인간은 아니라고 믿는 소림이였으나 때로는 이 한가닥 믿음마저 흔들렸다. 이런 중에도 미식무기차가 불타고 적구로 무기공작을 들어갔다가 한사람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상자가 현무였을가봐 가슴을 조이기도 한 그였다.

이 모순된 감정은 쌍벽을 이루어 그를 괴롭혔다.

기재창고에 가서 건전지를 타가지고 나오다가 미식화물차에서 현무가 내리는것을 보았을 때 무거운 재뭉치가 날려가버리는것 같았다.

현무가 포기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통에 주저앉는것을 볼 때까지도 그 안도의 기쁨은 의연히 심장의 한구석을 채워주었고 그것은 강한 련민과 자리를 바꾸었을뿐 다른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그로하여 사단전투계획이 뒨다는 말들과 그의 무모한 행동으로 한 전사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는 꿈에서 깨여난듯했다.

(소림이,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를 잊겠다고 하면서 못잊는것은 무엇때문이냐.)

이러면서도 현무를 만나서 모든것을 알아보고싶은 충격을 억제할길이 없었다. 그로 인한 번거로운 밤이 없기위해서도 알아보고싶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다가와 피나무통우에 쭈그리고앉은 현무가 피울줄 모르는 담배를 억지로 빠는것을 보자부터 그를 경멸하고 무시하려던 소림의 《결심》은 흔들렸었다.

불탄 바지, 구멍 뚫린 신발, 별을 떼려고 애쓰던 화상

으로 부풀어진 손을 보자 소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왜 이처럼 눈물이 헤플가.
무엇때문에 나오는 눈물일가.)
그때 소림은 자기의 눈물을 그에 대한 격분과 반발로 해석해보려 했으나 그 반대의것임을 알고있었다.
소림은 지금 자기의 눈물에 더욱 화가 났다.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던 자기로서 혼자 몇십번이나 묻고 부정하고 했던 말들이 일순간에 입밖으로 튀여나갈것만 같아 입을 꾹 다물고 갑자르던 그는 자기로도 놀라운 청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동무가 쓴 보고서에… 시한탄이 폭발하는 시각 휘발유저장고에 유선형동지 혼자… 가게 한것은 동무의… 잘못이였다고 밝힌걸… 알았어요. 막을수 있는… 희생이였으나 막지 못했다고… 동무는 썼지요.》
《그렇습니다.》
현무는 채찍에 후려맞는듯한 아픔속에서 대답했다. 하자 소림의 얼굴은 파릿하게 질려갔다.
《그래,그것이 정말인가요?》
현무는 대답할 힘이 없었다. 머리속이 벌둥지처럼 웅웅거리였다. 피가 심장에 콱 모여들며 방금이라도 터져나갈것만같았다.
그러나 현무의 침묵을 다르게 리해한 소림은 얼굴이 빨갛게 타올라 총알처럼 튕겨나가는 말을 막아내지 못했다.
《난 동무가… 그를 모욕… 한후에도 혹시나… 하며 동무가 옳기를… 바랐어요. 동무를 잘못 보는 내가… 나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동문… 오늘도 한 전사를 무모한 행동에 이끌어… 부상시켰어요.… 언젠가 동무는 전투에서 실책을 범하는것은 용서할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실책은…》
소림은 두손으로 입을 싸쥐였다.

자기가 지금 그 얼마나 혹독한 말을 했으며 또 무서운 말을 하려 했는가를 현무의 굳어진 재빛얼굴에서 느꼈다. 소림은 이제라도 그의 손을 꽉 잡고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건 다 나쁜 선입견, 소갈머리없는 편벽한 처녀의 발작이예요.》라고 빌고싶었다.

하나 그의 내심의 《량심》과 《원칙》은 그것을 엄히 눌렀다.

그래도 그는 꺼져가는 석양빛을 잡아쥐려는것 같은 가냘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최후의 몸부림같은 물음을 던졌다. 피기 잃은, 떨리는 입술은 그 말을 겨우 소리로 내보내였다.

《현무동무, 전 이 모든것이 그대로 다…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건 동무가 남에게뿐만아니라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너무 무자비하기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혹할 정도로 무자비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만 그런 〈실책〉들이 다시 없기를 바라서 그럴뿐입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까?》

현무의 말에 소림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저… 난 동무가 좀… 보다… 다르게 살기를 바라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르게는 못살것이요.》

현무는 입술을 꽉 악물고 소림을 뚫어지게 보다가 뜻밖에 나직하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보시오. 동무의 위치는 나의 옆이 아니라 무전대가 아니요?》

소림은 싸늘한 얼음장이 와닿는듯 몸을 떨었다.

그가 현무에게서 기대한것은 이런 차거운 작별의 선고가 아니였다.

자기는 무엇때문에 왔던가.

무엇때문에 어리석은 새암바리처럼 얄궂은 말들을 퍼

부었던가.

《사실확인》의 너울밑에 현무를 만나 번민하는 그 마음을 위로코저 그가 나쁜 인간이 아니기를 바라 그것을 확인코저 온것이 아니였던가.

자기로도 명백히 의식 못했던 이 감정을 깨닫자 그리고 이 감정이 배척당했다는 선입견에 휩싸이자 끓던 피가 흐름을 멈추고 주변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현무동무, 들어오우.》

두사람 다 깜짝 놀랐다.

병기과장 김형식이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현무는 묵묵히 고개를 수그리고 형식이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열려진 문안으로 사라지고 그 문이 닫기자 소림은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실낱같은 신음을 뽑았다.

오미자넝쿨옆에 세워둔 현무가 몰고온 차의 적재함에서 웬 사람이 내리고있었다. 왼다리에 붕대를 칭칭 동인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다리를 바퀴에 드리우고 두팔로 적재함모서리를 잡은채 위태로운 자세로 뛰여내리려는것이였다.

그 군인은 껑충 뛰여내렸는데 한다리만으로 땅을 짚다가 땅에 동그라졌다.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던 소림은 그것을 보자 《어마나》 하고 엉겁결에 부르짖었다.

소림은 눈가의 눈물을 채 닦지도 못하고 달려갔다.

앙바틈한 키에 메밀눈을 한 하사는 그가 부축하려 하자 《그만두시오.》 하고 소리쳐 범접도 못하게 하며 한손으로 바퀴를 짚고 일어났다.

얼굴에 꺼먼 매연이 점점이 묻은 그는 보기가 험상스러울 지경이였다.

그는 무례하다고 할만치 소림이를 맞바로 보았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림은 그가 부상병이 아니라면 한마디 쏴붙였겠으나

붕대감은 다리에 찔려 좋게 물었다.
하사는 량미간을 찌프린채 건방지다고 할 정도의 정중성을 가지고 말을 걸었다.
《군관동지의 이름은 윤소림이지요?》
《네?!》
소림은 어찌면 이렇게 렴치없이 물을가 하고 빤히 그를 보았으나 하사관은 불만에 찬 눈빛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했다.
《전 병기창고 부분대장 최충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때문에 그래요?》
병기창고의 군인이라는 말에 소림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보았다.
감때사나울 성미의 하사관은 소림의 부드러운 어조에 아랑곳 않고 차겁고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전… 이자… 현무동지한테 하는 동지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정찰병의 귀는 밝으니까요.》
《그래요?!—》
소림은 불안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그의 입을 지켰다.
최충기는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며 예리하고 결정적인 말을 고르다가 위엄있게 말했다.
《그에게 사과하십시오.》
《?!》
《그는 할수 있는껏 싸웠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했고… 동지는 선형동지의 이름을 걸고 그를 공격했는데 어데서 그런 엉터리없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하긴 이래서 선형동지가…》
이 대목에 와서 최충기의 정중한 말투는 싹 사라지고 감때사나운 표정도 지워졌으며 말소리는 떨렸다.
《… 선형동지는… 눈을 감는 최후순간에 동지의 이름을 부르며… 리해를 못시키고 간다고 후회했습니다.

난 다는 모르지만 동지는 우리 병기창고장동지를 잘못보는데 그건 동지가 전쟁도, 인간도 모른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선형동지는 우리 병기창고장동지를 진짜배기 지휘관, 참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다르게 보는 사람은 뭐가 좀 잘못됐지요.

그런데 선형동지는 군관동지에 대해서도 좋게 썼더군요. 그건 우리 동무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남긴 수첩에 기록되여있습니다. …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충기는 더 서있을수 없어 절뚝거리며 운전실발판에 걸터앉았다.

《그래…서요？》

온몸을 불태우는 긴장과 숨막히는 기대속에 소림은 초점을 잃은 취한듯한 눈으로 충기를 보았다.

《어리둥절해진 처녀군관》을 치떠본 충기는 자기말의 효과에 흡족했으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현무에 대하여 몇가지 더 말하고는 담배를 꺼냈다.

《이제 다른것은 병기창고장동지에게 물어보십시오.

피워도 일없겠습니까？》

《피우세요. 어서.》

충기는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소림은 까치다리로 앉으며 충기의 붕대감은 다리에 조심히 손을 가져갔다.

《아파요？… 많이 다쳤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뭐 스쳤지요.》

《군의소에 가야잖아요. 내가 도와드려요.》

《아, 아니 고맙습니다. 어서 가서 일보십시오.》

소림은 일어섰다.

《치료를 잘해요.》

소림은 병실로 가려다가 포병참모부 반토굴에 시선이

멎자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충기라는 하사관이 본다는것을 알았으나 서슴지 않았다.
　과연 충기의 말이 진실이라면 자기는 어떤 녀자로 되는것일가.
　애꿎은 사람을 비난하였다면 그 비난자는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죄를 지은 녀자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런 죄는 웃으며 씻을수 있거던.… 아,아니 이건 너무 조급한 생각이야.
　충기라는 동무는 다만 자기 지휘관의 인격을 지켜야 한다는데서 거짓말을 할수도 있지.
　그러다가 소림은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못가겠습니다.… 전 떠날수 없습니다!…》
　반토굴안에서 현무의 짓눌린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분을,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오. 난 적재적소라는 의미에서 권고하는거요.》
　병기과장의 언짢은 말소리였다.
　《전 자존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잘된다면…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날수 없습니다.
　선형동지를 생각해서도 물러설수 없습니다.》
　소림은 추운듯 몸을 떨었다.
　싸늘한 두려움이 가슴노리를 움켜잡았다.
　(직무문제가 론의되는구나. 저럴 때에 차라리 응낙하고 포에 가는것이 낫지 않을가.)
　소림은 언젠가 들은 현무네 대원의 말을 상기했다. 포에 들어서서는 막히는데 없고 적땅크를 까는데는 일등가는 명수라고 했다.
　적임이란것은 있는 법이다.
　그가 거기에 다시 간다면 지금과 같은 실패는 없잖

을가. 괴로움은 적게 당하고 영예와 기쁨을 얻을것이지.

그야말로 화력부관의 긍지를 자랑높이 간직한 사람이 아닌가.

《선형동무를 생각하는건 좋소. 하지만.》

병기과장의 말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자리에 꼭 있어야 그의 심정을 잇는것으로 되는건 아니요. 훌륭하게 싸우는데 있지. 동무로서는 보다 잘 싸울 위치를 잡는것이라고보오.》

소림은 현무가 측은해졌다.

짜릿한 동정감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더 서있을 의지력이 없었다.

이제 울릴 현무의 목소리가 두려웠고 그에게 뻗쳐가는 동정이 두려웠다.

소림은 홱 돌아섰다. 밀치운듯 걸음을 떼였다.

(어쩌면… 모든것이 씨원찮을가.

이제 현무동무가 다른데로 간다면 일을 쓰게 못해 돌리운다는 오명을 듣겠구나.… 하지만 다른데 가는게 나을거야.)

이런 생각에 옴해 발길 가는대로 걸었다. 무선실에 들어서 단발머리 무선수의 의아쩍은 눈길을 보고서야 자기가 여기에 들어올것이 아니라 병실에 갔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 바람질이 어찌나 심한지 눈에 티가 들어갔구나.》

소림은 손수건을 꺼내여 눈을 닦으며 무선문용지를 집어들었다. 점과 점들이 다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뭐가 뭔지 알수 없었다.

(내가 왜 이래.)

정신을 차리고 눈에 정기를 모았다.

낡은 무전문들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 무전문을 놓지 않은채 오도카니 굳어져있었다.

현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고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최충기라는 하사관이 하던 말이 다시금 귀전을 쟁쟁히 울렸다. 선형동지를 생각해 더욱 못떠나겠다고 하던 현무의 부르짖음이 가슴에 미쳐왔다.

(그러니 현무동무는 선형동지를 뜨겁게 존경한것이 아닐가. 선형동지도 그를 더없이 믿었다지. 나에 대해서도 말하고… 남자들의 세계여서 내가 리해 못했을가.

참, 선형동지가 나와 현무동무의 사이에 대해서 말한것이 정말일가. 그렇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가. …아, 그런데 그 인자한 아바이를 다시 볼수 없다니.)

소림의 눈앞에는 유선형을 처음으로 알게 되던 때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 푸르러오는 새벽이였다. 살얼음낀 강에는 아군의 포탄차가 멎어서있고 두사람이 강물에 들어서 포탄상자를 나르고있었다.

적구에 남는 련대와 무선통화를 하느라고 후퇴의 기본대렬에서 떨어졌던 소림은 두 동무와 함께 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피로에 지친 몸은 그대로 징검다리를 건너가자고 애원했으나 소림은 그럴수 없었다.

무선기를 내려놓은 소림은 바지를 입은채 그대로 물에 뛰여들었다.

자동차에 다가가 상자를 이워달라고 하자 수염터가 거밋한 얼굴에 물방울이 점점이 튕긴 아바이소좌가 범치듯 말렸다.

《당장 물에서 나가오. 나가라니. 여기가 7,8월 내가인줄 알아. 병걸려. 체네들이, 응!》

《그러지 말고 이워주세요. 좀 있으면 적기가 날아올텐데요.》

소림은 끝내 머리에 이고말았다.

목이 어깨속으로 쑥 들어가는것만 같았다.

아바이소좌는 측은한 눈길로 그가 이는 모양을 보다가 군복상의를 와락와락 벗어 또아리처럼 뭉그렸다.

《이걸 받치라니.》

마치 딸에게 하듯 소림이의 머리에 그 《또아리》를 얹혀준 소좌는 두개의 포탄상자를 량어깨에 갈라메고 소림의 옆에서 걸었다.

《발을 슬슬 끌며 걸으라구. 조약돌에 주의하라니.》

상자들을 다 나르고 전사들이 마을로 달구지를 얻으러 갈 때에 소림이네도 떠나려 하자 선형은 펄쩍 뛰며 말렸다.

《그 젖은 몸으로 어델 가. 체네들이 정신이 없군.》 하며 마른 나무아지를 주어와서는 허연 성에를 옷자락으로 닦아내고 불을 피웠다.

소림이네의 바지에서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것을 즐겁게 보며 담배를 맛나게 피우던 그는 언짢은 기색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이 나많은게 정말 체면없이 됐구만.

후날 동무네 시집갈 때 나한테 알리라구. 이불짐이건 가시장이건 내가 다 나를테야.》

《정말이예요?》

소림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암,정말이구말구. 여기서 저레 주소랑 적을가.》

선형은 빙글빙글 웃었다.

소림은 그와 마치 오랜지기인것처럼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하고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성미의 소림이였으나 이 나이 지숙한 소좌에게는 별로 친근감이 갔던것이였다.

선형이 역시 자기 아들이 왜정때 염병을 앓아 죽지 않았으면 처녀들과 혼사말을 나눌 나이였으리라는 소리까지 하며 즐겨 얘기를 하였다.

소림은 그에게서 고향집의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과 너

그러움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없다. 시집갈 때 이불짐을 날라주겠다고 하던 그는 수첩에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현무와의 사이를 풀어주지 못하고 감을 한하며 눈을 감았다. …

《소대장동지, 자지 않아요? 온밤 새우고 지금 또 이러고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천강!》을 부르던 무선수의 말소리에 소림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옥실이, 다른데 눈팔지 말어. 오늘부터 〈특별긴장〉이 아니가.》

《호호. 〈특별긴장〉이야 통신참모동지의 인사말인데요뭐.》

《그럼 못써. 지금 사단은 최긴장상태에 있어요.》

소림이가 정색하여 말하자 옥실은 저으기 얌전스런 태도로 다소곳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제풀에 호호 웃었다.

《왜 그래요?》

소림은 아무런 근심없이 웃음만 찬 옥실이를 거의 시샘찬 눈으로 보며 물었다. 옥실은 방글거리는 웃음을 가무리지 못한채 아침에 변신참모가 남기고 간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변신암호문이다.

《글쎄 우습지 않아요. 이걸 보세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는데 〈방울새〉가 〈가물치〉를 〈물었다〉, 〈곰 두마리〉가 〈원앙〉의 등에 업혔다. 호호—》

소림이도 그 쪽지를 보았다. 옥실의 웃음이 묻어와서인지 소림이도 그 잡다한 새와 짐승의 이름으로 렬거된 글귀를 보느라니 웃음을 참을수 없었다.

하나 이 순간 그의 눈앞에는 밤처럼 어두운 현무의 얼굴이, 제것 아닌 견장에서 별을 떼려 애쓰던 화상으로 부풀어진 손이 떠오르며 웃음을 지워버렸다.

소림은 자기의 희고 매출한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애잡짤한 후회가 전신을 휩쓸었다.

(그때 내가 왜 도울념을 못했을가.)

소림은 조용히 일어나 배낭을 내리웠다. 배낭안에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분간은 살아갈수 있는 처녀의 세간살이가 있었다. 소림은 제손으로 곱게 만든 견장 한조와 별 네알을 찾아내였다.

그는 옥실이가 소위인 자기 상관이 왜 갑작스레 포병중위의 견장을 만들고있을가 하고 의아스레 보는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가장자리천을 바꾸고 별을 다는데 골똘하였다.

두개의 견장을 맞추어 별의 위치가 똑바른가를 확인한후 입대할 때 편지지로 가져온 하얀 모조지로 정성스레 쌌다.

일을 끝내고났을 때 그의 머리에는 이 견장을 어떻게 넘겨줄것인가 하는 걱정이 새삼스레 차올랐다.

소림은 시름어린 눈길로 견장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흐렸다.

이날밤 소림은 꿈을 꾸었다.

현무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는 꿈이였다.

이름모를 꽃들이 만발한 숲속에는 오직 현무와 자기만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웃었고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기울였다. …

20

충기는 가벼운 탄성체의 튕김같이 사뿐사뿐 걸어가는 녀군관의 뒤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멋쟁인데. 마음도 곱고… 그런데 왜 창고장동지와는 그렇게 옹추일가. 모를 일인데.… 아니, 저런… 엿듣는군.… 담이 큰데 ─)

충기는 소림이가 포병참모부의 반토굴앞에 가 오도카니 서는것을 보며 놀랐다. 그러다가 소림이가 뛰듯이 달려가는것을 보며 이름할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현무동지가 욕을 먹는게 아닐가?)

굴러가는 눈더미처럼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가며 가슴답답하게 만들었다. 운전칸안에서 풍기는 휘발유냄새와 노린내로 하여 더욱 그런것 같았다.

문을 활 열었다.

그래도 노린내는 빠지지 않았다.

(이 차의 주인녀석이 미국놈이였겠다? 청소를 해야겠구나.)

그는 답답증을 끄는 겸사로 운전칸안을 휘둘러살폈다. 좌석등받이우에 카빙총이 걸려있었다. 그것을 벗겼다가 도로 건 그는 공구함을 열어제꼈다.

공구들은 보이지 않고 동그란 통졸임통이며 은지에 싼 과자쪼박들이 수북했다.

(개자식, 잘 살았구나.)

과자 하나를 들어 은지를 벗기니 쵸콜레트였다. 그것을 입에 넣고 씹지도 않고 삼키던 그는 자기와 현무가 아직 아침도 점심도 못먹었음을 상기했다. 그는 꿀처럼 녹아들어가는 쵸콜레트의 맛에 끌려 다음것을 집어들다가 놓고말았다.

(창고장동지와 함께 먹어야지.)

공구함문을 짤깍 소리나게 닫고 고개를 쳐드니 키가 훤칠한 포병부사단장이 차를 향해 다가오고있었다.

충기가 당황하여 옷차림을 살피고 목단추가 열리지 않았는가 손으로 더듬는데 벌써 포병부사단장은 지척에 이르렀다.

충기는 오른다리로 발판을 의지하고 두손으로 문틀을 잡으며 차렷자세를 취하려고 애쓰며 보고했다.

《포병부사단장동지! 병기창고 부분대장 최충기!》

대좌 로병익은 엉거주춤이 선 충기를 알아보자 《용사로구만. 부상병이 서다니. 앉으라구.》 하고 걸걸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도 앉지 않자 로병익대좌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꽉 눌렀다.

《앉소.》

로병익은 미간을 찡그린채 그의 부상당한 다리를 보았다.

《어데가 뚫렸나?》

《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소. 군의소에 가지 않고?》

《우리 창고장동지를 기다립니다.》

《현무동무를?》

《네.》

《문제로구만!》

로병익은 혀를 찼다.

《대원을 부상시키고 군의소에도 보내지 않고…》

《부사단장동지… 그… 그건… 그런게 아닙니다.

창고장동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 그가 부상을 시켰습니까? 내가 맞았지요.》

《내가 맞았다?! 허허…》

로병익은 호탕하게 웃고는 유심히 충기의 눈을 들여다 보다가 귀속말하듯 물었다.

《누가 먼저… 가자고 그랬소?》

충기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으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자기의 말에 따라 마치 현무의 운명이 결정되는듯싶었다. … 충기는 잽싸게 머리속계산을 하다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제잘못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는바람에—》

《하！ 그러니 동무가 지휘관이였구만. 현무동무는 끌려다니고—》

《아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사실은… 창고장동지는 죽더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포병부사단장동지！》

충기는 가슴속이 울컥해서 일어섰다. 부상처의 아픔에 쓰러질듯하다가 그대로 섰다.

《그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그는—》

《앉소. 동문… 너무 삐치는군—》

충기가 고개를 떨구고 맥없이 주저앉자 로병익대좌는 그의 잔등을 가볍게 다독여주었다.

《동무 이름이 충기라고 했지.》

《네, 부분대장 최충기！》

《아아— 일어서지 말고…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건 군인의 첫째가는 기품이요. 치료를 잘해야 돼.》

로병익은 눈섭을 쭝깃하며 씽긋 웃고 포병참모부쪽으로 걸어갔다.

충기는 후유— 하고 긴숨을 뽑으며 그의 뒤모습을 경건히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엉켜돌던 불안이 가뭇없이 날려가버리는것만 같았다.

(그러니 저 《아바이》는 우리 일을 장하게 보는것이 아닐가？)

그는 흐뭇이 웃으며 공구함을 열어 쵸콜레트 한개를 꺼내 발가먹었다.

그런데 좀 있어 어깨가 축 처진 현무가 포병참모부로부터 걸어나왔다.

그는 운전칸에 올라서 충기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발동을 걸었다.

《말을 들었습니까？》

부르릉!
현무는 입귀만 약간 실룩거렸다.
《참, 여기 쵸콜레트가 있더군요. 들지 않겠습니까?》
《먹소.》
눈에는 짙은 고뇌의 빛이 흘렀다. 충기는 옹색하여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윤소림이라는 통신군관동지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현무의 이마에 알릴듯말듯 실주름이 비꼈다가 사라졌다.
그는 변속지레대를 잡고 잠시 재이는듯하다가 후진에 넣고 가스변을 밟았다.
차는 육중한 동체를 사납게 떨며 뒤로 물러섰다가 급히 꺾어돌며 길에 들어섰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충기동무, 우린… 누구도 떳떳이 만날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리고 그 동문 나를 만나지 않을것이요. 거짓말은 군인한테 어울리지 않는것이요.》
《아니, 정말입니다.》
하나 현무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모든것을 체념하고 초월한 모습이였다.
사실 이 시각 현무는 잡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졌다. 방금전 포병참모부에서 있은 일은 그의 온 사색과 감정을 하나의 세계 《너는 패자다. 그러나 더는 패자로 되지 말아야 한다. 돌파하라. 모든 괴로움과 난관의 언덕을 굳세게 넘으라.
떳떳이 한몫하였다고 웨칠수 있게끔 자기 위치를 찾으라.》 하는 강렬한 반성과 갈망과 결심의 앙양속에 있게 하였다.
현무는 외식무기를 제대로 보장못하여 사단의 전투

계획에 장애를 조성하고 더구나 정찰중대와 박격포중대가 진입해있는곳을 적에게 드러냈다는 《엄중한 결과》로서뿐만아니라 지휘관답지 않게 무분별한 《모험》을 한 《자살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추궁을 받았다.

현무는 병기과장의 준절한 질책에 한마디도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래, 말해보오. 동문 이걸 인정하오?》

병기과장은 격분하면서도 한편 측은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눈길로 현무의 《죄》가 덜어질 답변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는듯 바라보았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의 엄중성을 잘… 알고있습니다.》

현무는 입술이 떨려 이 말을 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병기과장 김형식은 한숨을 내쉬였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소.

동문 욕망으로만 하려 한단말이요. 감정으로야 잘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데 있겠소.》

형식은 펼쳐놓은 수첩장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소리나게 덮으며 허심탄회한 어조로 계속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동무가 지금의 사업을 그대로 하겠는가 말겠는가 의문이 되오. 난 동무의 문제를 사단당위원회와 참모부에 제기했소. 요는 동무의 결심이요. 동무가 못하겠다고 하면 반대는 안할것이요. 동무를 요구하는 포병부서들이 여러개 있소.… 가면… 지금까지의 잘못은 계산되지 않을것이요.》

현무는 맥박이 서서히 떨어져내리는것을 느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때다. 차라리 더 고집 말고 물러서라.》 하고 속삭였다.

현무는 입술을 감빨았다.

《제가 가면… 일이 잘될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지. 누가 오는가. 그것도 문제겠지만.》

현무는 두손을 꽉 맞잡았다.

《만약 제가 없어 일이 잘된다면 더 뻗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형식은 눈을 내리깔며 머리를 저었다.

《동무한텐 이 사업이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소. … 우리 사업은 달려드는 땅크를 쏴눕히는 순간의 조준과 같은것이란말이요.

조준에서 0—01의 편차가 목표를 못맞히는 결과를 빚어내는것처럼 우리 일에서도 0—01의 편차가 비극을 초래하는것이요. 0—01이말이요. 그런데 동무는 마구잡이거던—》

《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날순 없습니다. 못가겠습니다.》

현무의 목청이 커지자 형식이도 따라 소리를 높였다.

《이건 개인의 체면과 기분에 관계되는 례사일이 아니란말이요. 동문 창피스러워 그러지.》

형식의 성난 목소리에 현무는 눈물이 솟구쳐나옴을 간신히 참으며 자기의 주장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의 울먹진 웨침에 형식은 머리를 수그린채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러고있는데 간막이모포를 들추며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이 들어섰다. 일어서는 현무와 형식이를 찬찬히 보다가 방수포로 싼 구식전화기에 다가갔다. 송수화기를 들며 말했다.

《동무넨 왜 전화를 받지 않소?》

《전화기가 고장입니다.》

《바꿔야지.》

《제기를 했습니다.》

《앉으시오.》

로병익이 먼저 앉으며 침울해있는 두 군관을 무거운

눈길로 보았다.

《무슨 말들을 했소?》

현무는 고개를 더 수그렸고 형식은 천천히 일어났다.

《앉아서 말하오.》

그러나 형식은 고집스레 그대로 서서 말했다.

《현무동무가 현위치에 그대로 있을수 있겠는가를 물었습니다.》

실눈을 한채 듣고있는 로병익의 얼굴에 그림자가 깃들었다.

《그래서?―》

현무에게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으나 형식이가 마저 대답을 했다.

《현무동무는 그대로 있을것을 결심했습니다.》

《현무동무, 옳소?》

로병익의 물음에 현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네.》

로병익은 밝게 웃었다. 그러나 련잇는 그의 말소리는 무척 심중하게 울렸다.

《병기과장동무는 이런 때 할수 있는 질문을 했다고 보오.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도 안되구 에라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 하고 마구잡이로 나가도 안되는 일이거던.

더구나 큰 전투를 앞에 두고말이요. 나도 현무동무의 실패때문에 초조해지오. 앞으로 꽤 해내겠는가고말이요. 그래서 동무네한테 와서 신심을 좀 얻을가 했는데―》

병익은 말끝을 맺지 않고 싱그레 웃으며 형식이와 현무를 보다가 다시 정색하며 입을 열었다.

《동무네의 위치가 간단치 않소.

그 어떤 다른 때, 다른데서는 잘못되면 책임을 질수도 있겠지. 그러나 조국과 당의 운명을 두고는 책임을 질 존재가 없소. 오직 수행하는것, 무조건 잘 수행하는것, 이뿐이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이때 로병익은 현무를 보았다.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지어 영원한 치욕속에 매장될것이요.》
현무는 포병부사단장의 말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말은 그대로 전쟁의 준엄한 환경에서 진리였기때문이다.
(가장 무난하고 무사한것은 할수 있는 과업만 받는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어려운것,곤난한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전쟁에서는 용감한 사람만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치욕을 받는것 이상 무서운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며 물러서는것은 배반자다.
나는 배반자로는 더욱 아니될것이다.)
군의소에 이를 때까지 현무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자 충기는 매우 섭섭해하였다. 처치만 받고 같이 돌아가자는 충기를 억지다싶이 간호원에게 맡겨놓고 운전칸에 오른 현무는 시꺼멓게 얼굴빛이 죽은채 문옆에 서있는 충기를 보자 자기가 지내 제 기분에만 옴해있었음을 뉘우쳤다.
그는 차에서 다시 내려 충기에게 다가갔다.
《치병규률을 잘 지키오. 이번에 참 안됐소. 약속도 못지키고—》
《웬 약속말입니까?》
뿌루퉁해있던 충기는 의아스럽다는듯 눈을 크게 떴다. 현무는 빙긋 웃었다.
《태룡동무한테 말하는것말이요. 글루 가겠다고 하잖았소.》
《네?!—》
충기는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니였다. 오히려 심술

돋힌 눈으로 힐끔 보고는 투박스럽게 말했다.
《그런 인정은 있군요. 한데 이젠… 필요없습니다.》
《왜?》
《가보십시오. 나같은것과 말할 틈이나 있습니까.》
《허참, 충기동무… 내 인차 데리러 오겠소.》
《윤소림동무나 만나십시오.》
충기는 여전히 불뚝거렸다. 현무는 웃고말았다.
《잘 치료하오.》
차에 올라 몰다가 후사경으로 보았다. 충기는 병실로 들어가자는 접수간호원의 손을 뿌리친채 서운한 눈길로 점도록 보고있었다.

21

현무가 《제므스》를 몰고 창고구역으로 들어오자 전사들은 하나같이 기뻐들하며 떠들썩하였다. 현무의 《실패》보다 그 차의 《로획》을 더 기뻐해주는것에 현무는 가슴이 아릿하면서도 흐려진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느때없는 정열로 창고들을 다시 돌아보고 창고대장의 포탄, 탄약 수량을 확인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새벽 한시 보초교대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누웠다.
처음 한동안은 요즈음의 괴로운 사건들이 악몽처럼 몽켜돌아가며 도저히 잠을 이룰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잠속에 빠져들었다. 하여 그는 호각소리와 《폭풍!》하는 구령을 인츰 듣지 못했다.
와당탕퉁탕하는 소리에 깨여났을 때 벌써 배낭을 멘

농삼이가 뛰여나가고있었다.

다행히 현무는 군복을 벗지 않고 누웠댔기에 크게 뒤지지는 않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어둠이 사위여가는 새벽이였다. 마당에서는 거뭇한 그림자들이 뛰여다녔다.

《항공이야?!》

《아니!

소적침입같애.》

뒤늦게 나오는 전사들이 목단추를 채운다 혁띠를 다시 묶는다 하며 법석거렸다.

현무는 산턱 자동차대피처에 일여덟대의 자동차와 보초막옆 들메나무밑에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이가 서있는 것을 보았다.

《병기,운수,경비분대,3렬 횡대로!—》

김형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정렬한 대렬을 향해 형식이가 《차렷》하고 소리치자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은 팔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나무밑에서 걸어나왔다.

《쉬엿하시오.》

《쉬엿!—》

로병익은 예리하나 믿음스런 눈길로 대렬을 굽어보았고 전사들은 기침소리 하나없이 굳어져 로병익이를 주시했다.

로병익이 말을 떼였다.

《동무들,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시각이 드디여 왔습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사단전투행동의 보장대로서 8차분의 포탄과 탄약을 이화리까지 날라가는 호송전투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단장동지의 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로병익은 손에 쥐고있던 수첩을 펼치며 힘있게 읽어나갔다.

《명령! 005호 ㄱㄷㅇ. 리천리에서—》
탄력있게 몸을 곧추 편 그에게서는 마치 20대 젊은이의 패기와 정력이 넘쳐흐르는듯싶었다. 그는 날라가야 할 포탄, 탄약의 종별과 수량을 부르고는 더욱 엄숙한 어조로 마디마디 력점을 찍어 말했다.
《…도착시간은 새벽 두시!
호송대 조장은…》
로병익은 말을 끊고 누구를 찾는듯 대렬을 살폈다.
현무는 지그시 입술을 악물었다.
자기는 호송지휘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는 현무였다. 그러나 이 호송전투에는 반드시 참가할것이며 승리적수행을 위하여 몸바치리라고 현무는 다시한번 결심을 굳게 다졌다. …
현무는 일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
로병익은 자기 이름을 불렀던것이다.
《… 병기창고장 리현무동무!》
현무는 낯이 화끈 달아올랐다.
대답은 목구멍에 걸려 간신히 흘러나왔다.
《네.》
명령서 전달이 끝나자 로병익은 이번 호송전투가 사단전투행동뿐만아니라 군단작전의 운명에 결정적영향을 미친다는것을 강조한후 약간 흥분한 음성으로 간곡히 말했다.
《동무들, 우리가 첫째로도 둘째로도 명심할것은 이번 전투행동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방침 관철의 일환이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탄약상차작업조직까지 한후 로병익은 형식이와 현무를 위병장실에 따로 불렀다.
그는 책상우에 수첩을 놓으며 현무에게 근심어린 눈길을 던졌다.
《현무동문… 어제 일의 실패로 위축되지 않았소?》

현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기의 속마음을 짚어보고 위로하려 한다는것을 알자 가슴이 뜨거워오르면서도 부끄러웠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로병익은 온 얼굴이 환하여 생기론 미소를 띠우며 다시금 되뇌였다.
《그렇겠지. 군관이니까.》
로병익은 허허 웃으며 마디진 두손을 꽉 잡아 책상에 올려놓았다. 힘줘 껴잡은 손이 커다란 돌멩이처럼 보였다.
그는 웃음을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자 대렬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전투가 간단치 않소.
아직까지 극비로 된것이지만 한가지 말하겠소.
오늘밤부터 이화리에 쐐기쳐나간 련대와 포대대들이 점령지역을 확대하고 적을 교란시키는 배후타격전을 벌림과 동시에 사단과 군단 전계선에서 공격이 벌어지오.
이화리전투는 군단작전의 첫 신호로 되며 동시에 그 돌파구를 여는 전투요.
그런데 이화리전투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거기 동무들은 이미 가져간 탄약을 거의 다 소비했소.
동무들한테 이번 전투의 운명이 달려있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동무들의 판단에 맡기오.》
현무는 입천정이 갑자기 말라들고 손바닥에 땀이 괴였다.
로병익이 현무의 긴장을 알아챈듯 약간 웃음떤 눈으로 보았다.
《떨리오?》

《네, 그러나… 일없습니다.》

《그래, 큰 결심을 다질 땐 몸이 좀 떨리는 법이지.》

그는 현무와 형식에게 몇가지 지시를 더 준후 사단지휘부로 올라갔다.

현무는 형식이와 함께 창고로 갔다.

전사들은 와와 소리치며 상자들을 메여날랐다. 무슨 굉장한 명절놀이같았다.

상자를 메고 달리는 전사들을 흡족히 바라보던 형식이가 문득 현무에게 돌아섰다.

그는 거의 무표정한 눈길로 현무를 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난 동무가 호송조장으로 되는걸 반대했더랬소.》

그리고는 대답을 기다리듯 입을 꾹 다물고 서있었다.

현무는 한 전사가 상자를 메고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듯하다가 용케 몸을 바로잡는것을 보며 자기로도 놀라울 정도로 태연히 대답했다.

《전 과장동지의 심정이 리해됩니다.》

《리해하리라고 믿어 말했소.》

형식은 큰 짐이나 벗어놓은 사람처럼 씨엉씨엉 창고로 걸어들어가며 소리쳤다.

《나도 메여보자구!》

포탄신기와 위장작업은 한시간도 못되여 끝났다.

현무는 텅 비다싶이된 창고들을 돌아보다가 일반기재 창고옆의 실개울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하얀 민들레가 개울가의 나무뿌리에 걸려 둥둥 떠있었다. 선형이가 뽑아버린 그 민들레를 보자 현무는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한동안 감전된 사람처럼 꼼짝 않고있던 그는 그 민들레를 들고 둔덕으로 올라갔다.

노란 잔디로 덮여진 선형의 묘에 이르니 비맞아 볼품없이 된 화환의 종이꽃들이 눈에 뜨이였다. 장례날에 가

져다놓은것이였다.

현무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화환을 집어들었다. 희고 노란 나비들이 봉분우에서와 그의 둘레에서 팔랑거리며 날아다녔다.

현무는 울컥하고 속이 무너지는듯했다.

선형이가 걱정하던 창고들은 다 비였다.

이젠 그가 목숨바쳐 지켜낸 포탄과 탄약을 무사히 날라가는 일만이 남았다.

《선형동지! 마음을 놓으십시오.》

현무는 마음속으로 뇌이고 돌아섰다…

황혼이 슬몃슬몃 기여드는 저녁녘에 드디여 출발명령이 내렸다.

운명적인 시각이 온것이다.

22

웃고 떠들고 배기가스가 날리고 먼지가 피여올랐다.

차들이 정문을 벗어날 때 적재함에 탄 전사들은 저마끔 웨쳐댔다.

《잘있거라! 까튤골이여.

우리는 간다. 화선으로 간다!》

《다시 보자. 산촌이여!

영웅되여 우리 오리.》

가운데차의 적재함에 탄 현무는 이날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영웅되여 다시 오리라?!)

진종일 가슴 짓누르던 초조와 불안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것만 같았다.

포차를 타고 화력좌지로 갈 때의 그런 심정이였다.

전사들의 흥분,맞받아 불어오는 바람과 차의 들썩거림이 그의 마음을 더욱 들뜨우는가싶었다.

가로수들이 사열병처럼 늘어선 길을 바라보느라니 불쑥 그 무슨 《붉은 화살의 예각》에 대하여 떠들던 태룡이의 말이 떠올랐다.

현무는 또한번 싱그레 웃었다.

(《붉은 화살의 예각》이라. 그럴듯한데.… 전사들한테 한마디 해줄걸—)

차종대가 사단지휘부골짜기로 들어가는 갈림길목에 이르렀을 때 현무는 사단작전참모와 공병장이 경무관과 함께 서있는것을 보았다. 길역 뽀뿌라나무밑에는 흙투성이의 찦차가 있었다.

맨 선두차에 탔던 형식이가(그는 원래 여기서 떨어져 사단지휘부로 올라가게 되여있었다.) 내리자 작전참모와 공병장이 황황히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현무는 불안한 예감에 덜미를 집히여 차에서 급히 뛰여내렸다. 그쪽을 향해 황급히 달려가자 얼굴이 사색이 된 형식이가 현무에게 돌아섰다.

《30분전에 원심교가 끊어졌다오.》

현무는 눈앞이 아찔했다. 무의식중에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문자판우에서 지도의 화살표같은 시분침은 7시 20분을 가리켰다. 파란 초침이 팔락거리며 분주히 돌아갔다.

새벽 두시를 향해 일각의 쉬임도 없이 돌격하는것이다. 차는 멎었는데 시간은 흐르는것이다.

뭉청 끊어진 원심교가 문자판우에 어른거렸다. 깊이를 모를 세찬 물결이 끊어진 콩크리트판을 물고 룡트림한다.

길은 막혔다.

《차를 골짜기에 은폐시키고 병기과장동무 먼저 올라오랍니다.》

작전참모의 말에 현무는 정신을 차렸다. 전사들의 랑패어린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리가 끊어졌다? 그래 공병들은 뭘하고있는거야.》

《큰 다리니까. 공병장동지도 낯이 까매있잖아.》

《등짐으로라도 날라야지.》

《어림없는 소릴?!》

《여, 우는소리 관두라구. 지휘관들이 어련히 방도를 찾지 않으리.》

현무는 순간적으로 전투가방을 열고 선형의 지도를 꺼내 펼치다가 도로 접고말았다.

그 지도의 우물자리까지 행하니 기억하고 원심교로는 두번씩이나 통과했던 그로서 괜한 일이였다.

현무는 병기과장이 탄 찦차가 골짝길로 올라가고 자동차관리장과 경무관이 골짜기의 자동차대피처로 차를 뽑는것을 보면서도 우두커니 선채 움직일줄 몰랐다.

(과연 원심교로 하여 막힌단말인가. 사단의 전투행동이, 전선작전이!…)

현무는 다시 지도를 꺼내 펼쳐들었다. 복잡한 등고선들이 하나로 엉켜돌아가는 거기에서 그 어떤 출로를 발견할듯이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글자들도 부호들도 여전히 아물거렸으나 보고 또 보았다.

자기의 신념을 짓밟고 자기의 발밑에 심연을 파놓으려는 역경에 부닥쳤으나 현무는 이것이 자기를 시험하고 롱간질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조금만 노력하면 될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에 끌려 지도를 보는것이였다.

《창고장동지!》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든 현무는 저으기 놀랐다.

앞에는 쌍지팽이를 짚고 선 충기가 서있었다. 그뒤에 따라선 농삼이며 몇명의 전사들을 알아보고 최충기가 《군의소》에서 뛰쳐나왔음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대하여 추궁할 기력도 알아볼 용의도 없었다.

충기가 제먼저 설명하며 급급해했다.

《오늘 다들 떠난다는걸 알고 군의동지한테 승낙까지 받고 일루 나왔습니다.》

《걸어다녀 일없소?》

《조금도 일없습니다. 다 나았는데요.》

충기는 벙글거리며 다리까지 흔들어보였다. 순간 현무의 머리에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충기, 나 좀 보자구.》

그는 충기가 부상병이라는것도 잊고 손목을 잡고 이끌었다.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진 충기는 쌍지팽이를 부지런히 놀리며 초소막에서 좀 떨어진 뽀뿌라나무밑에까지 끌려왔다.

《아니 왜 그럽니까?》

충기는 헐떡거리며 자기 지휘관을 근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현무는 인차 말을 떼지 못하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방금 떠오른 착안의 승산여부를 정확히 따져보려면 흥분을 앞세우지 말아야 했으나 몸은 자꾸만 경련이라도 인듯 떨렸다.

《아니, 정말 승낙을 받았다니까요.》

충기의 볼멘 소리에 현무는 자신을 억제하고 입을 열었다.

《충기동무, 원심교가 끊어졌소. 우리가 만약 1035고지 밑으로 난 춘화리도로로 가면 어떨가?》

충기는 어마지두 놀라며 눈을 흡떴다.

《8대 다말입니까?》

《그렇소.》

충기는 여전히 흡뜬 눈으로 현무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왜 안된단말이요?》

현무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를 쳤다.

충기는 눈섭과 눈이 맞붙어 웅얼거렸다.

《그… 그건 모험이지요… 저번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오?》

현무는 실망어린 눈으로 충기를 보았다.

《다르지요. 이번것이 튀면… 창고장동지가 언젠가 말했지요. 작전이 틘다고요. 이번 작전이 어떤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가야 한다는거요.》

《그러나…》

《무섭소?》

《아니, 저야 뭬랍니까. 창고장동지가… 실패하는 날엔… 이번엔… 용서가 없을것입니다.》

《그렇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물러선다면 그 죄는 대를 두고도 용서받을수가 없소. 우선 내가 내자신을 용서할수 없소.》

불이 펄펄 이는 현무의 눈과 맞서자 충기는 얼굴이 벽돌장처럼 질려갔다.

갑자기 그가 돌변한 태도로 소리쳤다.

《난… 나라면… 가겠습니다.》

《무작정?》

《아니… 목숨을 내대면 될것입니다.》

《충기!》

현무는 그를 와락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지도를 꺼내 땅바닥에 펼쳐놓았다. 네귀에 돌쪼각을 짓눌러놓은 현무는 충기를 옆에 앉히고 말했다.

《우선 승산의 가능성부터 찾아보자구. 다음에 난관, 발견될수 있는 구간과 집중사격지점들을 연구하고…

목숨은 내대지 않고 되게말이야. 그러자면 머리를 잘

써야지. 병기전사는 셈속이 밝아야 하니까.》
현무는 이 말을 하다가 언젠가 선형이가 이와 비슷한 조언을 주던것을 상기하고 입을 다물었다.
지도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충기가 빙긋이 웃었다.
《가능성이야 많지요.》
《꼽아보오.》
《우선 이 길이야 1035고지기슭으로 뻗어서 적구도로지 실제상 우리가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째서? 그건 너무 랑만적인 생각이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야 아군의 920고지와의 사이에 있으니 절반이야 우리것인셈 아닙니까. 그래서 놈들도 낮에는 다닐 엄두를 못내지요. 우리의 920고지에서 짱 갈길가봐.》
현무는 요전번 920고지로의 포탄호송때 일로 봐서 충기의 말이 과연 그럴상싶게 여겨졌다.
《그리고 제일 멋진것은 우리가 불의에 들어가면 저 버새들이 저희네 차로 오인하고 멍해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런데다 적의 력량배치는 고지꼭대기와 중턱뿐이고.》
《그럼요. 그러나 매코바위에는 한개 소대가량 있습니다. 한차라면 그까짓 문제 아닌데—》
《까고 나가지.》
《물론 까야지요. 다 궁리가 섰군요.》
충기는 시물시물 웃으며 현무를 보다가 귀속말하듯 속삭였다.
《그런데는 저를 데리고 가야 무사할것입니다.》
《난관을 꼽아보오.》
현무는 매코바위에 시선을 준채 충기의 말은 건숭으로 흘렸다. 그는 충기의 말에 장단을 맞췄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된 《가능성》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고있

었다.

전사들이 하나 둘 모여왔다.

현무는 그들의 의견을 더 듣고 포병참모부로 갈것을 결심하였다.

시계를 보니 여기서 벌써 17분이나 지체하고있었다.

(빨리！ 1분이 급하다.)

23

《근무성원외 출입엄금》이라고 써붙인 소림이의 무선실이 오늘처럼 소란스럽기는 처음이였다.

사단장부관이 뛰여들었다가 사라졌으며 방금전에는 포병부사단장과 사단참모장까지 병기과장이며 정찰과장과 함께 들어섰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원심교》와 《탄약》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군단에 올려보내는 무선전신지에도 그 단어들이 변신되여 모르스부호로 찍혀져나갔으며 널판 하나를 사이둔 교환대의 전화통들도 《원심교》와 《탄약》을 두고 분주스레 울어댔다.

소림은 그 《원심교》와 《탄약》이 사단전투행동의 운명에 어떤 음영을 던지고있는가를 알고있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그에게 현무를 상기시키며 걱정케 하는 불안의 대명사로 되여 꺽쇠처럼 박혀있었다.

《은방울！ 은방울！ 나 장미꽃－》

소림은 이마에 돋힌 땀방울을 닦을새도 없이 전건을 눌러댔다. 그는 지금 태룡이네 무선수에게 전신을 날리는것이다.

《춘화리의 도로로 차가 통과할수 있겠는가？ 대답하라.》

소림은 이 안이 지금 책상우의 지도에 미리메터자를 놓고 수자를 계산하는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이가 제기한것임을 알고있었다.

군단과의 교신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안은 이것이 아니였다. 사단공병으로 뽄또(도선판)을 놓고 차를 건늬우자는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론의되였으나 그것은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결되였다. 또한 그 부결의 근거에는 그 도선판이 적의 포대경감시와 공중정찰이 부단한 속에서 인차 공격대상물로 드러난다는것도 포함되여있었다. 하여 거의 유일한 안으로 론의되고있는 《춘화리의 적구도로 통과》문제는 그 위험성으로 하여 그 어느 지휘관도 확신적으로 긍정해나서지 못하는것 같았다.

소림이가 송신하는동안 지휘관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송신이 끝났을 때도 그랬다.

초조한 시선들을 소림에게 떨군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다.

답신은 인차 왔다.

소림은 모르스부호로 된 전신문을 옆에 서있는 변신참모에게 넘겨주고 가볍게 숨을 내쉬였다.

앞벽의 귀틀목 도끼자리에서 송진방울이 흘러내렸다. 자기의 얼굴에도 그런 땀방울이 맺혔다는것을 의식한 그는 어릴 때처럼 팔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다가 변신참모의 무거운 얼굴빛에 눈길이 가자 굳어지고말았다.

《뭐라고 하오？》

사단참모장의 성급한 물음에 변신참모가 얼굴을 쳐들었다. 모든 시선들이 변신참모에게로 쏠렸다. 변신참모는 이마살을 찌프리고 변신문을 읽었다.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음.》

《포탄차라는걸 밝히지 않았는데도 안된단말이지.》

참모장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침울한 눈길로 퇴창밖을 바라보았다. 퇴창은 암담한 재빛을 띠고있었다.

《포병부사단장동무, 어쩌겠소? 군단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가?》

사단의 군사적두뇌라고 할수 있는 사단참모장은 진퇴량난에 빠진 심정으로 조갈든 입술을 악문채 그 매눈같은 눈을 깜박거리였다. 부지중 시계를 내려다본 그는 신음소리처럼 내뱉었다.

《벌써 9시군…》

《출로가 없다고 보고할수야 없잖습니까.》

이제껏 《지도연구》에만 몰두한듯싶던 로병익이 머리를 쳐들며 불만스레 말하자 참모장은 변신참모에게로 돌아섰다.

《태룡동무와 공개통화를 하겠소. 암호문을 만드시오.

〈8대의 포탄차가 춘화리도로로 하여 이화리의 아군에게 가려 한다. 어느 정도 도울수 있는가?〉》

《좀 말짼니다. 적이 도청하는 조건에서 다 변신암호로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될겁니다.》

《하시오.》

참모장은 단마디로 자르고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이때 문이 빠끔히 열리며 직일군관이 병기과장을 손짓으로 불렀다. 그림자처럼 소리없이 나간 그는 인차 들어왔다.

《현무동무가 왔습니다.》

형식이가 말하자 로병익은 문쪽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들어오시오.》

방안의 군관들이 모두 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엇때문에 그가 왔을가?)

소림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문소리에 뒤이어 귀익은 현무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채웠다.

《포병부사단장동지, 병기창고장 리현무 만날만 합니까?》
《무슨 일이요?》
그 어떤 기대를 담은 로병익의 말이였다.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저흴 춘화리의 도로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소림은 흠칫하며 거의 경악에 가까운 심정으로 현무를 돌아보았다.
땀에 뜬 까뭇한 얼굴, 번열에 뜬듯한 눈이 안겨왔다.
(저 동무가 어쩜 그런 제기를 할가? 매번… 그런 길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이 억세고 로숙한 사단지휘관들도 선뜻 결심하지 못하는 길로 가려 하다니…)
그런데 로병익은 그 문제에 대한 론의는 전혀 없었던듯 침착히 물었다.
《거긴 적의 턱밑이 아니요? 동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그땐 적의 차였고… 그런데 지금은 탄약차 8대를 끌고 통과해야 한단말이요. 앞에 한차가 맞아도… 파탄이요.》
《대좌동지! 저흰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초입의 경비초소만 까준다면 저흰 문제없이 나가겠습니다.
이화리의 아군진지로 들어가는 초소는 우리가 불의에 뚫고나가도 될수 있으나 만약을 생각해서 그곳 정찰중대의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될수 있습니다.》
《동문 그 길이 적들의 고지밑으로 뻗었다는것을 잊은게 아니요?》
로병익이 심각한 기색으로 질문했다.
《다 타산했습니다.》
《타산했다?…》
로병익은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고 한동안 현무

를 주시하다가 툭 빠개 말했다.

《사실은 이렇소. 동무가 제기한 문제는 여기서도 토론하던것이요. 그런데 승산이 적거던. 문제는 동무가 도움을 받으려는 사단정찰중대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이요.》

《?…》

현무의 낯빛이 홱 달라졌다. 놀랜듯, 당황한듯한 눈길이 로병익이로부터 참모장에게로 그리고 다시 소림이에게와 멎었다. 의혹과 불만에 찬 눈길이였다.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눈길과 부딪칠가봐 저어한 소림은 얼굴에 피가 확 몰리는것을 느끼면서도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실이예요. 신중하라요. 작전의 운명이 걸려있는 포탄이며 탄약이 안예요. 거기엔 동무의 운명까지 걸려있을거예요. 생명만이 아닌 전체가—》

소림은 이런 말을 해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왔다.

현무는 무표정했다. 아니, 눈에는 배반당한듯한 억울함과 노여움의 빛이 번쩍여 소림이를 송구하게 만들었다.

현무는 인차 소림이를 외면하고 로병익에게 대답했다.

《사단정찰중대장동무는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가 이 호송사업의 내용을 안다면 그런 우는소리를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작전에서 이 호송이 가지는 중요성을 안다면, 명령으로 떨어진것이라면 그는 웃으며 접수했을것입니다.》

현무의 볼에 한가닥 홍조가 비꼈다.

그는 친구를 변호하듯 약간 어줍은 어조로 계속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를 일행천리하신것을 자기 전투행동의 최대모범으로 삼고있습니다. 만약 그가… 동요했다면 이 일의 절박성을 몰랐다던가 저번날 저의 실패에… 위축된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동문 이번 작전이 어떤것인지 알고있소?》
사단참모장이 예리한 눈길로 현무를 주시했다.
《알고있습니다, 참모장동지!》
《그런데 동무, 솔직히 말해보우.
승산이 있어 하자는거요 그저 해야 될거니까 모험하는 셈치고 해본다는거요?》
《목숨으로 해내겠습니다.》
《죽는건 간단해. 죽으면 근심도 없고.
한데 죽으면 못한단말이야. 책임이 커. 이번 일엔 〈실패후의 책임〉이라는 말조차 성립이 되지 않소.
병기과장동무, 동무생각엔 어떻소?》
한쪽구석에서 주의깊이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병기과장은 땅바닥만 지긋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오직 행운만을 기대한 상태에서의 계획입니다. 거기 도로는 거의 많은 구간이 폭이 좁아 자동차 한대가 다닐수 있을뿐입니다. 장갑차와 조우할 경우 먼저 제낀다 하더라도 그 차가 막아서있는 상태에서 멈춰서게 될것입니다. 또 적의 화력에 차가 맞아서 설수도 있고… 그 몇분간의 정지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확고한 담보가 없이는 안됩니다.》
《확고한 담보라…》
포병부사단장이 속심을 가늠할수 없게 되뇌이였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널벽 저쪽방에서 대방을 찾는 교환수의 목소리가 아슴푸레 들렸다.
소림은 가느다란 피줄이 살아오른 현무의 하얀 이마와 찌프려진 까만 눈섭을, 내리깐 눈길에서 팡끗거리는 불꽃과 실룩거리는 뺨을 지켜보았다.
공포와 련민이 한동안 소림이를 사로잡았다. 현무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칠 때 가슴이 아릿해났다.

불쑥 현무가 입을 열었다.

《제가 생각는 담보란 이렇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적들이 장악하고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아의 대치선상에서 우리 작전지대권안에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 도로기슭에 붙어있는것이 아니라 고지에 틀고앉아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하게는 놈들은 우리가 기동기재에 의한 도로로의 공격이 아니라 우회포촌에 의한 고지점령전을 위주로 한다는것을 알고 도로방비에 력량을 투입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저들의 물자를 나르는 경우에 순찰이 조직되고 두개의 형식상 초소가 있을뿐입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야음을 타 도로에 들어선다면 놈들은 알수 없을것이며 설사 안다쳐도 그때는 〈우리〉를 발견한놈들의 사계에서는 벗어날것입니다.

좋지 않은 경우래야 적의 기동순찰차와 조우하는것인데 우리는 선제타격으로 놈들을 제압하며 빠른 속도로 이 구간을 돌파할것입니다.

적들의 시선과 화력이 미칠수 있는 위험한 구간은 실제상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도에 매코바위로 표기된 돌출부입니다. 이전 정찰중대원의 말에 의하면 여기엔 한개 소대의 적이 있었다는데 저희가 먼저 때려 제압시키고 차들을 전진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들이 우리를 발견한 기미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현무의 얼굴은 피기가 싹 가셔진듯했다. 그는 참모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참모장동지! 정찰중대장동무와 제가 대화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잘 아는 사이요?》

《그렇습니다.》

《하오.》

참모장은 홀린듯 현무를 보았다. 그의 손에서 변신

문은 꼬깃꼬깃 꾸겨지고말았다. 현무가 정찰과장에게서 통화시 주의할 점을 듣는동안 참모장은 포병부사단장에게 다가가 현무를 눈짓하며 뭐라 말하였다.

소림은 로병익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현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소림은 얼른 송수화기를 그에게 내밀었다.

소림의 손등에 닿은 그의 손가락들은 얼음처럼 차거웠다.

현무는 소림이를 보지 않았다. 소림이에게는 그것이 다행스러운 한편 가슴 한구석이 싸늘히 식어질만큼 서운했다.

소림은 구멍이 숭숭한 송화기의 청음판이 그의 입에 너무 바투 대인것을 보고 망설이다가 손을 뻗쳐 조금 떼여놓았다.

그 순간 현무의 눈길과 마주쳤다.

약간 놀라는듯했으나 현무는 인차 외면하였다.

《태룡동무를 찾아주시오.》

징—하는 전류소리가 울리다가 절컥하더니 평소의 태룡의 말소리와는 전혀 달리 정중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태룡 받습니다.》

현무의 얼굴에 한줄기 해빛같은것이 스쳐지났다.

《현무입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겠어.》

《무슨 소리야？》

《붉은 화살의 예각이 된다는걸세.》

현무의 입귀에 웃음이 실려 떨었다.

《현무동무！》

형식이가 난감한 빛으로 다가서는것을 로병익이 손으로 막아 제지시켰다.

하나 현무는 그것도 모르고있었다.

《동문 자기 시를 잊었소? 난 붉은 화살의 예각으로 갈테네.》

소림은 의아했다.

(무슨 말일가? 정찰과장동지가 알려준 암호인가?)

삐삐삐하는 잡음을 헤치며 태룡의 목소리가 근심스럽게 울려왔다.

《알고있어. 그래 무슨 소린가? 동무가 오는가?》

《그렇다. 내가 간다. 대답하라.》

소림은 한쪽 귀에 건 레시바를 통해 울리는 태룡의 숨소리를 가늠하며 제발 감정이나 기분에 뜬 대답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나 현무는 오직 하나의 대답을 요구하여 강박하듯 날카롭게 말했다.

《이건 사단의 요구다. 나는 돌파하겠다.》

《결정되였나?》

현무가 로병익을 쳐다보았다. 로병익이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현무는 송화기를 내려다보다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렇다, 명령이다. 동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알겠다.》

《태룡이, 난 동무가 말하던 붉은 화살의 예각으로 될것이다.》

《헛참.》

혀를 차는 태룡의 목소리가 알렸다.

그들의 대화를 주의깊이 듣던 사단참모장이 현무에게 다가왔다.

《롱담을 하지 마오. 그걸 인주오.》

참모장은 현무의 손에서 송수화기를 넘겨받자 빠른 말씨로 소리쳤다.

《나 30번이요. 대답하오.》

《30번동지！… 저희가 인입되겠습니다.》
《좋소. 차후에 구체적인 지시를 줄테니 대기하오.》
사단참모장은 송수화기를 소림이에게 넘겨주며 통화를 중지하라고 했다.
그는 포병부사단장 로병익에게로 돌아섰다.
《난 부사단장동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로병익이 고개를 끄덕이자 참모장은 현무와 형식이를 향해 말했다.
《출발시간은 밤 11시,도착시간은 변경없는 2시요. 통과신호는 황색신호탄 세발！
병기과장동문 다른 의견이 없소？》
아까처럼 참모장은 형식이에게 물었다. 사단병기물자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 그의 의견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였다.
형식은 덤덤히 땅바닥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소림은 그의 망설이는 신중한 태도에서 현무가 가려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금 느끼였다.
형식은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확신은 없습니다. 명백한것은 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동무가？》
사단참모장과 로병익의 눈길이 부딪쳤다.
《토론해보기요. 참모부로 갑시다.》
사단참모장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꼈다.
문쪽으로 나가던 그가 불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현무에게 돌아선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몇살이요？》
《23살입니다.》
《붉은 화살의 예각이란… 무슨 약속된 암호요？》
《아닙니다.》
현무는 난처한 기색이였다.

《그건 지도의 공격화살표입니다.》
《공격화살표?! 음…》
사단참모장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다.
그는 현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그것이 제대로 나가게 한번 해보자구. 그런데 동무말처럼 쉬운게 아니야. 고지전체가 덮쳐들거란 말이요, 고지전체가. 허나 동문 지금의 그 심장을 믿어야 돼. 사단은 힘껏 도울게요.》
하나 둘 방에서 나갔다.
소림은 귀틀목에 내배인 송진방울에 시선을 준채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어지러운 환각이 가져다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으나 환각은 집요했다.
죽음과 같이 음침하고 살기떤 적구의 밤, 총탄이 우박치는 속에서 불길로 되여 사라지는 자동차들의 환영이 송진방울에 비껴들었다.
마지막까지 확신을 못가져하는 병기과장의 음울한 모습은 그 환각을 거의 현실적인 사실처럼 믿게 하는것이였다.
소림은 눈을 꼭 감았다.
《현무동문 내려가서 차들의 정비상태를 다시 검열하오.》
문을 열고나가며 하는 포병부사단장의 말소리에 소림은 또한번 심장이 놀라 뛰는것을 느꼈다. 이때야 소림은 공포와 초조가 이처럼 자기를 옥죄이는것이 현무때문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 방에서 흐른 몇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오해와 편견이라는 사막에 가려보지 못했던 현무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한 소림이의 가슴에는 그전날 쌓여졌던 위조적인 반감과 곡해의 보루가 일시에 허물어졌다. 하긴 그 보루란 쌓여질 때부터 허물어졌다가는 다시 쌓여지고 금이 가고 한 보루였다. 그러나 어설프게나마 그 보루가

쌓여지면 뛰여넘기 힘든것이였다.
더구나 소림이로서 참되고 깨끗한 인간성을 지킨다는데서 쌓여진 보루이기에 더욱 그런것이였다.
소림은 그 보루가 형체없이 무너지는것에 놀랐으며 아연했다.
그 허물어진 보루로 밀려든 따스한 감정의 물결은 귀중한 사람이 위험속에 든다는데 이르자 불안으로 번졌으며 공포를 낳은것이다.
그런데 소림은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을것이다. 중에도 현무에게는 더욱 그런것이다.
소림은 한손은 그대로 전건우에 올려놓은채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그러면서 문소리를, 걸어나가는 발자국소리를 헤였다. 심장은 잦은북을 쳤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초대처럼 움직이지 않고있는것은 근무규률의 요구를 지켜서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웨치는것이였다. 현무때문이다！
일어설가 말가. 무어라 말할가. 그냥 나가버리면 어찌할가.
입술이 바싹 타들었다.
《소림동무！》
소림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일어설 때 벌써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맴돌이쳤다. 의자를 밀치고 돌아선다는것이 책상을 다쳐 건전지함우에 놓았던 회중전등이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소림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가에 박힌듯 선 현무를 보았다.
현무는 물끄러미 소림이를 마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회중전등을 주어들었다.
그 순간 소림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떼였다.
《어떻게… 그 길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동문 늘 험한 길을 걷는 군요.》
현무는 어줍게 웃었다.
《그런 말은 마십시오. 그러면 동무를 좋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언젠 좋게 생각했나요.》
소림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현무는 그 눈물을 외면하며 정색하여 말하였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론 더 그렇게 되겠지요.》
소림은 신발끝을 내려다보며 가까스로 말했다.
《만약 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솔직한 말로 두렵습니다.
죽는것도…
나 하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다면 더욱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것은 임무를 수행 못해 작전을 파탄시켰다는 그 오명입니다.
하지만 이 오명이 두려워 물러선다면 최고사령관동지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할수 있겠습니까.
후에 어떻든, 누가 뭐라든 이 길에서 난 자신을 바치렵니다.
난 동무가 언젠가 말한 그런 〈영웅〉이 못됩니다. 생각하면…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생각하는것도 피한답니다. …
난 두번다시 동무에게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 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바보예요. 지각없는 맹꽁이예요.
난 이제야 동무를 알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지향을 안고 심장을 불태워야 하는가를 알았어요.
필요하면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도 명예도 다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바치는 인간의 자세를…》
현무는 고개를 숙였다.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회중전등의 깨여진 유리쪼각을 만지다가 손가락이 베여지는것도 모른 그였다.
소림이가 말없이 다가와 그 손가락을 꼭 잡았다. 손수건을 꺼내여 이발로 찢어 손가락에 감싸매며 소림은 속삭이듯 말했다.
《지난 기간… 잊어줘요. 난 용서해주리라 믿어요. …용서해요.》
《용서받을 사람도 용서할 사람도 없습니다.》
안개낀, 이슬맺힌 눈들이 서로 보며 웃었다.
현무는 감싸맨 손수건에 피가 번지는것을 보며 싱긋 웃었다.
《좋은 손수건을 못쓰게 만들었군요.》
소림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손등으로 입을 막고 돌아섰다.
《잘 있소. 후에 전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잠간만!》
소림은 헤덤비며 배낭을 헤쳐 모달리천으로 싼 견장을 꺼내들었다.
《무어요?》
《견장이예요.》
소림은 억지로 밝게 웃어보였다.
《지금 그건 보기 싫어요. 딱 강직맞은 군관같지 않아요? 이제 달가요?》
《가지고있어주오. 갔다오면 그때 달아주오.》
《정말이지요?》
《정말이요.》

손들을 놓지 못했다.

이제 다시 그 뜨거운 손들을 잡을수 있겠는지…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울렸다.

근무교대시간인것이다.

24

여위고 창백한 달이 뿌려던지는 은근한 빛발속에 실오리같은 길이 드러났다. 그우로 딱정벌레같은것이 움직인다.

바람은 이마를 치고 위험은 굽이마다 깔려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른다.

자동차들에는 각기 네정의 자동총과 한정의 경기가 좌우로 뻗쳐있고 상자우에는 도폭선이 늘여져있다. 도폭선에 성냥만 그어대면 그때는 섬광과 폭음을 마지막 인사로 남기고 차는 하늘로 날아오를것이다.

최악의 경우 적에게 포탄을 넘겨주지 말자고 설치한 자폭장치였다.

차들은 불을 켜지 않고 달린다.

이따금 달이 어둠속에 들어가면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해진다.

그때마다 앞차에서 흰내의바람의 전사가 뛰여내려 차앞에서 달린다.

그것이 곧 길이며 불이다.

그 흰 그림자는 생사결단의 기상으로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러다가 달이 삐죽이 얼굴을 내밀면 차들에서 경건과 우애에 찬 목소리들이 울린다.

《그만 됐어, 올라타라구.》

여럿의 손이 비칠거리며 올라오는 전사를 들어올린다.

갈림길에 들어섰다.
차들은 아군지대로 가는 원심교쪽이 아니라 적이 장악한 도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경무관은 호각을 불지 않으며 초병들은 총을 들지 않는다.
《조심하오, 잘 가오.》
경무관은 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속삭인다. 전사들은 그 경무관을 오래도록 뒤돌아본다.
《또 봅시다.》
현무가 탄 차의 운전사 엄문규는 긴 목을 빼들고 싱글거리며 경무관에게 한마디 한다.
그의 말을 들으며 현무는 어설픈 미소를 머금었다.
(과연 다들 무사히 돌아와 저 경무관을 볼수 있겠는지.)
길 좌우켠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울렸다. 현무네를 위하여 도로에 매설했던 지뢰를 해제한 공병들이다.
《특수작전이래.》
《최사정찰일게요.》
《무슨 정찰이 저렇게 많은 자동차에 가겠나.》
현무는 자동총총신에 입술을 대인다.
단쇠처럼 뜨거운 입술이 선뜩해지며 머리가 맑아진다.
쉭— 쉭—
갑자기 요란스러운 바람소리같은것이 인다. 그것은 적의 기본진지가 있는 해발 1035고지우에서 우뢰같은 폭음으로 변하며 번개를 일군다.
현무는 싱그레 웃음을 지었다.
적의 신경을 도로에서부터 떼여내기 위한 유인 및 교란 포사격이다.
저것이야말로 사단이 그들에게 주는 한없는 사랑이며 념려다.
차는 컴컴한 숲이 펼쳐진 산기슭으로 들어섰다.
현무는 그 숲을 유심히 살폈다. 적들이 그 숲속에 내려

와있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위험은 눈앞에 있었다.

도로에 검은 선이 건너갔다.

현무는 자동총의 안전장치를 풀며 맨 뒤차에 탄 형식을 얼핏 생각했다.

현무는 형식이와 정황처리를 토론할수 없음을 안다.

그는 총을 든채 뒤를 돌아보며 웨쳤다.

《사격준비! 적진이요!》

말소리는 바람소리가 앗아갔으나 전사들은 하나같이 움직였다.

뒤차에서는 신호전에 그것을 깨닫고 사격준비를 하고있다.

검은 선은 점점 더 가까와온다. 저것은 대수 깎아만든 차단봉일것이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경기가 걸려있을것이다.

현무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발한 착상에 웃음을 머금으며 총을 안은채 운전실문을 열고 날듯이 들어갔다.

《왜 그럽니까?》

긴장에 떨리는 엄문규의 목소리.

《이제 불을 순간에 확 켜야 되오. 그다음 꽝! 알겠소?》

《알았습니다.》

갑자기 앞에 서넛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거의 동시에 불기둥이 비수처럼 눈에 날아들었다.

온 천지가 대낮같다. 아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적이 탐조등을 켜놓은것이다.

문규는 제동기를 밟으려 하다가 현무의 손이 자기 어깨를 꽉 잡는것을 느끼며 그대로 몰았다.

그러나 현무는 그의 어깨를 잡은것이 아니였다. 이때

그는 《쐇!》 하고 웨치며 상반신을 내밀고 총탄을 퍼부었다.
이번에는 또 다르게 눈앞이 캄캄했다.
《자!》
현무가 이번엔 진짜 문규의 어깨를 쳤다.
문규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전조등을 켰다. 눈에 가시같은것을 쏴넣던 탐조등은 깨여져나가고 이깔나무로 만든 차단봉이 마주왔다.
《에익!》
문규의 입에서 강마른 소리가 튕겨나는 서슬에 차단봉이 부러져나갔다.
《장해!》
차는 불을 켠채 질주한다.
《넨장, 앞대가리의 뼁끼칠이 벗겨졌겠는데—》
문규는 위세를 부려 말하나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떨렸다.
《후에 칠하면 되지. 길을 잘 봐두게. 불을 꺼야지.》
야광시계의 초침은 그 작전이 2분사이에 끝난것임을 보여준다.
자지러진 총소리는 벌써 뒤에서 울린다. 잠 깬 위병소놈들이다. 도대체 지금은 어데다 대고 쏘는지 넨장, 한바탕 꿈으로 알거라.
도로는 넓어졌다.
오른쪽에는 산, 왼쪽켠엔 920고지다. 그러나 그 고지를 잊어야 한다.
차는 침묵하고있는 새로운 산굽이를 향해 맹속으로 달렸다.
현무는 예상보다 어렵잖게 돼간다고 생각하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불의에 다닥친 그들의 출현을 적들은 꿈으로 착각할지도 모를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이 우중충한 산발의 적들은 현무

네 차소리를 듣는다 해도 저들의 차로 치부할것이다. 하긴 지금 전화통이 분주스레 울고 적장교들이 《공산군자동차의 대거침입》을 두고 련락을 취하느라 입에 거품을 물었을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길바닥엔 먼지와 배기가스만 남을것이다.

지나쳐온 산꽉대기에서 총소리는 더욱 요란해지고 무수한 탄알들이 별찌같이 날았다. 현무는 그중의 한알만이라도 포탄의 신관을 맞히면 차가 불덩이로 날아올라갈것이라는것으로 몸이 오싹했다.

하나 전사들은 사기충천해있었다.

《이놈들아, 엿먹어라!》

산굽이를 거의 돌아 돌파구간의 절정인 고개턱이 보이는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스산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장갑차다!》

고개턱밑에서 땅을 물어뜯는 아츠러운 소리가 울리고 간격이 넓은 두개의 불줄기가 길과 나무들을 드러내며 그들쪽으로 오고있었다.

벌써 거기서 쏘아대는 기관총탄이 도로옆의 나무아지들을 부러뜨렸다.

아직은 눈먼 총질이라 탄알은 머리우로 날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탄환이 선두차를 때리고 무한궤도로 짓이기려들지 모른다.

현무의 온몸엔 식은땀이 덮였다. 그는 비극적결과를 애써 잊으려 하며 뒤꽁무니에 매단 반전차수류탄을 풀어내렸다.

지형을 살피던 그는 바로 여기가 충기와 함께 《모험》하려 들어왔던곳임을 알았다. 그때는 자포자기와 절망과 싸우며 순수한 《…구해야 한다.》는 욕망하나에 붙쫓겨왔다면 지금은 신념과 확신의 반석에 받들려온

것이다.

그때는 《…구해야 한다.》는 감정하나에 포화되여 있었다면 지금은 치밀한 타산과 용의주도한 결심밑에 움직인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사단이 있고 소림이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실패》를 예상할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패》란 말조차 잊어야 한다. 살아도 죽어도 가야 하며 돌파의 신호를 올려야 한다.

현무는 길이 넓은데서 까기를 바랬다. 그러나 적의 장갑차와 직선으로 마주서면 모조리 녹아날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차를 멈추게 하고는 제먼저 차에서 뛰여내렸다.

기미를 알아차린 전사들이 저마끔 내리려 했다. 현무는 엄하게 소리쳤다.

《움직이지 말것, 농삼동무만 따르오.》

앞에는 구배가 졌다.

두줄기의 불빛이 흔들리며 구배진곳의 울퉁불퉁한 길바닥을, 돌멩이며 검부락지며 마른 소똥따위를 비친다. 그 길로 조금만 있으면 불빛의 임자인 장갑차가 나타날것이다.

그놈이 거기에 나타나기전에 맞서야 한다.

장갑차의 기관소리는 높다. 그 소리는 현무네를 다시는 움직일수 없게 그자리에 영원히 압살해버릴듯 총소리와 함께 무자비하게 신경과 의지를 빗조인다.

하나 현무는 입을 악물고 길섶으로 전진한다. 매캐한 화약내틈으로 싱그러운 나무잎냄새가 스며든다. 손에 선뜻한 이슬이 감촉된다.

길목이 착 구부러진데를 타격장소로 선택했다. 길은 좁은데다가 왼쪽은 낭떠러지였다. 현무는 여기서 아예 차를 굴려치울것을 타산한것이다.

《농삼동무, 오른쪽바퀴를 겨누고 던져야 돼.》
현무는 자기옆에 바싹 엎디여 풀과 나무아지로 위장하고있는 농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배웠습니다. 굴려치우는 방법이지요.》
농삼이는 흰이를 보이며 싱긋 웃었다.
장갑차는 이따금 기관총사격을 하며 맹속으로 달려왔다. 포신은 수평으로 세운것이 우리 차만 만나면 단방에 없애치울 잡도리다. 사태진 홈채기의 모래뚝에 엎디여있는 현무는 배가 덜덜 울리는것을 느꼈다.
장갑차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전조등빛에 고개를 들수 없다. 당황하게 된다. 하나 농삼의 《던질가요?》하는 강마른 속삭임에 태연히 경고한다.
《조금만 더!》
다가오는 장갑차를 노려보는 현무는 가장 치렬한 반땅크전을 치를 때의 기분이였다.
80여메터까지 접근한 땅크는 늦게 쏴도 깔리고 조급해 헛방을 놓아도 깔리는 판이였다. 그때 그는 침착성과 민첩성 량자가 결합되는것이 어떠한 운명전환을 마련하는가를 알았다.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정황인가.)
현무는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집요히 좇는다. 휘발유냄새가 코를 찌른다.
농삼이의 어깨근육이 푸들푸들 떨리는것이 알린다.
《자!》
어떻게 던졌는지…
섬광! 폭음!
눈을 감았다떴다. 차는 멎었다. 그런데 그대로 길목을 막고있다.
가슴이 덜컹해 눈을 비볐다.
아니, 그것은 폭연의 덩어리였다.
장갑차는 낭떠러지로 굴러내리며 시뻘건 불길을 휘

뿜었다.
《동무들！ 출발！—》
환희에 찬 웨침이 터져나갔다. 현무는 달려오는 차의 운전실발판에 뛰여올랐다. 운전실에서 누군가의 뜨거운 손이 그의 팔목을 잡았다.
《동무가 다 치르는군.》
떨리는 말소리. 현무는 형식을 알아보았다.
《아니, 어째서 위치를 떴습니까？》
《나도 싸워야지 구경군이 될수야 없잖아.》
형식의 말은 따뜻하게 울렸다. 현무는 피끗 떠나올 때 앞차에 누가 타는가 하는 문제로 그와 싱갱이 비슷한 것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싱그레 웃었다.
그러나 그의 웃음은 순간이였다.
그는 매코바위—릉선꼭대기를 본것이다. 아직은 비탈에 가리워 다는 보이지 않았다.
《매코바위가 여기 어디지？…》
형식이가 얼굴에 단김을 뿜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꼭대기가 보이잖습니까.》
《동문 적재함에 오르오. 내가 지시하기전엔 내리지 마오.》
형식의 말소리는 탁하게 울렸다.
《과장동지, 저긴 제가 맡기로 되였습니다.》
현무는 희푸른 하늘에 손가락을 세운듯 나무들이 듬성한 코숭이를 노려보았다. 그 코숭이는 돌파해야 할 마지막 《언덕》이였다.
현무는 발판에 그대로 서서 한손으로 운전칸안의 손잡이를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동총을 쥔채 그 코숭이를 보며 저것이야말로 《운명적인 언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저기만 지나가면 온갖 시름과 고민이 가셔질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산비탈이 문득 사라지며 앞에 큰 공간이 열리는

순간 희유스름하게 보이는 앞의 길바닥에 마치 바싹 메마른 여름철 농촌길에 불시로 소나기가 쏟아질 때 물방울과 먼지가 함께 튀여오르듯 불찌와 파르무레한 연기덩이가 풀썩풀썩 피여오르며 우박치는 소리를 날라왔다. 매코처럼 도드라진 바위를 붙인 칼날같은 릉선에서 수백개의 반디불같은것이 번쩍였다. 매코바위였다.

적들이 길목을 막고 차단사격을 하는것임을 안 현무는 소리치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듯 말이 나가지 않았다. 조금만, 30～40메터만 나갔어도 차는 그 불의 소나기속에서 분틀구멍이 되여 불길에 휩싸였을것이다.

형식이가 《섯！》 하고 웨치는 그 순간에 차는 삑－하는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급제동을 쓰는바람에 뒤차가 꽁무니를 받으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현무는 누가 상했는가를 알아볼 겨를이 없었다.

《현무동무, 부탁하오.》

이제껏 현무의 팔목을 잡고있던 형식이가 그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어깨로 문을 열었다.

《안됩니다, 과장동지！》

현무는 번뜩이는 형식이의 눈길에 맞서 소리치며 뛰여내렸다.

매코바위에서 습격조로 나가기로 된 전사들이 헐썩거리며 달려왔다.

《동무들, 나를 따라…》

현무가 막 내달리려는데 형식의 거치른 목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현무！》

권총을 뽑아든 형식은 현무앞에 막아서서 성이 펄펄나 닦아세웠다.

《뭐요？！ 차에 타오.》

《과장동지!》
《올라타오, 내가 가겠소.》
《과장동지! 저긴 나의 전투위치입니다. 용서해주십시오.》
현무는 달려갔다. 그러다가 돌아서서 웨쳤다.
《전지불신호를 하면 달리십시오. 아니, 신호가 없어도 사격이 뜸해지면 달리십시오.
성공을 바랍니다.》
현무는 경기며 자동총을 틀어잡은 전사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다.
《자, 보병이 돼봅시다.》

기관단총과 경기로 무장한 두개 분대의 위력이란 대단했다.
희푸른 어둠속으로 빨간 탄알들이 등에무리처럼 날아갔다.
자지러진 점발사격.
악악하는 함성과 새된 비명.
단도의 일격같은 불의적인 기습이였다. 숲과 어둠이 하나로 엉킨 산코숭이는 아비규환속에 휩싸였다.
기술근무군관인 병기과장 김형식은 이런 전투를 처음 목격하였다.
작년겨울의 적후투쟁시에도 이처럼 쌍방이 가까운 거리에서 치렬한 총격전을 벌리는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권총 쥔 손이 후들후들 떨려 아예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두손을 꽉 맞잡은채 《장하오, 장해. 음, 음.》 하며 왼심을 썼다.
드디여 코숭이에서 노란 전지불이 깜박이였다. 《통과》신호였다.
형식은 울컥하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현무！》

현무가 무사하다는, 또 그로 하여 차종대가 살았다는 기쁨에 그는 한껏 취하였다.

선두차의 운전실발판에 뛰여오르며 그는 난생 처음 되는 높은 목소리로 웨쳤다. 적참호에 이른 지휘관이 《돌격》구령을 내리듯.

《출발！—》

차들은 로획물을 발견한 맹수처럼 내달렸다.

어느틈에 매코바위밑에 이르렀다.

정수리를 겨누어 당금이라도 떨어질듯한 바위가 매코처럼 드리워 내려다보고있었다.

이제 어느날이건 사태만 지면 그 바위가 굴러내려 이 도로를 차단하고말것이라는 때맞지 않는 생각이 휙 스쳐갔다.

비와 사태에 씻겨 허옇게 보이는 깎아지른 낭탁으로 현무와 함께 갔던 전사들이 뛰여내렸다.

어떤 전사들은 쭈르르 미끄러져내려오고 배추통처럼 굴러내려오기도 하였다. 부상당하여 부축되여오는 전사들도 있었다. 형식은 그들모두를 끌어안아주고 싶었다.

《과장동지, 출발합시다.》

어떤 굉음속에서도 놓치지 않을 현무의 목소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고막을 쳤다.

마지막으로 내려와 뒤차에 오르는 현무를 알아보며 형식은 운전칸에 올랐다. 그리고는 모자를 고쳐쓰는척하며 눈물을 닦고 이화리와 접경인 언덕을 쏘아보았다.

차들은 전진을 계속했다.

병기과장 김형식은 외견상으로는 차고 딱딱하지만 실제로는 뜨거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이 뜨겁고 무른것이 전쟁에서는 유해한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데서 그는 될수 있으면 엄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유지하

고자 애썼다.

그는 남들이 수판과 연필로 오래동안 튕겨야 하는 각종 포탄과 무기 수량계산을 암산으로도 정확히 해치웠으며 또 그렇게 하듯이 모든 사업에서 정확한 타산과 면밀한 계산으로 주위사람들을 감탄케 했다.

그런데 그 타산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이 때로 참혹한 후과를 빚어낸다는것을(그 실례의 하나가 유선형이 강직되게 된 사건이였다.) 뼈아피 체험한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는다는 신중성으로부터 소심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것이 자기 부하들과 관계되는 일인 경우엔 더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떠나오기 직전에 현무에게도 말했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현무에게는 말하지 않은것이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싶었다. 자기가 눈이 편히 살아 남이 잘못되는것을 볼순 없었다. 남들만 《사지》에 보내놓고 견딜 근기가 없었다.

선형이와 같은 례가 더 없기를 바란 그였다.

번쩍하는 섬광이 뒤로부터 비껴오며 비명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린 형식은 자동차대수를 세여보았다. 일곱까지 세였다.

여덟번째가 보이지 않았다.

《17호가?》

《현무동지가 탄 차…》

총성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을 훑던 형식은 드디여 여덟번째 차의 형체를 포착할수 있었다.

그 차는 멈춰섰다. 거기서는 노란 불빛이 연신 깜박인다.

하나, 둘, 셋, … 또다시 하나, 둘, 셋…

《나는 맞았다. 하나 그대로 떠나라.》

전지불이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 불빛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라질것이다.
형식은 숨이 막혀들었다.
차종대를 세울가? 운전실지붕을 두드리려고 한손을 쳐들다가 멈칫거렸다. 차들은 산턱에서 다 나와 적들의 사계에 든 판이였다.
잠 깬 산은 적들의 아우성과 신호불로 어지럽다. 뽕— 뽕— 탄알은 귀전을 치고 여기저기 불길을 일으키며 터지는 89미리로케트포탄의 작렬은 순간의 정지는 파멸이라는것을 일깨운다.
형식은 산굽이를 돌며 17호의 불빛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전지불은 집요히 깜박거린다.
현무의 땀에 발린 얼굴이 떠오른다.
《주저하지 말고 전속으로! 우리는 인차 뒤따를것입니다.》
뽕 뽕 탄알은 귀전을 스친다.
《앗!》 누군가의 신음소리.
운전실지붕을 향했던 형식의 손은 전지를 끄집어냈다.
길게 한번 짧게 한번 불빛을 비쳐주었다.
《우리는 간다.》
형식은 이를 사려물었다. 가슴이 터질듯했다.
《그냥 가다니?》
《구원해야잖습니까?》
누군가 그의 팔소매를 채는바람에 형식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와! 전속으로!》
형식은 다시 돌아보았다.
전지불은 둥그런 원을 그린다.
《좋다, 잘 가라!》
현무가 보내는 인사였다.
그 불빛이 사라지자 형식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전실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하던 말들이 띄끗띄끗 떠올랐다.

《과장동진 저힐 못믿습니까?…》

약간 허구픈 웃음이 실린 말이였다.

《동문 자신을 어떤 역경도 헤칠 의지를 가진 용사로 생각하지 않소?》

형식은 어딘가 불쾌감을 느끼며 반문했다.

《전 용사로는 못됩니다. 그저 어떤 위험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또 나가야 한다고 자신을 설복시키지요.》

《자기 개인으로 병사의 위치에서 용감해지는것은 어렵지 않지. 어떤 위험도 다 제낄것만 같고…

하지만 지휘관이란 전체를 다 안고 용감해야 되는데 어렵거던. 전체를 책임진다는건 간단치 않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개체운명에 대한 불안에 저서 생긴 공포심의 변종이 아닐가요.》

그때 형식은 빙그레 웃었다. 현무의 대답이 학생식 론리였기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난 현무도 무안쩍은 기색이였다.

출발시 신호권총을 차며 하던 현무의 부드러운 말도 귀에 쟁쟁했다.

《과장동지가 〈돌파〉하면 난 이걸 꺼내겠습니다. 〈승리!〉 하면 방아쇠를 당기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 《난 과장동지가 가니 더 힘이 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적구에 떨어졌다. 혹 다른 사람이라면 구원과 방조를 청했을지도 모른다. 앞차들을 세워 사람만이라도 건지자고 했을수 있다.

그러나 현무는 이 모든것을 피했다. 순간으로 전체가 파멸될수 있기에.

하나의 희생으로 전체를 살리려 한것이다.

그는 이제 적탄에 맞은 차를 살리려 마지막까지 애쓸것

이다. 막부득한 경우에야 폭발시킬것이다. 그때면…
형식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눈물은 눈굽에서 말라버렸다. 홰불처럼 타는 두눈은 무섭게 번뜩였다.

25

사단정찰중대는 고개마루의 도로를 장악하고 적들의 접근을 불허하며 맹렬한 조애사격을 퍼부었다.
총성과 부르짖음과 자동차발동소리로 고개마루는 떠나갈듯했다.
길가의 황철나무에 몸을 바싹 붙인채 11.43미리 미식기관단총으로 련발사격을 들이대던 태룡은 첫 차의 거무스름한 형체가 나타나면서부터 사격을 멈췄다. 달대로 달아 불덩어리로 된 총을 풀밭에 던져버리고 《독전대용 메가폰》을 입에 대고 《현무！》를 소리쳐불렀다.
그런데 앞차가 멎으며 세사람이 뛰여내렸다. 태룡은 경기관총을 든 한사람이 사단병기과장임을 알아보고 마주 달려갔다. 형식은 적군복의 태룡이를 보고 권총을 빼들려 하다가 태룡이의 말에 굳어졌다.
《병기과장동지！ 사단정찰중대는 돌파엄호명령 수행중입니다.》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
형식은 격하여 부르짖으며 태룡의 두손을 틀어잡고 흔들었다. 그리고는 다급히 물었다.
《이제부터 이화리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차의 엄호를 끝까지 부탁합니다.》

태룡은 의아했다.

《왜서 그럽니까? 현무동무는 어데 있습니까?》

태룡은 일곱번째 차까지 올라오는것을 세며 초조히 물었다.

병기과장은 머뭇거리다가 괴로운 기색으로 말했다.

《저기… 떨어졌소.》

《네?!—》

태룡은 무엇엔가 머리를 호되게 후려맞는것만 같았다.

다리맥이 일시에 풀려 병기과장이 가리키는 고개밑을 내려다보았다.

회중전등들이 번쩍이고 섬화탄이 날으는 심연,무섭게 도사린 어둠속에서 혀꼬부라진 적의 악청이 소란스럽게 울렸다.

《중대장동지!—》

두개의 바위가 묘하게 맞붙은곳에 웅크리고있던 무전수가 소리쳤다.

《차가 여덟이라고 했는데 일곱대만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이 물음에 태룡은 대답을 못하였다.

이 순간 그는 병기과장이 원망스러웠다.

《어떻게 그를 떨궜습니까?》

《차가… 잘못된 모양이요.》

《한차때문에 떨어졌단말입니까.》

병기과장은 고개를 숙인채 묵묵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차를 끝까지 엄호하여 가주시오. 난 현무동무를 마중하러 가겠소.》

태룡은 전투란걸 근본 해보지 못한 병기과장이 왜 경기관총을 들고 뛰여내렸는가를 알았다.

뭔가 말하려다가 태룡은 그만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골짜기아래,짙게 덮인 어둠의 장막을 뚫으며 시뻘건 불기둥이 일어섰다가 뭉청 갈앉으며 요란한 폭음이 진

동했던것이다.
《아— 자폭입니다.》
누군가 절망적으로 웨쳤다.
《에익.》
태룡이는 어금이를 으드득 갈며 절통하게 부르짖었다.
《한차때문에… 한차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요.》
병기과장이 노한 음성으로 웨쳤다.
《그는 죽지 않소. 병기군관은 포탄을 둬두고 죽지 않는단말이요.》
형식은 더는 말 않고 홱 돌아서서 고개밑을 향해 걸음을 놓았다. 허리가 무질러진 사람처럼 휘친거리며 태룡은 무전수가 있는 바위에 다가갔다.
《결속했소? 치오.
〈돌파했음…〉》
말하다말고 태룡은 또다시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치며 웨쳤다.
《〈돌파했음. 현무!〉 현무라고 송신자를 밝히오. … 공개로 쳐도 돼.》
태룡은 차거운 바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이나 움직일줄 몰랐다. 옆에서 륙공포탄이 터지며 자갈과 파편을 휘뿌렸으나 꿈쩍하지 않았다.
다시 머리를 쳐들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단호한 명령조의 말이 흘러나왔다.
《계속해서 치오. … 〈철수할수 없음. 한대가 떨어졌다. 구원하러 갈것을 허락해주기 바람. 태룡.〉》
《무전기가 고장입니다.》
《뭐요?》
《안테나가 끊어졌습니다. 잠간이면 됩니다.》
무전수는 태룡의 다급스런 기세에 부축이우듯 일어서 파편에 잘라진 안테나선을 잡았다.

《은방울！ 은방울！ 대답하라…나는 장미꽃.》
소림은 목이 쉬게 부르고 또 불렀다.
그옆에 오도카니 앉은 교대무전수는 자기네 소대장이 왜 무선대를 인계하지 않고 지금껏 앉아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는가가 리해되지 않는듯 눈이 점점 올롱해졌다.
소림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렸으나 취올릴념도 않고 계속 불렀다.
방금전까지 대답을 해오던 《은방울》은 우주밖으로 사라졌는지 대답이 없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2분전 2시였다. 파들파들 떠는 초침은 자동차들로도 현무로도 되여보였다. (어찌되였을가？)
심장은 콩당콩당 잦은 북을 쳤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말랐으나 물을 달라고 할 힘마저 없었다. 오직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소원이였다.
그의 정력과 힘은 그 하나를 위해 있었다. 《돌파》를, 현무의 《안녕》을 바라서 심장이 뛰였고 생각이 달렸다.
갑자기 징― 하고 고막이 울렸다.
환각인가？
《장미꽃… 장미꽃. 나는 은방울.》
소림은 숨이 막히는것만 같았다.
울음울듯 부르짖었다.
《나는 장미, 나는 장미… 어서 말해요.》
규정용어도 잊고 부르짖었다.
상대방도 그 호흡에 끌려들었는지 황급히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뜻을 가늠할수 없었다. 그러나 반복송신에서 그 뜻을 깨달은 소림은 낯이 파릿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으며 소리쳐 불렀다.
《태룡동무를 바꿔요.》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태룡동무, 그를 구원해요.

동문… 동문 할수 있지요?》

소림은 이 순간 문이 열리고 포병부사단장이 들어선것도 몰랐다.

감도를 높여 태룡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에게는 모기소리처럼 들렸다.

《다른 소식이 없소? 아니, 동무 얼굴이 왜 그렇소?》

로병익이 옆에 다가와 섰을 때에야 소림은 어느 정도 진정되였다.

소림은 무겁게 일어서 로병익을 보았다.

《어데 아프오?》

대좌의 두번째 말에 소림은 비로소 자기가 빨리 보고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대좌동지, 돌파했답니다.

그런데 한대가 떨어졌습니다. 현무동무가 떨어졌답니다.》

《뭐? 현무가?》

《대좌동지, 병기과장동지가 차를 구원하려… 들어갔답니다. 정찰중대장동무도… 가겠답니다.

대좌동지! 승낙해주십시오.

현무동무를… 구원해주십시오.》

소림은 자기가 줄줄이 눈물을 흘린다는것도 잊었다.

대좌의 주름살질은 얼굴이 흐려졌다. 고민이 주름살마다에 실리는듯했다.

대좌는 입술을 깨물고 눈길을 내리깐채 움짝 않았다. 완강한 자세로 몇초동안을 그대로 있었다.

소림이를 볼 때 이미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흘렀다.

《사단장에게는 내가 동의를 얻겠소. 허락하시오.》

소림은 손가락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것이 안타까왔다.

《은방울》의 수신동작이 느린것이 화가 났다. 0.1초의 사이에 현무의 신상에 어떤 불행이 덮쳐들지 어찌알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야 하오. 또 살것이지!》

대좌의 말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소림은 오직 자기의 무전속도에 현무며 형식이들의 구원이 있는듯 최고속도로 타전했다.

소림이가 송신을 끝내자 로병익은 무뚝뚝히 말하였다.

《눈물을 닦소. 군인이 울다니.》

소림은 로병익이가 빙그레 웃는것을 보았다. 그러자 마음이 저윽 가벼워졌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전화속에 심신을 키워온 로대좌가 웃을 때야 희망이 있을것이 아닌가.

소림이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훔칠 때 로병익은 다정한 눈매로 그를 보다가 물었다.

《그를 잘 아오?》

《학교때부터… 동무랍니다.》

《사랑하겠지?…》

소림은 얼굴이 빨갰해지며 말을 못했다. 그러자 대좌는 오히려 제가 바쁜 처지인듯 서둘러 말했다.

《좋아, 좋은것이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꼭 살아돌아오는 법이야.》

소림은 입술을 떨며 눈에 웃음을 짓고 대좌를 보다가 간곡히 청했다.

《대좌동지, 그가 돌아오면… 다시 포에 보내줄수 없습니까?》

《포에?…》

대좌는 실눈을 했다.

《그가 희망할가?》

소림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그가 희망할가?

로병익은 싱그레 웃으며 애정어린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하긴 거기 가도 좋지. 그는 아무데 가도 잘할 사람이지.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위치에 선 사람이거던. 그런 사람은 어떤 역경도 헤쳐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는 법이지.

처녀는 좋은 벗을 가졌어.》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위치!)

소림은 그 말의 의미를 다는 헤아리지 못했으나 심장으로는 그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그런데 그가 정말 살아올가?)

하자 심장은 또다시 불안으로 죄여들었다.

26

음산한 밤, 응고된 어둠이 빽빽이 조이는 두리에는 개무리같은 적들이 밀려다녔다.

현무는 두 대원과 함께 가랑잎과 잡초가 발목을 묻는 홈채기에 들어섰다.

자동차기관부가 로케트포탄에 명중되여 차가 더는 움직일수 없게 되였을 때(그때 운전사는 희생되였다.) 현무는 그 차의 포탄들을 길가의 숲과 도랑에 감추는 일부터 했다. 하루만 지나면 여기가 아군의 점령지역으로 된다는것을 알고있는 현무였던것이다.

그러나 적들은 너무도 빨리 밀려들었다.

그 순간 현무는 잠시나마 차와 함께 자폭하고픈 미친듯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것을 옆구리에 찬 신호총이 《제지》시켰다.

가서 돌파신호를 날려야 한다는 생각과 한알의 포탄이라도 전우들의 손에 닿게끔 해야 한다는 자각에 떠

밀려 신관을 꽂은 박격포탄(던지면 폭발된다.) 두상자씩을 메고 자리를 떴다.
남은 포탄과 차는 적들이 그들을 둘러쌀 때 폭발시켰다.
그통에 많은 적들이 나무쪼각처럼 날아나고 아우성을 치며 꽁무니를 뺐다.
현무네는 은밀히 자리를 떴다. 숲을 꿰질러 나가던 그들은 불의에 집중사격을 받았다.
《엎드렷!》
현무가 소리치며 엎드릴 때 누군가 신음했다.
한 전사가 몸을 꼬며 쓰러지는것을 본 현무는 악에 받쳐 박격포탄을 쳐들었다. 악마의 그림자마냥 얼씬거리는 적들까지의 거리는 20메터 실히 되였으나 현무는 만신의 힘을 다하여 던졌다.
번쩍! 하며 눈부신 섬광과 폭음이 일었다.
《개새끼들, 받아라.》
쓰러진 전사의 박격포탄까지 집어들어 던질 때 옆구리가 선뜩하며 저절로 몸이 기울어졌다. 풀숲에 얼굴을 박으며 반사적으로 옆구리에 손을 가져가니 뜨끈한 것이 만져졌다.
바로 이때 《따바리》의 되알진 련발음이 울렸다.
악마의 허상같은 적들이 놀란 노루새끼들처럼 뛰는 것이 알렸다. 현무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현무! ─》
하는 소리가 총성을 짓누르며 애끓게 울렸다.
현무는 목이 꽉 메여들며 부상처의 아픔도 잊고 벌떡 일어섰다.
《태룡이 ─》
《살았구나. 이 쌍… 옹고집아.》
태룡의 울음맺힌 소리와 함께 서넛의 그림자가 뛰여들었다.
현무는 그들의 품에 어떻게 안겨들었는지 몰랐다.

태룡이와 형식이가 그의 앞에 있었다.
뜨거운 입김이 볼에 닿았다.
현무는 태룡이와 형식의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듯 꽉 잡고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했소. 돌파.》
《돌파!》 현무는 조용히 뇌였다.
그의 눈에 별빛이 그대로 앉으며 물기가 어렸다.
태룡이가 그의 잔등을 쳤다.
《염라국사자를 기다려 여기 있나, 넨장… 왜 그리 속을 태우나?》
《태룡이, 동무를 기다렸지.》
현무는 태룡의 화끈 단 껄껄한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태룡이처럼 여기 있은것을 나무람하는듯한 형식이를 보며 힘없이 말했다.
《차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댓상자는 살렸습니다.》
《?!—》
태룡은 억이 막혀 현무를 보다가 탄식인지 감탄인지 모를 소리를 중얼거렸다.
《천생 병기군관이군.》
《붉은 화살의 예각이지.》
현무는 통으로 받고는 상처의 아픔에 더 서있지 못하고 풀썩 물앉았다.
그제서야 그가 부상당한것을 안 태룡이와 형식이 서둘러 상처를 살필 때 현무는 팔을 쳐들어 시계를 보았다.
그는 당황해 속삭였다.
《과장동지… 2분전입니다.》
《뭐이?》
《신호탄을 쏴야지요.》
현무는 태룡의 부축한 손을 밀치며 신호총을 벗겨

들었다.
《난 이덕에 산셈입니다.》
형식은 감동에 차 그를 보며 말했다.
《무선으론 보고했소. 그러나 동무 말이 옳지.》
형식은 현무의 손에서 신호총을 받아들어 총알을 재웠다.
그리고는 빙긋이 웃으며 현무에게 그 총을 도로 내밀었다.
《약속대로 해야지.
〈승리!〉하면 동무가 쏘게 되지 않았나.》
《전 제대로 못쏠것 같습니다. 기쁘고 또 맥이 없군요.》
《그럼 내가 돕지.》
형식은 웃으며 신호권총을 쥔 현무의 손을 잡아 높이 쳐들었다. 축축한 눈길로 현무를 보았다.
《자, 방아쇨 당기라구. 동무의 신념과 의지가 승리했어.》
불꽃이 날아올랐다.
검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불점은 황금빛을 뿌리며 부풀어 어둠을 굽어보다가 활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펑! 펑!
하늘에는 세개의 황금색 불꽃이 그 어떤 꽃과 별보다 더 아름답게, 더 휘황히 명멸한다.
《저건 동무의 위훈이고 대답이야.
동무야말로 진짜 붉은 화살의 예각이야.》
태룡이가 나직이 속삭였다.
현무야말로 전쟁에서 조국의 운명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그는 조국과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며 성실성으로 위훈을 빛내일것이다.
이야말로 위치에 대한 자각된 신념의 승리일것이다.
갑자기 땅이 지진을 만난듯 떨었다. 온 대기가 드센

압착에 죄인듯, 화산폭발이 일어나는것 같았다.
산꼭대기로부터 붉고 누런 불기둥들이 일시에 솟구치며 굉음을 일으켰다.
《작전시작이요.》 형식이가 엄숙히 말했다.
정찰중대와 교전하던 적들속에서 혼란이 일어나 되돌아서는것이 알렸다.
《가자구.》
현무는 태룡의 어깨를 부여잡은채 일어섰다.
지금 그의 마음은 무한히 가벼웠다. 벌써 그의 심정은 여기로부터 멀지 않은곳 키낮은 귀틀집에서 자그마한 손으로 전건을 누르는 사람이 기다리는곳, 따뜻함과 기쁨이 손저어부르는 그 집으로 갔다.
그를 리해하였고 그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과 속삭여본다.
《은방울! 은방울! 현무는 어데 있는가?》
소림의 눈에는 현무에 대한 긍지와 애정이 빛발치리라.
치욕의 락인이 아니라 승리의 후광에 비친 성실한 젊음을 그리며 손저어 부르리라.
《현무동무! 어데 있어요?》
현무는 웨치고싶다.
《나는 듣는다. 타래치는 불구름, 쇠와 불이 광란하는 산발을 바라보며 나는 간다. 나는 기쁨에 충만되여있다.
나는 래일에로, 동무에게로 간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승리의 날까지 나의 걸음은 멈춰지지 않을것이다.》
어둠은 빽빽하고 사방엔 적.
총성은 요란타.
하나 벌써 아군 공격대의 만세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새벽이 희푸른 빛을 안고 기쁜소식의 전달병마냥 살금살금 다가오고있다.
…

중편소설 **돌 파**

제 2 판

저자 안동춘 편집 김정길, 김하결
표지, 삽화 리수길 교정 오순미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문정실, 림옥실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74(1985)년 2월 16일
2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1일
2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6일

ㄱ—46617